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회 간행  
동창회지 제4호  
간행일 1992년10월  
총 288쪽

同窓會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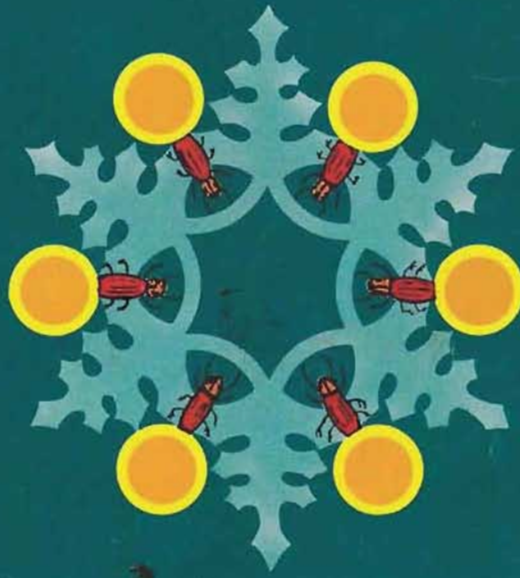
第4號

1992.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 同窓會誌

第4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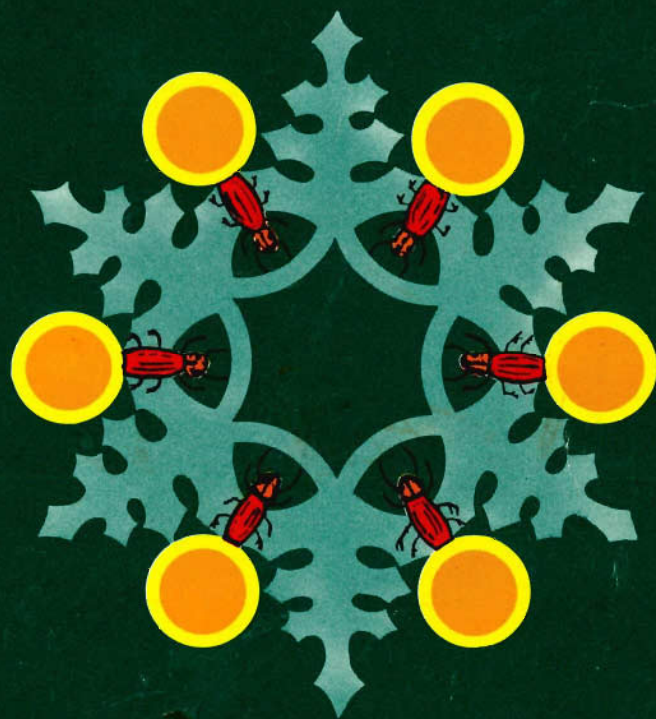


1992.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 同窓會誌

第4號



1992.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祝  
同窓會誌 4號 發行

인화단결 · 친절봉사 · 책임완수

인술과 사랑의 30年



이사장	이동희	부이사장겸 명예 원장	노경병 (25회)
병원장	이승호	운영고문	이삼열 (26회)

 **의료법인 제일병원**

100-380 서울시 중구 목정동 1-23

☎ 274-1231, 279-2151

응급실 272-3090 FAX 271-1734

# 同窓會誌

第4號

1992. 10.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祝

# 同窓會誌發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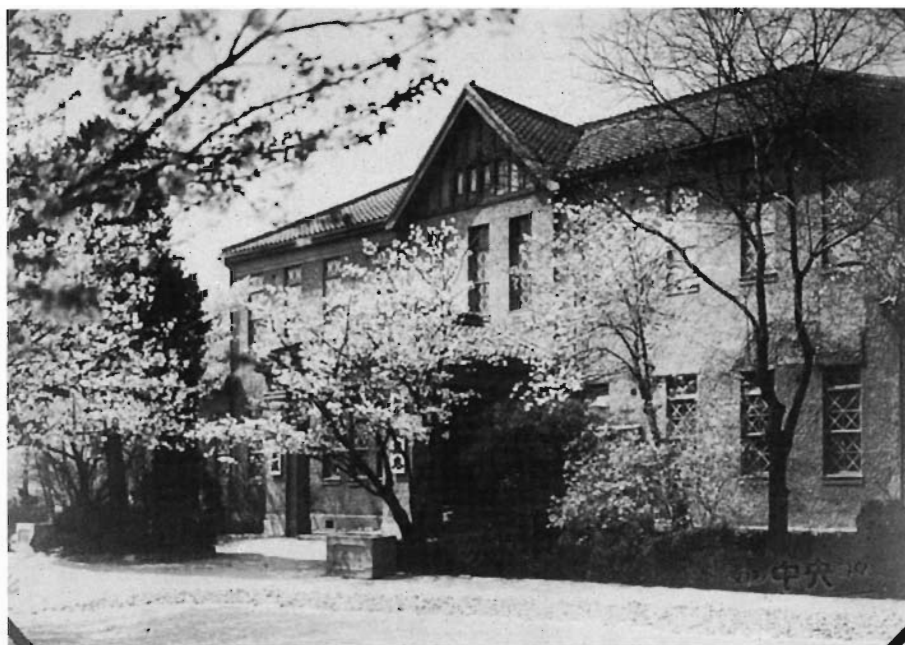
## 第 4 號

###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任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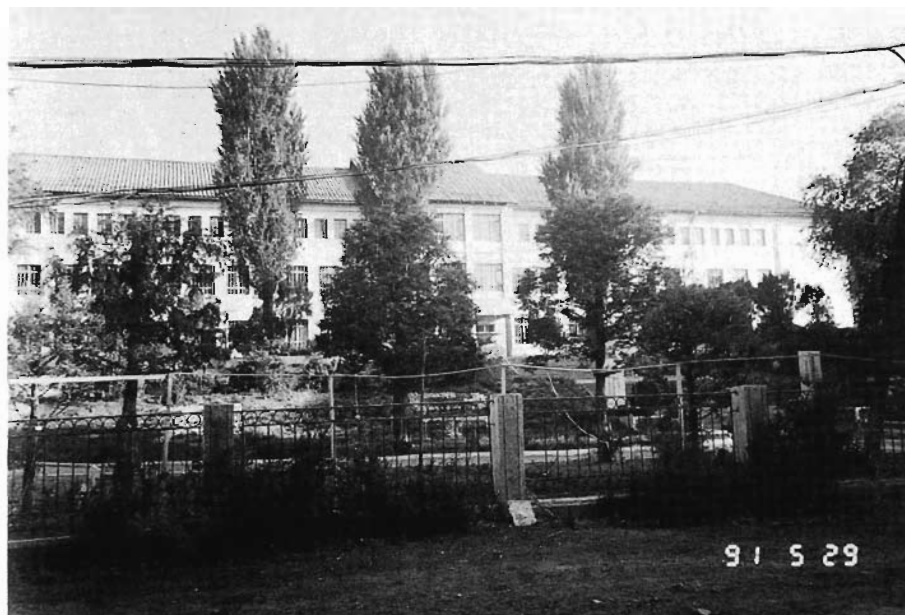
名譽會長	1回	李 東 準	松坡區 蠶室5洞 住公아파트 518-806	423-1630
會 長	23回	朴 東 昂	江南區 開浦洞 449-3 現代아파트 202-803	773-4736
副 會 長	21回	朱 仁 鎬	城東區 杏堂1洞 320-10	587-1597
副 會 長	26回	韓 鼎 燮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746-7707
副 會 長	27回	劉 鋼	松坡區 三田洞 94-8	413-3276
監 事	29回	鄭 哲 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아파트 6-105	771-1865
總 務	30回	朴 溶 夏	城東區 玉水2洞 現代아파트 101-202	981-3900
副 總 務	31回	金 明 哲	城北區 長位洞 225-8	392-2170

### 在美洲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支會任員

顧 問	8回	馬 鍾 國	17060 King James Way, 520 Gaithersburg, Md 20877	(301)869-4157
顧 問	15回	金 子 勳	2-54 149th St. Whitesone, NY 11357	(718)352-9436
顧 問	15回	金 基 憲	144-14 38th Ave, #4c Flushing, NY 11354	(718)939-1713
會 長	15回	金 溼 次	2352 Linwood Ave. #4C Fort Lee, NJ 07024	(201)585-0813
副會長	20回	李 壽 永	261 East Main St. Bergenfield, NJ 07621	(201)385-9123
副會長	23回	玄 鳳 學	95 Acorn Road Watchung NJ 07063	(201)755-5412
副會長	29回	朴 浩 高	4 Summer Fields Ct. Lutherville, MD 21093	(301)244-1111
總 務	30回	高 勝 榮	1464 St. Nicholas Ave. New York, NY 10033	(212)923-2611



옛 母校의 모습



母校자리의 지금 모습  
※ 東興山男子高等中學校



교기



## 歷代會長



初代會長 李東準



二代會長 金連珪



三代會長 姜洙勳



四代會長 金載元



五代會長 朴東昴





90년도 동창회(세종호텔에서)



91년도 동창회(그린파크호텔에서)



임원 및 기간사회(대림정에서) 1992. 9.



미주지회 회원



## 目次

寫眞/옛 母校의 모습, 母校 자리의 지금 모습, 교기, 曆代會長, 90년도 동창회, 91년 도 동창회 임원 및 기간사회, 미주지회 회원 .....	7
會誌 발간에 즈음하여 .....	11
咸南高普 沿革 .....	13
同窓會 會則 .....	15
追憶 .....	17
故 金桂淑 박사를 추모하며 日本軍隊에서 體驗한 氣合 여름방학 보고, 듣고 느낀 中國大陸 鬪病中 想念 詩 2首(思母恨, 내 고향으로) 冲繩 이모저모 環境汚染 咸興高普 3話 잊혀지지 않는 스승, 선배, 학우의 말들 回想 8.15에서 6.25에 이르기까지의 回想 變하는 이웃 中共을 스쳐 보고 脫線健康長壽論 咸興高普入學有感 卒業 50週年の 回顧 니시(西)式 건강법 권장 嗚呼! 韓錫範 學兄의 急逝에 哭함 우리야 皇國臣民이 아니지 詩 2首(望鄉片想, 저길따라 가고파) 大西洋辺 有感 故鄉길 學校길 자연과 의학 南中時節의 片想 꽃피는 時節 즐거운 테니스 말과 글 追憶속에 남은 感激의 눈물 내가 걸어온 길 가보고 싶은 盤龍山이여! 笑門萬福來	姜錫福(7回)..... 19 金滢次(15回)..... 20 金熙春(15回)..... 24 朱槿源(19回)..... 28 金明植(20回)..... 36 李基炯(20回)..... 42 劉 喆(21回)..... 46 朱仁鎬(21回)..... 49 韓喬石(21回)..... 53 金禧庚(22回)..... 55 金瑛河(23回)..... 58 朴昌均(23回)..... 64 李漢淳(23回)..... 69 朴泳馥(24回)..... 79 周熹銓(24回)..... 86 韓時坤(24回)..... 88 韓學綸(24回)..... 93 24回 동기 일동 .....
	95
	劉長得(25回)..... 98
	韓丞五(25回)..... 100
	金秉萬(26回)..... 102
	柳榮海(26回)..... 105
	石東壽(26回)..... 107
	梁泰鱧(26回)..... 111
	李三悅(26回)..... 116
	韓荃淑(26回)..... 119
	韓鼎燮(26回)..... 122
	洪德泳(26回)..... 129
	金明壽(27回)..... 133
	沈鳳燮(27回)..... 137
	元章換(27回)..... 139

岐路	劉 鋼(27回).....	141
詩 3首(隨想이 되어, 내 故鄉 방치골, 韓國의 線은)	韓淳輔(27回).....	145
南太平洋 鳥嶼國 旅行記	韓泓模(27回).....	147
내 故鄉 “흥원” 一瞥	金鳳湜(28回).....	152
三八線	吳聖昱(28回).....	154
詩2首(갈 수 없는 故鄉, 고향을 기다리는 心思)	趙東喆(28回).....	157
평등과 자유, 그리고 이 한을!	朱赫淳(28回).....	159
天生我材	金淳郁(29回).....	162
有感 2話	金在楨(29回).....	165
時間의 흐름속에서	林舜均(29回).....	167
母校의 復興을 기다리면서	張聖洛(29回).....	176
統一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朱東雲(29回).....	180
붉은 별의 終末	高明三(30回).....	186
잊지 못할 두 同門의 追憶	金秉喆(30回).....	190
祈禱	金龍澈(30回).....	192
내 고향은?	金元謙(30回).....	193
막車 有感	柳承敦(30回).....	194
거울속의 뜻밖은이	朴溶夏(30回).....	197
누구 德分에?	韓萬燮(30回).....	200
沐浴·坐禪·講堂	金明哲(31回).....	202
애정결핍	金致敬(31回).....	204
어머니가?	李哲範(31回).....	207
咸興高普 출신의 자부와 矜持	池一權(32回).....	210
사투리 타령	權炳池(33回).....	213
回想	金基元(33回).....	220
나라말을 이해하는 길	徐潤換(33回).....	222
나의 人生과 纖維	李大鍾(33回).....	230
餘暇善用	李七換(33回).....	234
토막소식.....		238
同窓會 基金 造成 沿革.....		240
同窓會 基金 贊助 內譯.....		241
同窓會員 名簿.....		245
任員 및 期幹事 名單.....		247
回期別 名單.....		248
在美洲 同窓 名單.....		278
作故者 名單.....		283
편집을 마치면서.....		286



## 會誌발간에 즈음하여

33회를 끝으로 뒤가 끊어진 우리 동창회, 그나마 南北으로 갈려져 있는 離散동창들이지만, 아직도 함흥고보(함남중학) 氣質만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會誌에 기고해 주신 동문 여러분의 글월을 읽어 보면 구구절절에 그 옛날의 긍지가 담겨져 있으니 말입니다. 60고개를 넘으신 동문들의 정성스러운 원고 내용을 보면 믿음직스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새로 나온 會誌를 읽노라면 만세교 생각도 나고, 母校 마당의 아카시아 냄새가 몸에 스며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북에 남아있는 우리 동창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 同窓會誌가 계속되는 어느 年度엔가는 南北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總同窓會誌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끈질긴 함흥고보 정신으로 統一되는 날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會誌에 기고해 주신 동문 여러분과 會誌편집을 맡아주신 여러 편집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同窓會長 朴 東 昴



## 咸南高普(咸南中學)沿革

- 1897 : 咸興鄉校에서 私立學校로 發足
- 1905 : 私立豐興學校
- 1908 : 咸興私立高等學校(豐興學校와 日新學校併合)
- 1911 : 咸興私立高等普通學校
- 1918 :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 1925 : 咸興公立(道立)高等普通學校
- 1938 : 咸南公立中學校
- 1945 : 咸興中學校
- 1947 : 學制改編으로 閉鎖



## 咸興 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 同窓會 會則

###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本會는 咸興高等普通學校(咸南中學校)同窓會라 稱한다.

第二條 本會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但, 地方에 支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三條 本會는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同時에 協調 團結을 公高히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 本會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會員 : 私立咸興高等學校, 私立咸興高等普通學校, 官立咸興高等普通學校, 咸興公立高等普通學校, 咸南公立中學校 및 咸興中學校 卒業者와 同校에 在學한 者로서 同期幹事의 推薦에 依하여 任員會가 認定한 者.

(2) 特別會員 : 母校에 在職하였던 教職員

第五條 本會의 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갖는 同時에 會務에 關한 發言權과 決議權을 갖는다 但, 特別會員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없다.

### 第二章 任 員

第六條 本會의 任員과 그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 長 1名

副會長 3名

監 事 1名

總 務 1名

副總務 1名

(2)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全般을 管掌하며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3)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務를 分擔한다.

(4) 會長 有故時 最年長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5) 總務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會務全般을 總括運營하고, 財政 會計事務를 管掌한다.

(6) 副總務는 總務를 補佐하고 本會의 諸般 書類를 保管 管掌한다.

(7) 監事는 本會의 運營, 財政狀況을 隨時監査하여 會長과 總會에 報告한다.

第七條 本會는 本會發展에 有功한 會員中에서 名譽會長 및 顧問 若干名을 推戴할 수 있다.

第八條 本會의 任員은 定期總會에서 選任한다.

任員 有故時는 任員會 및 期別幹事合同 會議에서 選任한 任員이 殘餘期間동안



會務에 參與하고 次期總會에서 認准을 받는다.

第十條 各 期間의 會務連絡을 위하여 期別幹事 1名式을 選定하여 任員會에 報告키로 한다.

### 第三章 會 議

第十一條 本 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 (1) 定期總會 : 每年 十月에 開催하고 歲入歲出의 承認 任員選出 會則改正 및 主要 案件의 承認
- (2) 臨時總會 : 任員會 및 三十名以上 會員의 要請이 있을 때 開催한다.
- (3) 任 員 會 :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 (4) 幹 事 會 : 各期別 幹事의 會議로서 任員會의 要請으로 開催할 수 있다.

### 第四章 財 政

第十二條 本會의 經費는 贊助金 및 總會時 會費로 充當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十三條 本會의 基金은 會長 名義로 公認 金融機關에 豫置한다.

第十四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十月一日부터 翌年 九月三十日로 한다.

### 第五章 補 則

第十五條 本 會則 第二條의 支會를 設置하고자 할 때는 該當支會의 會則 및 會員名簿를 任員會에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六條 本會의 會計에 關한 收入 支出은 任員會의 決議로 處理하고 此를 總會에 報告하여 追認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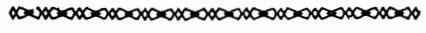
第十七條 本 會則의 改正은 總會 出席會員 3分の 2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十八條 本 會則 未備點은 任員會의 決議에 依據 處理키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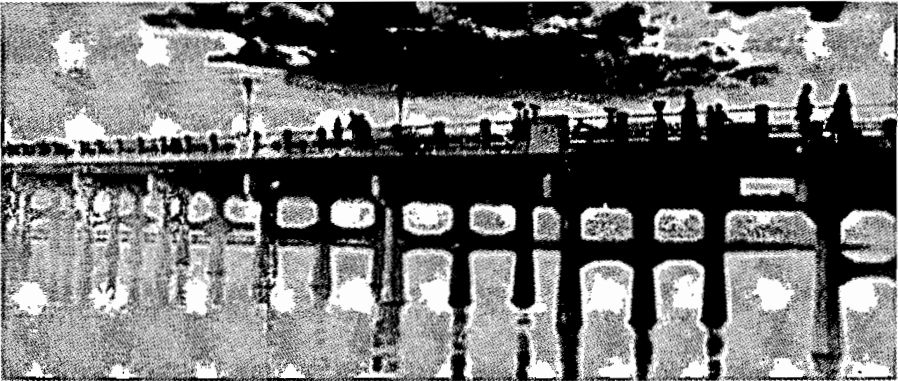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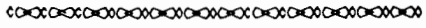
第十九條 本 會則은 通過된 날부터 施行한다.

制定 一九七〇年 十月 二十四日

改正 一九八四年 十月 九日



# 追 憶



萬歲橋



## 故 金桂淑박사를 추모하며

姜 錫 福(7回)

국내 哲學界의 元老 金桂淑박사는 1989년 1월 12일 오전5시 서울대학병원에서 85세를 일기로 끝내 他界하고 말았다. 그는 威南洪原 出身으로 威興高普를 거쳐 京城帝大(서울대 전신) 哲學과를 卒業, 60여년간 오직 哲學을 천착해 오면서 서울大 大學院長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칸트’, ‘헤겔’로 대표되는 서양철학의 진리를 가르쳤다. 그는 늘 ‘한국인으로서 한국철학, 동양철학에 몰두하지 못하였으니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1970년 은퇴한 이후부터는 우리의 哲學, 東洋의 哲學을 섭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특히 86년 출간 예정으로 85년부터 집필중이던 고등학교 철학과용 참고서의 그 주요내용이 정신적 지주로서의 동양철학과 과학기반의 서양철학, 근세의 한국철학자와 서양철학자들의 연계성등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望九의 연륜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정열을 쏟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다.

그는 나의 학교선배였지만 나이는 동갑으로서 威高普시절에 같은 하숙에 있었던 일이 있었고 그가 은퇴한 후 나는 그를 가끔 만나서 세상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로부터 철학의 片鱗을 배웠고, 서로 老後의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는 혼식을 섭생의 기본으로 삼았고 차조와 콩, 팔등의 잡곡과 채식을 주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매일 산책을 하는데 산책 코스를 A.B.C의 세가지로 구분해서 컨디션에 따라 코스를 선택한다’고 했다. 즉 1km거리의 A코스, 1.5km의 B코스, 2km의 C코스(宣陵과 靖陵)로 나누어 이들 코스를 번갈아 산책하면서 사색과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소시적에 연식정구와 스케이트, 수영 등으로 체력을 길러왔고 望九 후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수영장을 찾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는 지난 89년 1월 12일 겨울비 내리고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이른 아침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別世했다고 한다. 그는 단정한 외모 그대로 청아한 인품의 신사였으며 明鏡止水같은 心情의 인격자였다. 그는 쉬지않고 동양과 서양의 哲學을, 그리고 두쪽 학자들의 연계성을 위하여 사색을 거듭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人間이고 개개 人間에 따라 그 가치기준을 정하는 尺度는 달라진다. 그래서 人間노릇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것 같다. 실수를 하기에 人間이고 또 믿기 어려운 意志力を 발휘하기에 人間인것 같다. 사방 어디로든 자유로이 갈 수 있는 可能性속에서 人間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투쟁의 노력과 희생의 지불을 요청받게 되는것 같다. 誕生의 짐을 메고가는 人間の 한 생애가 죽음에 결정해주는 決算체점에서는 ‘에누리’가 없을테니, 살아 있는 동안 성실하고 참되게 살며, 후회없는 오늘을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과제가

아닐까. 돈도, 힘도, 마음도, 제대로 올바르게 써야만 빛을 발휘하리라고 믿는다. 천하의 힘도, 막대한 富도, 모두 무덤속까지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모두들 성실히 노력하고 재능을 개발하여 나라라는 거대한 밑거름에 기여하면 될 것이다. 金兄! 60여년간 님과 사귀면서 人間과 人生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소. 스쳐지나가는 회상의 조각들은 많지만 또다시 어디에서 '칸트'와 '헤겔' 철학의 진리를 들을 수 있겠소. 人生이란 한 번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가고야 마는 것. 그러기에 法華經(법화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生從何處來, 死向何處去, 어느 곳에서 살아오다가 어느곳으로 죽어 가느냐? 하는글.

金박사께서는 어질고 덕을 많이 쌓으신 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

來與白雲來, 去隨明月來. 구름타고 오셨다가 달 따라 가셨을 것.

부디 永生하시어 굽어 살피소서

삼가 다시 한번 冥福을 비옵나이다.

1992. 3. 25.

## 「日本軍隊에서 體驗한 氣合」

金 溼 次(15回)

나는 本會誌前号에서 記述한대로 咸興高普를 卒業한 우리 雙童兄弟는 明太商과 貿穀商을 經營하다가 大學으로 進學하게 되었는데, 70歲되신 아버지를 奉養하기로 하여 雙童兄인 溼太는 1938年에 먼저 東京에 가서 早稻田大學商科에 入學하여 卒業하고 歸家한 다음에, 내가 交代하여 東京留學의 길을 떠나, 早稻田大學法科에 在學中 1943年 9月 下旬에 日本學友들에게 學徒兵으로 軍門에 入隊하라는 命令이 내렸다.

學校에 남게된 우리들은 그해 10월에 東경新宿에 있는 料亭에서 그네들을 爲하여 壯行會를 열어주고, 軍門으로 보냈다. 그 일이 있은지 約 一介月後에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所謂 朝鮮學徒特別志願兵令이 내렸다. 그리하여 나는 歸鄉하여 咸興에서 志願하고, 1944年 1月 20日에 龍山交通會館에서 入隊하니, 우리들과 같이 日本內部隊에 入隊케 된 사람들은 日本內各部隊에서 서울에 派遣된 引率者들에게, 引繼되어서, 함께 汽車로 釜山에 輸送되었으며, 釜山에서 昌慶丸便으로 博田港에 上陸하여, 그곳에서 各部隊別로 分散되어서 入隊케 되었다.

나와같이 廣島所在 西部第七部隊(工兵隊)에 入隊한 韓國學兵 13名은 서울에서부터 乘本特務曹長의 引率로 우리 部隊에 到着한 것이 1月 23日 아침이었다. 이 部隊는 日淸,



日露戰爭때 出兵하였으며, 第二次大戰 當時 日本軍이 馬來群島에서 南下하여 SINGAPORE을 占領하기 爲하여 暹羅水道에서, 九州의 久留米師團 四國의 善通寺師團, 그리고 廣島師團等, 三個師團의 工兵隊들이 八時間만에 制式架橋에 成功하여 SIBGAPORE 占領을 可能케 하였다고하여 大端히 自負心이 강한 部隊였다.

나는 木造建物이었으며, 우리13名은 第一中隊에 六名, 나를 包含하여 七名이 第二中隊에 配置되었으며, 우리 13名은 特別教育班을 만들어서, 教官으로 見習士官, 川田伍長, 神藤上等兵等 三人에 依하여 初年兵教育을 받게 되었다. 入隊하여 보니 日本學兵들은 우리들보다 一介月前에 入隊하여 教育받고 있었으며, 우리들은 그네들의 內務班에 一名式 分散配置되었다. 한 가지 多幸한 것은 우리의 內務班에서 早稻田大學 同級生인 山根君 (鳥根縣出身. 1944年 10月에 比律賓戰線에 나아가다 그 輸送船團이 美軍의 潛水艦反擊을 받아 戰死)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우리들은 三個月間의 初年兵教育後 幹部候補生 試驗을 치게 하였으며, 結局 甲種幹部候補生 一名, 乙種幹部候補生 二名이 나왔으며, 幹部候補生 試驗에서 不合格된 戰友中 六名은 南支那 廣東部隊로 轉屬되어서 우리들과 離別케 되었다. 나머지 七名中 三名은 後에 原子彈의 洗禮를 받았다.

나는 日本軍隊에서 여러가지 氣습을 體驗하였으나 여기서는 紙面의 制限關係로, 其中 第一 처음에 體驗한 氣습이야기(뽕 한 개로 바닥난 知性人들) 하나만을 紹介하려 한다.

같은 第六內務班에서 만나게 된 山根君 덕분에 나는 처음부터 아니꼬운 시달림을 덜 받으면서 軍隊生活을 始作할 수 있었다. 朝鮮에서 나와 같이 온 一行 13名은 各內務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日本人學徒兵인 古參들에게 여러가지 아니꼬운 일을 당하는 모양이었 지만 나는 大學의 同級生 山根君의 그럴 듯한 紹介로 第六內務班 同僚 全員에게 友好的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山根君이 미리 先手를 쳐서 새로 들어온 이 金君은 大學時節의 同級生이며 둘 사이엔 아주 돈독한 友情을 持續해 왔던 親舊이다 라는 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自己와 똑같이 대해 줄 것을 強力히 付托했던터였다.

좌우간 이렇게 해서 나의 內務班 生活은 好條件속에서 始作된 셈인데도 여전히 不安感 내지 초조감이 남아 있기는 매 일반이었다. 그래서 內務班의 널마루 위에서 첫밤을 맞 았을땐 쉬 잠이 오질 않아 애를 먹었다. 눈을 감기는 했지만 고향일들, 타고 온 昌慶丸의 검은 모습, 오늘 申告를 드린 여러 上級者들... 그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생각났으며, 어둠 속이기는 해도, 내 머리 위의 총가에 총들이 쭉 걸려 있는 것을 쳐다보니 몸이 오싹해졌다.

그런식으로 시작된 나의 군대생활 三日만이였다. 그날 저녁에 日本學徒兵들은 夜間 전투訓練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內務班의 日本學徒兵들은 모두 그 訓練에 參加하기 爲해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內務班에 남은 사람들은 練休兵 (몸이 不便하여 訓練에 參加 못하는 사람들) 三, 四名과 나 뿐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夜間訓練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夜食으로 빵이 나왔다. 前例에 따라 練休兵들이 炊軍場에 가서 訓練나간 人員대로 빵을 타왔다. 班員들은 돌아오는 즉시 하나씩 配給할 참이었다. 밤이 깊어서야 마침내 訓練나갔던 班員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씩 집어주는 손을 기다리지 않고, 빵이 있는 곳으로 와! 하고 몰려들어 먼저 투성의 손으로 제 마음대로 집어가 버렸다. 先頭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뒤따라 들어 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행여나 제 몫을 잃어버릴까 해서 총을 총가에 걸어 놓기도 전에 먼저 빵통에만 덤벼들었다. 하기가 고된 훈련에 다들 시장끼가 발동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秩序고 무엇이고, 지킬 여유도 없었다.

그런데 그만 곤란한 일이 생겨버렸다. 그것은 나중에 보니 빵이 하나 不足했던 것이다. 누군가가 그 통에서 염치없이 남의 몫까지 집어 갔던 모양이었다. 따라서 맨 나중에 들어온 學兵은 自己몫을 찾아가지 못했다. 그는 不滿스런 表情을 짓고 周圍를 둘러 보았다. 그러나 내가 자네 몫을 집어갔네 하고 나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미 빵을 먹은 사람들은 총을 총가에 걸기도 하고, 혹은 각반을 풀기도하여 일대 혼란이었다.

빵을 얻지 못한 學兵은 투덜투덜 不平을 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가 그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그때 조교였던 內務班의 上等兵 (그의 이름은 잊어버렸음)이 第一나중에 訓練에서 內務班에 들어오다가 그 不平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눈치를 채 모양이었다. 그 上等兵은 自己 몫으로 남겨둔 빵을 그 不平客앞에 내밀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例의 學徒兵은 立場이 實로 난처하게 되어버렸다. 빵 한 개로 하여 不平은 했을망정 그렇다고 하여 古參者의 몫을 녀름 받아 먹을 수야 도저히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먹지않겠다고 사양했다. 그러나 上等兵의 노기띤 音聲이 터져 나왔다. 「命命이다. 먹어라.」 命命이라는데야 어쩔수 없는 노릇이었다. 不平을 하였다가 이 意外의 變을 된통 當하게 된 그 學徒兵은 上等兵에게서 빵을 받아들고는 마지못해 먹기 시작했다.

그 얼굴의 表情이 實로 착잡했다. 上級者의 命命때문에 빵을 먹긴하지만 그 맛이 제대로 날 리가 없었다. 수근거리던 學徒兵들도 다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에 터질지도 모르는 不安한 事態를 予感하면서 긴장한 눈초리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上等兵의 노기 띤 音聲이 內務班을 叱령 울렸다. 「訓練에 參加했던 者들은 全員, 一列橫隊로 나섰!」 마침내 벼락이 떨어진 것이었다. 아직도 銃을 맨채로 빵을 먹고 있던 사람, 각반을 풀고 있던 사람들 할것없이 그대로 뛰어나와 열을 섰다. 그 앞에 上等兵의 야무진 야유조의 訓示가 쏟아졌다. 「諸君들은 將來 皇軍의 將校가 될 者들이다. 다시 말하면 大日本帝國의 指導者級이 될 身分들이란 말이다. 이 점 諸君들이 잘 알고 있을것이다.」 日本學徒兵들은 整列한채로 不動姿勢였다.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있는

나 自身은 小學校 밖에 나오지 못한 학벌없는 일개 上等兵에 不過하다. 따라서 年令으로나, 學識으로나, 其外의 어느모로 따져보아도 諸君들이 나를 指導할 사람들이지, 내가 諸君들을 가르칠 立場은 못된다.」 잠깐 말을 끊었다가 더욱 音聲을 높이며, 「그러나 여기는 軍隊다. 軍隊에는 天皇陛下가 주신 階級の 尊嚴이라는 것이 儼然히 있다. 오늘 저녁엔 軍隊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너희들에게 철저히 認識시켜 주겠다.」 이렇게 못박아 놓고는 계속하여 「고된 夜間訓練을 해서 너희들이 只今 얼마나 시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知性人이다. 적어도 最高學府를 다니던 사람들이다. 練休兵들이 炊事場에서 分明히 人員數대로 빵을 타 왔는데도 結果적으로 한 개의 不足이 생겼다. 그것은 오로지 너희들의 沒知覺한 行動때문이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團體의 秩序를 지킬 줄 아는 程度의 知覺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秩序整然하게 들어오면서 練休兵들이 주는대로 하나씩 받아 갔더라면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러고도 知性人이냐? 너희들 중의 누군가가 남의 몫을 더 먹었다. 이래가지고야 무엇을 하겠단 말이나? 그런 정신상태로 皇帝의 將校가 될 수 있느냐? 지금 두개 먹은 者は 率直히 나서라. 지금 機會를 한 번 더 줄터이니 앞으로 나오너라.」

上等兵은 充血된 눈으로 一同을 훑어 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는 者가 없었다. 上等兵은 그것을 보라는 듯이 노기를 띠면서 외쳤다. 「너희들은 이제는 할 말이 없겠지? 이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自己의 非良心의인 處事를 反省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戰友의 몫까지 털어먹은 그 놈은 自己의 잘못을 솔직히 自白할 勇氣마저 없는 地獄히도 비열한 倖存者이다.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의 그 흐리멍덩한 精神狀態를 철저히 뜯어 고쳐 놓겠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義務인 것이다. 오른쪽 사람부터 차례로 나오라!」

이렇게 命命하고는 一同을 尙해 잔뜩 버티고 서 있었다. 맨 처음에 나온 사람부터 다리를 벌리고 또 두 주먹에다 힘을 주고, 이를 악물게 한 다음, 뺨을 좌우 주먹으로 두개씩 쳐나갔다. 어찌나 힘껏 후렷후렷 풀썩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총을 맨채로 데굴데굴 구르는 사람도 있었다. 나의 學友 山根君은 세번째로 맞았는데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기가 實로 안 되었다.

그렇게 한 차례씩 삼십 명이 호된氣습을 받았다.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여 어린애처럼 우는 사람도 한 둘이 아니었다. 團體氣습이 끝난 다음 上等兵은 다시 命命하여 學徒兵들을 모두 自己故郷쪽을 尙하여 서게했다. 그리고는 다시 목청을 돋구었다. 「다들 自己故郷쪽을 尙하여 경례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하였다고 말하라!」 모두 시키는대로 했다. 그러자 上等兵은 계속하여 소리쳤다. 「다들 눈을 감고 오늘 저녁에 한 일을 反省해 보라. 知性人이면서도 非知性人의 대우를 받게 行動한 것은 오로지 너희들 自身이다. 너희들이

入隊하기 爲해 故郷을 떠날때 너희들의 父母와 兄弟들이 日章旗를 흔들고 軍歌를 불러 주었을것이다. 그때 付託하던 말들을 상기해보라. 너희들의 父母,兄弟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좋은 軍人이 되라고 付託했을 것이다. 치사하고 못한 軍人이 되라고 付託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萬一 너희들의 父母나 兄弟中 누구 하나라도 지금의 이 꼴을 본다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最高學府出身들이 단지 빵 한 개 때문에 나와 같은 小學校出身의 上等兵에게 이런 氣습을 받고 있는 꼴들을 목도한다면 實로 氣가 찰 것이다. 이려고도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戰爭터에서 食糧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部下들은 먹이면서도 將校들은 굶는 것이 指導者로서의 마음가짐인데, 벌써부터 이래가지고야 어찌 皇帝의 將校가 될 수 있겠는가?」

이쯤 되니까 學徒兵들도 너무나 참기 어려운 수모를 당한셈이었다. 빵 한 개로해서 그들의 知性은 바닥이 드러난 셈이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던 나머지 大部分의 學徒兵들은 고개를 푹 숙인채 영영 울었다. 그러다가 上等兵이 解散을 命令하자마자 그들은 숙였던 머리를 쳐들고 일제히 경례를 하면서 「感謝합니다」 하고 소리쳤다.

이 事件은 나를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매를 맞고도 感謝하다고 해야 하는것이 日本軍隊인가? 나로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 充分한 納得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事件은 나에게도 큰 敎訓이 되었으며 그들에 對해 전에는 몰랐던 어떤 새로운 認識까지 하게 되었다.

## 여름방학

김희춘(15回)

방학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 속에 추억과 낭만 그리고 그리움이 있다.

지금부터 70년에서 2년정도 모자라는 보통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의 옛 이야기이다. 우선 그 당시 살던 고향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세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잠깐 가 보는 것도 약간의 위안은 되지 않겠는가.

그때 1924년경 내 나이 열살. 고향 咸興지방의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교통수단인데 이것은 지금에 비해 말도 안되게 빈약했다. 겨우 자전거가 있었는데 이것의 보유자는 지금의 최고급 “세단” 보유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을 것이며 40~50리 정도는 의례 도보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둘째는 통신시설로 이것 역시 전무상태로 5일마다 있는 고을 장날에야 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할 정도였다. 끝으로 음식물인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지금의 영양가나 비타민 함유량 등을 따지기 전에 닥치는대로 배불리 먹는 것에 우선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모든 면에서 미개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개발되고 문명한 사회상은 그 대가로 오염되어 가는 환경과 각종 병폐가 난무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어 地球 破滅의 세기말적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우리가 고향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때 그곳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自然의 風景과 진실하고 솔직한 삶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음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시기와 장소를 생각해 내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바란다.

그해 여름방학이 시작된 며칠 후 새벽부터 나는 갑자기 八里에 사는 큰고모댁에 가겠다고 뉘를 쓰기 시작했다. 마을의 이름은 八里이지만 실지는 고을에서 가차면 상당히 우회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그 거리는 두배인 시오리 내지 이십리 가까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예고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먼길을 아이 혼자 보내는 것도 걱정이 되어서인지 좀처럼 허락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다짜고짜 가야 한다고 보채기만 했다. 그날 오후에야 우리집 사랑채에 사시는 혼자난 막내 고모를 긴급동원시켜 따라보내기로 하여 겨우 허락을 내린 것이다. 막내 고모 시집이 마침 八里를 거쳐서 가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며 고모께서는 사실 시택에 별 볼 일 없으셨다.

이렇게 하여 출발해서 萬歲橋다리를 건너갈 때까지는 순순히 막내 고모를 따라가다가 다리를 건너 외진 시골길에 접어들자 나는 빠른 속도로 막내 고모를 앞질러 나가기 시작했다. 목적지인 八里까지의 도중 다리목 철로 길목 등 세군데 이상에서 뒤따라 오시는 막내고모를 기다려야만 했는데 뭔가 약속시간에 늦어진 것 같은 초조한 기분이 들었다. 뒤따라 오시던 고모께서는 “쉬엿”을 먹으면서 좀 쉬어가자고 짜증을 내신다. 그러나 나는 곧 떠나곤 해서 고모께서는 「너는 귀신에 홀린 것 아니야」하시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곤 하셨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목적지인 八里가까이왔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멀리서 仁德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仁德이는 큰고모의 외아들로서 나이는 나보다 세살 위이다. 나는 그제서야 아참 잘왔구나하고 마음이 놓였다. 아무 예고도 없었지만 의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큰고모 집에 들어서자 고모부 큰고모 그리고 두분의 누님이 반가이 맞아 주셨다. 막내고모는 나를 인계하고 앞길이 멀다고 곧 시집인 “지경”으로 떠나셨다. 떠나실 때 나의 체류기간은 2박3일이며 셋째되는 날은 고을 장날이니 큰고모께서 나를 데리고 와야한다고 어머님의 부탁을 남겼다. 큰고모는 아침에 “아바이”(고모부)가 「오늘 고을에서 乙德(나의 아명)이가 올거야」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너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신다. 그래서 仁德이는 세,



네시간 전부터 동구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러한 만남은 벌써 모름지기 약속된 것이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다.

여기서 잠깐 큰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큰 고모부께서는 학자 집안인 成氏 가문의 맏아들로서 많은 학문을 익힌 분이였다. 그러나 周易 등 공부에 너무 몰두하시다가 머리가 돌아버렸으며 그후 두문불출하고 마을에서는 “미친 아바이”로 호칭되어 왔다. 따라서 그대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 사시는 집도 겨우 정지에 방 한 칸 있을 뿐 자그마한 초가집에 불과했다.

그때는 무심히 지났지만 그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그때 진짜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일체 입밖에 내질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미친 사람의 초대에 응하여 만나게 된 것 같고 또한 미친 사람하고 한방에서 같이 자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큰고모께서 상당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정신적 영향이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후 오늘까지 이 사건의 해명을 마음 속으로 생각해 본 일은 몇번 있었으나 결국 그 해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신념에 이르렀다. 물론 요즘 이러한 문제를 心理學 心靈學 더 나아가 電子工學과 결부시켜 科學的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의 정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나의 결론에서 이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人間은 自然을 이루는 하나의 部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自然과 더 넓게는 宇宙를 지배하는 能力은 人間에게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그 能力을 가졌다고 자부한 결과는 오히려 地球의 파멸을 촉진시키고 말 것이다. 人間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결과가 부질없는 장난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다. 우연이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그 누구는 과연 누구인지 영원히 해명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人間도 그 일부인 大自然을 움직이는 어떤 원칙에 따를 뿐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난 것 같다. 그러나 그 당시의 순수한 自然과 소박한 고향의 모습이 그리워 몇 마디 더 첨가하겠다.

그날 저녁 마당에 명석을 깔고 모기불을 피워가면서 식사를 하게 됐다. 조밥에 감자 된장찌게 가재의 젓 그리고 풋마늘 이만하면 성찬인 것이다. 특히 풋마늘을 복장에 콕 찍어먹는 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멋진 반찬이다. 잠자리에 들게 되어 정지에는 그 집 식구 모두가 자고 나는 하나뿐인 아바이 방에서 자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아들인 仁德이가 아바이하고 같이 자는 것을 꺼려했고 하나밖에 없는 현모기장이 아바이 방에만 처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없이 미친 아바이하고 같은 방에서 자게 된 것이다. 나는 그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곧 잠에 들었다. 아마 새벽 두, 세시경

등잔불 빛에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단정한 자세로 열심히 책을 읽고 계셨다. 가끔 입속에서 중얼중얼하시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무섭다고하는 생각보다 고독한 존재로 불쌍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5시쯤 되어서 아버지가 나를 깨워서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나는 원래 잠꾸러기여서 제대로 정신을 못차린 상태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야만 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대신 그분이라는 존칭을 쓰겠다. 그분은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태도로 四方에 대해 절을 했다. 나도 따라서 공손히 절을 했다. 그 때 마침 뭉개뭉개 떠도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솟아오른다. 그분은 무언가 입속으로 말하시면서 다시 절을 했다. 이 幽玄하고 그윽한 광경에 그분의 모습이 합쳐 더욱 신비스러운 感을 더하였다. 오늘에 와서 돌이켜 보니 우리의 만남은 이 自然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로 생각이 미치게 된다.

그날 아침 仁德이가 준비한 바늘을 꾸부려서 적당히 만든 낚시도구 지렁이 삼태기 그리고 고모께서 마련한 점심을 들고 우리는 “큰 늪”으로 갔다. 낚시질은 시작했으나 잘 잡히지 않았다. 「에이」모르겠다. 아예 늪에 들어가서 훑터버리자고 해서 물 속에 뛰어들었다. 물에 떠 있는 풀더미를 삼태기로 훑터 올리는 것이다. 그 뿌리부분에 매달린 붕어 새끼 6~7마리를 한 꺼번에 손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붕어의 대 수확에 환호성을 울려가면서 작업은 계속되었다. 아침에 고모부가 예보한 대로 오후에 갑자기 소나기가 왔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훑어내기를 해서 70내지 80마리의 삼태기에 넘칠 정도의 성과를 올렸던 것이다. 소나기가 그치자 무지개가 바로 내 발 밑에서 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무의식 중에 그것에 다가가 보았으나 허사였다. 이것 역시 大自然이 연출하는 “쇼” 중 또 하나의 감격적인 장면일 것이다.

흙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물에 뻐 옷을 걸치고 그러나 많은 수확고로 의기 양양하게 집에 돌아왔다. 仁德이 큰 고모께서 야단을 친 것은 물론이라 하겠다. 그러나 붕어 천렵국과 부루쌈 맛은 一生동안 잊지 못할 추억의 하나이다.

나는 정지에서 누님의 치마를 두루고 누님들의 젖은 옷 빨래 말리기 대림질 등을 지켜 보다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몹시 아쉬워하는 仁德이와 누님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나는 큰고모님의 손을 잡고 고을로 향해 떠났다. 한 번, 두 번 돌아보고 세 번째 돌아 봤을 때 저멀리 그 가족들 뒤에 갑자기 나타나 나를 쳐다보는 외로운 고모부의 모습. 아 그분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 보고, 듣고 느낀 中國大陸

朱 槿 源(19回)

1991年 8月 14日서울을 出發하여 12泊13日 一程으로 中國을 다녀왔고 靈山인 白頭山天池의 全景을 살살이 볼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어 정말 多幸한 日程이 었다고 생각된다. 醫師 約100名의 團體로 내가 가장 年老한 團員이여서 걱정해주는 後輩들이 많았으나, 아무 탈없이 50代-60代 團員에 지지 않고 同行할 수 있었던 것을 깊이 하느님께 感謝하고 싶다. 이번 내가 붓을 든것은 名勝古蹟등 中國 歷史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대로 中國을 紹介하고자 한다.

中國 紀行文은 專門紙에서 每日같이 읽으며 또, 書籍으로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中國의 現實을 具體的으로 보고, 느낀대로 紹介하고자 한다. 結論的으로 한마디로 中國을 評하라고 하면 中國은 지금대로 살아가야 크나큰 中國을 統一된 國家로 統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農村 GNP가 200\$, 도시가 300\$ 정도라는 內容을 어디서 들었으나, 그런 GNP로 中國을 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瀋陽(舊 奉天) 로타리에서 우리가 TV에서 보던 北韓의 金日成 銅像과 같은 毛澤東의 크나큰 銅像을 보고 僑胞가이드(大學 出身으로 免許所持者)에 지금도 中國에서 毛澤東을 崇拜하느냐 물었더니, 毛澤東의 失政이나 過誤도 있었으나, 毛主席의 業績이 너무 偉大(中國統一등)하기 때문에 失政이나 過誤는 問題視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되는 바가 많았다.

이 問答은 소련 쿠데타 失敗후이나 소련 쿠데타에 關한 一般 市民들의 관심을 엿볼 수가 없었다. 中國이 發展하려면 여러國家 形態로 分割되어 各自가 競爭하지 않고는 發展하기 어려운 國家라고 느끼게 되었다. 漢族을 중심으로 56少數 民族이 있고 朝鮮族등 3個 自治州로 構成된 中國은 萬若 多民族이 民族紛糾로 치닫게 되면 中國도 큰 고만일 것이라 느껴진다. 延邊自治州에서도 朝鮮族과 漢族 間의 暗鬪도 있다고 하며 朝鮮族과 漢族 間의 結婚도 보기 어렵다고 하니, 소련의 民族紛糾의 餘波가 中國에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 中國이 지금같이 통일된 國家로 얼마나 계속될까 생각해 보았다.

젊은 層들이 天安門 6.4事態등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10億이 넘는 人口를 統治하려면 너무 發展하면 統治가 어려울 것이라고 느껴진다. 그래도 中國은 먹고 살 수 있고 어디서나 잘 수 있는 狀況으로 國民들도 大體로 滿足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된다.

大部分의 人民들이 다 自轉車를 所有하고 있는데 1時間이나 1時間半 程度 所要되는 居住地에서 出退勤하는 自轉車 部隊들은 自動車가 뺑뺑거리도 들은체도 아니하고 1車線까지 侵犯하고 있는 現像은 奇異하다. 自轉車를 타고 出退勤도 하지만 이 自體가 人民들의 運動과 스트레스 解消에 큰 役割을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도 된다. 똥똥한 中國人을 보기란 어렵다. 自轉車는 約 300元이니, 약 60\$로 우리 돈으로 45,000원 정도인바, 아주

간단한 自轉車이다. 普通 月給이 300-350元 程度이니 이 購入도 대단히 어려울 듯하나 都市고 시골이고 自轉車없이는 이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가이드 職業은 現在 中國에서 가장 人氣있는 職業으로, 中國 國內에 3個 旅行會社(勿論 國家機關)가 있으며, 全員 公務員이다. 長春에 本據地를 둔 中國青年旅行社 吉林省支部에서 우리 一行을 爲해 觀光旅行 가이드5-6名이 差出되었으며, 一部 職員은 西安 및 上海까지 배웅하고 長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어디까지나 公務員인데 汽車로 上海에서 北京까지 16時間, 北京에서 長春까지 20時間 所要된다는데, 汽車를 갈아타야함을 고려하면 더 걸릴것이나 이 사람들은 業務이기는 하나, 지루하다는 感情은 전혀 없는듯 하였다. 어느 가이드의 人民證(우리 住民등록증)을 간신히 보았는데, 民族이라는 欄이 있으며, 이 사람들은 朝鮮族이라고 分明히 기재되어 있음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나니 奇異한 感情이 들었다. 中國에는 56個 民族이 있는데, 漢族이 絶對多數이다. 朝鮮族은 自治州를 갖고 있는 3 民族의 하나로 吉林省에 있는 延邊自治州가 그곳이다. 延邊에 關한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할 것 입니다. 北京이 人口1,000萬名이 넘는 中國 第2의 都市이고 首都인 고로 우리들 都市의 概念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쇼핑센터라는 中心地를 살펴보면 좀 큰 建物은 있으나 百貨店에 들어가면 陳列장은 비좁고, 物件도 얼마되지 않으나 사람이 다니는 空間은 넓은데, 더운 때라 바로 나와 店鋪內에서 納涼하는바 음식도 먹고 쉬고 있으니, 不潔한 것도 이루 말할 수 없고, 店員들이 物件을 팔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百貨店을 나서는 손님이 物件을 사들고 나가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으니, 소련과는 對照가 되는 듯하다. 外國인들이 間或 物件을 사고 나가는 것이 눈에 띄기는 한다. 百貨店이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Lotte나 現代百貨店을 생각하면 안된다. 옆에 조그만 가게들도 다 國家가 經營하는 것이다. 百貨店이나 어디서든 物件을 사도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거나 物件을 사고 나갈때, 感謝(Thank you)란 말을 듣기 어렵다. 店員들로부터 微笑를 볼 수 없고, 包裝도 없으며, 싸구려 비닐 주머니를 줄 뿐이다. 아주 高級붓을 사니, 얇은 촌스러운 包裝紙로 包裝하는 그 方法이 너무 엉망이어서 包裝하려고 하니 그냥 物件과 包裝紙를 나에게 밀어 버리고 아무 말없이 본체만체 한다. 다같은 公務員인데 하는 感情인 듯하다. 이런데서는 正札制로 에누리가 전혀 없다.

都市가 西歐式으로 官街, 商街 등으로 整備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大部分 세멘콘크리트 7-8층 程度의 작은 Apart로 連結되어 있어 걸으로는 그럴듯하나 內容은 다르다. 보통7坪 程度 面積을 한 家庭이 갖고 있다하나 큰 都市에서는 그것에서는 그것을 半으로 베니 木板으로 막고 세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마 便所는 共同으로 쓰는 곳이 많은 듯하다.

漢族은 子息 하나만 生産하여야 하나, 少數 民族은 두 子女가 許容된다고 한다. 漢族의 경우, 子息이 하나를 超過하면 罰金을 내야 하며, 어떤 會社는 그로 因한 集團處罰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여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核家族이 아니고, 或은 父母, 祖父母를 모시게 되는 경우는 나무침대가 3층으로 되어 아래층이 祖父母, 中間이 父母, 3층이 本人들이 使用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風習은 香港에서 더욱 심하다고 한다. 香港住民의 60%는 이런 狀態의 生活을 한다고 한다. 中國은 젊은 男女가 애기 하나 데리고 사는 것이 標準인 듯하다. 中國에서는 結婚式 費用은 大部分 新郎쪽에서 부담하는데, 約 2萬元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約 4,000\$을 생각하는 듯하다. 아파트는 會社직원이면 會社에서 많이 대주는 것이 常禮인 듯하다. 보통 北京에서 3-4萬元이 所要되지만 會社에서 대주고 國家가 어느 程度 대주기 때문에 본인은 1萬元정도면 되는듯 한데 結婚費用 2萬元을 생각하는 内容에 이 1萬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中國 國民 全體가 率先하여서 무엇을 한다든가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여 個人的 利得을 얻고져 하는 競爭心은 쏠려 찾아 볼 수가 없다. 中國의 實情을 가장 잘 說明하는 것이 亞細亞競技대 選手村으로 쓴 高層아파트 團地가 있는데, 15-16층으로 外部에서 보면 堂堂한 우리 選手 아파트村 같은데,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있다. 그 内容은 精通한 情報에서 알아보니, 60-65坪인데, 美貨 40萬\$ 즉, 우리돈으로 3億원 정도니, 우리 생각으로는 싸다고 느끼나 外國人들이 入住를 꺼리는 것이 우선 價格도 비싸지만 과연 棟에 몇 世帶가 入住할 것이며, 가장 걱정스러운것이 入住후의 維持問題라고 한다.

우리가 投宿한 五大州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별이 4개인데, 外部로서의 建物은 그럴 듯하나, 房에 들어가 문짝을 보면 우리들 旅館집 문짝 같으며, 모든 施設이 未塾한데, 그것보다 더 큰 缺點은 이 사람들은 補修維持精神이 없는 것을 보았는데, 아파트의 after service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購買하려는 外國人이 없다 하며, 中國 政府가 값을 내려 팔려고 하나, 如意치 못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을 10여일 다녀 본 結果 納得이 가는 事實이다. 所管維持라는 面에서 雄大하고 精巧한 모든 高官이나 古跡 그리고 公園등 感動하지 않을 수 없으나, 누구하나 애써서 깨끗하게 維持保管하려는 意志나 意慾이 없는 듯 하다. 어딜 觀光가나, 사람 洪水로 말이 아닌데,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日曜日에 全體的으로 休暇하는 것이 아니고, 月, 火, 水, 木, 金, 土, 日 曜日別로 休務하는 組가 따로 있다는 說明으로 理解가 되지만, 週中에 어딜 가나 사람 洪水인 것이 中國이다.

中國의 漢字는 略子를 많이 使用하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당황하게 되었다.

지금 中國에서는 相當한 年齡層 人士들도 本來의 漢字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業은 으로, 開는 升로,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卞를 『가』로 읽는데 이것은 英語의 card를 의미한다. 現在 中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略子 辭典이 이제 切實히 必要하게 된 世上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東洋에 있어서의 漢字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하다. 歸路 香港에 들르니, 우리와 같은 漢字를 使用하고 있어 반가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中國이나 中國人을 보면 『만만디』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좀 깔보는 心情으로 對한 것이

事實이다. 中國式으로는 『慢慢地』라고 쓴다고 한다. 朝鮮族 가이드 보고 慢慢地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大陸氣質』이라고 說明한다. 빨리빨리만 외치는 우리 國民性에 크나큰 敎訓的인 어휘다. 점심 식사도 호텔이건 一般 食堂이건 中國人은 나올때까지 재촉하는 일은 없는 듯하다. 우리 醫師 一行들은 참지 못해 韓國式으로 독촉하지만 中國人들은 吾不關이다. 지금 모든 面에서 蹉跌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 百姓들은 이 『만만디』 精神을 배워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旅行으로 中國式 氣質의 眞價를 배웠다고 믿는다. 悠悠히 기다리는 大國의 面貌를 涵養하지 않고는 韓國民은 一等國民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大器晚成이라는 어휘도 새삼 생각나기도 한다. 中國사람. 大陸사람들의 氣質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너무 빨리 불타고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韓國사람! 옛 날에도 그랬을까요!

別別不條理, 사치, 허영, 過消費, 험잡 등 이루말할 수 없는 非理를 그대로 두던 政府, 政治人들이 이제와서 大統領이 한 마디 했다고 야단법석하는 韓國, 韓國人, 나만 잘되면 된다는 思考, 이런 것들은 6 共和國에 들어와서 더욱 甚해지는 것이 아닌가. 6,000 \$ GNP는 떨어지더라도 精神武裝이 잘된, 한 발작 한 발작씩 나아가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思考를 이번 中國旅行 中 가끔 생각했다. 中國 大陸 부러운 點이 많다고 느껴진다. 後進이라고 깎볼 것이 없다. 좀 살게 됐다고 自慢하는 韓國人은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를 떠나야 愛國心이 더 強하다고 하는데, 中國에서 소련 쿠데타 消息을 듣고 모두 나라 걱정하는 一行들을 보니, 다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같구나 생각되었다.

8月 15日 香港에서 여러 時間이 늦게 中國 東北民航 MD-28 機 座席 약 200席 飛行機로 4時間 半정도 걸려 瀋陽에 밤 8時 30分 도착하였더니 豫定 時間보다 4-5시간 늦어 그런지 청사가 캄캄하다. 비행기에서 내려 걸어서 二층에 올라가니 그때 겨우 電燈을 켜는데 홀 待機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便所가 열쇠로 잠겨 있어 職員이 열쇠를 부수고 便所를 열어준다. 空港 職員들이 없어 기다리고 있으니, 한참 있다가 나온다. 말이 通하지 않으니 가이드 없이는 아무 일도 推進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다.

瀋陽은 人口 600萬 中國 第4의 都市라고 한다. 中國에서는 電子工業의 都市고 日帝侵略의 中心 都市이다. 8月 16日 瀋陽에 있는 中國醫科大學에서의 胃癌 심포지움이 이번 中國訪問의 動機이기도 하다. 이 醫科大學은 日帝 時代 滿洲醫科大學이라고 稱하던 大學으로 解放後 中國醫科大學이 었는데, 開校 60周年 紀念이 今年에 있었던 것으로 報道하고 日帝時代는 꽤 유명한 의과대학이었으나 現在 中國形便으로 別로 發展 못했으며, 새로 지은 病院도 後進을 免치 못했다. 亦是 우리나라 60年代가 聯想되는 듯 하였고 日帝時代 醫科大學 建物도 많이 老朽되었다. 中國에는 北京醫大를 비롯 6個 醫科大學은 相當한 水準인데, 이는 國家가 管轄하는 大學이고, 다음 11個 大學은 保健省에서 管장하는데, 中國 醫科大學도 그 中の 하나이고, 다음은 格이 獨 떨어지는 延邊醫療院등 (多數)이라고 한다.

上海에서 臨時政府 金九 主席이 계시던 곳을 上海市 盧巒區의 保護管理所에서 韓國人 觀光客이 많이 오니 『原韓國臨時政府舊址』라고 새삼 管理하며 큼 길가에 그 事務室을 차려놓고 벽에 여러 사진도 붙여놓고 說明한다. 내가 年上者라고 하여 團長格으로 사진 몇 장 주기에 하는 수 없이 내가 20元을 내고 40여 명은 一元정도씩 내서 모아 주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 벌이를 한다. 金九 主席이 사시던 建物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形便이여서 아쉬운 感이 말할 수 없다. 가이드 보고 우리 朝鮮族이 저 事務를 보면 돈도 모으고 記念도 잘 될터인데 하였더니, 中國漢族들이 絶對내놓지 않는다고 하니 섭섭하기만 하다. 中國 第一의 都市 上海는 江에 큰 배가 닿고 1920年代 지은 美. 英의 租借時代의 建物은 西洋 都市같으나 其外의 市街는 다를 바가 없었다. 有名한 蘇州를 경유 上海를 왔는데, 蘇州 上海에서 上海 西쪽을 通過하여 北京까지 600km의 運河를 보니, 萬里長城을 만든 中國人의 偉大한 遺跡에 다시 한번 感歎하였다. 이 水路가 옛날 皇帝들이 北京에서 蘇州 西海까지 왔다니, 우리들은 想像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다.

#### 延邊을 中心으로

延邊自治州는 吉林省(韓半島 全體 보다 약간 적음) 内の 朝鮮族의 自治州이며, 吉林省의 東南部に 位置한다. 中國의 省 밑의 縣(郡)보다 크다.

1952年 9月3日에 現在의 延邊朝鮮族 自治州가 창설되었으며, 1988年 7月 현재 延吉, 圖們, 敦化, 龍井 및 琿春 등 5個市와 和龍, 汪精 및 安圖의 3個縣을 管轄하고 있다. 延邊에는 朝鮮族, 漢族, 滿族, 回族 및 蒙古族 등 19個 民族이 居住하고 있다고 한다. 1987年度 人口 調查에서 總人口 1,987,271名 中 朝鮮族은 807,307 명으로 40.81% 이었다. 延吉市는 吉林省 首都이며 人口 24萬名이며 朝鮮族은 59%를 차지하고 있다. 朝鮮族 自治州이기에 看板을 한줄로 쓰면 朝鮮말과 漢文을, 두줄로 쓰면은 上段은 朝鮮말 下段은 漢字로 쓰는데, 大部分 赤色으로 쓰여지고 있다. 延吉市는 南韓觀光客으로 갑자기 開放된 都市로 생각되는데 飛行場이 생겨 北京과의 交通이 많이 便利해 진 듯하다. 飛行場 施設은 別 볼 것이 없으나, 프로페라 飛行機가 定期航路外 많은 臨時 路線이 다니는 듯하다. 飛行場 밖에 나가니 버스나 택시가 비교적 많은데 놀랐다. (적어도 北韓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껴졌다) 큰 觀光用 버스는 새 것으로 日本이나 獨逸製이며 택시는 거의 日本 것이었다. 韓國 食堂에서 點心을 먹는데, 너무나 매워서 혼났고, 개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눈에 띄었다. 延吉에 오게된 것은 醫療院에서 胃癌에 관한 Symposium에 參席 후 白頭山 天池 參觀이 目的 이었다.

우리들은 8月 18日 아침 9時에 延吉을 出發하여 버스로 長長 6時間 以上을 달려(中間에서 點心을 먹고) 白頭山 入口 山麓 二道白 河鎮에 到達하고, 長白山(中國名) 登頂 手續을 마치고 잘 닦아놓은 평판한 非包裝路를 버스로 30여분에 달려 白頭山 登山을 위한 Jeep車에 갈아타게 되었다. 45名씩 2대의 버스로 도착한 우리는 먼저 長白瀑布를 求景하고 다른 租는 먼저 天池로 登山하였다. 버스에서 내리니 천둥이 치며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長白瀑布를 구경하고 교대하여 Jeep車를 타고 天池로 行하기 始作하였다. 이 Jeef 車를 타고 올라가는 길은 昨年 8月 15日 完成된 包裝된 登山길로 10km나 되는 巨離로 600萬\$이 所要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完全히 韓國人 호주머니를 생각하고 完成한 工事임을 느낄 수 있었다. 10km의 登頂길 中間쯤 올라가는데 한쪽이 흰해지기에 개는 것이 아닌가고 했더니, 마침 朝鮮族 運轉技士가 좋은 先生님들께서 오시니 하늘도 알아 썰 것이라고 하면서 Jeep車 終點에서 내리니 비가 끝이니 정말 神技한 現像이라 생각했다. Jeep車는 技士를 빼고 4人 組로 乘車하였는데, 우리 그룹에서 第一 처음 올라갔는데, Jeep車에서 내려 500m 되는 急傾斜의 돌산을 올라 가려니 숨이 좀 차서 나만 그런가 했더니, 2,700m 高地로 720미터바 程度의 기압이니, 당연한 현상이었다. 500m 를 올라간 山頂에 다다른 순간의 天池— 정말 形容할 수 없는 靈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山頂에 도달하니 구름. 안개 하나 없는 정말 그림에서 보는 天池 全體를 한 눈에 보는 機會를 얻는 感激은 一生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둘레가 16km, 水深은 보통 200m 정도이나 300m 넘는 곳도 있다고 하며 天池에는 밑에서 향시 샘이 솟아 오른다고 하니 정말 놀랍기만 하였다. 天池에서 흐르는 물이 豆滿江, 鴨綠江과 中國의 松花江이라니 自然이 雄大하고 偉大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天池에 到着한 것이 午後 5時 경인데, 約 40分 지나니 또 안개와 구름으로 덮이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Jeep 車에서 내려 도달한 山頂은 그 面積이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山頂에 머무를 수 없는 形便이다. 그래서 30分 정도 山頂에 머물다 내려와 Jeep 車를 타야 다음 順番이 登山하게 되어 있다.

山頂에서 太極旗를 휘두르지 못하게 事前 教育을 받았으나, 太極旗를 휘두르고 싶은 感情은 누구도 감출 수 없었다. 48名 全員이 함께 모일 수 있는 時間과 機會가 없어 Jeep車에서 내리는 組마다 이리저리 다니며 寫眞찍는데 熱中하는 形便이다. 우리 組는 처음 登山하여 時間도 넉넉하여 求景도 잘 했지만 北韓最高峰을 바라보며 『大韓民國萬歲』를 외치니 音聲은 너무나 弱하게 느껴지나, 나 自身 氣分은 統一된 大韓民國을 내려다 보며 큰 소리로 외치는 氣分이다. 너무나 작게만 느껴지는 韓半島 “그래도 千年 單一民族으로 脈을 이려온 우리 民族을 생각하면 將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언젠가 日本의 有名한 作家 司馬遼太부가 韓國人을 두고 『가족같이 질기고 강한 民族』이라고 表現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白頭山에서 내려오는 Jeep車안에서 문득 이 表現이 생각났다. 韓國民族은 壓迫을 當할때만 강한 것일까? 빨리 먹어라! 빨리 공부해! 빨리 끝내라! 速成地下鐵, 速成高速道路— 補修費 더들고 볶아치는 行政. 適當注意에 만연된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금 貿易收支黑字가 되더니 야단법석대고 금방 100億\$ 赤字가 눈앞에 왔으니, 우리 國民은 어디로 가는가? 公務員이 許可없이 여름에 500名, 海外旅行, 이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官은 무엇을 했는가? 急해도 뛰지 않던 옛날



우리 선비들의 泰然自若 하던 모습이 그림다. 새삼 우리 韓半島도 東洋의 中心地, 要衝地라고 느껴지며 어떻게 든 統一을 하여 악착같이 競爭에 이겨 先進國 隊列에 끼어야 하지 않을까? 天池를 보고 下山하면서 곰곰히 생각한 나의 心情을 그대로 吐露한 것이다. 여러 團員들의 要望으로 延吉에서 1時間20分 程度버스로 달려 國境線인 圖們에 到着하였다. 내린 場所가 바로 人道橋 鐵橋에서 가까와 中共 警備員도 보았는데 人道橋의 3分之2는 北韓, 3分之1은 中共側으로 그 鐵橋는 兩側다른 색깔로 區別되어 있다. 往來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다. 上流쪽을 바라보니 汽車가 다니는 鐵橋를 보았는데, 日製時代는 北韓의 會寧 - 南陽을 거쳐, 이곳 圖們을 거쳐 滿洲의 牧丹江까지 鐵路가 直通되었던 것이 새삼 생각난다. 豆滿江 푸른 물 하던 豆滿江과는 달리 비교적 넓기는 하나 흐르는 물은 좁고 얕으며 別風景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北韓을 보고 寫眞을 찍지 말라는 看板이 있었으나 一行은 一旦 許可를 얻고 마음대로 寫眞을 撮影할 수가 있었다. 江邊 湄에서 納涼하던 朝鮮族 할아버지 5-6명이 일어나더니 南朝鮮 同胞들 반갑습니다 하고 人事하며 술 한잔 주려고 하는 것을 사양하였다.

圖們서 延吉로 돌아오는 길에 圖們市內의 中心部에 도달하니 길에 물을 뿌리고 있어 異常하다 하였더니, 조금 더가니, 버스의 進行을 막고 도고 돌아가 다른길로 가라고 巡警들이 야단이다. 가이드더러 알아보라고 했더니, 黨에서 높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여 야단법석이니 이것이 大衆을 爲한다는 共產黨일까? 정말 矛盾덩어리라고 여겨졌다. 延邊醫遼院은 여기 醫科大學이 있는 곳인데 醫科大學 求景은 못하고 우리들은 病院 3층 講堂에 모아 심포지움에 參席하였다. 講堂이라야 200~0名 들어갈 수 있는 시멘트바닥의 홀이며 演士가 slide를 導備하였으나 暗漠이 되어 있지 않아 不便을 느끼게 되었다. 病院에 『프로젝타』한 台만 있었으면하여 金 鎮福 教授가 紀念으로 한 台 寄贈하였다. 醫遼院은 西洋醫學과 漢方을 다 利用하고 있는데, 나의 짧은 所見으로는 中國의 現在의 形便과 傳統을 생각할때 이런 式의 醫療施設이 아니곤 道理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6.25 動亂 中 우리나라 後方病院 아닌 一線野戰病院 정도인데, 침구 漢方이 共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當時 우리가 맡던 『크레줄』 냄새가 풍긴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施設의 程度가 문제가 아니고, 醫師의 質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6.25動亂 中 우리 醫師들의 質과 意慾은 大端하였고 軍에서 美國가서 工夫하고 온 많은 젊은 大學教授 [軍入隊後]들의 그 意慾과 使命感이 大端하였기에 現在의 醫療水準에 到達한 것에 比하면 정말 寒心하다. 여기서 醫師들을 對한 후, 서울을 다녀온 이곳 延吉 醫師들의 修學 態度를 물어보니, 말하기 어려운점이 많다. 延吉市內에 있는 소위 『가라오케』에 다녀온 一行들의 말에 따르면 서울 江南 『신사동』과 다를바 없다고 하니 南韓사람들이 延吉에 나쁜 風習만 기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純眞한 一般 人民들께 南韓의 나쁜 風習만 汚染시킨다고 느껴졌다. 어떻게든 南韓과 連結하여 돈 좀 벌자는 사행심만 기르는 듯 하였다. 延吉에

오는 도중 瀋陽 飛行場 待機室에서 延吉을 다녀가는 某 中小企業家들 몇 분 만났더니 延吉에서 合作 가능성을 검사한 결과 合作投資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곳 사람을 믿고 일을 시키기 어렵다는 結論인데 듣고 보니 섭섭했지만 延吉을 가서 몇 일 經驗한 나로서 理解가 갔다. 순수하게 滿洲 別판에서 刻苦成家하여 잘사는 朝鮮族에게 나쁜 바람만 집어 넣는듯하여 마음이 아프다. 數十年 共產主義 治下에서 자란 사람들을 訓練教育 시키기는 머리가 굳어 어렵다고 느껴졌다.

延吉 醫療院에 關한 限 도와 주어야 할터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할 바도 많다고 생각된다. 延邊朝鮮族의 獨立을 云云하면 잡혀갈까요...

심포지움이 끝나고 北韓側이 經營한다는 豆滿江 호텔에서 저녁 大宴會가 시작되었는데, 朝鮮族들은 큰잔치로 學會에 參席하지 않았던 많은 人士가 參席한 것도 奇異하지만 女醫師가 많고, 한 잔하고 活氣있게 興겨워 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飲食은 맵고, 別로 肉類는 없으며, 平壤 冷緬이라 하여 먹었다가 『설사』만 나서 2日間 혼나기도 하였는데, 70~80%의 南韓 醫師들은 거의 冷緬에 손도 대지 않은듯하다. 이 宴會는 南韓에서 同行한 中外, 同和 및 第一製藥 등이 스폰서 한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이런 宴會는 드물 것이니, 실컷 마시고 먹고 놀아야지 하는 듯. 심포지움을 마치고, 延吉飛行場に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2~3日 새 圖們, 白頭山 天池, 延吉醫療院, 豆滿江 호텔 宴會 등을 想起하면서 70歲 넘는 老人의 생각은 정말 착잡하였다. 宴會 호텔에서 白頭山으로 떠나는 아침 食事 때 朝鮮民族科學者 大會가 이곳에서 開催된다 하여 前 서울大 趙完圭 總長一行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는데 以北서 온 科學者 一行은 金日成 뺏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니 氣分이 좀 이상했는데, 女性들의 옷 맵시나 몸 가짐이 정말 어색한 시골뜨기 같아 웃음이 나오곤 하였다. 女性들이 더욱 떠드는 것도 奇異하게 느껴졌다.

延邊을 뒤로 飛行機를 타고 北京을 向하는 途中 延邊에 사는 우리 同胞들에 대한 感想은 錯雜하였다. 먼저 吐露한 바 있지만 數天年 역사를 생각할때 朝鮮民族은 延邊州에서 獨立하여 韓國과 協力하여 共存할 수 없을까...

空想도 해보았지요. 어렵게 日帝時代 가진 苦難과 受侮를 당하며 굳세게 살아 이제 中國에서는 살만하게 되었으니 多幸인데 南韓의 나쁜 버릇을 다 수입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하루속히 韓半島가 統一되어 共存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三世들이 『우리 中國』하기는 하나 朝鮮民族의 피를 이어 받은 同族들이 이제 滿洲에서 中國 本土 어디든지 가서 活躍하고 있음을 蘇州, 上海등지에서 눈으로 보고 대견하게 느껴졌다.

朝鮮族 가이드 男女들이 大學을 卒業하고 教育을 받아서 그렇겠으나 堂堂하고 朝鮮말을 잘 하는데 놀랐다. 나는 朝鮮族들이 우리말을 잘 하는것 그리고 延邊에서 서울에 오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말을 잘 하는 것은 우리가 日帝時代에 日人들과 있으면 日語를 使

用하나 우리끼리 만나면 우리말만 하던 것이 聯想되어 이 說明으로 讀者들께서 이해되리라고 믿는다.

結論적으로 생각할 때 5千年 中國 歷史에서 別 戰鬪없이 統一하였다는 사실은 中國 사람이 아니더라도 偉大한 業績임을 否認할 수가 없으며 지금 정도의 生活 程度가 아니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發生할 수 있으며 民族 紛糾도 앞으로 정말 어려운 問題로 대두될 것이라고 믿게 된다.

또 中國人民들의 往來를 制限하는 것은 中國人들은 當然之事로 여기고 있다. 마음대로 다니면 10億 人口가 움직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어느 가이드가 說明하기로 延邊同胞 1,000名 인가 서울에 나가니 大韓民國이 야단인데 中國人民을 마음대로 풀어 亞細亞에 풀어 놓으면 東洋 各國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한마디를 나는 感銘 깊게 들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中國 旅行을 하고자 하는 분께 너무 길고 無理한 日程을 잡지 말고 白頭山 求景만 아니면 北京, 西安, 桂林, 蘇州나 上海 等地를 천천히 다니면 좋은 求京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北京直行航路가 생기면 얼마든지 쉽게, 적은 經費로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鬪病中 想念

金明植(20回)

### 1. 序

내 나이 古稀를 넘어선지도

몇해 되었고 머지 않아 喜壽로 이르게 되어 있으나 마음은 恒時

50 余年前 떠나온 東北쪽 故郷에 있고 그때 헤어진 사람하고 多情스러운 家솔들을 생각한다

三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품에 안겨 있다가

방 바닥에 눕혔더니

용막이 떠나가라 울부짖던

갓난이 어린 조카도

이젠 중늙은이 되었으리라

아빠인가 하고 재롱 부리며

그렇게도 따르던 조카를 보고싶구나  
 쓸쓸하고 외롭지 않게  
 밑에 동생은 있는지 궁금하구나  
 통일이 되었으면 너만은  
 서울로 데리고 와서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大學나온 아버지와 地主의 子孫으로 학교나 제대로 다녔는지 안타깝다  
 이것도 의당 받았어야 할 숙명이던가 따지고 보면 그쪽 땅은 누구의 조국인가 너희들이  
 밤이나 낮이나 尊敬하며 외치는 偉大하신 首領님 親愛하는 그 아들 同志에게 묻고  
 싶다  
 몇해 前부터 統一이 되어  
 이제나 저제나 가는가 했던 故鄉  
 해를 거듭할수록 아득하고 멀기만하다  
 今年이야 하던 올해도  
 可望 없을 것 같다  
 外信報道에 따르면  
 金日成이 正日에게 政權을 넘겨준다 하니 아버지보다 더 몽매한 者가  
 開放할 것 같지 않으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래 저래 恨을 품고 사는 人生 들  
 이라  
 언제쯤 되면 내 고장 동해 바다의 싱싱한 생선 반찬에 차진 쌀밥을 먹어보려나

## 2. 사랑방 이야기

사랑방에선 世上 돌아가는 雜談같은 우수갓 소리 옛부터 傳해온 說話등 아무 꺼림낌  
 없이 말한다. 그래서 나도 濟州道 全羅道를 轉轉하면서 療養中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사랑방을 얻어 斷片的으로나마 써 보려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① 福祉社會가 옳바로 되려면 醫師와 教師의 位相이 確立됐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누구나 다 福祉社會를 이룩하기를 바라지만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것이 서민들이다. 서  
 민들은 生活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醫師와  
 教師들이 다 가난해도 病들면 醫師에게 가야 하고 子女들을 上級學校에 보내야 한다.  
 옛부터 醫術은 仁術이라 했고 석자를 물려서서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醫生과 스승은 尊敬의 對象이고 특히 우리 韓國사람만이 갖고 있는 傳來의 美  
 風이다. 그런데 요즘 간혹 이 尊敬心을 잃게 하는 히포크라테스와 페스타룻찌의 後裔들이  
 있으니 寒心스럽다. 医神 히포크라테스는 病者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여기고 조그마한  
 아픔도 성심껏 봐주라 하였고 페스타룻찌는 教育이란 人格을 陶冶하는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후예들은 어떤 일인지 만나라즘에 빠졌는지 改善됨이 없이 舊態依然하니 답답하고 초조한 것은 患者와 그 보호자이다. 요즘은 生活 양식이 많이 變해 온갖 새로운 病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방법을 모르면서 더듬는 醫師들도 있다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病을 고치지 못했다고 해서 醫料酬價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에누리 안되는게 醫料酬價이다. 이것은 나의 경험인데 우리 中學同門에는 히포크라테스의 後裔들이 많아 未安하오나 말하겠다. 60年代初 이른봄날 가솔 中에 危急한 患者가 있어 日本東大出身 親舊醫師의 紹介로 某大學病院에 入院시켰다. 綜合診察한다면서 처음엔 內科에서 取扱하더니 X레이 十餘장 찍고 난 後 神經外科에서 治療할 病이라고 하여 그쪽으로 옮겼다. 다시 X레이 찍고 난 後 主治醫인 科長이 手術해야 겠다고 하여 살리기 爲해선 主治醫가 시키는 대로 應하였다. 그때는 醫保制度도 없는 때라 相當한 手術費를 支拂해야했는데 그 또한 先拂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手術前에 手術前팀의 한 레지던트가 나에게 보호자로서 서약서를 쓰라는 것이다. 要約하면 手術中患者가 죽어도 醫師는 免責이고 後遺症이 생겨도 異議提起할 수 없다는 것이고 죽었을 때의 屍體는 病院側處理에 委任하라는 奇想天外의 條件이었다. 그래도 生死의 경계에 있는 患者를 살려 보겠다고 찾아 간 良識있는 保護者의 良識으로서 낳기만 한다면 저들 사마리아 女子에게 돌을 던질 자가 얼마나 있으랴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仁術者나 스승을 尊敬하는 것은 우리 民族만이 가지고 있는 美德이다. 그것이 오늘날 쇠덩어리를 잘 먹는다는 불가살이化되고 모든게 돈으로 測定되는 것이라면 민망스러운 社會이다. 政治가 혼탁해지고 기업주와 졸부들의 윤리 도덕 국가 관 결여 노사문제 사회 갈등 경제부조리 지역감정등 우리가 처해있는 혼돈의 세계가 아무리극에 다달았다고 해도 醫師와 教師의 가는 길이 옳바로서 있다면야 民族의 來日은 「가나안」의 땅처럼 약속받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 中學同門 先後輩에 醫師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그분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 아님을 附言합니다.

② 同門中에 世稱運動권 學生子女를 갖고 또 가르치는 教師가 계시다면 이 몇 마디를 그들에게 일러 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佛르몽드紙에 실린 것을 “TIME 잡지에” 轉載한 것입니다. 스튜던트파위는 美國 日本등 先進國이란 나라에서 있었고 물론 佛蘭西에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때만 반짝하고 말았다. 한국만이 例外인것 같다. 60년대의 파리 大學에는 맑스 레닌과 모택동등의 초상화가 나붙고 연일 격렬한 시위가 휩쓸었다. 그러나 平定를 되찾은 오늘날의 파리 大는 과연 한때나마 그런때가 있었던가 의심할 정도이다. 불란서 운동권 학생의 영웅이었던 다니엘콩바디 그는 20餘年前을 참회하며 고뇌의 나날을 보내는 중늙은이가 되었다. 우리나라 운동권 학생들에게 최근 그의 술회를 몇 마디 전해 주고 싶어진다.

「이데어」에 절대성과 완벽성은 없다. 하나의 「이데어」를 통해 인간을 끌어 가려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이든 전체주의다. 추상적인 「이데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것이

따르지 않고는 「이데어」라고 할 수 없다. 욕망속에서 나오는 「이데어」는 실현될 수 없다. 밑으로부터의 인간 중심의 개혁 다양성 자발성이 우리의 원칙이다. 4.19이후 30년이 지났어도 그칠줄 모르는 우리의 운동권 학생들 파괴와 폭력 돌팔매와 화염병 그들이 던지는 화염병의 표적은 누구인가. 노점상이나 길가던 할머니란 말인가. 美帝 욕하고 북한을 찬양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에 호소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무에게도 없다. 故朴正熙大統領의 말이 생각난다. 그가 자랄때에는 마을마다 호랑이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 호랑이 할아버지는 자기 손자든 남의 손자든 잘못하면 벼락이 떨어진다. 골목마다 나타나야 할 때이다. 말할 자유는 얼마든지 있는 세상이다. 말로 해야지 傳家の 寶刀는 자주 빼면 무디어 지는 법 4.19영령들의 한숨소리가 들려 오는 듯하다.

### 3. 寓話

#### ① How did you know it?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權威主意를 표방하는 히포크라테스 後裔들이 難治病이라고 하여 손을 들다시피 하고 있는 病(心筋硬塞腦卒中)을 만나 고난後 가끔 정자나 큰 나무 밑에가 앉아 있노라면 의례히 사람들이 와서 病勢을 묻곤한다. 그러면 神通하게 사람마다 療法을 말해준다. 이 病에는 왜 그렇게도 醫師나 博士가 많은지 그 약을 쓰면 꼭 낫는다고 壯談하는 사람까지 있다. 患者는 마음이 弱해서 그런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너무나 진지하고 친절하게 약의 없는 권고이기에 그래서 당신도 이런 病을 앓아 본 일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다 없다고 한다. 그럴때마다 들으면서 생각나는 映畫속의 한마디다. 영화 「나는 살고 싶다. (I want to live)의 女 주인공 바바라그레함役을 熱演하여 1959년 봄 아카데미 映畫상의 女우주 연상을 탄 수잔헤이워드가 이 영화 라스트신에서 하는 말이다. 美加州어느 고을에서 한 老과부가 살해된 일에 용의자로 체포된 그레함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끝내 가스실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때 까뮤등 저명인사들이 무죄로 세계 여론이 비등했으나 무위였고 그를 가스실로 에스코트 한 간수가 죽음의 괴로움을 덜게 해준다는 好意에서 그를 보고 의자에 앉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숫자를 세라고 권하는 말에 고개를 돌려 조용한 목소리로 하우 디드 유 노우 이트 (How did you know it?)고 묻는다. 죽어 본 경험이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나와 같은 病을 앓아 본 일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장담할 때 그말이 생각나 더욱 서글프다.

② 濟州島라면 海女를 연상하는데 지금은 海女를 잠수(潛嫂)라고 한다. 濟州島에서 約 1年半동안 있었는데 옛적엔 石多 風多 女多라고 三多島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女子는 적고 내가 보기엔 石多 風多한 척박한 땅이고 女多是 밭에서 일하는 女子가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하는 말같다. 듣기에 몽고의 지배를 약 100年가량 받았다고 하는데 自尊心이 強해 陸地(內陸사람)人에 對해서 多少排他的인 것이 있다. 봄 여름엔 油菜꽃이 可觀이나

가을엔 到處에 억새꽃으로 뒤덮혀 있다. 제주도 방언에 할아버지는 하루방, 목동은 떼우리, 처녀를 비바리라한다. 아는 이야기다. 제주도엔 한라산에 얽힌 전설이 많은 것 같다.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갔는데 속세의 인간이 하루종일 사슴을 찾아 헤메이던 끝에 범접해서는 안 될 비경인 상상봉까지 오르게 되었다. 한라산은 너무 높은 산이어서 그 상상봉이 천상 세계에 닿고 있었다. 정상 근처에는 한 여름인데도 흰 눈이 덮혀 있어 문득 보니 눈위에 눈처럼 흰 백록들이 무리지어 놀고 있는게 보였다. 사냥꾼은 얼른 그중 한 마리를 겨냥해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가 엉뚱하게도 제일 높은 구름 위에 낮잠자는 옥황상제의 엉덩이에 꽂히고 말았다. 화가 난 옥황상제가 벌떡 일어나 한산 상상봉을 통채 우지근 뽑아내어 서쪽으로 휩 던졌는데 뽑힌 상상봉은 서남쪽 끝의 대정근처에 있는 풍치 좋은 돌산 산발산이 바로 그것이라고 한다. 제주도는 원래 왕과 제후들이 많이 나온 王侯至之地였는데 술사(術士) 胡宗杲이 들어와서 땅속의 地脈과 水脈을 끊어 버려서 人物도 안나고 물도 귀하다는 것이다. 제주를 척박하게 만든 호종단의 전설은 제주 전역에 분포 되어있다. 제주의 척박한 山川이 배출한 비범한 인물은 민란의 장수들로 例外없이 형을 받아 죽고마는 비극적인 영웅들로서 날개 잘려 죽은 전설속의 아기장수들은 바로 이 민란의 장수들의 상징이라고 한다. 韓末의 代表的인테 민란인 강제 검난 방성칠난이 재수난은 그 진원지가 모두 산방산 근처이고 호종단이 왕후지의 명당을 찾아 내어 地血을 끊었다는 胡宗杲은 끝내 한라산 산신의 노여움을 받아 제주 앞바다에서 수장되었다 한다. 또 한라산은 명산이라 함부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부정을 끼치게 되면 비록 청명하고 구름없는 날이라 해도 산신께서 갑자기 폭우를 내려 부정을 씻어 내린다는 것이었다.

③“설문대 할망” 이야기 : 한겨울에 제주도 특유의 맵고 찬 고추알 북풍 바람도 일단 한라산에 부딪치면 그 기세가 꺾이어 산너머 서귀포 지방이 봄날처럼 온화해서 피한지로 좋고 이 고장 풍물인 굴 동백꽃을 즐겨 관광객이 몰려든다. 굴 과수원은 대개 성장이 빠른 상나무로 둘러쳐 바람을 막는데 띄미 마을 외각의 한 과수원은 방풍림이 숲제 동백나무 숲으로만 되어 유뻏하다. 이끼낀 돌담따라 수령 백여년의 동백나무들이 빼빼히 둘러 서 있는데 노란 꿀빛과 어우러져 장관이다. 그 가득한 과수원에는 주인네 식구들이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동백나무를 씨를 뿌려 키운 것은 주인의 증조 할머니라고 한다. 그 할머니가 강씨집에 시집왔을때는 이미 23세로 과연한 나이였다. 남자는 눈 아래로 보이게 남달리 키가 큰 여자였는데 남자 품에 나긋나긋 안기기에는 애시당초 글러먹은 체력이고 보니 혼사가 쉽사리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게다가, 몸집만 크게 아니라 힘도 세어 탈이었다. 옛날에는 마을의 거리에 장정들이 힘겨루는데 쓰는 힘돌이라는 엄청 무거운 둥근 돌덩이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것을 들어 올려 마을 어른한테 꾸지람듣고 난 후부터 설문대 할망이란 별명이 붙었다.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에 엉덩이를 앉히고 두발을 바닷물에 담근채 추자도를 빨래판 삼아 빨래했다는 전설속의 거녀(巨女)였다. 이렇게 힘이 세고 보니 마을 총각들로서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간 자칫 부부 싸움에서 늘 얻어 맞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법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키를 낮춰보려고 길 갈때에는 항상 등에 물건을 짊어져 허리를 굽히고 다녔다. 이런 곡절로 혼사가 늦어진 그녀는 결국 남의 집 드난살이 살며 마을의 섬머슴 노릇하는 강씨 총각에게 시집가게 됐다. 사내는 그보다 세살 밑이었다. 남의 집 문간방을 빌어 살림을 치렀는데 세간살이라곤 그을음 투성인 이빠진 사기 사발 몇개와 낫 손가락 두개일뿐 손바닥만한 땅때기 하나 없는 살림이었다. 사내는 저 살아온 관성대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걸 당연하게 여기는 느렁덩이였지만 아내는 여간 부지런한 사림이 아니었다. 큰 키를 허리 굽혀 살기로한 처녀일적 결심은 시집온 후에도 이어져 혹처럼 그녀의 등에는 미련한 소처럼 무거운 짐이 떠날 날이 없었다. 하루에 한번 썰물때마다 치렁치렁한 넙시 떡을 캐내는 일외에도 명석 많은 부잣집에 품을 팔며 진종일 쉴새없이 일했다. 아내가 일에 극성스러운 대신 사내는 전보다 더 게을러져 하는 일이라곤 집에서 아기보는 것과 아내가 늦어지면 저녁밥 짓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별로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다. 말다툼을 가끔 했지만 목청을 높인 적이 없었다. 어느날 좁쌀을 말리려고 명석에 넣어 놓고 일 나간 사이에 남편이 낮잠자는 동안에 소낙비가 쏟아져 그 아까운 좁쌀이 죄다 떠내려가 화가 난 아내가 남편의 상투를 잡고 휘둘러 지붕 위로 내던져 버렸다고 한다. 그녀는 한때기 받을 갖는게 소원이었다. 거기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둬들이고 싶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잡초로 뒤덮인 황무지를 사들였다. 10년 동안 정성을 다해 가꾼 황무지는 옥토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옥토에다 한라산에 올라 동백씨를 따다가 심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길러 갈때 올때마다 돌을 바구니와 치마폭에 넣어가지고 담을 쌓곤했다. 그녀는 살아 생전 자식농사 또한 잘 지어서 슬하에 증손까지 줄줄이 줄참외 열린듯 풍족했으니 75세로 입종할때 적삼 밑으로 드러난 큰 젓 가슴은 탕탕한 탄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식들만 아니라 밤에 옆에 누워 보채거나 잘 할뿐 무능한 남편도 그 젓 빨려 키운 위대한 어머니였다.

追記 : 나의 病에 對해서 恒時 걱정하여 주신 16回 崔昌植 先輩님 그리고 自身이 喘息을 앓고 있으면서도 내 病의 快癒를 빌고 하던 24回 金廷圭 先輩님도 나와 같은 病을 앓으면서 好轉되어 그 施療法을 수시로 昭詳히 가르쳐 주시던 同病인 28回 趙東喆 先輩님, 그리고 차유를 빌고 하던 總務 朴溶夏 先輩님, 同期인 金世龍 兄등의 諸同門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詩 2首

李基炯(20回)

## 思母恨

서울의 지붕 백운대에서  
 내 고향 지붕 뽀로지로  
 단숨에 건너뛰  
 축지법을 익히라.

찬 하늘을 가르며  
 끼럭끼럭 북으로 날으는  
 저 새떼에 끼일  
 화안술(化雁術)을 배우라.

소자는 오늘도  
 흰 머리카락을 감아 쥐고  
 지축을 울려  
 몸부림치웁니다.

허공은, 저리  
 허허 높을 뿐  
 매아리 없는  
 찢기운 산하여

아, 시간은 잔인하구려.  
 이팔 흑발이 고희 백발이라.

어머님은  
 올해로 아흔 고령  
 꿈에도 생각잖아요.  
 돌아가셨다고는

어찌 돌아가시랴.  
 청상 외아들을 만나지 않고서야

시간아  
 밋어 다오.  
 아니  
 되돌아 가 다오.

우리 어마이  
 아흔에서 여든 되고 일흔 되고 예순 되게시리  
 되돌아 가 줘.  
 되돌아 가 줘.

흰머리 자식놈이  
 그 품에 안기울  
 온 겨레 힘이  
 큰님을 앓아 올  
 그날까지  
 그날까지

1986. 8. 29. 독립문 옆에서

### 내 고향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남매는  
 매달 보름달을 마주 바라보며  
 애끓는 가슴을 서로 달래기로 약속했다던가  
 나는 아침마다  
 고향 뒷산에 오른다.  
 언덕을 넘고  
 숲길을 헤쳐  
 나무뿌리에 걸어채이고  
 엉덩방아도 찢으며  
 헐떡 헐떡 올라간다.

깜빡 정신이 들어……  
 여기는 분명  
 서울 서대문 밖 안산  
 자못 실망하지  
 안산 꼭대기 빼덩바위가  
 고향 뽀로지 빨바위와 석바위 숨바꼭질 한다.

종로행 버스를 타도  
 어린날 고향길이……  
 김정 광목 책보를 끼고  
 아랫마을 냇가 돌바닥길을 타박타박 내려간다.  
 돌물은 쇠랑 소랑 시원스레 흘러가고  
 옆산 뒷산에서는 소쩍소쩍 자꾸만 울어옴다.  
 가리매고개엔 아침해가  
 소고삐 만큼이나 돌아 있다.  
 저어기 아래편에는  
 등쪽에 책보를 질끈 동여맨 쪼무라기들이  
 올망졸망 앞서거니 뒤서거니  
 싹큰, 돌부리에 걸려 상체가 기웃둥 한다.  
 머리를 살려어  
 세종로 바닥으로 돌아온다.  
 빨간 신호에 금정거 하는 버스

구과밭에서 백운대를 향해  
 터벅터벅 올라가면  
 고향 건넌산이 솟아 온다.  
 너른골이 열려 온다.  
 지경장고개 서낭당 앵두나무가  
 알록달록 어른거린다.  
 하얀 사기그릇을 차곡차곡 포개 담은 광주리를 목이 휘어져라 이고  
 어머니는 고갯길을 바등바등 넘어가신다.  
 칠성례는 맨발바닥으로  
 조림계 층계는 두령을 왔다갔다

두 팔을 춤추 듯 흔들어  
후여 후여 참새떼를 몬다.

가랑 사랑  
졸졸 찰찰  
퍼뜩 정신이 들어  
북한산 골짜기에서  
흰거품을 뿜으며 흘러내리는 물소리  
시냇가 얽막한 물속에 어른거리는 저 물모래……  
그랬지, 어머니는 그때  
다 퍼담은 물동이에 쪽박을 얹어놓고 허리를 굽으려  
가생이 해맑은 물모래를  
조심조심 집게손가락에 받혀 올려  
쓱쓱 이를 닦으셨지.

스물둘에 홀로 나신 어머니  
이 외아들도 고회를 넘어  
어머님을 만나뵙지 않고는  
차마 죽을 순 없어  
불효자는 이를 악뭉니다.  
으흑, 돌뿌닥에 받혀 풀썩 주저앉자  
흑흑, 그여 설움이 터져  
아, 어찌  
다시 못보고 눈을 감아  
정겨운 고향길  
어릴 적 친구들  
날아가야지 삼팔선 상공을 넘어  
저기 고향산천이  
신기루처럼 뚱뚱 떠오는구나.

1990. 11. 7 독립문 옆에서

## 沖繩 이모저모

劉 喆(21回)

### 1. 名護療育園

1985년부터 6年間 偶然한 契機로 日本 沖繩에서 生活할 수 있었다. 1984年 봄 긴 奉職生活을 끝내고 暫時 休息하고 있던中 어느날 大韓醫學協會의 週 2回刊 機關紙인 醫協新報를 보고있노라니 一段짜리 조그만 記事가 눈에 띄었다. 即 日本沖繩에 있는 重症心身障礙兒童施設에서 勤務할 醫師를 求하는데 日本에서 希望者가 좀체 없으니 韓國에서 누군가 支援하여 줄 醫師를 찾는다는 在沖繩 韓國領事館의 呼訴內容이었다. 웬만하면 눈에 띄이지도 않을 조그만 記事였는데 그때는 妙하게도 큼직막하게 보였다. 얼마나 醫師가 없어 괴로움을 當하고 있으면 外國領事館에서까지 神經을 써주는 것일까 生覺하였다.

마침 놀고있던 때인지라 若干 好奇心도 있었고 비록 專攻分野는 다르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便紙를 띄워 보았다. 얼마後 그 施設의 事務局長이 서울까지 찾아와서 懇請하는 바람에 일은 크게 벌어지는구나 싶었지만 現地를 한번 가 보기로 約束하였다.

沖繩県은 數百의 섬으로 이루어진 日本 最南端의 県으로서 人口는 2百萬程度인 日本에서도 汽車나 電車가 없는 唯一한 県이다. 濟州道만한 크기의 沖繩本島가 第一 큰 섬이며 그 中南部에 位置한 人口 百萬未滿의 那覇市가 縣廳所在地이다. 여기서 北으로 約 70km쯤 가면 本道 北端가까이 人口 約 5萬의 名護市가 있는데 여기에 地方有志들이 힘을 모아 1982年에 設立한 「社會福祉法人 五和會 名護療育園」이라는 心身障礙兒童을 80名 收容하는 조그만 病院이 있다.

沖繩県 自體가 日本内에서 僻地로 取扱받는데다가 또 沖繩本道の 거의 北쪽 끝에 있는 조그만 病院이고 더욱이 80名の 收容兒童은 大部分이 腦性痲痺患者들이라 스스로 손발을 움직이거나 飲食物을 삼키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지라 特殊分野 專門醫師가 아니면 興味도 느끼지 않으니 日本醫師들이 全然 勤務할 生覺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1984年 초여름의 어느날 那覇空港에 내리니 南쪽나라에 왔구나 하고 새삼 느낄만한 맑은 더운 날씨였다. 空港에서 名護市로 向하는 國道 58號線 周邊은 오른便의 나지막한 山의 눈이 부실 程度의 綠陰, 왼便의 구불구불한 西海岸에 뻗친 끝없는 푸른바다, 道路邊의 야자나무의 街路樹等 잘 調和된 異國情趣는 말로 表現할 수 없을 程度로 極致를 이루고 있었다. 2時間程度 걸려서 到着하니 名護療育園은 작은 언덕위에 있는 붉은 지붕, 흰 壁의 그리 크지도 않은 建物이 周圍의 소나무숲과 잘 어울려 마치 童話의 나라에 온것 같은 錯覺을 일으키게 한다. 안으로 들어가니 산뜻하게 느껴지는 복도와 잘 손질된 病棟이 나를 맞았으며 웃는 얼굴로 가볍게 人事하는 職員이나 티없이 맑은 表情의 園兒들을 보는것은

實로 感動的이었다. 特히 이런 長期收容施設에 흔한 지린내 등의 惡臭가 없는것은 驚異的이었다.

이런 좋은 自然環境속에 이렇게 明朗한 아이들이 生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醫師가 모자라 여러사람이 不便을 겪고 있다는 生覺에 그자리에서 一年間 勤務하기로 約束을 하였다.

서울에 돌아와서 日本 入國手續을 하는데 어찌나 複雜하고 까다로운지 一年이나 時日이 걸려 1985年 4月부터 나의 冲繩生活이 始作되었다.

## 2. 琉球王國

冲繩은 古代부터 琉球王國이라는 獨立國이었으며 日本은 勿論 中國이나 韓半島와도 交流가 頻繁하였다고 한다. 그 位置하는 地理的 特性으로 因하여 中國廣東省과의 關係가 特히 緊密하였으며 일찍부터 韓半島와의 交流關係도 여러 歷史書에 자주 나온다. 日本 德川幕府時代에 日本 鹿兒島 地方의 薩摩藩과의 關係가 깊어지면서 結局은 侵攻을 받아 琉球王朝는 무너지고 그들의 支配를 받다가 明治時代 初期에 日本이 藩을 廢止하고 県을 設置하게 됨에 따라 冲繩縣으로 行政單位가 變更되었다.

地理的으로는 日本 九州南端부터 臺灣에 이르는 긴 활 模様の 無數한 섬으로 이루어지는 亞熱帶地方에 屬하는 列島이다. 周邊 太平洋과 東支那海에는 黑潮라는 暖流가 흐르고 있어 氣候는 溫暖多濕한 便이어서 겨울의 가장 추운때가 10℃程度, 여름에도 普通 28℃程度의 海洋性氣候로 颱風의 通路로도 有名하다. 이런 關係로 日本의 하와이로도 불리며 서울과의 直航路도 생겼기 때문에 將次 韓國에서도 新婚旅行地로 人氣를 끌지 않을까 한다.

人種은 日本의 所謂 大和民族과는 若干 다르게 느껴지며 固有衣裳은 日本 옷과는 完全히 달라서 마치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옷을 보는것 같다. 땅은 척박하고 바람이 세차기 때문에 農業은 主로 高구마 사탕수수 등이 고작이어서 近世까지도 매우 가난하게 지냈다고 한다. 最近에는 과인애플, 망고 등 熱帶果樹 栽培가 旺盛하고 花草栽培도 漸次 많아지고 있다. 地理的으로 日本 本土와도 떨어져 있어서 이렇다고 내놓을만한 產業이 別로 없다. 겨우 精油工場, 시멘트工場 및 麥酒工場 등이 있을 程度다.

所謂 太平洋戰爭 以前은 매우 가난하여 高구마를 常食하며 쌀밥은 一年에 한 두번 먹을까 말까 하며 通學하는 兒童들도 거의 맨발로 지냈고 戰爭中 唯一하게 地上戰이 있어서 苦生도 많이 하였고 民間人의 犧牲者도 많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濟州道와 비슷하여 冲繩의 言語는 標準 日本語와 全然 달라서 戰爭中 各地에서 온 兵士들이 알아 들을 수 없어서 日本軍에게 스파이로 誤認되어 被殺된 일도 많다고 한다. 戰爭末期에는 우리나라가 겪은것 처럼 固有의 言語를 쓰지 못하게 하여 小學校에서도 所謂 方言(冲繩固有語)을 쓰다가 先生님에게 들키면 하루終日「方言札」이라는 木札을 목에 걸고

있게 하였다고 한다. 그들도 被壓迫民族의 悲哀를 느껴서 그런지 日本人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韓國人 蔑視도 거의없다.

### 3. 日本속의 美國

戰時中 完全히 廢墟가 되었던 沖繩戰爭이 끝난후 美軍 占領下에서 美國의 復興政策으로 말미암아 漸次 되살아 나게 되었다. 占領下에서는 貨幣도 美弗을 쓰고 日本 本土에 가려면 旅券이 必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美國經濟들에 屬한 狀態가 長期間 繼續되어 日本에 返還된 以後 現在까지도 서비스産業이 發達하는 等 美國式 消費經濟가 主導하는 狀態며 美國이나 다름없는 거리 風景을 到處에서 볼 수 있다.

沖繩에 있는 美軍基地는 東洋最大를 자랑하며 韓國戰爭에서 最近의 中東戰爭에 이르기까지 모든 支援部隊로서의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陸海空軍 및 海兵隊의 數萬兵力과 그 家族들이 居住하고 있어서 거리의 行人의 半以上이 美軍이며 일단 軍部隊에 非常히 걸리면 거리가 온통 閑散하여 질 程度다.

住民들의 食生活도 美國化되어서 거리에 넘치는 것이 스테이크하우스, 햄버거 또는 피자하우스이다. 日本에 返還된 後에도 特例法이 남아 있어서 牛肉값은 全國에서 第一이며 消費量 또한 日本中에서 으뜸이다.

第一 큰 섬이 濟州道만한 沖繩本道인지라 鐵道에 電車도 없어서 沖繩 全體가 自動車 洪水를 이루고 있다. 一世帶當 自動車 保有台數가 3~4대는 되어 出退勤이나 장보기 또는 通學 等 온통 自動車가 길에 깔려 있지만 交通規則은 比較的 잘 지켜서 秩序整然한 便이다.

美軍占領下에서는 敎員勞組를 中心으로 激烈한 反美, 本土復歸運動을 벌여 當時에는 不法化 되었던 日章旗를 앞세우고 데모가 甚하였지만 復歸되자마자 이번에는 反政府活動이 深化되어 國旗, 國歌에 對한 反對運動을 甚하게 벌여 沖繩에서는 只今에 이르기 까지도 國慶日에 官公署를 除外하면 國旗를 揭揚하는 家庭이 거의 없으며 學校 入學式 卒業式에서는 國旗揭揚 때문에 恒常 시끄러워진다. 이러한 全般的인 般政府思想은 二次大戰中에 美軍 上陸에 依한 島民의 犧牲뿐만 아니라 日章旗를 앞세운 日本軍에 依한 被殺도 數없이 많았던 것에 對한 反感에도 原因이 있는것 같다.

### 4. 沖繩와 韓國

前述한 바와 같이 古代부터 相當히 密接한 關係가 있었으나 第二次大戰中에는 많은 韓國人이 徵兵으로 參戰하였거나 徵用으로 動員 配置되어 軍勞務로서 砲彈, 食糧 等を 運搬하는 勞役に 從事하였다. 또 女性은 慰安婦로 끌려와서 가진 苦生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數字는 얼마나 되는지 確實한 것은 모르나 相當數에 이르렀다고 生覺된다. 勿論 死亡者도 많을 것이며 生存하여 故國에 돌아간 사람은 極少數라고 한다. 生存者中 一部는 그대로 沖繩에 남아있어서 沖繩人이 되어 있다고 하나 過去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事實把握은 어렵다고 한다.

沖繩本島 南端에는 摩文仁라는 海岸絶壁이 있는데 沖繩地上戰에서 막바지로 몰린 日本軍人과 民間人들이 絶壁에 있는 洞窟에서 手榴彈으로 自爆하거나 絶壁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死亡하였다고 한다. 이때 日本 各県은 제각기 다투어 自己県 出身 將兵들의 慰靈塔을 이 絶壁위에 建立하였는데 相當數 犠牲되었을 터인 韓國人의 慰靈塔은 이 축에도 끼이지 못하고 동떨어진 公園 한 구석에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那覇市에 領事館을 開設하고 있으며 在日本居留民團 沖繩県本部는 宣野漫市에 있는데 現在 居留民은 100名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現地에서 衣類商, 飲食店等 事業을 하고 있으며 本國과 貿易을 하고있는 분도 있다. 그밖에 技術研修로 短期間 거쳐가는 사람도 있고 한때는 20餘名이나 있었던 醫師는 只今은 數名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韓人教會에 가보면 때로는 200餘名이 모이는 盛況을 이룬다. 이들은 大部分 女性으로서 美軍人과 結婚한 분들이다. 從前에는 美軍과 結婚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었다. 勿論 教會에 나오지 않는 분도 100餘名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男便의 勤務地에 따라 移動하기 때문에 教會의 出席人員은 恒常 들쭉날쭉이다. 教會에서 移居간다고 人事를 하였는가 하였는데 1~2年 있으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6年이라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期間을 沖繩에서 보람있게 지냈다. 歸國할 때는 障礙兒들이 눈물을 흘리며 섭섭해 하였고 나 自身도 섭섭한 感을 禁치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不遇한 障礙兒들을 爲하여 多少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自負하기도 한다.

本人이 滯在할 當時는 航空便이 日本福岡까지 가서 日本國內線을 갈아타서 那覇까지 가는데 3時間以上 걸렸는데 1982年 4月부터는 서울에서 直接 那覇로 가는 便이 생겨서 2時間이면 갈 수 있다. 앞으로는 人的, 物的 交流가 活潑하게 이루어질 것이 期待된다. 特히 韓國에서 新婚旅行地로서는 크게 脚光을 받게 될 것으로 確信한다.

## 環境汚染

朱仁鎭(21回)

### 1. 머리말

環境汚染은 인류가 産業革命이후 약 200년에 걸쳐 이룩한 과학기술 발전의 부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G7서방공업국가들은 그간 産業公害에 시달리면서도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이란 조화된 福祉社會를 이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흥공업국가들은 불과 20~30년이란 짧은 기간에 성장위주 경제정책으로 국민경제는 월등히 향상되었으나 환경문제는



뒷전에 밀려나 오늘과 같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실 産業公害가 저지른 生態界 훼손문제가 세계적으로 여론화된 계기는 20년전 Stockholm 국제環境會議(1972)에서였다. 본 회의에서 많은 결의문이 채택되었고, 또한 UN 기구로 UNEP(United National Environmental Programme)가 창설되어 환경보존을 위한 세계적인 사업계획을 전담하기에 이르렀다.

아는바와 같이 産業公害에 못지않게 최근 베트남戰이나 걸프戰에서 보듯이 現代戰爭이 빚어내는 자연파괴는 가공할 만하다. 기름유출, 고엽제(枯葉劑), 각종 化學·生物·放射線 무기 사용으로 大氣汚染을 비롯해서 비옥한 땅과 푸른 숲을 순식간에 불모의 땅으로 황폐화시켰다.

그러므로 環境問題는 이제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인간과 푸른 자연이 더불어 사는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인 관심사로 염려되고 있는 주요 환경오염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황산화물(SO<sub>x</sub>), 질소산화물(NO<sub>x</sub>)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酸性비로 식물生態系 훼손 ;
- 탄산가스(CO<sub>2</sub>), 프레온(CFC), 메탄가스(CH<sub>4</sub>) 등으로 지구 溫室효과 오존층 파괴 ;
- 현재 약 360개 原子力발전소가 세계도처에서 가동중이나, “체르노빌” 사건같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
- 인간 癌발생원인의 60~90%가 産業有害物에서 유발됨 ;
- 産業廢棄物 투기, 기름 유출에 의한 河川, 海洋汚染 ;

이와같은 公害는 한지역 한 나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地政學的, 氣象學的 조건에 따라 인접국에도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지금은 바로 東西冷戰이 해소되어 온 인류가 平和속에서 복지사회 건설에 동참할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한국에서의 환경대책을 살펴보고, 우리 인접국가들과의 협력모색을 위해 유럽, 미주 등의 여러나라들에서 체결하고 있는 환경조약, 각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한국의 환경대책

세계적인 環境保存 중요성에 비추어 1980년 국가헌법 제33조에 국민의 환경권리, 의무사항을 삽입했다. 즉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정부기구로 환경청이 새로 발족, 1990년 環境處로 승격, 6개 지방사무소를 두어 일선 환경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 전국적인 조직체로 구성된 환경관리공단, 자원재생 공단이 환경평가, 공해방지 시설,

폐기물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 전국에 약 700개 공해 방지시설 제조업이 산재하고 있다.

法제정에 있어서도 중전의 公害防止法이 1977년 環境保全法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이웃 나라와의 환경보존협조를 위해 매년 韓日 공동환경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양국간의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1991년 서울의 국제환경회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외에 중국 몽고 소련의 3개국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東北아시아 환경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한바 있다. 아마 이것이 아시아 인접국가들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環境條約체결의 필요성을 입을 모아 역설한 최초의 학술회의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G7국가들과 같이 쾌적한 수준으로 향상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동시에 국민의 公衆衛生도덕도 혁신되어야 하겠다. 어느 나라든간에 신생국 환경문제는 주로 도시인구 집중에서 야기되는 汚物, 쓰레기 등 衛生問題에 얽혀 있다. 우리나라 上水源이 되는 河川은 産業下水, 産業汚水로 오염되고 있으며, 塵芥처리에 있어서도 대부분 원시적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源의 80%가 석탄, 석유라고 하니 SO<sub>x</sub>, NO<sub>x</sub>가스 배출에 의한 大氣汚染문제 해결은 아직도 묘연하다. 農漁村에는 아직도 원시적인 汲取便所가 많다. 고도로 産業化된 오늘날의 사회이지만 일부국민의 衛生도덕은 아직도 農耕期시대 수준으로 위생법규 반칙이 많다.

바야흐로 선진국들은 지금 Stockholm 환경회의 20주년을 맞아 금세기 최대의 UN 환경회의 개최를 준비중이다('92. 6월). 이제 환경문제가 凡지구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G7공업국가들은 이 문제를 국제무역면에 결부시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국제조약이 미가입국 또는 불이행국에 대해 무역규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 환경시설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재편성하여 국내 산업정책, 통상정책도 통합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의 수출의존형 경제정책에도 환경문제가 큰 비중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 3. 국제적 공동노력

서구인들은 일찍부터 환경보존의 국제연대 책임을 의식하여 근 20개 국제 환경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동양권에서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이 이러한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개발국에서는 이러한 국제조약에 아직 서명을 하고 있지 않다.

大氣汚染이나 海洋汚染은 한나라의 힘으로만 예방할 수 없다. 인접국가들이 노력하여 지역적으로 공동대책을 펴나가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래에 국제적인 환경조약을 소개한다.

- 1) 1909-미국, 캐나다간에 체결된 국경 공동 水資源 보호협정
- 2) 1944-미국, 멕시코간에 체결된 국경水資源 보호협정

- 3) 1972-북해연안에서 폐기물 해상투기 방지에 관한 Oslo협정
- 4) 1972-폐기물 해상투기 방지에 관한 London조약
- 5) 1974-폐기물 해상투기 방지에 관한 Paris조약
- 6) 1974-폐쇄된 해역에서의 海洋生態系 오염방지에 관한 Helsinki조약
- 7) 1975-미국, 일본간의 환경보존 협정서
- 8) 1976-地中海 오염방지에 관한 Barcelona조약
- 9) 1976-라인江의 化學有害物質 오염방지 조약
- 10) 1976-라인江 鹽化物質 오염방지 조약
- 11) 1978-걸프海역에서의 海洋汚染방지에 관한 Kuwait조약
- 12) 1979-광역지대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EEC 및 동유럽 34개국의 협정서(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명국)
- 13) 1980-미국, 캐나다 국경지대 酸性비 대책에 관한 협정서
- 14) 1981-太平洋, 東南海岸지대에서의 海洋生態系 보전에 관한 Lima협정
- 15) 1983-미국, 멕시코국경 환경보존조약
- 16) 1983-카리브海역 生態系보존에 관한 협정
- 17) 1985-東部아프리카 자연 및 野生動物 보호협정
- 18) 1987-大氣오존층 파괴에 대한 Vienna, Montreal각서
- 19) 1989-지구 溫室効果에 대한 Hague宣言

이와 같은 많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국제 환경규약을 지키려면 우선 국내 위생법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생산과정에서도 선진국에 준하는 公害防止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막대한 경제력과 기술로 과거의 산업 公害國의 오명을 벗고 지금은 지구의 환경보존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UNEPT 사업비로 500만弗을 지원하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南美 여러나라에도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원조를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일본에서 원조를 받아 인공위성을 이용하면서 열대림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중이다.

韓半島는 지정학적, 기상학적으로 東北亞 여러나라들과 환경협정을 맺어 공동 노력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大氣汚染, 海洋汚染은 방지할 수 없다. 가령 대기오염의 근본은 석탄, 석유의 연소에서 생기는 SO<sub>2</sub>, NO<sub>x</sub>, CO<sub>2</sub>가스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의 에너지源 70% 이상이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西海 백령島의 酸性비(PH 4.5~5.0)는 국내 아황산가스보다도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대기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바이칼湖畔의 러시아工業都市의 大氣汚染도 季節風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西海岸개발이나, 중국 山東省해안개발에 있어도 두 나라는 국내환경법을 보완하고 産業廢棄物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국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제 동서냉전 시대는 지나갔으며 남북화합이 성숙됨에 따라 남북간에 환경오염방지, 生態系보호에 관한 공동 관심사가 논의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냉전시대에도 유럽 라인강유역 水資源보호 협정이 체결되어 정치이념에 관계없이 동서 유럽이 공동 노력한 것은 본받을만 하다.

국제환경조약가입에 앞서 규제물질에 대한 국내 立法이 시급하다. 오존층 파괴물질(몬트리올 조약)규제 조약에 가입하려면 프레온가스(CFC)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따라서 CFC 대체물질개발이 필수적이다.

東北아시아지역은 기상학적, 지리적으로 大氣汚染, 海洋汚染방지에 있어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고 소련 등 인접국가들의 협력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협력協議체구성 추진은 남북화해와 협력이 앞장서야 가능하다. 한편 국민들의 위생도덕·공익심 함양을 위해서는 유럽의 綠色운동과 같은 국민운동이 아쉽다.

## 咸興高普 3話

韓 喬 石(21回)

### 제1話 宇垣 總督의 訓辭

1934년 초봄, 입학한지 달포가 지난 어느 날, 웬일인지 갑작스레 朝會場이 번덕을 부렸다. 어느 때의 운동장에서 본관 서쪽의 테니스 코트로 바뀌었으니까.

물을 축축히 뿌리고 깨끗이 쓸어 말쑥해진 땅바닥, 전례없이 一糸不乱한 생도들의 정렬, 굳은 표정에 자세가 꼳꼳한 선생님들, 바야흐로 심상치 않은 이벤트가 필시 벌어질 것이었다.

이윽고, 橫田峯三郎 교장이 앞장 서 壇으로 다가 오자, 웬 노인이 줄줄 뒤를 따랐다. 야윈 편의 몸에 작달막한 키, 윗수염이 희끗희끗하고 머리털이 半白인 늙은이었다. 耳目口鼻도 별것이 아니어서 이렇다 할 볼품이란 찾을 수 없었다. 아무튼, 會場은 더욱 긴장하였다.

「이 어른이 육군대장 宇垣一成 조선총독 각하이시다. 너희들에게 간곡한 훈사를 내리시기 위하여 遠路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러 본교에 왕림하셨다. 크나큰 영광으로 여기고 아무쪼록 경청하여 깊이 명심하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場內는 귀죽은 듯하였다. 삼가 下壇한 교장은 허리를 굽히고 미소를 지으며 총독의 登壇을 경건히 권하였다. 주위는 더할 나위 없이 肅然하여졌다.

「에헴, 에헴」하며 서두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宇垣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古來로 부모는 성한 자식보다 불구의 자식을 더 사랑한다. 本官이 諸君의 학교를 방문한

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그러나 이 老軀를 다시는 끌고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 또 일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폐교를 단행할 터이니 …」

시종 억압적인 어투로 띄엄띄엄 이어나갔다. 목소리는 가라앉았으나, 끝 대목에서는 힘을 주며 눈을 부릅떴다. 훈사가 아니라 협박이었다. 공갈이었다.

이 무렵까지, 威興高普 학생들은 全鮮에서 가장 세차게 항일독립투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한 학년 두 학급이 5학년에 가서는 반 학급으로도 줄었고, 殘留生들은 머저리라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였다.

## 제2話 카키 校服

마침내, 宇垣의 조선총독부는 威興高普 특별단속에 나서,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혁신하려는 양면작전을 폈다. 全鮮에서 제일 먼저, 1934년 신입생부터 교복과 교모와 각반을 검정에서 카키로 바꿨다. 시간을 늘려 교련을 강화하였고, 잦은 강연으로 세뇌공작을 벌렸다. 일일이 진술할 지면이 없어, 카키에 얽힌 에피소드 둘만 파력하겠다.

우리 組에 유급한 학생이 서너명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기가 무섭게 모자를 내동댕이치고 옷을 갈아 입었다. 외출할 때에도 몇 달동안은 위험을 무릅쓰며 旧服에 旧帽을 착용하였다. 이웃보기에 창피하기가 이만저만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유급쯤은 관찮지만, 싯누런 복장에는 질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입생의 처지는 달랐다. 처음부터 宇垣이 덮어 씌운 것이니 운명적이었다. 그래도 늘쌍 黑帽와 黑服이 부러웠다. 색깔의 格差를 절실히 느꼈다. 에누리 없이 4년간이나.

첫 방학 때 귀성길에 나는 승합자동차라는 것을 탔다. 운전석 뒤에 객석이 두 군데 있는 차이다. 이런 차는 웬만한 박물관에서도 구경할 수 없으리라. 'Henry Ford Museum'에는 없는 차가 없다지만. 여하튼, 어느 마을에서 정거하자, 난데없이 묵직한 것이 무릎을 덮쳤다. 차창으로 날아든 행낭이었다. 잠시 나는 우편배달부가 되었다. 복장으로 보아 영락 없었으니까.

## 제3話 'A Piece of Good Advice'

일본이 무조건항복을 하였다. 반도 도처에서 「해방 만세!」, 「광복 만만세!」를 부르짖었다. 38선 이남이 해방된 것은 분명하였지만, 이북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북이 그렇게 될 줄은 이북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다.

형세가 이미 기울어진 1945년 9월 말인가 10월 초순에, 은사이신 韓恂鉉 교장선생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모교에 취임하였다. 그날인지 또는 그 이튿날인지 첫 수업에서 가르친 교재의 제목이 'A Piece of Good Advice,' 그 내용도 그 책의 이름도 까마득히 까먹었다. 몇 학급인가의 한 학년 학생을 모조리 강당에 모아 놓은 기억만은 생생히 남아 있지만,

당시 영어 선생은 나 하나였으니까. 어쨌든, 나는 이 50분의 수업을 마치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내가 옥살이한 것은 나의 모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에言及을 피한다.

나는 나의 이력서에, 내가 모교에 재직한 엄연한 사실을 —여타의 경력은 언제나 고스란히 기입하였지만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다. 월급이(천만의 말씀), 일당도 시간급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물며 이북에서의 일부경력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욱 아니다. 재직기간이 고작 이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끌려가셨다. 그 경위는 묵과할 수 없다.

붉은 군대 —소련군이라는 말은 나중에 사용되었음 —주둔군 총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은 처음에 威興에서 이북을 통치하려 하였다. 「치」가 군정청사로 도청건물을 결정하고 都容浩 일당을 몰아내자, 그들은 「함경남도 집행위원회」라는 뻔뻔스러운 간판을 떼어 메고 우리의 모교에 쳐 들어 왔다. 교장실로 몰려 들어 다짜고짜 교사를 몽땅 당장에 비우라고 강박하였다. 선생님이 완강히 거절하시자 그들은 권총으로 책상을 마구 두들겼다. 그래도 굴하지 않으니, 발길질하며 선생님을 끌고 갔다. 끌려가신 곳에서 선생님은 파면을 당하셨다. 이상은 이날 밤 교장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선생님은 그날 밤 풀려나서 곧 월남하셨고, 나는 시베리아로 압송당하였다. 후일 나도 월남하였는데, 모스크바 유학생으로 몰려 金海경찰서 유치장에 두어 주일 갇힌 일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작별한지 7년만에 부산에서 선생님을 뵈고 회고담을 나눈 것이 선생님과 마지막 만남이었다.

## 잊혀지지 않는 스승 · 선배 · 학우의 말들

金禧庚(22回)

優秀한 教師와 나노라는 選拔된 學生들이 모였던 우리 母校의 한귀퉁이에 요행히 끼었던 나로서도 그때의 봄날의 안개처럼 떠오르는 追憶에 잠길때가 종종있다. 그 中에서도 몇가지를 回想해 본다.

入學式 날. 그날은 1935(昭和10)年 4月 6日이었다고 記憶된다. 나는 興南누님집에서 汽車通學을 하게되며, 새 洋服에 새 가방을 들고, 부푼 希望을 안고, 驛에 나갔다. 30分이나 지나도 와야 할 汽車가 오지않는다. 驛夫에게 물어보았더니, 汽車時間이 오늘부터 變更되어 汽車는 이미 떠났다는 것이다. 이게 웬일이냐? 당황한 나는 단숨에 ‘威興다꾸시’로 달려가서 버스를 탔다. 허둥지둥 教室로 가니, 入學式은 끝나고, 工夫를 하고 있었는데,

一學年 甲組 教室은 運動場쪽 작은 教室이었다. 先生님은 担任教師의 도장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教務室에 가니, 우리 担任은 K先生님이였다. 眼鏡너머로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되더니, 異常스러운 發音으로 “쯔마라나이”를 連發하니, 그 옆에 앉아있던 宮崎義信先生(數學)도 “스에 오소루 베시”로 맞장구친다. 나는 卓球공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시달리다가 겨우 一甲教室로 가서, 授業中の 先生님과 級友들의 集中視線을 한몸에 받으며, 12番 내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좀처럼 鎮靜되지 않았다. 그뒤로 教務室에만 가면, ‘지고꾸세이’라는 렛넬이 붙여져 이야기 거리가 된것 같다. 威興高普(威南中學) 數十年史에, 이러한 記錄(?)을 갖고 있는 者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그 後부터 數學時間만 되면, 官崎先生의 얼굴을 쳐다볼 勇氣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눅이 들어버렸으니 成績이야 물어보나마나한 일이다. 지금도 어떤 좋지못한 先入感을 가지고, 學生들을 계속 對하는 것은 좋은 指導方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橫田峰三郎 校長先生의 記憶도 지울수가 없다. 우리들의 卒業은 1940(昭和 15)年 3月 7日이었다. 農村에서 많은 食口를 거느리며, 子息을 中學卒業 시키게 되니, 父親은 그 榮光스러운 卒業式場에 꼭 參席하겠다고 버르셨다. 그런데 好事多魔라 青天霹靂 같은 일이 發生하고 말았다. 卒業 3日 앞둔 4日날 우리집은 대낮에 火災를 만나 집이 全燒해 버렸던 것이다. 卒業式은 하는둥 마는둥 치르고, 곧바로 故鄉집으로 갔다. 집이고 財産이고 몽땅 잃고, 家族은 火傷을 입고, 親戚집 작은 房에 모여 앉아 있었다. 失意에 빠진 生活이 얼마간 계속되었다. 나는 이런 狀況속에서, 無爲徒食할 수 없어, 臨時 就職이라도 할려고 學校長 推薦書 받으러 學校로 갔다. 마침 外出하려고, 玄關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시던 그는 用件을 듣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어가서 職印을 찍어주셨다. 그때의 나는 무척 고마웠다. 그 校長先生님은 겨울철에도 白雪이 쌓인 運動場을 全校生의 最先頭에 서서 달리던 모습도 떠오르는데, 率先垂範의 教育者였다고 생각한다.

永田忠先生. 九州사람이었던 그는 무뚝뚝한 편이었다. 張故峰事件때는 우리를 臨時 担任한 일도 있었다. 그는 野球部長이였고, 우리 野球部가 朝日新聞社 主催의 全國野球大會에 나가게 되었다. ‘控室’ 옆 壁칠판에 “檄”이라는 題目으로 出戰하는 南中健兒들을 應援하라는 內容의 글이 붙었는데, 午後 化學時間에 한 級友가 낮서른 이 ‘檄’字의 뜻을 그 先生에게 묻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먼 山을 쳐다보며 “지쇼오 히이때 고랑”한 마디만 딱 하고 말았다. 그때는 그 先生이 참 不親切하다고 느꼈다. 집에 와서 辭典을 찾아보니, 字明은 ‘격서격’이고 뜻은 ‘격문·비상사태 등에 널리 알려 사람들을 부추기기 위하여 쓰는 글’이라 되어 있었다. 만일 先生이 그 자리에서 뜻을 금방 가르쳐 주었다면, 아마도 곧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颱風 사라호가 스쳐간後 石窟庵에 땀을 흘리며 周圍景觀을 바라보면서 올라갔고, 그 뒤에는 車타고 올라가본 일이 있었는데, 역시 苦生은 되었으나, 같은 쪽이 훨씬 印象에 남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檄字를 말하던 때의 숨은 뜻을 體驗하는듯

하였다. 또 昨年 學生들에게, 우리나라 浮屠(僧塔)에 도깨비(鬼)가 새겨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하였다. 곧 한 女學生이 그것이 어느 浮屠인가고 묻기에, ‘찾아보렴’하였다. 그 學生은 默默地 앉아있기에 “自己 스스로 애써서 찾아내는데 즐거움이 있는거요.”하였다더니, 그는 納得이 가는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쉽게 배운것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檄’字의 教訓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탓이 아닌가 한다.

또 金載元先輩님도 있다. 金博士는 우리와는 까마득한 大先輩이시다. 그분은 周知하는 바와같이 初代 國立博物館長으로, 大韓民國 公務員으로서, 한자리에 가장 오래 勤務한 분이시다. 그의 동생벌되는 載璉君과는 南中 同期이고, 汽車通學을 같이하여, 늘 같이 놀기도 하였다. 上京後 金君은 京西中學에 在職하였고 우리는 가끔 阿峴洞 대포집에서 잔을 기울이며 金博士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1961年 서울大學校 文理大講堂(當時는 東崇洞) 講演場에서 그분을 뵈고, 佛敎美術을 工夫하고 싶다고 하니, 適任者를 紹介해 주겠다고 하며, 自己가 講義나가는 學校로 오라고 하며 時日을 말해주셨다. 그날 나가니 마치 休講日이여서 까만저프車에서 내린 그분은 名脚에 紹介狀을 써주셨다. 나는 그 教授를 찾아가 指導를 받게되었고, 지금도 交誼를 두텁게 하고 있으며, 이 分野에 關心을 持續하고 있는것도, 따지고 보면 金先輩의 善導가 나의 人生航路에서 重要한 分水嶺이 되는 契機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德壽宮內 館長室에서 貴重한 學術資料를 주시면서 激勵하셨는데, 昨年 그 冊을 複寫하여 그의 따님인 金教授에게 傳하여 報恩의 微意나마 표시할 수 있었다.

H兄. 뜻하지 않은 災難으로 靑雲의 꿈을 拋棄하였던 나는, 解放 2년째되는 해의 이른봄에 류크색크 하나 메고, 單身 38線을 넘었다. 越南한 同胞들은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당장에 糊口之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던 일이 혼장이라 敎員採用試驗을 보자니, 資格證明書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H兄을 찾아가 苦衷을 말하였다. 그는 法制處에 法務官으로 勤務하는 둘째 兄을 찾아가 相議하라고하여 가보니, 또 같은 말이 나온다. 이분은 軍政廳文教部(?)의 獎學官으로 계신 金相弼 先生님(前永生中學校長)한테로 가 보라고 하며, 名脚을 써주셨다. 金先生님은 나는 當身을 몰라요 하며, 다만 가지고간 名脚뒤에 적어있던 글옆에, “이 事實이 相違없음”이라 添記하고 捺印해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市廳에가서 接受시키려고 하였더니, 個人 名脚이 證明書 될 수는 없다고 도 拒絕이다. 나는 하루밤을 자고, 또 市廳에 가서, 試驗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하며, 接受마감 臨迫하여 많이 쌓인 願書속에다 밀어넣고, 그곳을 逃亡치다 싶이 빠져나왔다. 不安스러워서 다음날 다시 가서 물어보았더니 接受되었다는 것이다. 이젠 살았다. 나는 應試할 수 있어 敎員生活을 다시 계속하게 되었다. (後에 안 일이지만 中央圖書館과 各道廳에는 日政時官報가 있어, 敎員試驗合格者名單도 있음을 알았다. 證明書發給을 받아 이 問題는 시원히 解決되었다). 身辺이 조금 安定되니 夜間大學이라도 나가 工夫하고



싫어졌다. 막상 다니게 되니 登錄金이 없었다. 또 H兄한테 갔더니 東西軒町(지금의 장忠洞)兄님宅에 가라고 하기에 갔었는데 군말없이 마련해 주었다. 月給을 타게 되어 당장에 그 돈을 갚으로 갚으나, H兄은 완강히 받기를 拒絶하여 오늘날까지도 返濟를 못하고 있다. 그後 살기에 바빠 H兄을 한번도 편히 모시지 못하였다. 蚕室APT에 사실때는 連絡이 되었는데, 요사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셨는지 消息이 끊어져 안타깝기만 하다.

朴聖煥 學友. 新昌이 故鄉인 朴君은, 글 재주도 話術도 좋고, 친구 좋아하는 級友였다. 上京後 일자리를 求하기 위하여 京鄉新聞社 記者(後에 朝鮮日報社會部長 지냄)였던 朴君을 찾아갔다. 하루가 급한 나는 딱한 내 事情을 呼訴하였다. 그는 ‘남의 앞에서 同情을 바라는 것 같은 弱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切迫한 處地에 있어,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갔을 것이다. 지금도 그의 忠告는 나의 窠臼을 울리는 듯하다.

이렇게 괴롭게 入學하여 쓸쓸히 卒業을 하였다. 즐거웠던 일보다도 괴로웠던 追憶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자랑스럽지도 못한 지난날을 글로 담으니,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라도 살아나가는 것은, 威興高普에 다닌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큰 福이 아닐 수 없다.

머리에 銀빛이 더해가는 요즘, 괴로웠던 일이나 즐거웠던 일들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름다운 追憶으로 떠오르니, 時間이 모두를 濾過해준 탓이라고나 할까.

이젠 ‘威興高普(威南中學)’란 말만 들어도 無限히 그리워지기만 한다.

## 回 想

### 金 瑛 河(23回)

1990年度 威興高普 總同窓會가 世宗호텔에서 열렸다. 이런 豪華(?) 同窓會는 처음인 것 같다. 나는 부랴부랴 開會時間에 臨迫해서 到着했다. 接受處에서 接受를 하려고 하는데 接受일을 보고 있던 막내둥이(?) 同窓 한 분이「그 前에 釜山에 계셨지요?」하고 물었다. 다그쳐서「15陸軍病院에 계셨지요?」했다. 記憶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自信滿滿(?)한 態度였다. 病院에 있었다는 것은 入院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勿論 6.25事變 때 이야기이다.

나는 40年前 옛날로 돌아간다. 1950年 12月末頃의 어느날이었다. 륙작(배낭) 하나를 짊어지고「어머니 來年 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하고 집을 떠난 것이 이제 於焉 40년이 지났다. 아마 12月 26日 쯤 되는 날인가 보다. 12月 25日 以南放送에서「38線以北엔 UN軍, 國軍이 한 사람도 없다. 今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膳物이 이번 後退이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집을 떠났으니 말이다.

나는 그때 江原道 通川郡 庫底邑에 있었다. 庫底에는 해금강의 하나인 叢石亭이라는 景勝地가 있다. 庫底하늘 위를 元山쪽을 向해 그렇게도 즐기치게 날아가던 大型輸送機가 結局은 後退作戰에 바빴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失望을 禁할 수 없었다.

「市民여러분 安心하십시오. 市民여러분 安心하십시오.」 한참 音樂소리가 흘러나오다가 다시 「市民여러분 安心하십시오.」하고 되풀이 하던 서울이 人民軍에게 떨어지던 날(6. 27)의 안타깝던 以南放送, 國軍이 入城하던 날 온마을 住民이 길가에 사과를 쌓아 놓고 國軍에게 안겨주면서 感激의 눈물을 흘렸던 일, 그리고 國軍이 北으로 進軍하는 뒤를 쫓아 金策인가가 指揮한다는 敗戰人民軍大部隊가 太白山을 따라 올라오다가 庫底海邊에 陣을 치고 있던 UN軍과 부딪쳤는지 庫底邑內는 불바다가 되고 艦砲射擊의 砲彈이 海邊에서 5리도 넘는 學校近傍에 떨어져 防空壕속에서 지냈던 1週日間, 그리고 얼마 안 있어 中共軍이 나와서 國軍이 後退한다는 말이 있더니, 그렇게 즐기치게 날아가던 大型輸送機의 움직임도 보람없이 이제 38線以北에는 UN軍, 國軍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니... 참 어차구니 없는 일이었다.

나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다. 南으로 가야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나, 길가에는 元山쪽에서 治安일을 보던 自衛隊員들인지 하는 사람들이 太極旗를 단 총을 메고, 그것이 무슨 所用이 있다고, 아니 그것을 달고 安心했는지 모르지만, 隊列을 짓고 南으로 向해 오다가 飛行機 機銃掃射를 當하고 피투성이가 된채 누워있는 慘狀을 目擊도 했는데, 大体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그무렵 나는 그곳 高級中學校의 教師로 있었는데, 國軍 進軍後 學生들은 自衛隊와 青年團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學生을 찾았다. 그때는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덜때 었으니까. 나는 그 학생의 案内를 받고 금란이라는 海邊마을로 갔다. 배를 타려고 아우성들이다. 나는 요행히 그 學生 덕분에 조그만 木船에 몇 사람과 함께 올라 탈 수 있었다. 그때가 저녁때였나보다. 그런데 그 學生이 누구인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배는 돛을 달고 떠났다. 바람이 불지 않았던지 밤새도록 갔다는 것이 고작 떠난 곳에서 얼마되지 않는 長箭이란 곳에 새벽녘에 도착했다. 한 60리 가량 되는지 모르겠다. 날이 밝으면서 썩썩이가 뜨기 시작했다. 잘못하면 機銃掃射를 받을지 모른다. 우리는 얼른 浦口에 배를 대었다. 어디서인가 國軍이 나타났다. 에이치, 아이, 디(防諜隊?) 라고 한다. 배를 내어 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는 배를 내어 주었다.

나는 그때부터 一行과 함께 東海岸길을 南으로 南으로 걸었다. 飛行機가 뜨면 길가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 運이 나쁘면 人民軍 敗殘兵한테 붙잡힐 수도 있고, 동네 빨갱이들한테 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전전공공하면서 걸었다.

길가에 있는 집들은 빈집같았다. 어느 빈집에 들러서 하룻밤을 지냈는지 어쩐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얼마큼 걸었는지도 모

르겠다. 어쨌든 밤길을 걷고 있노라니까 저 멀리 하늘이 온통 불빛으로 밝아온다. 여태 北에선 밤에 밝은 불을 켤 수 없었는데... 어느새 그 불빛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곳이 아마 속초로 들어가는 入口였는지 모르겠다. 國軍들이 몸 檢索을 했다. 이제 暗黑의 世界에서 光明의 世界로 왔구나 하는 安堵感이 들었다.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몰라도 썩었더라도 自由世界萬歲를 외쳤다.

감감한 밤이 온통 불빛으로 밝다. 電燈 불빛이 아니라, 數많은 避難民들의 무리가 廣場에서 蠟燭을 켜고 있었다. 나무토막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自由世界萬歲를 또 불렀다.

다음날인지 어느날인지 모르겠는데, 數많은 避難民들의 행렬이 南으로 南으로 또 흘러간다. 나도 그 行列속에 끼어서 걷고 있었다. 勿論 國軍들도 南으로 南으로 轎車, 트럭들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다.

江陵市街에서 인지 모르겠다. 國軍將校 中尉인지 大尉인지 하는 軍人과 마주쳤다. 威興高普 同期同窓 趙有衡이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다. 車를 타라고 한다. 스리쿼타인가하는 트럭이었다. 自己는 運轉席에 탔고 나는 뒤쪽 짐싯는 곳에 많은 軍人들과 같이 빽빽이 섞여서 탔다. 눈이,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까지 여러사람들과 같이 걸어 왔는데 그들을 돌볼 계제가 못되었다. 나만 혼자 타라는 것이었다. 그들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얼마를 달렸는지 모르겠다. 어둠이 깔려온다. 그때 푸른 바다를 바라본다는 浪漫이란 있을 수 없다. 가끔 왼쪽에 깊은 벼랑을 끼고 車가 달린다. 많은 軍用車들이 줄을 잇고 달린다.

어느벼랑을 끼고 달리고 있을 때였다. 이제 날은 어두워 감감한 밤이었다. 다만 自動車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이리저리 비쭈 따름이다. 나는 한 瞬間 앗차하는 것을 느꼈을뿐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車가 벼랑에서 굴러 것이다.

내가 意識을 찾은 것은 그 다음날 날이 흰히 밝은 아침이었다. 나는 다른 트럭에 옮겨 실려서 달리고 있었다. 民間人이지만 軍人車를 타고 있었으니까. 다른 負傷兵과 함께 옮겨 실려던 것이다. 다리가 아파온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나는 나를 태워준 내 친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죽었다는 것이다. 6名이 죽었다고 한다. 죽었다고! 6名이나 죽었다고! 친구는 죽고, 나는 살고, 生과 死의 갈림길, 瞬間과 永遠의 交叉點, 그後 몇 十年의 내 삶은, 덩으로 사는 人生일 것이었다. 事故地點은 묵호 근방이었다. 負傷兵을 실은 트럭은 길가에 있는 어느 民家 앞에 서더니 우리를 내려 놓았다. 몇 時間동안 그 民家에 누워있었다. 野戰病院이라는 곳이었다. 그러나 傷處를 治療 받았거나 하는 記憶은 전혀 나지 않는다. 나는 오른쪽 발목 위의 큰뼈, 작은뼈가 몽땅 부러진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우리는 다시 트럭에 실려서 南쪽으로 옮겨졌다. 患者만 後退하는 것이 아니라 軍全体가 南으로 南으로 後退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눈은 펄펄 쏟아지고, 숨막히는 瞬間들이 흘러갔다. 中間에 즐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느 큰 배칸에 몇줄로 가마니를 펴고 負傷兵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속에 누워 있었다. LST라고 했다. 나란히 누워 있는 負傷兵들의 줄과 줄사이가 通路로 되어 있었는데 많은 民間인들이 짐작을 지고 메고 그 通路를 오가고 있었다. 軍用物資를 실어 올리는지 실어 내리는지 모르겠다. 그 民間人들은 避難民들로서 雇用되어 일하고 있는 것같았다. 그 한 사람이 나를 發見하고 先生님 하고 부른다. 내가 擔任한 高級中學校 3學年 學生이었다. 그 後 들은 이야기인데 그 學生이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죽은 사람으로 되어있었다. 이래저래 나는 덤으로 사는 人生으로 되어 있었나보다. 그러니 오래 살기 마련이다. 그배가 떠있던 港口는 竹邊이었다.

며칠이나 그 港口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다. 얼마後에 到着한 곳이 釜山 15陸軍病院이었다. 到着하자마자 복도에서 各自의 身元, 即 所屬部隊를 밝혀야 했다. 나는 내 親旧가 속해 있던 ○○通信隊 軍屬이라고 둘러대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1年 가까운 定員外 食客으로서의 陸軍病院生活이 始作되었다. 負傷兵은 나날이 밀려들어서 大滿員이었다. 나는 多幸히 初期에 入院하여 5, 6名의 士兵들과 함께 한 病室에서 寢狀生活을 할 수 있었다. 나중에 들어온 負傷兵들은 복도에서 担架에 실린 채 지내야만 했다.

내가 누워있던 病室에는 學徒兵 出身이라는 17, 8세 되는 少年兵이 있었고, 30세가 좀 지나 보이는 UN軍 出身이라고 하며 늘 구수한 이야기를 잘 하던 늙은(?) 軍人도 있었고, 한쪽 다리를 切斷하고 외발로 깡충깡충 웃는 얼굴로 뛰어 다니면서도 上士라고 으시대어서 그랬는지 미움을 사는 軍人이 있었는가 하면, 목에 구멍을 뚫고 흰 가아제로 목을 덮고 말한마디 못하는 온순한 軍인도 있었다. 눈을 다쳐 양쪽눈 모두 視力을 잃고는 말끝마다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軍人도 있었다.

나는 右側발목 큰뼈 작은뼈 둘다 부러졌는데 깁스도 못하고 副木을 대고 붕대를 감고는 끈으로 침대 兩쪽 가에 잡아매서 발목을 위로 세워 놓고 있었다. 자고 나면 잡아 매었던 발목이 풀어져서 거들 거들 놀곤 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는 失意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이가 많은 UN軍 出身이라는 軍人은 나를 보고 다리를 切斷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同情어린 목소리로 助言(?) 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몇 週인지 몇 달인지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내 동생과 내 父親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내 同生은 咸興高普 2年 後輩인데 解放前에는 上級學校 進學을 못했다가 解放이 되자 얼씨구나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大 豫科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데리고 있어야만 했다. 그리고는 「무거운 짐,

너무나 무거운 짐, 혼자 짊어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하고 父親에 처한 不平을 늘어 놓고 투덜거렸다. 父親은 늘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집에는 거의 계시지 않았다. 解放後 元山에서 以北 江原道廳일을 보시다가 初期에 서울로 올라 가셨다. 6.25事變後 國軍進軍과 더불어 內務部에서 派遣되었다는 通川郡 行政要員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와 父親이 內務部에 계시다는 말을 해서 父親이 內務部에 계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몇번인가 病院에서 外出하는 분에게 부탁해서 同生과 父親에게 葉書を 보냈다. 勿論 受信住所가 不分明한 것이 제대로 配達될 理도 없었고, 도대체 그무렵에 郵便物 往來가 可能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때 政府가 釜山에 있었는지 大邱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중에 알았지만 內務部는 15陸軍病院에서 2, 30미터 밖에 안되는 距離에 있었다. 慶南道廳舍를 빌려쓰고 있었다. 住所를 內務部라고만 쓰고 父親에게 葉書を 내었으나 到着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서울에서 避難은 學校가 어디에 校舍가 있어서 授業을 하겠느냐고 생각하면서도 住所를 서울大學校化學科라고만 쓰고 葉書を 내었다. 勿論 配達될 리 없었다.

이렇게 하여 아픔과 실의와 외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이런 속에서도 溫情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方이라고 하는 女看護員이 있었다. 公州師範學校 卒業班이라고 했다. 日本女性처럼 매우 상냥했다. 病院患者들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 女看護員한테 내가 매우 불쌍해 보였던 모양이다. 치약과 치솔을 갖다 주기도 하고 다른 軍人앞으로 나온 注射藥을 나에게 注射 봐 주기도 했다. 그 軍人은 집에서 藥을 가져다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1年 4月 어느날인가보다. 그 女看護員이 外出한다고 했다. 아저씨 되는 분이 遞信部에 계신다고 했다. 內務部에 계신 우리 父親을 찾아 달라고 하며 父親 앞으로 편지를 써서 주었다. 이 便紙가 傳達되었던 것이다.

다음날 日記의 한 句節을 여기에 적어 본다. 「어제부터 다리를 잡아 맨 붓대를 풀어 버렸다 … 午後 毛布속에서 잠들어 버렸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난다. 女看護員이 오지 않았을까? 나는 毛布자락을 제치고 머리를 들고 出入門쪽을 바라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꿈이 아닌가? 父親이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불렀다. 어린 아이처럼 불렀다. 그리고 울었다. 그렇게 찾고 싶었던 父親,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던 父親, 벌써 몇年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父親, 더우기 지금 나에게 神以上인 父親, 이제 父親을 찾았구나. 갑자기 하늘이 밝아진 것 같다. 父親을 찾았다. 집을 버리고 다니시던 父親이 아니다. 나와 同生을 버리고 다니시던 父親이 아니다. 내 젊음을 빼앗아간 父親이 아니다. 내 배움의 길을 빼앗아 버린 父親이 아니다. 항상 怨望의 対象이었던 父親이 아니다. 神以上の 힘을 가진 父親을 慈愛에 넘친 父親을 찾은 것이다. 하염없이 울었다.

“울기는 왜 울어. 울지 말아라” 아픈 다리가 놓여 있는 침대가에 다가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이 짧은 말씀에는 無限한 사랑이 고여 있었다 … 그러나 父親인들 내 다리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또 다시 샘솟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父親은 毛巾자락을 들고 비틀어진 내 다리를 들여다 보신다. 慈愛에 넘친 얼굴이다 …」

다음날 동생이 찾아왔다. 늙름해 보였다. 반가웠던 것은 더할나위가 없었다. 그러나 同生도 事變으로 因한 傷處가 깊었었다. 人生觀이 바뀌었다고 한다. 工夫를 繼續할 생각이 없어졌다고 한다. 어느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서글펐다. 그後 同生은 每日 찾아왔다. 冊도 가져오고 藥도 가져왔다. 당시 오일페니시링이 처음 나왔을 때이니까 쇼크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오일페니시링 注射를 맞았는지 모른다. 父親이 病院長을 찾고 病棟長을 찾았다. X레이寫眞을 찍고 깁스를 하였다. 그때부터는 다리가 거들거들 놀지 않았다. 切斷도 하지 않았다. 그때 X레이 科長이 孫大尉하고 하는 通川사람이었다. 많은 신세를 졌다.

이무렵인 모양이다. 글 첫머리에 쓴 막내둥이 同窓과 이 病院에서 만난것—나는 全혀 記憶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後輩는 40年前에 본 내 얼굴을 어떻게 記憶하는지 神奇하기 짝이 없었다. 余興이 한참일무렵 그 後輩는 23回 테이블을 찾아왔다 名脚을 한장 달라고 했다. 韓國經濟新聞 編輯委員 金明哲, 31回라고 한다.

그 後 우리는 자주 만난다. 만나서 술을 나눈다. 解放直後 威興高級中學 教鞭을 잡았던 24回 韓時坤 先生하고도 함께 만난다. 金明哲氏 紹介로 29回 鄭哲周氏하고도 함께 만난다. 술기운 때문인지 모르지만 人生이 그렇게 슬프기만 한 것 같지는 않다.

以北에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時節의 넋두리 하나.

수탉 한 마리

암탉 두 마리

마루에 올라와 골골

목을 기웃거리며 골골

모이를 달라고 골골

닭들아

모이가 무슨 모이나.

사람도 굶는데

좀 참아 주면 어떠하나.

15陸軍病院에서 退院한 後 同生이 勤務하는 釜山의 어느 中學校 宿直室에서 同生の 食客으로 起居하고 있을때의 넋두리 하나.

동생과 들어서  
뒷산에 올랐다.

자동차가 빵— 먼지를 날리고  
기차가 뛰— 연기를 뿌리고  
지금 저 아래는  
간책과 아침의 난무장이어라.

그러나 이곳  
아이들 연 띄우기에 여념이 없고  
메뚜기 한 마리 계절을 잊고 즐고 있는 언덕  
여기는 먼지도 연기도 오르지 못하누나.

그래 동생아 들어서  
영영 이곳에서만 살자꾸나.

## 8·15에서 6·25에 이르기까지의 回想

朴 昌 均(23回)

光復節을 맞이할 때마다 過去之事が 새삼 떠올라 1945年 8月 15日 當時의 狀況을 回想코저한다. 나는 當時 平安北道 龜城郡 銀谷鑛山에서 勤務하고 있었다. 銀谷鑛山은 日室鑛業株式會社 傘下鑛山으로서 特殊鑛物인 『단다리움(Nb Ta)<sub>2</sub>O<sub>5</sub>』를 生産하고 있었다.

此鑛物은 稀有元素鑛物로 戰時에 必要한 特殊鋼合金用으로 使用되고 있었다. 特殊鋼은 主로 砲身 탱크 軍艦製作에 쓰여진다.

當時 鑛山의 人員狀況을 보면 日人職員이 11名 韓國人 職員이 4名 韓國人 勞務者가 約 100名 其他 教導所罪囚가 約 300名이었다. 鑛山施設이 끝나고 操業이 本軌道에 이르러서는 罪囚들은 他處로 移動하고 會社職員과 勞務員만 勤務하고 있었다.

解放이 가까와지자 日人들의 勤務狀態는 말이 아니었다. 아침에 宿所를 出發하여 500高地고개를 넘어 約 40分後에 採鑛現場에 到着하여 職員들은 各者 勞務員의 人員配置를 끝내고 事務室에 모여 라디오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日人職員들은 終日 事務室에서 담배(長壽煙)를 가지고 卷煙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中 8月 15日 正午에 日皇의 重大發表가 있다하여 全職員이 事務室에 모여 重大發表를 듣게 되었다. 마침내 日本은 1945年 8月 15日 無條件 降伏하였다. 그러자 日人들은 全部 下山하여 事務室에서 책상을 整理하고 宿所로 돌아갔다. 우리 韓國人들은 現場에 모여 驚愕과 興奮을 禁치 못하며 鳩首會議을 하였다. 下山하여 鑛山事務室에서 全體會議을 開催하고 警備員을 選出하여 日人들을 合宿所에 集合시키고 警備하기로 하고 解散하였다.

그 다음날 밤 10時頃에 우리 鑛山勞務員社宅에 隣接鑛山 사람들이 襲擊하여 家財器物들을 略奪하여 가지고 새벽 1時頃에 逃走하였다.

勞務員 社宅은 職員社宅에서 500高地를 넘어 採鑛場 近處에 있음으로 通信 施設이 없는 當時로서는 逃走한 後에 連絡을 받고 날이 밝아서 約 60名 動員하여 닥치는대로 싸울 器具를 들고 10리나 되는 이웃 鑛山에 報復하러 가보니 사람은 全部 避하고 없으므로 집안의 物件들을 쑥밭을 만들어 놓고 全員 트럭을 타고 歸所하였다.

이웃 鑛山에서 우리 鑛山(銀谷鑛山)이 恒常 부러웠던 나머지 解放이 되어 無法天地가 되니 報復하였던 것이다. 다음 날에는 日軍敗殘兵들이 鑛山에 쳐들어 온다하여 婦女子와 老弱者는 食糧과 寢具를 가지고 山골짜기로 避難가고 壯丁들은 全員 約 60名이 集結하여 싸울 器具를 들고 警備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 侵攻이 없이 2~3日지났다. 알고보니 日軍敗殘兵들의 流言蜚語였다.

그러던中 8月 25日頃 소련軍將校가 通譯과 함께 入山하여 鑛山을 돌아보고 앞으로 指示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離山하였다.

其後 人民委員會가 組織되고 그 指令에 따라 鑛山도 運營할 準備를 하였다. 日人들은 其後 家族과 함께 約 30名이 1個月이나 머물다가 平壤으로 移送되었다.

나는 10月 15日頃 鑛山을 退職하고 歸鄉길에 올랐다. 鑛山에서 10리나 떨어진 白雲驛에 고리짝을 지고 徒步로 驛에 到着하고 보니 驛長이 韓國사람임을 보고 비로서 解放이 되었다는 것을 實感하였다. 車票를 사가지고 2時間이나 延着된 汽車를 탔다. 소련軍들이 鴨綠江水力發電所의 機械들을 소련으로 搬出해가는 作業이 한창이었다. 그래서 汽車가 定한 時間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소련軍의 命令대로 運行하는 關係로 1日이나 2日間 延着되는 것은 普通이었다. 사람도 無蓋車에 機械실은 짬에 끼워서 타고 가야만 하였다.

定州에 到着하여 汽車를 바꿔타고 平壤까지는 쉽게 왔는데 이제부터 큰 苦生이었다.

平壤驛에서는 손님을 取扱하지 않고 西平壤驛으로 가라는 案内員의 말에 따라 짐을 리어카에 싣고 짐꾼을 앞세우고 西平壤驛에 와서 平元線 咸興行 汽車를 타게 되었다.



無蓋車에 機械를 실은 잠에 타고 勝湖里까지 와서 來日 간다는 것이었다. 소련軍의 機械撤收車가 平元線 咸鏡線을 通하여 소련으로 北行하는 關係때문이다.

때는 10月 15日頃이어서 밤에는 相當히 추웠다. 感氣에 걸려 할 수 없이 旅人宿에 들러 冷房에서 溫水물통을 얻어서 그것을 끼고 자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긴장한 탓인지 感氣가 떨어져서 기분이 爽快하였다. 다시 汽車를 타고 그날 午後에 出發하여 途中에 여러번 밤새워 가면서 그럭저럭 苦生끝에 5日만에 咸興에 到着하여 그림던 집에 오게 되었다.至今 나이 70歲에 그 때 일을 回想하니 感慨無量할 뿐이다. 南北統一이 되어 다시 以北故鄉을 갈 때에는 쉽고 平安하게 가기를 바랄 따름이다.

咸南咸州郡州北面 長興里 故鄉집에서 家事를 돕다가 同年(1945年) 11月 3日에 結婚하고 12月에는 解放前에 勤務하던 興南製鍊所(一年後 鑛山에 轉勤)에 다시 就職하여 日本人 技術者와 함께 勤務하여 電鍊技術을 習得하였다. 그러던중 日人들은 歸國하고 우리 韓國人끼리 諸般問題를 解決하여 나갔다. 當時勤務場所와 職位는 興南製鍊工場電鍊課技師였다. 日政時代 電鍊課에는 全員 日本人만 從事하던 重要な 직장이었다. 이리하여 每日 出勤하여 熱心히 勤務하던중 1950年 6月 5日 2週間の 金剛山 休暇旅行을 떠나게 되었다. 製鍊工場에서는 4名이 가게 되었다.

名山中의 名山인 金剛山을 觀光한다는 들뜬 마음으로 背囊에 사과를 많이 넣어 가지고 興南驛으로 갔다. 驛에서 一行과 함께 外金剛行 汽車에 올랐다. 車中에서 各者가 가지고 온 사과, 떡, 菓子, 등을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汽車旅行을 滿喫하였다.

外金剛驛이 가까워지자 第一먼저 눈에 들어오는 車窓의 景致는 奇岩怪石이 櫛比한 山連峰이었다. 至今까지도 印象에 남는 것은 독수리바위이며 큰 독수리가 바위위에 앉아 한가로히 쉬고 있는듯 하였다.

午後 3時頃에 外金剛驛에 到着하였으나 비가 많이 쏟아짐으로 目的地는 內金剛인데 할 수 없이 外金剛에서 이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溫泉에서 沐浴하고 저녁 食事を 마친 다음 밤거리를 一行과 함께 돌아다녀 보았다. 各種 紀念品商店이 櫛比하게 늘어섰으며 마침 댄스홀이 눈에 띄므로 들어가 보았더니 젊은 男女들이 한참 社交춤에 熱을 올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트럭을 타고 迂迴道路를 거쳐 內金剛에 到着하였다. 宿所를 配置받아 旅裝을 풀고 沐浴하고 身體檢査를 받은 다음 講堂에 全員(100名)이 集合하여 休養所生活에 對한 遵守事項 說明을 듣고 2週間の 金剛山 休養所生活에 들어갔다.

宿所는 한 房에 두 사람이 合宿하였고 말끔한 衛生服을 입은 젊은 女子案内員이 配置되었으며 房도 깨끗이 淸掃되어 있고 寢具도 자주 日光消毒을 하여 매우 衛生的이었다. 食事 메뉴는 每日 달랐으며 칼로리를 계산하여 食事を 提供하고 있었다. 저녁에는 2日間隔으로 소련映畫를 上映하여 觀覽토록 하였다. 映畫는 돌꽃(石花)이라는 天然色 映畫도 있었고 주로 黑白 戰爭映畫였다. 집에서 가지고 온 먹다 남은 사과를 壁櫥속에 넣어 두었더니

房에서 사과 香氣가 풍겨서 氣分이 좋았다. 女子案内員이 와서 무슨 香氣냐고 물어 사과 香氣라고 하였더니 좀 달라하기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아침에는 6시에 起床하여 洗面하고 運動場에 集合하여 基本 體操를 하고 8시까지 食事を 마치고 9시부터 案内員을 따라 10명씩 1組가 되어 內金剛의 各 名勝地를 求景하였다. 이것이 休養所 生活의 日課였다.

金剛山은 어느 溪谷을 가든지 흙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바위와 자갈뿐이고 모래도 별로 없었다. 냇물은 이끼 하나없이 맑았고 깨끗하였다. 宿所 近處에는 아름드리 잣나무가 울창하여 다람쥐가 많이 棲息하고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記憶에 남는것은 面鏡臺와 將軍峰이었다. 面鏡臺에 가보니 흐르던 시냇물이 잔잔한 湖水가 되어 한쪽으로 넘쳐 흘러가고 있었으며 前面에는 네모진 큰바위가 평평한 面을 湖水를 향하여 우뚝 서 있어 마치 큰 거울을 세워 놓은 것 같았으며 더구나 잔잔한 湖水에 얼굴을 비치면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鮮明하게 비쳤다. 이름 그대로 果然 面鏡臺였다. 마침 옛날 時調가 生覺나서 1首 적어본다.

頭流山 兩端水を 내 듣고 이제보니

桃花 뜬 맑은 물에 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武陵이 어대뇨 나는 연가 하노라

다음날에는 將軍峰으로 向하였다. 가는 途中에 날다람쥐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고 있었으며 길가에는 毒蛇가 눈에 띄어 操心하여 길을 걸어가야 하였다. 頂上에 오르는 길은 相當히 險하여 기어오를 때도 여러번 있었다. 頂上에 올라와보니 3坪 程度의 平平한 모래바닥이 있었고 數十年 以上 되는 소나무가 여러그루 바위틈에 서 있었다. 四方을 둘러보니 그 地帶에서 第一 높은 봉우리여서 數多한 岩峰들이 將軍峰을 向하여 堵列하고 있어 마치 百萬大軍이 將軍의 重大한 命을 듣고 있는 듯 하였다. 將軍峰이라는 이름도 이 때문에 부쳐진 것이 아닌가 하였다.

內金剛 休養所에서 休暇生活을 마치고 6月 17일에 老弱者는 自動車로 外金剛까지 가고 希望者(約半數)만 各者 먹을 食糧(白米)을 지고 金剛山 頂上인 毘盧峰을 向하여 일찍 出發하였다. 第一 먼저 當到한 곳은 長安寺였다. 境內를 暫時 求景하고 나와서 寺刹周圍를 보니 아름드리 잣나무가 뻗뻗이 들어서서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절앞에서 잣을 팔기에 한되를 사가지고 前日에 산 꿀과 함께 紀念으로 집에 가지고 왔다. 內金剛의 名物은 잣과 土種꿀이었다. 點心때가 되어 溪谷에 술을 걸고 點心을 지어먹고 休息을 取한後 다시 出發하였다. 가는 途中에 庵子와 石佛彫刻이 여러군데 있었으며 또 神仙바위의 5坪程度되는 平平한 바닥에는 바둑판이 새겨져 있었다. 頂上에 오르는 막바지 길은 60°程度의 傾斜가진 段階式 길이었으며 全體적으로 잘다듬어져 있었다. 午後 5時頃에 毘盧峰 頂上에 到着하였다. 1,638m高地에 올라서니 全身에 흐르던 땀이 쑥 들어가고 寒氣마저 느껴져 옷을

더 껴입어야 하였다. 자작나무 原木 그대로 지은 日政때 山莊에 旅裝을 풀고 山頂景致를 求景하고자 四方을 散策하였다. 各種 樹木들과 高地帶 植物이 자라는 그대로 強風과 찬 기운에 시달리면서 땅을 기어가며 자랐으며 百年以上되는 잣나무가 높히 자라지 못하고 땅에 누워서 길게 成長하고 있었다. 藥水터가 있어 물을 마시니 차가워서 마치 氷水를 마시는 듯하였다. 山莊에서 一泊하고 아침 일찍 起床하여 東海의 日出을 보고저 頂上에 올라가니 雲海로 因하여 볼 수가 없었다. 아침 食事を 끝내고 一行은 外金剛을 行하여 出發하였다. 가는 途中에 麻衣太子墓가 있어 仔細히 보니 封墳크기는 一般庶民墓와 비슷하였으며 碑石도 없이 四角木柱에 麻衣太子墓라고 뚜렷이 적혀 있었다. 新羅의 마지막 太子의 墓가 이렇게 초라할 줄은 참으로 想像밖이었다.

案内員이 引導하는 길을 따라 우리 一行은 繼續前進하였다. 마침내 줄사다리를 타고 한참 내려가니 바로 有名한 九龍淵에 到着하였다. 昆盧峰에서 始發하여 흐르든 물이 各支流를 따라 흐르다가 습쳐서 九龍淵이 되어 큰 냇물을 形成하였다. 昆盧峰에서 九龍淵까지 約 5時間 所要되었다. 九龍淵 上層에는 八堂이 있어 九龍이 各湖水마다 棲息하였다는 傳說이 있다. 瀑布水의 壯觀을 바라보면서 休憩所에서 間食을 먹으면서 出發하였다. 途中에 新溪寺를 둘러보고 저녁늦게 外金剛宿所에 到着하여 自動車로 一行과 合流하였다. 金剛山 寺刹들은 그다지 큰 規模는 아니었다.

이튿날 19日아침 外金剛驛에서 興南行 汽車를 탔다. 列車는 驛마다 30分以上씩 延着되어 元山에는 午後늦게 到着하였다. 延着理由는 南行列車마다 野砲를 실은 軍用트럭이나 裝甲車 등의 武器를 滿載하고 있었으며 有蓋車에는 軍人和 軍馬를 滿載하여 南으로 輸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一般 客車는 元山 以北으로는 잠시 갈 수 없다하여 不得已 元山에서 자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는 北靑방통工場支配人이 酒宴을 베풀어 잘 먹었다.

翌日 驛에 함께 가서 汽車事情을 물어보니 午後 2時에 出發한다고 한다. 繼續하여 軍人和 武器는 三八線을 향하여 輸送되고 있었다. 그래서 三八線에 큰 衝突이 發生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午後 2時에 列車를 타고 興南驛에 늦게 到着하였다. 歸家하니 비로서 安堵感을 느꼈다.

이리하여 金剛山 觀光을 끝마치고 다음날부터 製鍊工場에 出勤하게 되었고 勤務하여 불과 닷새가 지나 6月 25日 아침 出勤하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한길에 나갔더니 壁報가 附着되어 읽어보니 南韓國防軍이 새벽 4時 三八線을 突破하여 20리나 北으로 進擊한 것을 人民軍이 反擊하여 擊退시키고 現在 三八線을 突破 南進中이라는 것이었다. 同族相爭의 南北戰爭이 勃發한 것이다. 製鍊工場에 到着하고 보니 各處에 同一한 壁報가 附着되어 있었다. 6·25戰爭은 金剛山旅行을 마치고 歸行列車에서 본 武器輸送과 關聯이 깊다는 것을 새삼 生覺하게 되었다.

7月初旬부터 艦載機가 날아와서 자주 機銃掃射를 하였다. 7月 19日에는 連浦飛行場을

爆撃하였다. 製鍊工場 뒷산 頂上에서 能히 目撃할 수 있었다. 8月 1日에는 12種의 原料로 90種以上の 製品을 生産하는 有名한 東洋 第一의 興南肥料工場을 爆撃하고 8月 30日에는 내가 勤務하는 興南製鍊工場도 爆撃을 當하였다.

貴重한 國家財産이 目前에서 燒失되는 것을 바라보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었다.

나는 當時 空襲사이렌이 나자 同僚들과 함께 製鍊工場 뒷산에 設置한 地下防空壕에 避身하여 安全하였다. 爆彈이 爆發할 때에는 防空壕에서 나와보니 B29가 와서 500파운드 爆彈을 90個나 投下하였다. 不發彈이 建物鐵骨에 걸려있어 仔細히 觀察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날 B29가 34대가 空襲하였다고 한다. 製鍊所는 完全히 破壞되어 再起不能이 되었다. 내가 勤務하던 電鍊課 자리에는 直徑 15m 깊이 5m 程度되는 웅덩이가 생겨 물이 고여 있었다. 其後 2~3日間 現場의 뒤끝을 收拾하다가 上部의 指示에 따라 當分間 解散하였다가 다시 集結하도록 하고 各者 個人行動을 取하였다.

나는 州北面長興里 故鄉집에 와서보니 洞内에는 後退하는 人民軍이 집집마다 分散收用되어 各 家庭에서 食事を 提供하고 있었다. 다음날 人民軍은 北으로 後退하였다.

10月이 되어 國軍이 咸興에 入城하여 州北方面으로 進駐해왔다. 興南製鍊所도 國軍에 依하여 收復되어 다시 製鍊所에 나아가서 復舊 委員會를 組織하여 復舊事業을 進行하던중 UN軍의 後退作戰으로 12月 23日밤 家族과 함께 技術要員의 한사람으로서 그 有名한 興南撤收作戰에서 LST輸送船을 타고 避難民 隊列에 合流하였다.

다음날 아침 艦砲射擊으로 製鍊工場굴뚝이 破壞되는 光景을 바라보았다. 이때 輸送船은 서서히 興南埠頭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3日後 巨濟島에 到着하여 가진 苦生을 하다가 鑛山技術者 募集에 應하여 1951年 7月 31日 江原道 寧越郡 上東面 九來里 大韓重石上東鑛山에 就職하여 15年間이나 勤務하다 1966年 6月에 退職하고 오늘날까지 各種鑛山事業에 從事해 왔다.

1992年 3月

## 變하는 이웃 中共을 스쳐 보고

李漢淳(23回)

### 1. 序文

昨年여름 三伏더위에 우리 國土와 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서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져왔던 漢民族의 中國 땅을 밟게 되었다. 주목적은 延辺의 朝鮮族大學에서

있었던 國際學術會議參加였으나 이를 前後하여 同學 一行과 같이 18日間 관심있는 곳을 踏査하는 機會를 얻을 수 있었다.

美國이나 유럽 大陸과 맞먹는 廣大한 國土에 地方마다 自然條件이 다른데다, 悠久한 歷史와 찬란한 文化를 가진 이웃 中國에의 旅行은 오랫동안 버르던 터라 有心히 돌아 보았다. 우리와 같은 점이 더 많아 보였으나 생각할수록 다른것 같아서 언급하기 어려워진다.

교통 편의상 大小 10余개 都市地方과 자고 먹으면서, 가장 많은 時日을 보냈고 農業, 農村을 돌아보는 일은, 밭 農事地帶인 華北에서 東北三省(滿洲)地方을 주로 하였으며 논농사에 관해서는 中南部 地方의 桂林地方만을 살펴보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機會가 있으면 水災때문에 들리지 못했던 武漢地方을 비롯하여 南部地方 특히 新開發 海岸都市를 좀 더 살펴보고 싶다.

景勝地는 대체로 文化遺跡이 있는 古都였으며, 오랫동안 東洋文化와 歷史의 中心舞臺답게 우리와 같은 文化圈이지만 우리것은 比較가 안될 정도여서 民族的 自尊心이 좀 상했다.

그래도 우리 民族의 靈山인 白頭山을 8月15日, 그곳 老人節 맑은 日氣의 惠澤을 받아, 등반하였다. 異國 땅 먼곳을 돌아와 우리의 北쪽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感慨無量하였다.

旅行途中 언제나 僑胞 案内員이 說明하여 주었는데, 延邊大學 教授를 비롯하여 各地마다 中國 教授들의 說明도 있었으나 關心事가 달랐음인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한때 유럽 踏査時 各國에서 우리 大學院生들이 副業으로 하는 案内가 참으로 유익하였던 일들이 재삼 回想되곤 하였다.

종래 中國生活에 대해서 傳하는바는 우리 보다 大体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儉素하고 假飾없는 믿음직하고 부지런한 生活態度, 그리고 豊富한 地下資源과 人的資源을 急變하는 中國社會에서도 皮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國防産業이나 宇宙科學은 國力을 集中한 結果 이미 先進國 水準에 있음이 公認되고 있다. 또한 國際政治에 있어서 中國의 位相은 相當한 水準에 있어서 우리와 隣接한 大國에다 以北과 관련하여 待望의 祖國統一 完遂에 重要한 役割을 할것이 分明하다.

더욱이 中國은 北韓과 같은 政治理念과 體制임으로 中國의 그간 變化를 잘 보고 理解한다는 것은 우리의 北半部를 잘 알고 韓半島의 來日을 予想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祖國統一을 促進하는 契機도 마련할 것이다.

事物을 보는 視角이各自 다른만큼 此後에 中國을 探訪한거나, 연이를 中國에 대한 報道를 이해하는데 이 글이 多少나마 參考가 되었으면 多幸으로 여기겠다.

## 2. 開發의 方向과 焦點의 變化

中華人民共和國는 1949년에 樹立되었고 당시 人口는 約 5億에 90%가 農民이었다. 対日戰爭에 이은 内戰으로 52년에 가서야 工業이 戰前水準으로 復旧되었고 食糧만 하여도 겨우 生命을 維持할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建國以來 中國은 經濟開發이 最大課題였으나 政治理念과 結付되어 그 政策方向이 取해졌으므로 여러 變化를 겪어왔고 國民生活도 거기에 따라 급속히 變化하여 왔다.

共産主義國家와 資本主義國家 및 左·右派의 執權者間에 開發政策에 差異가 있는 것과 같이, 中國도 青年過激左派에 의해 執權한 初期는 經濟理論보다 政治理念이 重視되어 國民의 物的生活向上에 우선을 두었다. 一黨獨裁下的 經濟개발에 있어 指令의 指標로서 제품의 質이나 價格보다 生産性이 重視된다.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증대시켜 重工業에 투자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외국과의 관계 강화를 싫어하며 資源이나 技術 모두를 국내에서 조달하려 한다. 人口증가가 社會主義 건설에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中國에 있어 毛澤東, 周恩來 등의 革命指導者를 中心으로 한 初期 政府는 都市 유랑민 및 知識人(약 1,000만)을 “下放運動”으로 農村에 投入, 戶口制度로 묶어 “말서스” 人口論을 배경 人口多産을 권장하며 集團勞動의 人海戰術을 強力히 추진하였다. 한편 重化學의 國防産業에 集中投資하여 內陸都市(第1線)에 이것을 건설하였다. 그 結果 大都市 人口가 減少하게 되었다. 都市를 社會惡의 溫床으로 보고 輕視한 結果 住宅·道路·上下水道 등이 破폐하게 되었고 市場·教育·文化·行政 등의 中心地로서의 役割이 弱화되어 갔다.

이와같은 과정은 初期 1·2차 大躍進運動의 62년까지 進行되었고 文化大革命의 3·4次 5개년계획(66—76)중에 現저하였다. 그간에 人口抑制를 強力히 進言한 北京大總長도 파면되는가 하면 59—60년의 大凶作에는 약 900萬의 餓死者가 생겨 人口增加가 經濟成長을 圧迫함을 實感하게 되었다.

여기에 對照的인 類型은 資本主義國家에서 볼 수 있는 右派 내지는 右傾化의 政權에서 보여주는 바, 理念보다 物的生活의 向上을 重視하는 經濟개발, 즉 市場과 價格의 메카니즘을 有效하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개발지표로서 產品의 質과 價格을 重視한다. 따라서 國民소비의 확대를 위해 重工業보다는 生活과 밀착한 輕工業과 농업의 발전이 모색된다. 한편 對外貿易이나 外國의 技術도입이 촉구되며 人口억제책이 취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中國을 보면 76년, 周恩來, 毛澤東이 死亡 後 鄧小平이 執權하여 4人組가 체포되면서 78년 日本, 79년 美國과 修交하고 또한 蘇聯과도 和解하였다. 이와같이 國內外關係를 安定시킨 以來 中共은 흔히 引用되는 鄧小平의 黑白貓論인 實用主義路線으로 轉換해 改革, 開放化의 推進이 着着進行되어 가고 있다.

第5·6次 5개년 計劃(76—85年)에서는 人民公社를 폐지하고, 하나 낳기 人口抑制政策을 채택함과 동시에 下放運動을 禁하여 都市에 自由企業을 制限的으로 許容하는 開放化의

大變動이 일어났다. 더욱이 80년에 있는 市場經濟의 發展에서 都市의 重視와 效果의 人口增加의 抑制은 큰 意義를 가졌다.

具體적으로 80년부터 消費財 輕工業을 外國資本과 技術을 導入 東部(第3線)海岸特區에 合資企業으로 推進擴散했는데 이는 큰 成果를 가져왔다. 都市近郊나 農村都市에 經濟作物이나 家畜 및 日用品 加工이 發達하여 所得向上을 가져와 農村에 새로운 活氣를 가져왔다.

台灣과는 200만에 이르는 親姻戚 相互 訪問이 있었다하니 開放化의 성격은 알만하다. 現在 8次 5個年 計劃中에 있는 中國을 잠시 스쳐가면서 外樣을 理解하는데는 以上の 變化過程과 그 意味를 알 必要가 있겠다. 그런데 中國에서도 地域間, 產業間, 世代間에 變化하는 過程에서 相互結付되어 相衝問題를 일으키고 있음은 가끔 報道되는 바와 같다.

### 3. 中共의 이모저모

#### ① 農業과 農村生活

본래 抗日투쟁시대 부터 열성당원 중심의 노력동원 集團인 人民合作社가 解放地區에서 시작되었으나, 中國政府 수립 후 農地가 國有化되고 1人當 耕作地割當에 의한 集團農場경영인 生産責任制의 人民公社로 擴大되었다. 이러한 集團農場은 病院, 託兒所, 幼稚園, 學校 등 近隣시설을 구비하였다. 물론 水利시설, 耕地整理와 農路 등 基盤시설을 갖추었고, 生産과 消費, 教育保健 등 計劃的開發에 食糧 및 필수품 확보에다 社會, 政治를 兼한 集團組織 活用으로써 相當한 成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都市의 지식청년을 農村과 農民속에서 理念教育을 받게 하는 下放運動과 居住地 移動과 職業의 選擇을 제한하는 戶口制度強化로 이들을 農村人口로 묶어 두려는 農村 振興策에다 政府의 農產物 高價買入으로 農民生活이 상당히 向上되었다고 한다.

종전의 많은 小作料에 高稅金, 더욱 自然災害로 流浪하고 餓死하던 時代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生活이다. 그러나 人口增加와 配當耕地面積의 擴大는 경사지 개간으로 이어져 山林率이 감소(12.7%)했고 生態系가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59·60年の 大洪水에 8,000 余名의 人命피해를 보았고 食糧배급량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延邊에서 白頭山에 이르는 丘陵 傾斜地는 먼 곳까지 개간되어 民둥산으로 변하여 이상스럽게 보였으며 유럽 알프스와 같은 放牧場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가 싶었다.

機上에서 보는 農村은 漠漠 廣大하였고 잘 整理된 耕地와 農路를 수 놓은 들판은 풍요로운 農作物로 덮여져 있었다. 그 가운데 集團部落이 家屋筆地로 구획되었고 道路가 學校, 倉庫, 公共建物 등을 中心으로 建設되어 防風林으로 둘러 싸여 있어 計劃的인 開發임을 잘 보여 주었다. 그러나 道路上은 사람이나 수레의 移動이 意外로 적었다. 人民公社의 集團勞動을 歐美人은 奴隸制度라고 혹평하였다고 들었는데, 機械化가 안된

상태에서 集團人力 勞動의 가혹한 면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거니와, 實際로 南部 桂林 地方의 米作地帶에서만 役畜(水牛)을 볼 수 있었다. 機械化 農業이 어느 程度인지가 궁금하였다.

中·南部의 米作地帶 즉 楊子江 流域과 秦嶺山脈以南 (年 降雨量 1,000mm 地帶)의 平野地帶 農村은 桂林地方 外는 보지 못하였으니 中國의 農村이나 農業을 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줄 안다. 地形上 畚은 耕地整理나 道路 및 水路 建設 等에 있어 田作地帶처럼 土地利用이 쉽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요컨대 中國에서 北支의 田作과 滿洲, 即 東北 三目地方의 曠野에서 高粱, 小麥, 粟, 玉蜀黍, 大豆 等を 경작하는 데는 機械化가 불가피한데 어느 程度인지 궁금하였다.

延邊의 우리 同胞가 米作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地方마저 玉蜀黍, 高粱 해바라기 栽培가 주로 눈에 띄었으며 役畜牛飼育은 아주 드물었다.

近來 開放化 추세에 밀려 下放運動이나 人民公社가 解體과정에 있으며 部分的인 家屋의 私有化와 都市 近郊部農村에서의 養豚, 養鷄 및 果實, 소채 등 經濟作物 재배의 企業化가 進行되는 듯하였다. 近來政府의 農村都市“鎮”의 育成策도 있어 自給的純農村과의 所得 격차가 벌어진다고 했다.

한편 傳統的인 自然部落은 中央의 물결이 미쳐 닿지 못하는 邊境地 白頭山에 이르는 道路邊 朝鮮族 街村에서만 볼 수 있었다.

지붕 모양이 독특한 僑胞農家は 咸鏡道式 겹집구조를 하고 있어서 도장간(倉庫)과 畜牛를 위한 외양간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또한 黃土高原의 西安市 近郊村落은 中國 傳統的인 붉은 벽돌로 둘러 싸여 있었고 家屋도 벽돌로 지어 路邊에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丘陵地를 뒤로 地下水에 貯水塔까지 있는 富村도 보였다. 그러나 어디가도 장난꾸러기들이 모여 노는 것이 눈에 띄질 않았다. 人口抑制策의 진전을 알 수 있었다. 장차 營農은 누가 할 것인지, 이곳 父母들의 고민은 알만하였다.

## ② 都市와 市民生活

都市는 農業, 漁業이나 또는 山村이나 鑛業을 背景으로 하는 동시에 市場商業이나 行政, 政治의 中心地로 근래는 加工하는 제조業의 中心地로서 발달했다. 따라서 交通, 通信을 매개로 한 地方의 中心的 역할을 하거니와 앞날에 대비하여 건설되고 發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都市, 특히 大都市, 그중에서도 首都는 그배후지, 나아가서 그 國家와 國力을 表現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仁川港을 떠나 밤새우고 아침 햇빛에 비취지는 中國의 첫 모습—威海港은 中國이 韓國을 의식하여 지은 듯한 港口都市로 5—6棟의 붉은 벽돌 오피스, 아파트의 新築建物이 綠色 造景과 잘 어울려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完成단계의 威海市에 비해



煙台市는 開發이 막 시작되어 호텔이나 建物이 서로 떨어져 分散되어 있었고 道路邊은 農耕地 그대로 있어 國家經營의 制度的 성격을 알만하였다.

威海와 같은 새로운 開放地區와 달리 內陸의 오랜 歷史적 背景의 古都 西安(人口 300만), 그리고 現首都 北京(人口 1,000만) 같은 大도시들은 城廓에 쌓여 있어 全國統治의 國家的 位相을 나타내는 文化遺産과 遺跡으로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中규모 都市는 共通的으로 社會主義國家 建設의 革命過程을 겪어 革命理念上 소홀히 다루었던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 즉 단순한 消費空間이며, 社會惡의 集結地로서 輕視되어 윤기가 없었다. 다만 統治權力機關 등이 中央에 크게 位置하며 主要街路가 灰色의 APT 住宅街로 되어 아름다움과 活氣가 없는 沈滯相을 보였다. “막스 베버”는 일찍이 東洋에는 市民의 都市가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여기 中國 도시에서 그것을 실감했다. 다만 宮廷文化의 王宮이나 別莊은 돋보였으나, 上流住宅街나 百貨店 그리고 遊興街等 市民의 娛樂施設과 商街 및 市場은 活氣가 없어 보였다. 反面 廣대한 幹線道路는 分離帶로서 잘 整理되어 있었으나 自動車通行은 12억의 大國 首都인 北京에서조차 극히 적었다. 또한 傳統的인 女裝, 「旗袍」 등의 固有美를 전혀 볼 수가 없었으며 音樂소리조차 들려 오지 않았다. 天安門廣場에 모여든 地方 觀光客들의 끊임없는 隊列과 그 걸음속엔 對話나 표정이 거의 없는 것같이 보였으며, 따라서 暗鬱한 이나라의 群衆相을 보는 것 같았다.

天安門에 連結되는 大路邊에 있는 灰色 5-6層의 APT街는 會社, 국제무역 商社의 高層建物이나 百貨店 혹은 社會團體의 建物로 들어서야만 했다. 다만 共產主義體制上 國家經營이 一黨獨裁下에 있었고 計劃的 統制經濟로서 中間의 商行爲過程이 없음에서 연유됨은 理解된다. 그러나 오늘날 開放體制下에서 市民活動이나 外國合資會社의 連絡 事務室이나 商社는 어디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인지가 궁금하였다.

한편 少數의 大建物인 銀行, 官公署, 大學等の 看板은 거의 全部가 傳統的 行書체로 그것도 힘찬 毛筆로 쓰여져 있어서 中國文化의 藝術性과 自主的 矜持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져 매우 인상적이었다.

百貨店에서는 선물이나 紀念品을 고르기가 힘들었다. 즉 大衆的 日用品만을 팔고 있었고 그것도 販賣員이 賣上高를 올리려는 기색없이 事務的으로 고객을 대하니 社會主義經濟의 長·短點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 하였다.

나는 선물로서 유명 五加皮酒를 탐문하였으나 이름을 아는 사람마저 없었다. 한편 一般 高粱酒는 國內 鏡月燒酒와 같이 淡白하고 깨끗하여 好感이 갔다. 또한 담배는 大體로 質의 差가 없었고 저녁이면 주머니에서 부서졌으나 맛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俸給에 있어서 社會中間層의 教授나 醫師의 待遇가 月約 350元이며, 그들의 月生活費는 500元이 所要된다고 했다. 結局 한 家族에서 세 사람이 번다면 한 사람이 最少限 180원을

벌어야 家族의 生活이 유지되는 셈이다. 따라서 勞動의 質의 差異는 別로 없으며 指導級 社會中堅層에 대한 待遇가 比較的 낮았다. 平等은 좋지만 量爲主에 質은 輕視되는데 發展上 문제가 있어 보였다.

都市와 知識人을 冷待하여 온 革命過程에서 오늘의 開放化에 이르기까지 都市의 交通, 住宅, 福祉, 厚生施設은 勿論 上下水道, 綠地等 附帶시설의 管理 및 開發이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으로 보였다.

그 中 生活水準의 尺度로서의 住宅은 크게 不足했으며 質도 낮았다. 文化革命 後 公營住宅만 건설, 두세 개의 방이 있는 APT에 2世帶 同居가 一般이라 했다. 都市 公衆便所는 男女, 大小便 施設의 區分이 없었는데 水洗式은 滿洲 最大도시 瀋陽(人口 450만)의 中央公園에서도 볼 수 없었다. 참으로 놀랐다. 結局 우리 서울은 好景氣때 世界올림픽을 개최한 덕분에 世界 最上級의 都市로 發展하였음을 확인한 셈이었다.

中國의 도시생활에서 朝夕의 出退勤을 비롯한 모든 活動의 主要 交通수단이 自轉車란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有心히 보니 個個人의 自轉車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機能, 구조, 品質, 價格의 差는 없어 보였으며 男女老少할 것 없이 거의 同一한 것을 利用하고 있었다. 北京大學校正門에서 登下校生을 보았는데 男女學生 모두 自轉車로 通學하였고 自轉車를 탄 女學生들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 얼마나 많이 탔던지 曲芸師에 가까울 정도로 잘 탔다. 交通이 폭주하는 아침 出勤時 交叉路에서 보노라면 延邊의 경우 긴 치마의 韓服正裝한 女性이 結婚式에 가는가 싶었는데 용케도 치마를 휘어잡고 自轉車대열을 빠져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自轉車와 步行人의 路線區別이 없고 時速은 40km以下로 제한한다니 완전히 自轉車 利用의 大衆에게 우선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交通警官의 權威와 規律은 嚴格하였으며 出退勤時에도 違犯자들이 무조건 服從하여 길가에서 있으면서 선처만을 기다리는 모습은 놀라웠다.

結局 中國의 都市에는 市民이 主體가 되어 活氣차고 意欲的으로 아름다운과 멋을 찾는 生活을 즐기는 편은 적은 反面에, 낭비와 頹廢的인 面은 전혀없어 全體的으로 勤儉하고 健實한것으로 보였다. 곳곳에서 안내해준 이곳 教師나 男子의 여름 服裝은 계층, 지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白色노타이에 단색 바지로서 거의 통일되었고 서방국 여행객도 중국 공기를 알아서인지 모두 검소한 옷차림이었다.

以上 中國都市의 一般性을 논했으나 以下 簡單히 個別的인 몇가지 聯想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歐美의 都市建物이 石造내지 벽돌建築으로 堅固한데 반하여 東洋三國은 古代로부터 木造가 一般的인 건축인줄 알았다. 그러나 古都 西安市의 벽돌 城廓은 市街地를 包圍해 있어 城위에서 市内를 돌아가며 잘 들여다 볼 수 있었다. 煉瓦造의 古住宅이 용케도 1,000~2,000년간 잘 보존되어 原型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와 같이 塗色하거나 함석으로 가리는

등 잠정적 조차가 거의 없어보여 깊이와 무게가 있었다.

또 中國의 飯饌市場은 저녁食事後면 대체로 폐쇄되는데 西安에는 夜市場이 밤늦게까지 열리고 있어서 果實, 술, 粉食 등을 男女老少가 먹고 마시고 하는 街路邊露店들이 불만하였다.

또한 中國에는 우리나라 東大門市場이나 南大門市場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았건만 人口 500만의 滿洲 最大 都市인 瀋陽의 개명市場은 우리와 꺾이나 같았다. 商店의 密集, 번잡, 路面陳列에 가격표시판의 다양함 등 우리와 같았다. 처음으로 活氣띠고 利益을 追求하는 市民都市다움을 보아 異例的이었다.

중국의 도시는 農村背後地와의 “道路” 交通이 발달하지 못하였거니와 都市間에도 亦是 같은 傾向이어서 鐵道마저 日本統治를 겪었던 滿洲를 제외하고는 不便하여 小, 中, 大 都市間에 交通通信의 연결이 잘 안되어 보였다. 더욱이 最近에 시작된 黃海沿岸地帶 開發爲主에서 內陸을 開發하여 地域間 不均衡을 是正하려는 事業은 莫大한 財源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海岸도시가 豫定대로 開發의 脚光을 받을 때 內陸 農村에서 勞動力이 集中될것인즉 그 收容과 增大되는 地域間 不均衡 是正문제는 새로운 課題로 제기될 것이다.

農業과 農村의 中心이자 成長核으로의 農村 小都市인 鎮을, 人口기준을 낮추어 그 數를 大幅 늘였지만 그 實効는 相互交通通信網의 不足과 上位都市와의 連繫上의 問題로 相當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다.

근번 鎮과 海岸 開放地區 港口都市를 몇 개밖에 보지 못하게 됨이 유감이며, 다음 宿題로 남게되었다.

### ③ 古蹟과 景勝地 探訪

中國은 廣大한 國土에 多樣한 地理的 條件을 갖고 있어서 紀元前 數世紀에서부터 많은 人口에 強大한 民族國家를 이루어 찬란한 文化를 꽃피워왔다. 따라서 오늘날 남아있는 여러가지 文化財는 그 規模나 藝術性에 있어서 偉大하였고 참으로 漢民族 中國, 나아가 東洋文化로서 讚辭를 보내고 싶었다.

識見이 짧은 저로서는 速斷인지 몰라도 世界的인 大博物館을 몇개 보고서 西洋文化에 비해 古代 中國文化가 特異하였고, 規模에서 단연 壓倒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눈에 띠는 고적으로서는 西安의 秦始皇帝陵에서 出土된 兵馬傭, 碑林의 孔孟子 가르침을 彫刻한 碑林博物館, 北京의 萬里長城과 紫金城, 頤私園, 夏季宮等인데 그 規模의 巨大함이 特히 印象的이었다. 또한 景勝地로서는 白頭(長白)山과 天池 그리고 廣西省 桂林 附近의 漢民族에 밀린 小數民族과 山水가 秀麗한 自然景觀이라 하겠다. 이들은 우선 規模에서 모두 컸고 徒歩로 三伏더위에 전부 돌아 보기란 거의 不可能했다. 그리고 混雜한 人波에 밀려 우리 行列에서는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西安의 秦始皇 兵馬傭은 世界 第8의 奇蹟으로 評價되고 있는 바, 約 2,000餘年前(新羅보다 400年前)의 埋葬館이 1974年 農民이 우물을 파다 발견한 것이다. 實物大에 實物形의 武裝한 兵士와 軍馬가 8,000點 以上 4列縱隊로 閱兵式 모양으로 堵列되어 있다. 廣大한 蹴球場 크기의 넓이에다 콘센트 建物の 博物館에 保管되어 있었으며, 이런 곳이 3개 있었다. 完全武裝한 兵士가 半코트에 좁은 바지를 입었고, 넓은 머리, 수염, 蒙古眼의 부드러운 얼굴, 그리고 상투, 모자 등, 머리 모습은 각기 달라서 흥미로웠다. 埋藏된 것을 발밑까지 土砂를 파헤치는 作業에서 흙을 떼어내다 파괴된 胴體는 내부가 비어 있었고 파손된 조각을 맞춰 原型化하는 作業을 하고 있었다. 甲冑의 처리마디가 精巧하였고 비교적 부드러운 顔面表情 등 彫刻美의 價値도 높았다.

한편 말도 實物大로서 兵士의 四列縱隊에 後屬되어 指揮官車를 끄는 것도 있으며 馬具는 간편하여 보였다. 수많은 兵士와 用馬가 각기 특징을 갖고 있어서 自然스럽게 달라 보였다. 秦始皇陵 造成時, 墳墓옆에 親衛隊를 生埋葬하던 先例를 깨고 實物을 彫刻하여 埋藏하였다는 說明에 수궁이 갔다.

1980年代에 英, 日, 美, 佛의 王 및 首班이 이곳을 訪問하였음을 寫眞에서 알 수 있었다. 新羅보다 500~600年전에 中國을 統一하여 大土木工事의 萬里長城이나 兵馬傭같은 遺品을 남긴 秦始皇朝의 經濟, 政治組織과 文化 그리고 組織된 軍事力과 秦始皇帝의 偉大한 指導力이 聯想되었다.

萬里長城은 遊牧民族의 侵害로부터 漢民族을 防禦하기 위한 築城으로 月世界에서 보이는 地球上의 唯一한 構造物이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大部隊가 作戰할 수 있도록 幅이 넓었고 또 防禦에 쉽도록 높았다. 곳곳에 哨樓가 있었으며 大兵力이 안으로부터 加勢하거나 交代할 수 있도록 階段이 만들어져 있었다. 옛적 시멘트格인 固着劑에 대하여는 여러 說이 있는 바, 그것이 果然 무엇인가가 궁금하였다. 長城은 北方防禦壁으로 南部密林, 西部高原, 東部黃海와 더불어 中國을 外部世界와 完全隔離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中國의 發展에 停滯를 가져온 面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④ 白頭山과 天地 및 宿食

國內 最高峰이고 韓民族의 靈山인 白頭山은 우리의 咸鏡南北道와 中國의 吉林省이 接境하는 熔岩台地의 噴出口임은 地形圖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 實查하면서 나는 山峰이라기 보다 緩傾斜의 熔岩高原台地, 그것도 2,000미터이상의 거의 頂上 가까운곳에 植生이 덮여진 푸른 언덕을 보았으니 뜻밖이었다. 말하자면 록키山脈이나 몽브랑 같이 靛죽한 4,200餘미터에 萬年雪이 덮여진 氷河나 岩石山脈과는 너무나 달랐고, 완만한 老年期 山勢에 灰色의 浮石으로 덮여지거나 草木이 있어 對照的이었다.

白頭山(2691m)의 特徵은 넓은 噴火口인데, 天池는 水面이 넓고 頂上보다 낮아 山壁이 屏風처럼 둘러싸여 사발같이 보인다. 頂上과 水面과의 溫度, 氣壓差 때문에 구름의 氣流가

돌아 하늘과 接하여 壯嚴한가운데에 流動感을 느끼게 한다. 天池의 氣流는 神祕한 生動感마저 느끼게 한다. 우리는 上峰까지 乘車로 올랐는데, 先祖들이 人跡 멀리 猛獸를 피해 올라와 白頭山 大自然의 物活性(animism)을 느낀 나머지 自然의 造化와 偉大함에 威壓되어 神祕로운 靈山으로 崇仰하게 되었고 周邊 여러 民族도 崇拜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되었다.

環太平洋 大山 및 造山帶에 속한 인도네시아와 비올빈에는 활화산이 있고 廣大한 噴火口에서 다시 噴出한 二重 三重의 大山이 많은 것과는 규모가 적지만 白頭山의 噴火口 天池는 雄壯感을 준다.

白頭山天池는 現在 中國과의 國境이 되어 먼 中國을 돌아 異國땅에서 韓國土를 바라보아야 하는 身勢, 그것도 中國이 北京아시아 경기대회 때 이곳을 觀光地로 開發하였기 때문이다. 6·25以後에 天池가 國境線으로 兩分되었음은, 白頭山 定界碑와 함께, 過程이야 어찌되었던지, 우리가 小國인데다 國土 國力이 양분되고 있다는 現實과 같이 안타까웠다.

外地旅行에서 宿食이나 案内員의 印象은 過客에게 그 나라의 얼굴이 된다. 그중 飯店, 酒店, 賓館 등 여러 이름의 宿所는 大體로 看板에 나타나듯 外國商社와 合作된 新築建물이 大部分이어서 家具, 寢具, TV, 冷蔵庫 및 化粧室은 清潔하여 氣分이 좋았다. 그러나 私企業이 아니어서인지 館內 附帶施設인 水泳場, 娛樂遊具, 談話室 등에 대한 說明이나 案内書가 적었고 從業員의 奉仕나 案内에 親切味が 없었다.

中國人の 宿泊이 없으니 駐車場에 車가 없었고 外國觀光客들도 簡素한 차림으로 節制하는 듯 보였다. 나는 房에서 日本의 衛星中繼 TV放送을 보기도 했고 또 同僚들을 껴서 水泳場을 독차지하면서 三伏더위를 지냈다.

三伏더위에 언제 어디서나 더운 茶水에 질린 나머지 찬 生水를 찾게 되었고 朝飯에는 죽(粥)이 언제나 마늘쫑 조림과 함께 食卓에 올랐다.

長白山賓飯은 閑散한 호텔이었고 中山의 清涼한 空氣가 甘味로웠다. 우리 一行이 묵은 날엔 마침 一群의 活氣찬 韓國 青年男女가 찬란한 여장을 여기에서 풀고 떠들썩한 노래와 춤의 祝祭를 벌였다. 여기가 어딘지 自問하지 않을 수 없었다.

案内員은 어디에서나 우리 同胞였는데 修練課程의 젊은 男女였다. 朝鮮族에게는 近來 人氣職業으로 되었다. 大學水準教育이나 訓練을 北韓系에서 받아서 以北 語調가 짙었다. 우리 一行의 成分을 알아서 上司 中國人에게 紹介할 때 案内員이 敬語로 語尾를 매듭하느라 어색해 하기에 교정하여 주면서 爆笑가 터지기도 하였다.

호텔이나 案内員으로 보아 近來 國家的인 開放化의 進行過程에서 觀光產業의 振興에도 邁進하고 있음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었다.

中國의 廣大한 國土와 自然에 대하여 특히 黃土層과 黃河流域의 旱魃과 洪水, 西北部 高原의 石灰岩 및 沙漠地帶 그리고 긴 歷史와 遺跡文化 等 言及할 것이 많으나 紙面上

끝을 맺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3,000년의 歷史를 보려거던 西安을, 500년은 北京, 200년은 南京, 100년은 上海, 그리고 10년의 歷史를 보려거던 深圳을 본다는 案内員의 말은 參考해 봄직하다.

限定된 紙面이지만 中國籍 200만의 同胞에 대해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國境에 가까운 豆滿江넘어 延邊朝鮮族 自治州에 密集하고 있다. 朝鮮族大學이 있는 延吉市에서 近 3日間 머물렀는데, 一般市民과의 對話에서 이들은 純威鏡道사투리에 濶達하고 矜持에 차있어 萬事亨通으로 보였고 韓國事情에도 精通함을 알 수 있었다.

延邊大學에서 國際學術行事가 끝난 저녁 80餘名の 關係者 즉, 副總長을 위시하여 南北韓을 비롯한 朝鮮族 中心의 男女老少(教授, 講師, 大學院生, 文化機關, 관계관 등)가 모여 祝賀파티가 벌어졌다. 이때 道士格인 副總長의 祝辭에 이어 韓服의 中年 女教授의 유모어와 재치있는 司會로 노래와 춤 그리고 만담과 妙技에 떠나갈듯한 喊聲과 爆笑가 터졌고 박수에 떠들썩한 場內를 나는 카메라프레쉬를 터뜨리며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이는 高句麗 廣開土王과 獨立烈士의 氣象을 이어받은 우리 培達民族과 大國 漢民族의 좋은點이 溶化하여 이룬 한마당으로 보였다. 여기서는 無表情에 喊口로 一貫하던 以北 參加者들의 姿勢도 달라져서 그들도 얼음녹듯 녹아 함께 어울렸다.

中國에서 韓民族은 果然 55개 少數民族中 노래와 춤을 포함한 文化, 教育 및 經濟水準에서 가장 높은 位相을 차지하고 있음을 새삼 發見하였다. 이는 中國旅行에서 얻은 最大의 收穫이자 기쁨이었다.

## 脫線健康長壽論

朴泳馥(24回)

나도 옛날 같으면 틀림없이 老人층에 들었을 것이다. 아니 내 나이 70이니 안 그렇겠는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는가 모이는 자리에 가면 으레 上席에 모시는 對象이 됐을 것이고 긴장죽을 허리춤에 끼고 동네 마실을 다니면서 老人然했으며 헛기침을 하면서 늙은것을 무슨 큰 자랑이나 勳章처럼알면서 허리를 꾸부정한채 걸음걸이는 어슬렁 어슬렁 八字로 걷는 것이 正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옛날과는 아주 판판이다. 70으로선 老人이란 소리는 들을수도 없고 또 듣고자 할수도 없는 일이다. 워낙 長壽化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요즘은 還甲

이랍시고 잔치 차리는 일은 거이 볼수가 없다. 잔치를 차린다면 웃음꺼리밖에 안되며  
 파랗게 젊은이가 무슨 잔치냐고 비아양 대기 일수다 그렇다 漸漸 食生活이 나아지고  
 住居環境 또한 좋아진 탓일게다 G·N·P의 上昇과 比例하여 平均壽命도 길어졌다. 先  
 進國水準이다. 여기에 사람들은 加一層의 長壽를 바라면서 持病으로부터의 脫離를 꾀  
 하면서 別別 長壽食品이라는 걸 좋다고 말만 들으면 빼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健康管理을 爲해서는 登山을 한다. 釣魚을 한다. 過勞를 避한다. 잠자는 것 飲食먹는 것을  
 調節한다. 飲酒를 삼가한다. 禁煙을 한다. 性生活은 어찌 어찌한다. 짠것이 어떻고 매운것  
 단것이 어떻다 神經을 쓰면 血壓이 어떻고 肝機能이 어떻다. 神經痛이 있다. 喘息이 있다.  
 손발이 저리다 눈이 침침하다. 야단들이며 別別 異常을 제가꿈 호소한다 모여 앉았다하면  
 이런 얘기들이니 모두가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그러나 올것은 오는 것이다.

人間의 壽는 原來 120乃至 130은 누구나 누릴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바로 問題가 되는  
 것이 이같은 壽를 어떻게하면 누릴 수 있을까하는 方法인 것이다. 많은 醫學者들과 生  
 命科學者들은 尖端科學의 研究를 거듭하면서 여러說과 方法을 提示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最善의 方法이며 唯一無二의 王道라고 할만한 學說이나 方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逆說일지 모를 나름대로의 健康長壽法을 開陳하려고 하는 바이다. 多少나마  
 蛇足이 될지 또는 안될런지는 몰라도 버릴것도 있겠지만 주어 답을 만한것도 있지 않겠나  
 싶다.

1) 우리 周邊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다는 食品은 틀림없이 選好하고 있다. 뱀을  
 위시해 지렁이 두더지 심지어 고양이 等等… 東南亞觀光 때는 으레껏 좋다는 動物(主로  
 爬蟲類)은 韓國사람의 몫이란다. 또, 약삭빠른 장사꾼은 이런것들을 輸入해 오기까지 하고  
 國內에선 農村의 개구리가 滅種危機에 있단다 뚜렷한 根據가 있지도 않는 狗湯, 이것  
 또한 빼놓을수가 없다 변강쇠가 되는데는 뭐가 좋다. 虛弱體質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무엇에 좋다… 精神이 어지러울 程度로 좋다고 해댄다. 어찌 일일이 枚舉할수 있겠는가  
 長壽食品을 파는 분들로부터는 공격을 받을지 몰라도 效驗에 對한 科學的인 統計數值라도  
 나와있느냐고 反問하고 싶다. 長壽했다는 분 또 現在 長壽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가 이런  
 食品들을 드신분 또는 드시고 있는 분들이란 말인지? 決코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2) 둘째 먹는 것이라면 뭐든지 잘 먹자는 것이다.

어찌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먹겠는가 골고루 잘 먹는 길만이 長壽의 要諦일 것이다.  
 밥 잘먹는 사람치고 健康치 않은 사람을 봤는가 이것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避하자  
 요건 脂肪質이 많다. 이건 맵다 이것은 짜다 蛋白質이 많으니 이것만은 많이 먹어야 한다.  
 이것은 發癌物質이 아닌가 이것은 消化가 잘 되는 것일가 鐵分을 찾고 미네랄을 찾고  
 야단들이다. 이렇듯 밥 먹으면서 이것 저것 따져가며 피지락 피지락꺼리는 사람치고

健康한 사람 보았는가 가리지않고 막 먹어대는 사람 이것이 부러운 사람이다.

아무거나 닥치는대로 잘 먹는 하루세끼의 밥이야말로 長壽食品이요 健康食品인 것이다. 그 안에는 골고루 營養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營養의 過不足現像은 일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또 問題가 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모두가 異口同聲으로 少食을 하자고 主張한다. 나는 그와는 反對다 많이 먹자는 것이다. 그 대신 많이 먹는데서 오는 熱量은 많이 消耗시키면 된다는 持論이다. 조금만 먹고 비실 비실대며 오래 사는 것보다 많이 먹고 일하고 活潑하게 움직이고 늙어서도 많은 활동을 하다 죽는것이 바로 長壽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3) 셋째 술을 많이 마시자는 것이다. 아마도 듣는 사람치고 옳다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逆說일런지 모른다. 저의 境遇는 每日 燒酎로 3合~4合(한 병반~두 병)을 마시는 것이 標準量이다. 그것도 一年이면 365日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마시는 것이 日課다. 이렇게 하기를 벌써 30年을 넘었을 것이다. 그 마시는 内容이 興味롭다. 아침엔 解腸이란 이름이든 무슨 理由로든 마시는 일이 없고 12時 點心때부터 始作이다. 飯酒로 한습이다. 이 定量을 넘기는 일이 거이 없다. 그리고 戌時(午後 7時쯤) — 우리들은 이것을 音대로 술(酒)時라 이름한다. — 엔 中食을 꼭 해야 한다. 職業上 밤 10時까지는 勤務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때 簡單한 안주를 곁들여 한습내지 한습반은 마신다. 그리고 10時쯤에 退勤하여 집에 돌아가면 하루동안 있었던 얘기를 家族과 함께 나누면서 한습에서 한습반을 마시며 저녁食事を 한다. 實로 活力이 넘친다. 食欲이 나고 消化가 잘 되고 便通이 잘 되고, 잠 잘오고 活動力이 倍加되고 作品活動이 잘 되고 疲勞한 줄 모른다. 거기에도 또 氣分은 恆常 最上級이다. 이때 술은 소주를 主로 마시고 맥주나 洋酒는 덜 좋아한다. 或人은 나보고 알콜中毒을 念慮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中毒이란 어떤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無病健康하면서 하루 세끼 밥 잘먹고, 잠 잘자고, 活動잘하는 것이 어찌 中毒이겠는가고 묻고 싶다. 그 대신 定量以上の 過慾은 양는 便이며 좋은 안주만은 꼭 곁드리는 편이다.

80kg의 體重은 維持하면서

4) 아주 미련스러우면서도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紹介하려고 한다.

나는 只今 現在 胃가 折半程度밖에 남아있지않다. 술마시는 全盛期였던 40代 初半 潰瘍症勢로 胃出血을 앓게 되었다.

그때만해도 胃內視鏡따위가 없었던지 또는 그 病院의 施設이 뒤졌던지는 몰라도 診察이 不實한 가운데 出血은 繼續되는 데다 血壓은 자꾸 떨어지니 唐慌한 나머지 不問曲直하고 腹部를 切開하곤 胃手術을 받게 됐다. 그때는 胃를 切除까지는 하지 않았다. 대강 處置하고 꿰맸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繼續 거북하고 痛症이 멎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가 2年後 다시 出血이 再發되어 할수 없이 再手術을 또 받게 되었다. 이때 擔當醫師는 아주 後患이



없도록 미심쩍은 데를 除去한담시고 半程度의 胃를 잘라 버렸다.

이제는 安心해도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5, 6箇月後부터는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年例行事인양 1년에 한두번은 痛症과 함께 出血은 繼續됐다. 그때마다 止血劑와 이런 저런 藥物로 臨時변통 治療는 돼었다. 미련하게도 이러한 동안에도 좋아하는 술만은 끊지 않았다. 곰보다 더 미련했다. 죽지않은 것이 오히려 異常했다. 이때도 먹고 싶은 것은 막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막 마셔댔다. 죽기 밖에 더하랴하는 배짱이다(한 가닥 체념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다가 歲月은 흘러 1986년 7월이 되었다. 또 다시 出血이다. 이번에는 아주 惝惝이다. 정말로 甚하다 血壓은 뚝 떨어지고 맥박은 희미한 채 턱없이 빠르다. 意識은 昏迷하게 잃어가고 卒倒를 한다. 이때마다 下血하던 피는 吐血까지 하면서 까무라쳐 쓰러진다.

서울大學病院 應急室에 앰블란스로 실려갔다. 죽는 것이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어림푸시 머리를 스친다. 이윽고 檢査 治療가 本格的으로 시작 됐다. 많은 輸血을 받으면서 죽는 것만은 免한 셈이다. 主治醫는 宋仁誠博士다. 나는 이 先生을 잊을 수가 없다. 이 先生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가하는 생각을 하면 아찔해진다. 참말로 生命의 恩人이기 때문이다. 投藥이 繼續되면서 比較的 順調롭게 治癒되어 갔다. 一年餘의 投藥을 거치면서 이제는 정말 完治된 것을 알수 있다. 5, 6年 지난 只今인데도 아무 異常이 없으니 말이다. 밥 잘먹고, 잠 잘자고, 술 잘마시고 登山 잘하고 일하는 데도 빠지지 않고 노는데도 빠지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는데도 빠지지 않는다. 作品活動도 잘한다. 그간 喪妻했던 쓰라림도 잊고 새 마누라를 얻어 琴瑟도 좋게 지내니 隔世之感이 든다. 이럭저럭 長廣舌을 느러놓았지만 애기의 核心은 이 投藥期間에도 술은 例外없이 즐겨 마셨다는데 있다.

저를 아시는 분들 中엔 그런 病歷을 가졌으면서도 어찌 저렇게 健康할 수 있을까하고 놀라는 분들을 자주 본다.

술 술 술이야말로 나에게는 정말 健康을 維持해 주고 藥效를 倍加 시켜주는 좋은 食品이라고 생각했다.

또 멋과 浪漫과 情感이 있어서 좋다. 이런것들이 모두다 長壽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李白의 “將進酒”에서는 「人生得意須盡歡莫使金樽空對月」이라고 했고 (人生은 뜻을 얻었을 때 모름지기 즐기기를 다하며 금술통엔 술없이 비운채로 달을 마지하지 말라) 또 “會須一飲三百杯”(한번 만나서 마셨다면 三百잔을 마실지어다)라든가 “古來賢達皆寂寞, 惟有飲者留其名”(옛부터 내로라하는 賢者나 達人은 모두가 외롭고 쓸쓸했지만 오직 술 잘마시는 사람만은 그 이름을 後世에 까지 남긴다) 이것은 杜甫의 詩 “飲中八仙歌” 中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술 잘마시는 사람을 酒仙 또는 酒聖이라 했고 여덟 酒仙의 特有的 모습을 읊은 詩가 바로 이것이다.

옛부터 詩人墨客은 거의가 다 술을 좋아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近代에 있어서 樹洲 卞榮魯 空超 吳相淳같은 멋있는 분을 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單純壽(歲月만을 오래산 壽)를 오래 누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壽에는 여러가지 複合的인 內容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等式을 生覺해 봤다.

$$V = XY \cdots \cdots \textcircled{A}$$

여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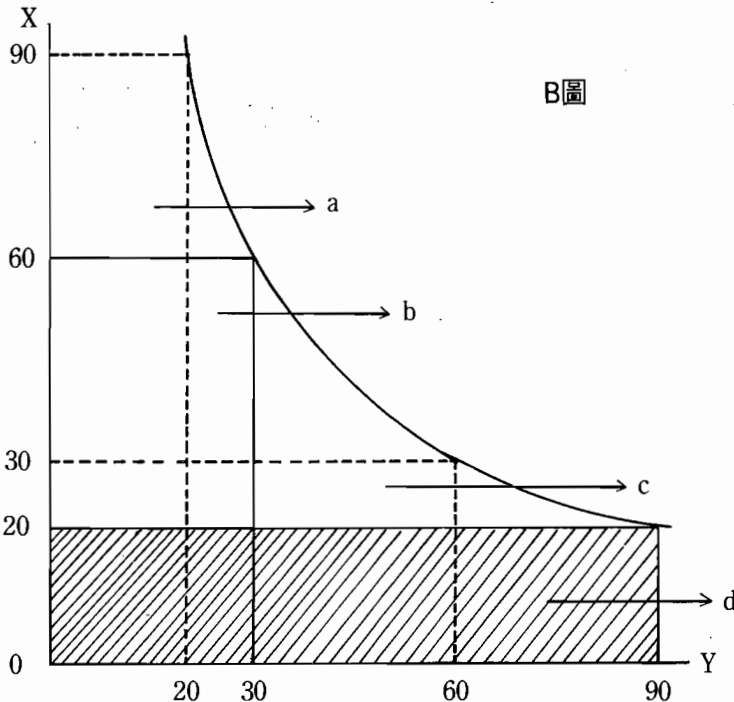
V = 形而上學的인 壽

X = 멋과 健康度(人間다운 生活의 深度 + 健康)

Y = 時間(單純 年令)

여기서 V의 값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나 큰 것이 좋은 것만은 틀림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오랜 歲月만을 살았다고 해서 꼭 長壽했다고 볼수는 없다. 卽, V의 값이 큰 것이 좋기는 하나 그 內容이 重要하다. X와 Y의 函數關係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Y의 값이 암만 크다고해도 X의 값이 작으면 볼품없는 삶이 되어 長壽를 누렸다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反面 X값이 클때 Y값은 多少 작다 할지라도 멋진 삶을 살았고 形而上學的으로는 壽를 누렸다고 보는 論理이다. 樹洲나 空超같이 이때 다음 B圖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서 a, b, c, d 모두가 값이 같다.

即,  $V = XY$

$$= 180 = a, = b, = c, = d$$

가 되어 V의 값 即 形而上學的인 壽는 같다. 다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問題된다. 即 a와 b의 境遇는 짧게 살았지만 멋있는 삶이요. c와 d는 좀 오래 살기는 했어도 글썽 어떨까요? Y의 값이 큰것만 가지고 단순히 長壽를 누렸다고는 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다 X의 값이 크며 內容이 豊富하다면 錦上添花다. 우리는 이것을 追求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長壽에 對한 概念을 고쳐서 Y의 값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X의 값에 더 神經을 써야 한다고 본다.

일찍 夭折한 藝術人들 例컨대 李箱 金素月 李仲燮... 등은 a, 나 b, 그룹에 屬하지만 얼마나 멋있게 살다가 갔는가 또 부러운 壽를 누렸던 사람중에는 피카소나 우리나라 元老 書藝家 黃旭先生 같은 분을 들수 있다. 모두가 白壽를 넘기며 V의 값을 豐饒케하고 있으니 말이다.

또 여기서 ㉠等式을 飛躍해서 다음과 같은 ㉡等式은 더욱 멋있다.

$$V = XY + a \cdots \text{㉡}$$

이 ㉡等式에서의 a가 興味있다. a속에는 無限이 많은 因者가 있음직하다.

例컨대 멋있는 戀愛를 했다거나 旅行길에서 만났던 아름다운 女人과의 로맨틱한 에피소드라든가 下宿집 寡婦主人과의 로맨스라든가 짝사랑하다 失戀當한일 컨닝하다 들켰던 일 소변보다가 순경에게 뺨 맞은 애기 내키지 않는 女人이 귀찮게 자꾸만 따라다니던 일 女學生에게 반해서 졸졸 따라다녔던 일, 알미운 日本놈을 골목길에서 때려주고 도망했던 일, 좋은 일 궂은 일 슬픈일 기쁜일...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이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V의 값은 커짐으로 멋있는 壽가 되고 멋있는 人生을 살았다는 內容이 된다.

5) 性의 代謝를 活性化하자는 것이다 모-든 動物이 그러하듯 사람도 男女가 解剖學的으로도 다르고 生理學的으로도 많이 다르다 첫째 女子는 廢經으로서 生産能力이 喪失되고 말지만 男子의 境遇는 그렇지않다 生을 마칠때까지 生産이 可能하다. 그러므로 代謝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衰頹해지고 老化돼버린다는 것은 不問可知다 週1回程度 아니면 月3回程度는 代謝의 機會가 있어야한다고 主張한다. 젊어지는 祕訣이며 長壽의 祕訣이다. 할머니결이 如意치 않으면 젊은 相對를 찾으면 된다.(이젠 絕對內密로) 人體의 代謝作用은 꼭 이루어져야만 正常的인 生理現像이 維持된다고 본다. 例컨대 小便은 適時 排泄시켜야 개운하고 大便亦是 同一하다. 便秘로 宿便이 오래 体内에 묵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 거북한건 말할 것도 없다. 性의 代謝도 꼭 같은 理論이라면 老廢物은 오래 蓄積돼 있는 것은 좋지 않음이 확실하다. 고여있으면 썩고 流水는 不腐다 나는 나의 4年先輩인 K畫伯의

結婚記事가 大書特筆로 都下各新聞에 掲載된 것을 읽고 참으로 멋있는 人生을 사는구나 했다. 이것이 바로 젊음의 山 標本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생각했다. 30代의 젊은 婦人을 맞았다는 것은 眞實로 人生에 活力素를 불어 넣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만 杞憂가 되는 것은 過度한 代謝일 따름이다.

6) 밤잠을 적게 자고 낮잠을 자자는 것이다. 얼핏 納得이 잘 안가는 持論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逆說의인 것은 아니다 非夢似夢間에 오래 잤다고해서 잠을 잘 잤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루 充分한 活動을 하고 5時間을 熟眠해 보라 업어가도 모를 程度로 꼭 자게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든 新聞을 보든 가벼운 運動을 하든 爽快하기 이룰데 없다. 一日之計는 在於晨이라 했다. 그날 스케줄을 餘裕있는 가운데 세울수 있어서 좋고 느긋하게 出勤을 하니 좋다. 活力이 솟고 能率이 난다. 허겁지겁 일어나 난리를 격듯 정신없이 서둘러 들볶다가 나서보라. 終日토록 마음이 不安定하다. 사람은 餘裕있는 生活속에서 樂天的이 된다. 樂天的인 사람이 곧 長壽할 수 있다는 等式이고 보면 어찌 조금하게 서둘르고 살겠는가 그리고 낮에는 點心때 飯酒를 조금 곁드렸으니 食困症도 오고 졸음도 오게 마련이다. 이때 30분에서 한時間程度의 午睡를 즐겨보라. 疲勞는 간데없고 氣分이 爽快하고 活力이 솟고 일의 能率이 倍加된다. 一日消閑이 一日福이요. 一日福은 平生福으로 이어지니 壽, 또한 그가운데 있느니라.

7) 富貴에 너무 執着하지 말자는 것이다.

어찌 있는 돈이나 감투를 내다 버릴수야 있겠는가마는 애써 많은 돈을 벌라고하고 큰 감투를 쓸려고 하지 않는 것이 健康과 壽를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벌고 감투를 쓸려고 할 때는 무리가 가고 조금해지고 건강을 해친다. 安貧 樂道속에 참人生이 있다. 돈 많은 사람도 苦衷이 없는 것이 아니며 없는 사람의 어려움 또한 크다 그러나 모두가 「萬事分定이니 要知足」이다. 明의 沈石田을 “榮枯天已早安排 何必勞生空碌碌”이라했다(사람의 榮華나 衰亡은 하늘이 이미 定해놓고 安配한 것, 하필이면 부질없이 고생하며 富를 追求할 것인가) 하루세끼의 밥과 하룻밤의 잠자리만 있으면 君子로서 足한 일, 小小房 低低屋 粗粗衣 稀稀粥이면 足하지 않겠는가? 멋있게 살자.

이 項에 該當되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醫藥界를 주름잡든 同期生들의 얘기를 좀 해보자. 이들은 우리 同期生들 中에서는 單一職業으로서는 第一 많은 數를 占했던 10名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웬일인지 먼저 他界했다는 사실이다. (美國에 移民간 親旧 하나만 빼고는) 나는 이들의 冥福을 빌면서도 한편 自己들의 壽에 對한 管理를 너무 疎忽히 하지 않았었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識字(者)憂患이란 말이 實感난다고나 할까 너무나도 醫學的인 原則 學術的인 理論을 내 세우다보니 남의 病은 治療해도 나의 病은 治療못했다는 決論이다. 돈 버는데도 너무 執着했을 것이오 浩然之氣는 가질 겨를도

없었을것시오 답답한 空間이 唯一한 活動舞臺이며 社會的인 位相의 優越感도 있었으니 心身의 餘裕있는 生活이 缺如 됐던것이 短命했던 遠因이 아니겠나 생각해 본다. 아무튼 아이러니칼하다. 모두가 第一 오래 살것만 같았었는데 말이다.

8) 자 이제 우리는 남은 餘生을 멋지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값있게 살자 그래서 나의 書齋에 이런 글을 額字에 넣고 있다. "閑談古今靜玩山水 行立坐臥忘形適意" (古今의 詩文을 閑談하며 조용히 山水의 아름다움을 玩賞하고 가거나 서거나 앉으나 누우나 내 누구를 爲해 神經쓰며 모양새를 꾸밀건가 마음 내키는대로 내 멋대로 悠悠自適하며 살리다)

그리고 ㉔等式에서의  $V$  값을 極大化시키면서  $a$ 의 內客을 알차게 하리라.

## 咸興高普入學有感

周 熹 銓(24回)

나의 故鄉은 咸鏡南道 南端에 位置한 安邊郡 瑞谷面. 元山市에서 30里距離에 隣接되어 있는 곳이지만 典型的인 시골農村 마을이었습니다.

내가 다닌 우리面의 普通學校는 4年制여서 이를 卒業하고 이웃面의 6年制 普通學校 5学年에 編入學했지요. 그리고 5学年때는 집에서 20리나 되는 學校를 通學하였으니 只今도 잘 걷는 것은 그때의 德分인가 生覺됩니다. 6学年이 되면서 上級學校志望生 十數名이 只今의 課外工夫(殘勉強)를 하면서 10里길의 外家집에서 通學하였으니 밤길에 어려움이 많아 같은 班에 孫子가 있는 王姑母집으로 옮겨가며 熱心히 工夫하였습니다.

課外工夫中 記憶나는것 하나는 부슬비가 오던 어느날 밤 工夫를 끝나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共同墓地近處에서 도깨비불에 놀라 担任先生宅으로 되돌아가 사연을 여쭙었더니 선생님께서 직접우리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집에서는 무슨일이 생겼나 하고 초롱불을 켜고 우리를 데리러 오던 중 서로 만나 선생님과 헤어져 집으로 온 일이 있었지요. 只今 生覺하면 그저 쓴웃음이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担任先生任의 使命感에 찬 자랑스러운 그 모습이 生生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課外工夫 할 때 도시락 2個를 갖고 다녔는데 하나는 낮에 먹고 다른 도시락은 난로위에 주전자로 물을 끓여서 저녁에 먹곤하였습니다. 그런데 學友들이 장난을 하다가 끓는 주전자를 나의 발에 떨어뜨려 발에 큰 火傷을 입고 그 重要的 時期에 집에서 한달가량 治療를 받았던 苦痛, 只今도 왼쪽발에 그 火傷자리가 鮮明하게 남아있답니다.

이렇게하면서 그 이듬해 3月이 되어 咸興高普에 試驗보러 광목천에 검은 물감을 들인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 검은 고무신을 신고 몇몇 學友들과 같이 担任先生任의 引導아래 威興에 가 黄金町인가 本町에 있는 어느 旅館에 投宿하였습니다. 정말 시골뜨기 였지요. 先生任이 사주신 生菓子(나마까시)를 처음 먹어보았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試驗前 予備召集날 威興高普 運動場엘 갔는데 奥野先生(入学后에 알았지만)이 나에게 와서 너도 試驗보러 왔느냐고 물으시면서 “너는 너무 작으니 어머니 젖을 더먹고 明年에 오라”고 하시질 않겠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精神없이 熱心히 試驗을 치루었는데 試驗에는 運이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作文試驗 題目이 私(“나” “와 따구시”)였어요. 쉬운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問題가 아니었나 生覺됩니다. 그런데 担任先生任이 勸해서 읽은 木馬란 月刊兒童雜誌에서 나에 對한 平凡하고도 具體的인 事緣들을 들어가면서 “나”를 表現한 글을 읽은 일이 기억나서 比較的 쉽게 作文을 쓴 것으로 生覺됩니다.

며칠后 威興高普 正門 언덕길을 올라 오른便에 있는 講堂壁에 붙인 合格者 發表에 나의 試驗番号 338番이 붙어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머리가 병병했었지요. 이 자리에는 威興農業에 다니던 兄任도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威興驛에서 汽車를 타고 故郷에 돌아와 校長先生任과 担任先生任에게 合格人事를 마치고 20리길의 집에 오니 마을 앞길에서 消息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버지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던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히 비치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저 冥福만 빌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지요.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榮光과 期待를 안겨주었던 周圍여러분들에게 感謝올리며 只今 저 北녘 땅에서 무엇을 하시며 어떻게 지내시는지 分斷의 아픈 가슴만 답답할 뿐입니다.

며칠后 威興高普에 入學生后 처음 帽子, 洋服에 編上구두를 신어보았고, 적은 體軀에 白色三線의 검은 威興高普 帽子를 우뚝쓰고, 堂堂하게 威興거리를 거닐던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만 하였습니다. 近來 人工衛星寫眞에서 본 威興의 盤竜山, 城川江, 万才橋, 鐵橋,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사포리 등을 바라보면서 내 人生에 자랑과 矜持를 안겨준 威興高普 生活를 回顧하니 벌써 卒業 50週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感慨가 無量합니다. 옛 高普時節 나와 비슷한 懷를 가진 同門도 많을 것으로 生覺되어 몇 글자 적어 보았습니다.

## 卒業 50週年の 回顧

韓時坤(24回)

咸興高普 第24回 同期生諸兄들! 더욱 健康하시고 堂内均安하시기 빌면서, 아뢰올 말씀은 今1992년이 우리들의 高普 卒業 50週년이 되는 해입니다. 古稀를 맞게되는 우리들은 지금 半世紀를 넘는 學友의 情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뜻 깊은 時點에 이르렀습니다. 其間 삶 의 波瀾萬丈을 헤쳐 넘으면서도 年年歲歲 어김없이 다져온 한결같은 友情이었지만 特히 올해는 凡常하게 넘길 수가 없어 여기 뜻 있는 同期들의 意見을 모아 今年度 定期總會는 格別히 盛宴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事情이 多少不便한 境遇라도 百事를 접어두고 참석하시어 新綠의 薰香속에 紅顏의 高普時節을 돌이켜 謳歌하면서 길고도 짧았던 지난 50年 星霜의 哀歎의 追憶과 回顧談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여기 삼가 期間 他界하신 同窓 諸位의 冥福을 함께 빌면서!

### 아 래

日時 : 1992年 5月 12日 午後 1時  
 場所 : 鍾路 1가 雲精(別添명함 參照)  
 案件 : 經過報告 및 50周年記念辭  
 행사 : 記念寫眞撮影 및 記念品배부  
 回顧談 및 餘興, 其他

1992. 4.

咸興 高普 第24回 同窓會

以上은 우리 同期同窓들의 卒業 五十周年을 맞는 同窓會 開催 案内文이다. 그러니까 우리 同期들이 서로 만나 母校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바로 五五年前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들이 겪은 유난히도 많은 激動과 試練은 여기 列擧하기조차 艱難한 民族의 受難이요 個人에게는 孤獨한 一大悲劇의 人生드라마였음을 그 누구도 否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크고 엄청난 지난 날의 歷史이야기는 후일의 卍機會에 미루고 지금 나는 머리에 生生하게 남아있는 同期들 間에 있었던 回顧談 몇 토막을 적어 보기로 한다.

첫째 崔皓兄! 내말 좀 들어보오. 그때 우리가 함께 五老里方面에서 汽車通學을 하면서도 中學二年까지는 같이 車通學던 女學生들에 대해서 別로 關心도 興味도 없었는데 三年째 접어들면서 부터는 왜 그 女學生들의 얼굴이 갑자기 윤기가 나고 예뻐 보였는지? 생각 나지요? 그게 도대체 왜 그랬던거요? 그것이 有名한 思春期라는 거였지요(허허). 그리고 또 지금도 댁이 나를 만나면 묻는 말, 그때 州北의 興上에서 우리와 함께 通學하면서

못 男學生들의 視線을 끌었던 K嬢의 消息을 묻는데. 앗다! 兄이 그 消息 모르는데 난들 그 消息 알겠느냐! 아하— 또 崔兄은 나중에 下宿을 西威興驛前에 定하였던것이 하필이면 그 下宿집이 驛前 앞 골목 漢藥房仁壽局 (가리국집들이 있는 좁은 골목) 입구 左側 안쪽에 자리잡은 나마까시(生菓子) 만드는 집이 있는데, 얼씨구 좋아라 그렇지 않아도 그전까지는 그 골목 저—안쪽 大和藥房쪽으로 나가는 길가에 다이야끼 (붕어菓子) 집이 있어서 下學길이면 으레 거기 들려서 서로 호주머니를 털어 그 아저씨가 구어내는 다이야끼가 틀에서 떨어져 나오기가 무섭게 그 따근 따근하고 통통하게 부른 다이야끼를 호호 불어가며 정신없이 먹어대던 숨씨를, 이번엔 그보다 훨씬 高級인 나마까시집이 생겼으니 이게 무슨 떡이나 하고 下學길에 汽車를 기다리는 時間이면 우리들 通學生一行은 으레 兄네 下宿집에 들려 그 말랑 말랑하고 달디단 生菓子를 무작정 집어 먹었는데 各者먹은 숫자만 메모에 적어 넣으면 그만 外上으로 막 通했겠다. 하기가 兄이 담보요 人質이니 마음놓고 먹어대던 것. 나머지는 父母에게 이 핑계 저 핑계로 돈만 타서 갚으면 그만 兄네 下宿집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이 먹쇠들에게는 더 없는 飽食処요 휴식처 였소. 그런데 兄! 지금 그 親旧들 다 어디에 어떻게들 있소? 손을 꼽아 세어 봅시다. 이북에 있는 친구는 두고라도 남에 나온 친구들 中 韓錫範 金泰錫 朴文卿諸兄은 타계했고 大田에 있는 南哲祐兄과 우리 두사람 程度만 살아 남았군요. 아마 玄堂 朴永馥兄이나 柳炯極兄쯤이면 우리의 이 이야기를 알아 들을런지? 50여년 세월속에 이 기막힌 단골 話題의 話題의 상대들도 점점 줄어들더니 참 허전하기 짝이없소. 우리들이나마 부디 建在하여 이 옛이야기 따끈하게 보존합시다.

崔皓형兄! 끝으로 여기 兄이 後日 쌓아 올린 크나큰 社會的 業績과 功績 다시 말해서 兄의 그 志操높은 民族의 良識으로 이나라 言論界에 쌓아 올린 金字塔에 얽힌 이야기는 우리 同窓들에게는 은근한 자랑거리이지만 이 짧고 얇은 回顧談의 限界를 훨씬 벗어나는 일이기에 여기 그 言及을 삼가하고 이만 兄과의 回顧를 줄이겠소. 兄 그때 우리 別名 생각나지요? 兄의 別名은 生菓子집 아들 나의 別名은 다이야끼. 하하

다음은 함께 汽車通學을 했던 南哲祐兄에 얽힌 이야기. 兄이야말로 元來 저 一長津에서 나온 南面長會監 아들로서 五老里에 와서 논바닥 한복판에 있는 큰 기와집에 살던 村사람 아니요. 早熟한 탓인지 그때 같이 通學하면서도 제법 어른스런 티를 냈던 兄. 그리고 생각나지요. 우리 三學年 末에 우리의 二年先輩 南相玉兄 (兄의 三寸별) 韓讚植兄 (作故) 등의 卒業式送別宴은 五老里 어느 料亭에서 우리 汽車通學生 一行이 차려 드렸을 때 이야기. 그날 밤 우리 몇 사람은 술이 취해서 南相玉兄 집에서 자게 되었는데 當時 벌써 그 兄은 장가들어 색시가 있었소. 자고나서 그 兄은 공부방 벽에 아주머니 숨씨로 보이는 조선지도 모양의 무궁화꽃수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까 相玉兄 아주머니가 고운 옷차림으로 아침밥상을 차려 들여왔는데 그 곱고 우아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나도 커서 장가 들면 저런 예쁜 색시와 같이 살수 있겠지 하고 가슴이 뛰었소 (히히). 그리고 哲祐兄은 토요일 쫓이면 가끔 富民里驛에서 나와 함께 내려 우리집(재궁골)果樹園에 와서 사과 따 먹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오까아상” 하면서 어리광 부리던 생각이 나오. 그때 兄의 그 心情 나는 當時의 兄의 胸中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소! 더욱이 兄이 고맙게 생각 되었던 것은 내가 卒業后 日本으로 中國으로 돌아다니고 있을때에도 가끔 우리집에 들려서 어머니를 慰勞하고 나의 消息을 물어 주었다니. 天下에 이런 知己가 또 어디에 있었단 말이오. 지금도 兄을 만나면 그 어머니 生覺에 不孝莫及의 이 막내자식은 그저 가슴이 메일 따름이오. 이 글을 쓰는 오늘 이 아침이 바로 아버지 날 아침이니 더욱 참회의 정이 간절하오. 兄! 정말 고마웠소. 兄 이번엔 우리 同期들 中에 쥐리꼬리 反抗兒들 生覺이 나서 여기 그 八人租 친구들 이름을 적어보오. 南哲祐, 金孝恂, 元東河, 朴長春, 金声燾, 崔鎔憲, 朴煥國 그리고 韓時坤, 이들은 착한 가다뽕學生들과는 매우 對照的이 었지오(하하).

이런 追憶들을 남기고 兄은 南下하여 京師演習科出身의 실력을 發揮, 忠南地方 教育界에 不朽의 功績을 쌓아 놓고, 한편으로 大田地方의 富豪를 自称하면서 지금은 多男妹子息들의 孝道를 받는데 바쁠 터인즉 더욱 健康에 留意하시여 그저 忠南 村校長소리만 듣지 말고 자주 서울 子息들 집에 다니는길에 우리 옛 同期生들과 함께 友情을 나누면서 余生을 보내지 않으려오. 부디 恢復된 健康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다음은 지금 이북 땅 어디인가 있을 韓均相兄에게 털어 놓을 回顧談은 이러하오. 兄과 나는 卒業直前에 함께 當時 威農에서 있었던 抗日學生事件에 연류되었다는 혐의로 無期停學處分을 받고 卒業式에도 參席치 못한채 日本의 上給學校進學願書에 도장만 받아 가지고 東京가서 서로 다른 學校에 다니면서도 자주만나 젊은이의 큰 꿈을 불태웠고 드디어 우리 韓國學生들이 羨望하던 신주구(新宿) 소재 朝鮮獎學寮라는 特惠받는 日人 下宿에 兄은 先輩의 추천으로, 또 나는 兄의 주선으로 들어가서 각각 獨房에서 工夫하고 토론하며 민족을 論하고 世上을 논하면서 靑雲의 꿈에 부풀어 있었을 때, 난데없는 學徒兵制의 強行에 밀려서 兄은 그해 초겨울 學業을 포기하고 歸鄉길에 올랐고, 나도 亦是 그 寮를 떠나 東京 변두리 妹兄아파트로 갈 준비에 바빴소. 그때 우선 형을 東京驛까지 전송하고 그 후 나는 西部電鉄線쪽 멀리 떨어져 있는 妹兄 一當時 美術學校를 卒業하고 學兵을 免하기 위하여 町會에 就業하고 있던 一의 아파트에 가서 틀어 박혀 學兵을 免해 볼려고 보따리를 싸고 있던 참에 청청벽력같은 일이 터졌으니 다음아난 當時의 關釜連絡線 崑崙丸의 魚雷피격사건이었소. 너무나 놀랐던 것은 그때 바로 그 배에. 兄이 타고 있었음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소. 뛰는 가슴을 달래가며 그날 아침 혈래벌떡 東京驛에 뛰어가 그배에 댄 乘船者名單을 붙인 揭示壁을 쳐다 보며 까맣게 쓰여진 수백명의 명단을 일일이 조바심하며 들여다 보았는데 千萬多幸으로 兄의 이름은 없었소. 안도의 한숨으로

뛰는 가슴을 쓰러나리고 天地神明께 감사하면서 下宿으로 돌아왔지요. 그 후에 알게 된 事實인즉 兄은 그 遭難船의 바로 앞배를 타고 釜山에 到着해서 故郷으로 向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도 그 衝激의 追憶을 지울 수 없소. 그 후 나는 妹兄 아파트에서 버티다 當時 고향 주재소주임이 家親대신 보낸 세 차례의 脅迫電報 「家門の 榮譽にかけていち早く 志願の手続きをなせちち」에 못이겨 그해말 歸郷해서 맨나중 遲刻生으로 志願한 不良臣民의 한사람이 되어 強制로 軍에 끌려가 兄은 日本으로 나는 저 - 中支별관 戰爭터 生地獄을 헤메다가 天幸으로 生還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소. 解放된 祖國땅에서 兄은 南에 있다가 北으로, 나는 北에 있다가 南으로 서로 못본지 四十余年 生死조차 알길이 없는 離散同窓이 되어 있는데, 均相兄! 이것이 都是 누구의 탓이오? 歷史의 試練, 民族의 宿命치고는 너무나 苛酷하지 않소. 지금 나와 함께 외쳐 보지않겠소. 「이 地上에 단 하나 남은 分斷國 移散同胞여! 우리 부디 지혜와 힘과 精誠을 모아 靈通한 神力을 발휘하여서라도 이 疆土에 統一된 平和租國의 실현을 우리 손으로 이루어 보자!」고,

끝으로 柳炯極兄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하필이면 進學한다는 것이 人文系學校로, 그나마 徵兵適令이라 해서 所謂 日帝 學兵에 끌려가 저 - 中支 中泉별관 옛 三國誌에 나오는 魏, 蜀, 뭇나라의 領域을 거의 다 누비다시피 하면서 黃河以北에서부터 楊子江을 거쳐 武漢三鎮, 岳州, 桐庭湖를 거쳐 長沙, 株州, 衡陽, 桂林으로 向하는 길목까지 數萬里 戰場의 生地獄을 헤메다가 九死一生 살아 남아 解放을 맞고, 日軍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湖南의 湘蔭이란 地點까지 되돌아와 우리 韓籍將兵(支願兵, 學兵, 徵兵) 數百名이 한데 集結하여 每日 멀건 赤米죽에 허기를 메우면서 一切의 交通手段이 끊기고 파괴된 現地狀況에서 이제나 저제나 祖國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 어느날, 우리 部隊에 빅 뉴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柳兄이 當時 任官하여 任地로 가던 途中, 中國軍쪽으로 脫出했는데 解放된 다음 우리들의 集結地 消息을 듣고 우리 部隊에 찾아 왔을때,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때 便衣(便衣, 中國平服) 차림의 柳兄을 껴안고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던 일. 우리는 그 길로 部隊 앞 뚝방에 함께 가 앉아 千辛萬苦의 지난 일들을 주고 받다가 그 자리에서 兄은 나에게 「이태리의 정원」이란 名曲을 영어로 배워주던 記憶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에 남아있소. 그 後 迂餘曲折 끝에 겨우 歸國하여 兄은 서울에 남고 나는 함께 온 同期 金性均兄과 함께 三八線을 넘어 威興으로 向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校誌 二號에 실었기에 여기 省略하기로 하고, 나는 다시 一九四八年余 新婚旅行으로 험난한 山길 따라 限死코 越南하여 戰場도 求하고 夜間講師등 아르바이트 하면서 生活의 安定을 찾고 있을무렵, 中學同窓들 消息도 하나 둘 들어 왔는데 그때 어는 초여름날 永登浦쪽 제방 밑에 자리 잡은 아담한 韓屋에서, 바로 柳兄 兄任宅에서, 난생처음 中學同期同窓會가 열렸소. 우리는 서로의 再會를 반기며 어수선한 정세하에 南北同窓들의 安否를 물어가며 그 兄수님 德澤에 실컷 먹고 마시며 놀던 일이 어제일 처럼 生生하니,

돌이켜 보건대 前生緣分없이는 同期同窓 死地同居, 平生酒伴同仙의 知遇之間의 因緣인들 맺어질 수 있겠소? 그저 天地神明께 이 友情 健在함을 感謝하고 다짐할뿐이오.

그런데 문득 柳兄에게 들은 兄의 回顧談 생각이 나서 여기 적어 보면서 나의 所感도 곁들여 보오. 도대체 中學 三,四年때면 뛰놀고 공부하는데도 바쁜터에 어느 틈에 나를 個人指導할 여유가 있어서 家庭教師가 됐단 말이오? 그도 우리들의 日人교사 이가라시(五十嵐高之) 先生의 외아들, 當時의 咸中生을 그집에 寄宿하면서 가르쳤다니 참으로 놀랍소. 어떻게 先生에게 잘 보였기에 그 아들의 家庭教師로 발탁 되었소. 이가라시 先生하면 當時 우리들의 日人教師中에서는 꽤나 人心 좋고 實力있는 日語先生이었지요. 兄은 그 집에 있었을때 이야기로 늘 그 夫人의 儉素하고 깔끔한 生活태도를 말하면서 또 그 先生夫婦 그리고 兄과 그 아들(高淸이라 했던가?)하고 한 房에서 잤는데 도시 房이 더 없어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多情한 탓으로 그랬던가요? 잘 납득이 안가요. 또 그 아이와 함께 고기잡이, 메뚜기잡이 했던 일들을 回想하며 잡은 메뚜기들은 그 날개를 떼어 내고 통째로 까맣게 볶아서 自作한 納豆. 콩을 찌서 발효시킨 반찬)와 함께 도시락 반찬으로 싸 주었다는 등의 이야기. 그 아들을 汽動車로 通學시킬 수도 있었는데 굳이 自轉車通學을 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 五十嵐先生宅에 우리들의 二年先輩 金東成 禹相夏氏등이 찾아 가셨다는 등등 이야기를 柳兄에게서 들으면서 나는 느끼는 바가 있었소. 그 日人教師宅 生活理念, 外아들에 對한 과보호가 아닌 檢소하면서도 끈기와 인내를 體得케 하는 教育, 淸癖할 程度로 깔끔한 日人 아내의 生活習性 등을 읽을 수 있었소. 두 선배의 先生宅 訪門은 아마 그들이 매우 模範的이요. 가다뽕學生들의 典型이었으니까 그저 인사차 들렀던 것이겠지요? 柳兄 咸南, 咸山하고도 新興의 村 사람이 咸興高普, 그리고 日本의 名門 長崎高商을 거쳐 日帝學兵으로 끌려 갔다가 天祐神助로 生命을 건져서 돌아온 故國에서 또다시 거듭되는 歷史의 소용돌이 속에 가진 辛酸을 삼켜가면서도 兄은 恆常 좋은 職場에서 무거운 職責을 감당해가는 그 한편으로 늘 한결같이 우리 同窓들에게 베푸는 厚德한 友情.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진 出世한 村사람 柳炯極兄의 모습이요. 率直한 評価라오. 부디 앞으로 酒少事奔으로 더욱 健勝하시오.

卒業 五十周年을 맞는 感懷는 이토록 限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許容된 紙面에 이만 줄이기로 하고 다음 機會에 또 다른 回顧를 가지고 다음号 校誌에서 서로 健康하게 다시 만나기를 期約하면서 붓을 놓겠소. 同窓들이여! 부디 安寧多福하소서!

## 니시(西)式 건강법 권장

### 한 학 료(24回)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 제형의 연령이 이순(60세)에서 망백(91세)의 사이라고 하니, 함흥에서 학교를 다니던 때가 어제 같은데, 설마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남은 余生이나 건전하게 보내면서 어떻게 운이 띄면 고향이라도 한 번 가 보고, 안되면 세상을 뜨는 날까지 건강하게나 지냈으면 합니다.

이 건강하게 지내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동창 선후배에게 진언하고 싶은 것이 바로西式건강법인데 이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믿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 동창 여러분께서도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남은 기간이라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무래도 体系가 잘 짜여진 이 건강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모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에 「시호자키」선생 (당시 훈육주임)이 강당 (목조로 된)에 아마도 전교생을 모아놓고 1시간쯤인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건강법이 소중한 것이라는 意識이 없었고 또 교과서의 교육내용에도 없는 것이니까 그냥 장난 기분으로 들어넘겼던 것입니다. 그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에 와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교 시절부터 40대 중간까지 제가 건강면에서 겪었던 일을 대충 추려서 동창 제형의 참고로 내놓았으면 합니다. 저는 中農 정도의 가정 출신이어서 국민학교 때는 粗食에다 많이 걸었으며 그것도 맨발로도, 하여간 건강하였고 視力도 1.5나 1.2로 밝았습니다. 그런데 모교로 진학한 후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좋아져 잘 먹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건강 문제가 이 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먹게 되니까 잠이 많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구두가 작은 것도 원인이었지만 발목이 비뚤어져 八字 걸음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지고 코가 나빠지고 피로가 심하게 오고 그리고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학업은 마음으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여도 성적은 오르지 않는 등등...

모교를 졸업한 얼마 후에 짐을 지다가 허리를 약간 다쳤는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 내려오다가 6·25를 겪고 서울로 수복한 후에는 점점 더 심해져 한 때는 엉덩이가 비뚤어지면서 걸을 수 없게까지 되었습니다. 결들여서 눈은 물론이고 코는 비후성비염인가 하면서 콧물이 계속 이어 나오거나 아니면 말라서 밤새 재채기를 계속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맹장염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다음에는 폐결핵이 되어 주위에 많은 폐를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는 동안 치료는 정말로 많이 받아본 셈이 될 것입니다. 병원은 곳곳마다, 한의원으로도, 침구원으로도, 물리요법을 하는 곳으로도, 한증막으로까지도 다니면서, 약은 약대로 좋다는 것은 거의 다 써 본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뽀족한 성과는 보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体系的인 것이 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同期이며 의사였던 故전현오군은 많은 편의를 보아 주었는데 끝내는 종교에나 의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滿身瘡癩로 도무지 방향이나 진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참으로 우연히라면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이 西式건강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차츰 이것으로 건강에의 갈피가 잡히면서 24회 동기들에게도 더러 권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의 알은 知識인데다가 권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학문도 아니고 따라서 지금까지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권하고 싶은 생각이나 건강법에 대한 信憑度는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써 보는 것도 이런 信念에서 입니다. 사실 24회 동기중 남한에서 의사로 있던 친구는 모두 作故하여 살아있는 의사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죽었거나 또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동기중 가장 흔한 병이 혈압 관계 즉 高血壓 계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 관계는 더군다나 건강법의 지식이 參見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상당수의 동창 제형이 이 고혈압으로 희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제가 아는 바로는 西式밖에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중에서 例示로 혈압에 관한 대책을 적어 봅니다.

우선 血液循環의 이론에 있어서 현대 의학과 西式은 가장 큰 差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원동력설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관망원동력설입니다. 流水不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도 피가 잘 돌면 모든 병이 없어지는데 그 피를 잘 돌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쓰고 西式에서는 모세 혈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혈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나 건강의 기본 문제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血壓에 關한 病에 대하여 西式에서 중요점으로 하는 점을 提示하면

① 모세혈관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毛管운동이 있습니다. 바로누워서 팔과 다리를 垂直으로 들고 1~2분간 微振動하는 것입니다. 기본형이 이것이고 많이 걷는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몸에는 水分이 충분할 정도로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生水 2000cc(1되)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마셔야 합니다. 얼마동안은 가는 곳마다 물병을 갖고 다니도록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③ 대체로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창자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宿便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독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창자를 徐徐히 맑게 하는 방법으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生野菜가 좋습니다.

④ 창자와 피부와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하며, 피부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風浴 또는 冷溫浴같은 것이 있습니다.

혈압 즉 고혈압, 저혈압에 관한 것은 대충 위의 몇 가지를 목표로 노력하면 지금까지 전혀 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西式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실천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순환 관계가 바로잡히면 기타의 다른 병도 자연히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사는대로 살다가 죽지, 뭐 오래 살려고 버둥버둥하느냐?」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건강법은 오래 살려고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고요히 세상을 뜨자는 것입니다. 죽는날까지도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아이구 참 오래 잘 살았다. 이제 잠이나 한잠 자자.」하고 자는 동안에 羽化登天하는 식의 죽음이 건강법에서 바라는 죽음입니다.

현재 앞날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西式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上策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는 곳이 한국 자연건강회 (742-0661)이며, 상담에도 응하고 있으며 책도 상당수 발간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嗚呼！韓錫範學兄의 急逝에 哭함

### 24回 동기일동

錫範兄！韓錫範兄！왜 對答이 없습니까. 이 아침 하늘과 땅은 如前한데 왜 兄의 應答이 없습니까? 우리의 부름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人生은 無常이요 朝露와 같지만 이렇게 말한마디, 손짓 한번 주지도 않고 뒤돌아 보지도 않은채 그다지도 無心하게 가실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있는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 두째와 딸은 아직 學業도 못마치고 짝지워 주지도 못한 채, 그렇게도 황급히 가실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우거나 그토록 당신을 사랑하고 외골수로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가난한 公職者의 아내로서 힘든일 어려운 고비를 도맡아 지켜 이겨온 獻身的 內助者 兄의 아내 조필교 女史를 未亡人으로 홀로 남겨놓고 그렇게도 매정하게 兄의 길만 재촉해야 했습니까?

무엇이 그다지도 바빠서 그간 寧日없이 보고 살펴오든 그 山積한 法制關係 審議書類와 身邊의 諸般文集의 편찬資料들을 다 整理도 못한채 그리고 더우거나 우리 關北清州韓氏

上將軍派 派潛作成의 大業을 遂行하는데 不撤晝夜 渾身の 정열을 쏘다왔던 터에 이제 그 完成堯刊을 눈앞에 두고 그 많은 사연과 사실들을 뉘이 아니고 그누가 살피고 다듬어서 出刊하라고 무식하고 무성의한 門中 우리들에게 남겨 놓고 당부의 말한마다 없이 그렇게 忽然히 떠나셔야 했습니까? 兄이 平素 그다지도 애타게 기다리고 목메게 외치던 이 나라 이 강토의 통일을 남겨놓고 이산가족의 再會조차 이루지 못한채 夢昧에도 잊지못한 故鄕山川을 생전에 다시 보지도 못하고 참아 어찌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엇그제 까지도 우리 함께 모여 어지러운 이 나라 이 時代의 現實을 慨嘆하며 이 民族의 主體的 自主統一을 외치며 失鄉民의 恨을 터트리고 달래면서 지나 왔는데 그래 이렇게도 虛無하게 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兄은 우리 母校 威興高普 校誌三號에 「말 많은 世上」을 써서 이 형크러지고 타락한 世態를 告發하고 우리들 自身の 覺醒을 促求하며 非理와 無法을 叱責하던 그 맑고 높은 兄의 絶叫이 귓전에 錚錚합니다. 10代 初半 애뉘 少年時節 威興高普 校服을 함께 입고 조그마한 시골 列車를 타고 五老里에서 州北마을을 거쳐서 함께 다니던 列車通學 길, 城川江과 盤竜山馳馬台 그리고 萬才橋 九天閣 하남뼉(威興平野) 다음은 우리들의 試練과 浪漫이 交友하던 追憶의 보금자리 母校의 教室과 講堂 그리고 아카시아 그늘아래 우리들 思春期의 跳躍場이었던 넓고 시원한 運動場 이 走馬燈같은 지난날의 回想의 映像을 兄의 靈前에 비추어 들입니다.

그렇습니다. 兄은 分明 우리 同窓들의 基準이요 標本이었는데 이제 兄이 가고난 뒤에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列을 서야하고 누구를 中心으로 모여야 합니까 兄의 바로고 高孤한 자세는 弄속에 眞談이 담겨있고 웃음속에도 깊은 呻吟과 反省의 教訓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日帝의 斷末魔的 壓制의 時代 저 처참한 戰爭末期의 배고팠던 東京留學時節 그 다음 所謂 解放과 함께 우리들에게 닥쳐온 三八線의 祖國分斷 民族의 離散 六·二五의 아픈 傷痕 그 후에도 끊이지않는 政變들 그도 모자라서 이렇게 暗담한 오늘의 現實 우리 어찌 배꼽지 않는다고 幸福한 人生이요 몇몇한 百姓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와같이 危難의 現實속에서 그나마 兄과 같은 바른 소리의 主人公 마저 사라져가면 그런소리 마저 들리지 않는다면 어찌란 말입니까? 그저 寒心하고 痛歎스러울 따름입니다.

도리켜 보면 兄은 참으로 이 나라의 큰 일들을 終始一貫하여, 忠實히 감당해낸 장한 일꾼으로 나라 運營의 規範이 되는 法制와 法制史에 큰 劃을 그어놓은 行政府의 龜鑑이요 清白吏요 愛國志士였습니다. 험험 單身 三八線을 넘어 그 어려운 환경속에 서도 恩師 韓殉鉉先生의 추천으로 中央廳 法制處에 몸담아 온지 停年까지 近 40年 한결 같이 法制處의 같은 울타리 안에서만 자리와 職責을 바꾸어 가며 要職을 擔當해 政府各部處의 法律制定에서부터 그 改廢問題에 이르기까지 兄의 붓자국이 가지않은 法案이 없을 程度로

縱橫無盡 그 心血을 기울인 痕跡이 只今 이 나라 法條文마다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나라 法制史의 산 證人이었던 兄은 이제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나라의 法과 律令이 올바르게 施行되고 있는가의 與否를 지켜보는 守護神이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兄! 이제 떠나시는 이 마당에 兄에게 祈願하고 부탁드려야할 말씀 한 마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여기 남아있는 遺族들에게 「나 너희들에게 五年 10年 더 살아서 뒷바라지 못하고 가는 길이지만 그 못해준 몫을 저— 멀고 높은 九天에 올라서 너희들을 더욱 자상하게 살피주고 든든하게 지켜주겠노라. 그리고 너희들 앞길에 삶의 참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밝은 빛으로 恩寵을 내려주겠노라」고 다짐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南北의 친척들과 우리 同窓들에게도 내나라 내땅 위해서 한겨레 한血肉이 서로 만나 統一된 獨立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높은 곳에서 絶對한 큰 힘으로 빛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兄은 永遠하고 無窮하고 自由한 나라 九天에 오르셨습니다. 元來 人間은 이 世上에 태어나 번뇌와 苦痛과 罪를 벗지 못한채 그저 눈앞에 어리는 現像에 웃고 우는 喜怒 哀樂속에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愚昧한 微物이요, 幻覺속에 숨쉬는 허수아비요, 運命의 끈에 묶여 살아가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음을 어찌 하겠습니까. 나기前의 無의 世界, 無限한 大宇宙에 合一하고서 flux속에서 무치어 自然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 人生의 本體요, 도라가야할 太元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살면서 이 地上에 서로間에 뿌리고 남겨놓은 情 때문에 그 어리석고 未練스러운 情때문에 이토록 울음이 터지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또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제 여기 兄이 오르시는 聖스럽고 光榮의 길 저— 虛空을 向해서 다시한번 兄의 이름을 불러워치면서 兄의 冥福을 빕니다. 兄! 錫範兄! 韓錫範兄! 부디 安寧히 가십시오. 부디 平安하고 福된자리에서 큰빛으로 우리 後進들의 앞길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들 衷情모아 兄을 받드려 보내웁니다. 여기 다시한번 兄의 無限하고 永遠한 冥福을 비웁니다. 平히 잠드소서!

1991. 2. 18

威興高普 第24回 同期同窓 代表 韓時坤 俯拜



## 우리야 皇國臣民이 아니지

劉長得 (25回)

우리가 咸南中學校에 다닐 때는 中日戰爭과 第二次 世界大戰 中이었으므로 日帝末期이다. 따라서 感受性이 가장 銳敏한 靑少年期에 不幸하게도 徹底한 皇國臣民化教育을 받아야만 했었다. 참으로 抑鬱했지만, 한편으로는 植民地教育을 實際로 體驗하고 그 어리석음을 깨달은 効果도 있었다. 그(웃기는) 事例들을 몇 가지 回想해 보겠다.

### 1. 國語(日本語) 常用

各 民族에겐 國有의 言語가 있고, 또 地方마다 方言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授業時間外에는 주로 우리말(그것도 咸興地方 사투리)을 했다. 그러던 것이 上級生이 되었을 쯤 우리말을 하는 것을 團束하기 始作했다. 日本人 教諭들 中 몇몇은 休息時間에도 가끔 우리말을 使用하는 學生을 探知하러 돌아다녔다. 그래도 日語常用이 잘 안되자, 하루는 全學年生을 個別 審問하는 일이 放課後에 있었다. 키 작은 學生부터 調査했으니, 나는 오래 기다린 끝에 次例가 왔다. 審問하는 사람은 津田 教諭였다.

“너는 朝鮮語를 쓰는가?”

“예, 때때로 씁니다.”

“어떤 때에 쓰는가?”

“日本語를 모르시는 下宿집 아주머니에게, 또 집에 가서는 어른들에게 합니다.”

“學校에서는 朝鮮語를 안 쓰는가?”

“급할 때에는 無意識의으로 씁니다.”

“先生님,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어찌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아! 어머니, 그렇지 母國語지 좋아, 너는 率直하다. 가봐라.”

津田文平 先生, 그는 日本人이었지만 眞實을 아는 人間性이 좋은 분이였다.

### 2. 皇國臣民의 誓詞

朝鮮總督 南 次郎은 統治手段의 하나로, 우리 民族精神을 根絶하기 爲해 皇國臣民의 誓詞를 지어, 全 同胞에게 暗誦을 強要하였다. 特히 各級 學校에서는 每日 朝會 때마다 부르게 하였다. 國民學校用으로는 쉬운 口語體로 하였고, 中學校 以上과 一般用은 威嚴스런 文語體로 되어 있었다.

우리 學校 朝會에서는 이 誓詞의 齊唱 때문에 가끔 事故가 發生하였다. 나는 키가 커서 뒤에 섰으므로, 失手하지 않기 위해 입만 움직이는 시늉을 해서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다.

事故란 단 한 가지, 三條까지 부르기가 끝났는데, 딴 생각을 하다 모르고 脈빠진 소리로 또 “三”하는 바로 그이었다. 소리 나기가 무섭게 熱誠 日人教諭가 “누구얏! 나오너랏!” 하고 高喊을 친다. 끌려간 學生은 思想을 疑心받고, 매맞고 罰도 받았다. 그런데 어느 木曜日의 講堂朝會에서 誓詞부르기가 끝났는데, 또 “三”하는 無氣力한 低音이 났다. 日人教諭의 날카로운 發惡에 自首者는 뜻밖에도 몇 名 안되는 日人學生 중의 W 君이었다. W 君은 태어날 때부터 皇國臣民이니, 思想檢討는 받지 않았고 注意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그 後부터 이런 誤發이 날 때에는 “이놈! 注意하라!”로 되었다. 日人學生 W 君은 ‘三’의 再唱이 思想과는 無關하다는 것을 立證한 功勞者인 셈이다.

이 皇國臣民의 誓詞는 學校에서 職位가 第一 높은 校長이 先唱한다. 그러나 校長이나 敎務主任이 不在中이면 高等官 敎諭인 韓恂鉉 先生께서 登壇하시어 先唱하신다. 題目을 부르시고 흔들흔들하시다가 兩다리를 벌리고 서신다. 아침 飯酒를 거르시고 마지못해 하시는 일인데, 格式이나 姿勢가 무슨 所用이 있었겠는가.

### 3. 奉安殿

日人들은 巫俗文化에 젖어서인지 虛像崇拜를 아주 잘 한다. 가는 곳마다 神社를 세워 參拜하고, 살아있는 日王 裕仁을 現人神이라 하여 宮城遙拜도 하고, 奉安殿에 拜禮도 한다. 自己들끼리 祈福하고 忠誠할 것이지, 何必이면 우리들에게도 같은 部類가 되기를 強要하였는가. 그것이 허울 좋은 所謂 一視同仁인가. 儒學家系에서 자란 우리들로서는 到底히 首肯이 가지 않는 것들이었다.

學校 校門에 들어 올라가면 왼쪽에 廟室같은 小屋이 하나 있다. 鐵門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속에 日王 裕仁 夫妻의 寫眞이 있다. 이 寫眞을 前에 奉迎한답시고 全敎生이 堵列하여 머리를 숙이고, 校長이 흰 掌匣을 낀 兩손으로 寫眞箱子를 받들고 敬虔하게 行進하면서 가져오던 行事가 있었다. 自己들이 神으로 모시는 곳이 奉安殿이라니 苦笑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곳의 寫眞을 四大節에 式場(講堂)에 옮겨놓고 最敬禮를 한다.

이 奉安殿이란 것이 생기고부터는 우리들의 學校生活에 動作件數가 하나 더 늘어났다. 登校할 때, 下校할 때, 外出할 때, 그 앞에서 차렷 姿勢로 脫帽하고 90度 最敬禮를 하라는 것이다. 그 곳이 敎務室 유리窓 너머로 뻗어 보이는 곳이어서, 缺禮를 하였다가 發覺되면 不逞鮮人으로서 몰려 處罰 받을까봐 別수 없이 ‘제자리에 서서 허리 굽혀 펴기 運動’을 하였다. 그저 아침 저녁으로 體操를 한다고 생각했지 皇恩에 感激한 者가 어디 있었겠는가.

이런 저런 學生들을 묶어당기는 術策들이 있었어도, 우리 周邊에는 密告者나 親日學生들이 없어서, 嚴命에 不服해도 日人教諭들에게 들키지만 않았으니 無事하였다. 벌써 半世紀 前의 일들이다.

## 詩 2 首

韓 丞 五(25回)

## 望 鄉 片 想

江山兩斷半百年  
 人心相隔幾万里  
 天色將變南北間  
 何顏謁見冥府祖

江山은 잘려서 半百年인데  
 人心은 갈려 몇 万里이고  
 하늘빛도 인젠 서로 變하려는데  
 무슨 낮으로 저승 어른님을 뵈올까.

## 저 길 따라 가고파

—休戰線鐵索 앞에서—

물 따라 가는 길  
 산 넘어 가는 길  
 하늘은 여럿여럿 다가오고  
 고향 내음 코끝에 아련한데  
 문득 앞을 가로막는 가시철망  
 그리고 「찰거덕」 무쇠소리  
 길옆에 나뭇가지가 바르르 썬다  
 와르르 무너지는 가슴의 산산조각이  
 얼음덩이 조약돌 되어  
 황토길 가득히 호터진다  
 아아 이 땅이여  
 저 길이여  
 그리고 저 하늘이여  
 時間도 멈추고 空間도 간 데 없다  
 日久月深 해를 이어 웅어리진 恨이  
 億劫의 化石이 되어  
 나 여기 장승되어 멈춰섰다

바람이 인다

化石 속안에서 물결이 인다  
 뜨겁디 뜨거운 불길이 솟는다  
 눈은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는 있어도 들리지 않고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구나  
 가위 눌린 꿈 속에서  
 동잣간 어머니의 달가닥소리  
 우물가에 꽃핀 이쁜이의 얼굴들  
 아련히 들리고 또 보일 듯도 한데  
 「어흥, 어흥, 뼈-  
 널 잡아 먹겠다. 어흥 뼈-」  
 太古의 고요를 깨고  
 猛獸의 울부짖음인가  
 나의 꿈을 깨운다  
 차라리. 꿈이어라  
 정녕 이 몸이 化石이면 더욱 좋겠구나  
 그러나 아아  
 望樓가 보인다  
 하늘도 보이고 길도 보인다  
 또 악을 쓰는 짐승의 외침도  
 이를 달래는 사람의 소리도 들린다  
 無心한 솔개 한 마리  
 끼룩 끼르룩  
 조각 난 大地위를  
 하늘 높이 맴돌고 있다

타버리면 한 줌도 못 될  
 이 몸둥아리가  
 어찌 이리히도 무겁더냐  
 먼 훗날  
 우리 가슴마다에 새겨질  
 어찌면 아름다울 꽃글씨를 위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읊기는 길

세 번 네 번 뒤돌아 본다  
 저 하늘 저 산 그리고 저 길  
 아아 저 길 따라  
 저 길 따라 가고 싶다  
 白頭山 흰 자락에 흰 옷 입고  
 하얀 마음으로 살아 갈 내 겨레여  
 메아리마저 소리를 잃어버린  
 내 山河여!  
 물 따라 가는 길  
 山 넘어 가는 길  
 하늘이 푸르러 열리는 날  
 그 날이 오면  
 아아 그 날이 오면  
 열사 엉겨 춤을 추며  
 나 저 길을 따라  
 저 길 따라 가고 싶다

## 大 西 洋 辺 有 感

金 秉 萬(26回)

1

미국 뉴욕주의 동해안변 랍가웨이 비치에 홀로서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쳐다본다. 지나간 인생사가 오락가락하며 喜悲萬感에 가슴이 메어지는듯,이게 바로 이중실향민의 보람인 동시에 서러움인가.

다른 민족,다른 국가의 사고, 행동방식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현재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었던 지방의 풍토조건을 먼저 이해하여야한다. 그렇게함으로써 산물과 경제여건을 이해하게 되고 기층문화(基層文化)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동서양문화의 차이를 이해 할려면 지리적 조건부터 역사적으로 관찰 검토하여야 한다. 동서양 문화의 차이는 대체로 농경사회문화와 유목사회문화로 구부될 수 있다.

동서양인의 일상생활 풍습을 살펴보면 서양인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며 문밖은 안으로 열리게 다는데 비해 동양인은 방에서 신발을 벗고지내며 문밖은 밖으로 열리게

달며 위급할때 서양인은 아기를 등뒤에 업는데 비해 동양인은 앞에다 안아 보호하는 차이는 유목사회와 농경사회에 비롯되는 적대자로 부터의 방어 자세로 이해 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톱, 대패쓰기, 연필깎기, 성냥긋기, 열쇠돌리기 등에서 동·서양인은 그 방향이 반대이며, 사람을 손으로 부를 때 서양인은 손바닥을 위로 동양인은 아래로 손목을 흔들며, 아이를 서양인은 배쪽에 안고 동양인은 등에 업어 기르고, 말이나 소를 탈 때 궁둥이쪽에서 머리쪽 방향으로 서양인은 왼쪽으로 말에 올라타고 동양인은 오른쪽으로 소에 올라타는 습성등도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에서 유래되는 방어 자세의 흔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풍토조건이 생산을 규제하여서, 서양인은 육식을 주로하고, 동양인은 초식(곡식)을 좋아하게 되었다. 물론 서양의 동물 다루는 방식에는 유목사회의 소산인 유태교 계통의 자연관도 영향을 미쳤다.

다음에 생산 및 경제여건이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에 대해 살펴 보기로한다. 한 가족 또는 씨족단위로 가족과 더불어 유랑했던 서양 유목민은 통제 측면에서 자율적 개체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두레농사를 해야 했던 동양 농경민은 타율적 집단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자율주의 즉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관념은 그 발생근원을 서양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현대 동서양인 간에는 그 관념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서양인이 변화·진취 지향적인데 반하여 동양인이 보수·안정 지향적인 것은 생산의 주 대상물이 서양은 동물이고 동양은 식물이라는 데서 연유된다. 이것이 일상의 기거동작에 영향을 미쳐, 소년들의 레크레이션, 취미활동, 스포츠 및 음식 파티 등의 차이로 나타난다.

서양적 사고방식중 또 하나의 기둥인 합리주의는 희랍의 플라톤이 사물의 개념을 '이데아' 즉 '이성'(理性)으로 보아 이를 체계화하였고, 이 영향으로 후대에 데카르트, 칸트철학이 형성되어 순이론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나 이것이 실용주의와 근대과학을 탄생시켰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을 낳았다. 한편, 동양적 비합리주의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융합시킨 정감적(情感的) 직관적 체험으로 파악하는 철학이며, 의리와 인정(人情)의 윤리관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주의는 규칙적인 단순성을 가지는 자연風土에서, 불합리주의는 예측을 불허하는 복잡한 자연風土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친 한 예가 미(美) 감각으로서 서양의 기하학적 정원 취미와 동양의 복잡하고 불균형적인 자연식 정원 취미라고 할 수 있다.

혹백논리적 사고와 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논리에 그 기원을 가지며, 만사를 대립과 경쟁으로 보고 살아감으로써 라이벌의식 살벌한 투쟁으로 몰고간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50%의 높은 이혼율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동양적 일원론은 협력과 화합으로 생성론을 이루는 공영과 평화의 논리이다. 이것이 서양의 爭鬪의 성격과 동양의 平和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상의 기술을 동·서양의 철학을 전형적으로 이분했다는 폐단이 있으나 동양 유고권의 신생공업국인 우리로서는 기술 및 전략면에서 합리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되, 집단주의·금욕주의·화합정신 등을 살려 자유주의에 대한 조절도 하여야 한다. 한국인도 구세대인들은 비합리주의적이었으나 신세대인들은 합리주의적 사고로 변하고 있다. 한국적 불합리주의의 병폐인 허세, 체면유지 및 분과주의는 이제 땅밑에 묻어 버리고, 국민화합을 꾀하고 건설하고 명량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 2

나의 중학과 청년시절을 돌이켜 보면 물심양면으로 가시밭 길을 밟고 나간 나날이었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의 막바지에 일본은 조선청년에게도 징병령을 내렸다. 그래서 소위 황민화교육에 시달리던 우리들은 급기야 일본 군복을 입은 줄개로 명분없는 죽음을 당할 뻔 하였다. 나는 징병소집 제2기 예정자에 해당되었는데 체격도 좋아서 자연과학계 전문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현역소집 대상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으나, 살아가야 한다는 막연한 투지만은 있었다. 그래서 졸업 때 개인 교환사진에 크게 영문으로 'fighter(鬪士)'라고 써넣기 까지 하였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로닌(浪人: 재수생)으로서, 부질없이 다른 동기생에게 입영영장이 나오면, 장행회(壯行會) 겸 동기회합이라도 있을 것인데 하면서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한 놈이 입영하면 술 자리를 두 번 가지게 되는데 첫번에는 동기생들이 소찬을 베풀고, 다음엔 입영자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술 실력도 피나 늘었고, 빈병을 베개로 자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고 하루 밤을 자고 오는 일도 있었다.

6월 어느 날 경성대학 예과생이던 주 종정 君이 귀향해서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언제 입영하느냐고 묻고 나서, 나중에 단 둘이 있을 때 말하기를 '軍에 입대하면 기회를 보아 도망쳐서 백두산에 집결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한국청년 징병자와 징용자들이 항일 독립군으로 편성되어 소련이 공중투하한 무기와 군수품으로 독립전쟁을 벌일 것이다. 자기도 후에 합류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독립 단체 및 소련군 전략계획과 일치한다. 나는 나남(羅南)부대에 입대하였다. 45년 초에 청진 어항 부두에서 소련군 상륙부대에 대한 반격 전투중 충남 부여 출신 신병 황도와 같이 도망하여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혜산진 행 철도를 타기 위해 길주에 내렸으나 상황이 불리하여 단천으로 갔다. 고(故)김 일섭 君의 집에 들리니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하였다기에 백두산 입산을 중지하고 귀향하였다.

근년에 본 문헌 중에, 서울의 건국 동맹이 만주국군내의 조선인 장교 소수를 포섭하였는데 후일에 북한 인민군에 대한 공작 중 옥사한 박 성환 중위 이야기, 조선인 특설부대 중대장으로서 부하 약 200명을 데리고 본대를 이탈하여 백두산에서 일본 항복후 약 10

일간이나 배회하였다는 죄모 대위 이야기, 그리고 평양연대 학도병 사건 등, 군사적 행동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 사실, 일본 관동군이 소련군에 패망하여 후퇴하게 되는 경우 철수와 지연작전을 펴면서 조선반도를 확보하기 위한 저항 중심지를 백두산 일대로 잡고 있었으니, 원자탄 바람에 일본이 일찍이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길이 남을 독립 성전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해방후 미·소 양대진영의 이데올로기 냉전체제 속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는 형식적인 것으로 밖에 존재하지 못하였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한 장기 독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남한의 민주화, 북한의 궤도수정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국통일의 예비단계라고 생각된다. 요즈음의 국제정세 동향은, 다원화된 민족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전망된다. 때는 바야흐로 민족통일과 부강조국을 서둘러야 할 시대이며, 정신차려 노력하고 공부하여야 할 때이다.

## 故郷길 學校길

柳榮海 (26回)

해마다 8월 한가위 무렵에는 城川江 하류를 거쳐서 五老里와 新興郡방면 상류쪽으로 수도 없이 많은 연어들이 고향을 찾아서 힘차게 歸郷한다. 물론 집에 돌아가서 産卵을 하기 위해서이다. 알이 부화되어서 稚魚가 된 뒤에 몇년동안이나 茫茫大海를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일 다하고 클대로 다 크고나면 다음 世代를 위하여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咸南中學校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他郷살이 한지도 於焉間에 5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盤龍山 기슭을 구비돌아서 유유히 흐르던 城川江, 길고도 길던 萬歲橋 다리밟기 때는 귀가 시려워서 귀마개를 찾아야했던 城川江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떠오르는 光景이 바로 밝은 달빛 아래서 열린 내울을 거슬러 상류쪽으로 올라가느라고 남아있는 온갖 능력을 다해서 힘차게 꿈틀거리던 연어 생각이 들게한 것이다.

五老里를 지나서 新興이나 長津쪽 上流에 가면 水深이 알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江바닥에 돌이 많아서 연어들이 모로 헤엄칠 수 밖에 없었으며 밝은 달빛 아래서 작살로 몇마리씩 잡든 기억이 머릿속에 역력히 남아 있는 것이다.

學校 다닐 때 집은 本町五丁目에 있었으므로 아침에는 예나 지금이나 時間을 맞추느라고 헐레벌떡 하기가 일쑤였던 것이다.

五丁目에서 四丁目, 三丁目하면서 一丁目に 있던 郵便局과 道立病院 앞을 지나서 軍



榮通으로 접어 들고도 한참을 달려야 하는데 正門에 들어선 다음에도 왼쪽에 테니스 코트, 오른쪽에는 溫室이 있는 그 비탈길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가는 길이었다. 그리고도 그 바쁜 시간에 좌측에다가 敬禮까지 하고 지나가야 했으니 숨차게 달려온 사람에게는 등에서 땀이 더 나야하는 길이었다. 學校에 들어간 첫해에는 각자가 소위 요즘 말하는 특활선택을 하는데 테니스를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元來가 운동신경은 무딘쪽이고 체력도 딸렸을 뿐만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보니, 코트의 제한도 있고해서 어느새인가 그만 두어버린 생각이 난다. 다음해에는 생물반에 소속되다보니 각종 식물에 물도 주고 가꾸는 일이 여간 고된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특히 눈이 오는 계절에는 밤새 쌓였던 눈을 털어내고 온실에 덮었던 거적들을 들어올려 낮에는 햇살이 들어오게 하고 저녁에는 다시 덮어주는 일이 엄청나게 바빴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다음해에는 운동장 한 모퉁이에 스케이트장을 유지한다고 학교시간이 끝나면 소방용 호스를 들이대고 물을 받아놓아야 밤새 얼어서 이튿날 곱고 매끄러운 빙판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는 해도 장화는 위로 물이 뿌려져서 옷가지를 적시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본래 손재주가 별로 없었던 탓으로 보통학교 때부터도 도화(미술)시간은 아주 질색이었다. 한 번은 교실밖에 나가서 사생을 하라기에 학교 현관 동쪽에 자리를 잡고 보니 앞으로 소방서 건물의 높은 탑을 마주하게 되었다. 좀처럼 붓을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으므로 두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 있는데 헤끼(日置)先生이 뒤에서 한참 쳐다보시더니 날더러 자리를 비끼라고 한다. 뒤로 물러앉으니까 자기가 붓을 들고 스케치해서 색칠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 못한 채 뒤에다가 이름을 써서 제출하고는 내심으로 선생님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니 나쁜 점수는 줄리가 없고 생전 처음으로 미술(도화)점수 甲을 받아보는 상상을 해보았다. 훗날 기억에는 乙下를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같으면 丙을 안준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한참 전쟁때 이어서인지 특활시간에 그 좁은 운동장에서 글라이더를 탄 기억이 난다. 십여명이 앞에서 고무줄을 '끌어주고 뒤에서 끈을 풀어주는 식이었는데 한 번은 향향 조타간을 너무 급하게 잡아 뺏겨서 내려앉을 때 뒤 꼬리가 먼저 땅에 닿아서 무엇인가를 부러뜨렸던 기억도 난다. 역시 시대적인 여건이었겠지만 교련 과목이 껍이나 비중이 높았던 모양이다. 한 번은 麻田인가에 야간행군을 가는데 본래가 잠이 많은 나는 밤새도록 걸어가면서 어떻게나 잠이 쏟아지는지 걸으면서 자는 경험을 처음으로 해 보았다. 새벽녘에 목적지에 닿아서 밥과 같이 나누어주던 정어릿국 냄새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다.

健忘症狀이 점점 나타나기는 하나 그래도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있는 것은 역시 金剛山 수학여행이다.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奇岩怪石들, 瀑布와 溪谷들 그리고

바다의 흰히 들여다보이던 淵瀨 등 아름답고도 찬란한 모습들은 요즘 가끔 放映되는 기록에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秀麗하다.

그럭저럭 5년이란 歲月을 學校에서 보내다보니 한참 成長期에 접어들어 記憶力도 想像力도 豊富하던 때라 보고 듣고 또한 배운것도 많았던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린것도 많겠지만 아직도 그때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비단 知識뿐이겠는가. 지금 生覺해 보면 훌륭한 先生님들이 많아서인지 좋은 教育을 많이 받았기에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크게 弊라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견디어 온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그 時節 그 學校에서 만난 親舊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미 더러는 人生苦海의 航路를 끝내고 이승을 떠나 저世上으로 간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도 大多數의 벗들은 周邉에 남아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忠告를 받기도 하니 나로서는 幸福한 生을 걸어왔다고 生覺된다. 人生航路에 있어서 훌륭한 스승과 좋은 벗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所重하고도 貴한 恩德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耳順의 境地에 있는 사람으로서 感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눈에는 微物로 보이는 연어도 사오육년이면 집으로 돌아갈 줄 아는데 사람이 집을 떠나서 너무 오래 지내서야 되겠는가. 40~50년이란 세월을 他鄉에서 보냈으면 이제는 고향이라고 찾아 갈 줄을 알아야 할 터인데 가는 세월이 무상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아깝기도 한 것은 나만의 생각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早晚間에 故鄉으로 돌아갈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 자연과 의학

### 石東壽(26回)

#### 1. 생명의 신비

이 地球가 몇 억년전에 太陽의 작은 폭발로 우주공간에 던져졌을 때, 그것은 太陽과 같은 불덩어리였다. 그후 점점 식어가면서 지구표면이 굳어지고, 부식하고, 하면서 수분이 합성되고, 단백질, 뇨소, 암모니아도 합성이 되어 드디어 생명이 탄생하였다. 이로써 지구상에 生物界가 시작되었는데, 모든 生物들은 절대 쉬운 世上을 지낸것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失敗를 거듭하면서 이 生物들이 自然환경에 적응하려고 애를 썼던것인가? 生物界서의 失敗라는 것은 그 種屬全體의 멸종을 意味하던가 99.99%의 死滅을 말한다. 오로지 極히 一部分인 適者만이 살아남아 그것이 進化의 한발짝씩 걸어나가 겨우 그 귀중한 生命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生物界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몇 千萬年,

몇 百萬年 살아오는 사이 수百萬種의 종족들이 滅種당하여 지구상에서 永遠이 살아졌다는 事實을 우리들은 언제나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들도 自然환경에 적응못할 때 그와 같은 운명을 당할 수 있다는 이 地球上의 엄격한 自然法則을 가르쳐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리석은 人間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自然환경에 적응하려고 하기는 커녕 自然환경을 크나큰 힘으로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돈벌이를 좇한다고, 약간 편리하게 산다고 우리들은 自然을 얼마나 크게 害치고 있는가?

하늘을 날아다니던 저 많은 새들과 곤충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저 많았던 땅 벌레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풍부하였던 바다자원은 우리들의 近海서 사라진 것도 오래된 이야기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人間만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誤算이다. 우리 주위의 생물들이 없어져가면, 다음 없어질 종족이 바로 우리들 차례가 될지 모르겠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많은 生物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들 만을 그대로 둘 것 같은가?

우리 몸과 生活이 自然환경의 약간의 변동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가을날씨가 여름날씨같이 지나치게 덥던가, 비가 약간 많이 오면 농산물에 많은 병충해가 생겨 그해는 흉작이 오고, 南側에서 좀 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당장 홍수가 나고 과일들은 다 땅에 떨어진다. 한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가뭄이 와서 다시 흉작이 오고, 또 계절의 약간의 변화에도 인간들은 많은 질병을 앓게 된다. 이렇게 別로 대단치도 않은 자연적인 환경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人間이, 감히 이 大自然을 害치고 오염시키고 있는지 理解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계속 우리환경에 많은 有毒化學物質의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가는 언젠가 突然變異를 일으킨 미생물이 나타나서 우리 人間은 勿論이요 많은 家畜動物들, 산의 自然動物들이 모를 病으로 폐죽음을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世上에 공짜가 없다. 自然을 보호하면 自然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自然을 害치면 큰 害를 받게 마련이다.

우리들 주위에는 여러 수백종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나 多幸스럽게도 그 대부분은 병원균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過去에는 없었던 수백종의 化學物質들을 工場의 폐기물로서 大氣中에, 강이나 바다에 버리고 있노라면 미생물들의 돌연변이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약간 그 성질이 달라지면 우리들에게 毒感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약과다. 얼마든지 더 무서운 병을 우리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腦炎等).

아프리카의 邊地에 있었던 AIDS가 10년이라는 눈깜박하는 사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전세계에 주었는가?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에게는 크게 有效한 약도 예방주사도 아직 없다. 지금 아프리카 大陸에는 AIDS가 막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여 AIDS촌에 가면, 페스트가 中世紀의 구라파를 휩쓸 때의 光景을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런 式으로 죽어가면 기원 2천년에 들어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死亡原因이 AIDS가 될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지금 말하고 있다.

AIDS에 걸리면 T임파구의 파괴로 全身의 면역기능이 마비가 되어 쓰레기통의 음식 찌꺼기가 썩는 것같이 AIDS 환자의 肉體는 살아있으면서 이구석 저구석에서는 쓰레기같이 썩어간다. 우리들이 환경을 보존못하고 살아가다가 突然變異를 한 이름모를 바이러스로 因하여 AIDS같은 질병을 앓을 可能性은 얼마든지 있다.

이 지구환경은 우리들만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生物界의 동료生物들이 조화를 이루어 共存共生하는 장소다. 이웃 生物에 害가 가면 그것은 연쇄반응으로 다른 모든 生物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死滅하는 生物이 나오는 同時에 運이 좋게 突然變異를 일으켜 살아남은 強者도 나와 다시 새로운 발란스의 환경으로 바꾸어간다. 이렇게 우리 자연환경을 깨면 그 영향은 몇 代로 오래 오래 미치게 된다. 우리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버리는 이름모를 많은 폐기物質들이 작은 악마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한편 「生命의 神祕」를 연구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창조하였다.

작은 병이던 큰 병이던 우리 몸에 일어나면 우리 신체의 모든 방어기구들은 全力을 다하여 신기하게도 잘 싸워, 우리 몸이 오래 生存하도록 努力한다. 이처럼 自然스럽게 生命의 神祕가 이루어진다. 우리 몸에 敵이 침입하면 먼저 大喰細胞가 인식하고 이것이 그 메시지를 탄 白血球들에게 전달하여 알맞는 양의 비상명령을 내려 필요한 白血球를 動員시킨다. 이들 白血球(주로 임파구, 中性球등)는 敵이 침입한 장소로 직결하여 그곳에서 큰 결투(염증)를 한다.

이렇게 해서 敵을 격파하면서 우리 몸에는 抗體가 생산되고, 이 抗體는 오래도록 우리 體内に 있으면서 다음에 같은 敵이 침입할 때 더 쉽게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백혈구들이 이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각 백혈구들이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내 신기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찾아내 合成해내면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미세한 물질이어서 옛날에는 그것이 完全히 暗黒속의 世上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던 것이 15年前에 單클론抗體를 發見하면서 이 超微量物質들을 投與하여 적은 成果기는 했지만 效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試圖였으나 充分히 큰 將來性이 있음을 認定하게 했다. AIDS가 몇년을 두고 體内서 면역학적 싸움을 진행시키는데, 이때 이와 같은 有效物質이 投與되면 患者側의 면역 발란스를 높게 유지하는데 決定的인 도움을 줄 것으로 짐작된다.

「生命의 神祕」는 지금 우리 人間에게 그 1部를 보여 주기 시작했다. 세포核에 있는 染色體의 분자구조를 알아내어 어느 부분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전병을 유전자의 선까지 내려와서 고칠려고 한다. 이것은 다시 癌發生에

유전인자가 관여하는 종류들을 찾아내는 길도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癌에서 그 유전자를 제거하든가, 또는 암억제인자가 없으면 그것을 집어 넣으면 암이 발생 않는다는 理論이 확립되었다. 다음은 이 原則을 實驗해 보는 일이다. 實驗室에서는 이것이 成功한 例도 있으나 患者에게서 成功하려면 아직도 에베레스트登頂 만큼이나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可能性의 문은 열어놓았다.

한편 근심되는 일은 人間性的 존엄성을 무시하는 實驗을 人間本性的의 神祕한 生命의 世界로 들어가 조작하는 연구소가 未來에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人工的으로 巨人을 만들어 보겠다든가 두뇌가 特別히 크고 발달된 사람을 창조하겠다든가 하는 괴상 망측한 科學小說같은 이야기다. 우리들이 生命의 神祕를 자꾸 알게 되면 그런데까지 可能하게 할 영역에 들어갈 날이 올 수 있다는 点이다. 지금 우리들이 動物實驗은 하고 있으나 人間性을 모욕하는 이런 일은 人間에게는 21世紀에도 22世紀에도 또 그 後도 絶對해서는 안된다.

## 2. 위암과 환경인자

인간은 생물계에서 영장종족에 속하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사회를 구성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다른 생물들과 비교해 볼 때, 생존능력에서 특별히 뛰어난데는 없다. 인간도 이 대자연 앞에서는, 겨우 겨우 살아가는 연약한 다른 수천만의 생물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몇 백만년 긴 세월이 지나가는 사이,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 못하고 멸종당하였던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계속 멸종되어가는 종족들이 있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 가느라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느냐?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수한 새로운 병원균에 노출되어 여러가지 병을 앓으면서 유아기, 소년기를 지내고, 학교에 다니게 되면 有名한 上級學校에 入學해야 한다는 父母의 성화로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가리지 않고 암기만 하는 공부를 몇 년을 해야 하고, 겨우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난에 다시 한 번 큰 곤역을 치른 후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느라 10년 20년 고생하다보면 中年期에 들어서, 成人病, 老人病을 앓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60대에 成人病, 아니면 암으로 죽는다. 이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인가? 이렇게 죽음이 면데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이에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 지금 성인병과 암, 각종사고가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으로 되어 있다. 암 중에서 가장 높은 死亡率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위암이다. 다행히 지금은 그 사망율이 더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내려갈 것이다. 그 理由는 일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 사람들이 서양식 식생활을 하게 된 까닭이다. 이렇게 서양음식에는 위암발생 물질들이 매우 적다. 그래서 동양사람이 미국에 이민가 살게 되면, 위암발생은 이 미국인을 닮아간다. 이처럼 위암 발생에는

환경인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유전인자가 관여한다. 그러니 환경인자가 강하다던가, 유전인자가 강하면 위암은 쉽게 발생하고 성장도 빠를 것이다. 반대로 환경인자나 유전인자가 약하면 암은 한참 나이를 먹은 다음에 발생할 것이고 성장속도도 느릴 것이다. 그러니 젊어서(40세 이하) 발병한 위암은 미분화형이 많고, 늙어서 발병하는 위암은 분화형이 많다. 그러니 위암발생 환경인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다 젊어서 발병한다. 日本의 著名한 위암병리학자인 久保利夫의 연구결과를 나의 한국인위암환자 발병년령과 비교하니,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남자의 平均 위암발병 년령은 각각 65, 59, 52세이고, 여성은 63, 55, 49세였다. 그러나 우리도 20년, 30년, 40년 지나는 사이에 미국의 수준으로 따라가리라 믿는다. 미분화암은 상기 한바와 같이 빨리 성장하지만, 그래도 몇년 자라야 임상증세를 나타낸다. 흔히 말하기를 위암이 직경5cm 크기로 자라는데 보통 10년이 걸리고, 이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임상증세가 나타나니, 위암이 많은 일본서는 정기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중년기의 사람은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적으로 볼 때, 돈은 굉장히 많이 들지만, 부자나라 일본은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돈을 많이 벌게되면, 이 방법을 널리 쓸 것이지만, 지금같이 적자국제수지를 계속하고 있어서는, 언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참, 막연하다.

1992. 2. 7.

## 南中時節의 片想

梁泰鱣(26回)

함남 利原郡의 바닷가 寒村에서 태어나 10리 가까운 산길을 넘어 普通學校에 통학하게 되어 책보를 둘러 메고 다니던 山川은 아직도 내 머리속에 역력하게 그려져서 지워지지 않는다.

가 보고싶은 넓게 펼쳐진 해변가 그 바다의 잔잔하다가도 성내면 무섭던 노도 소리는 내 성격형성의 발이 되었으리라. 백발이 성성한 이날까지도 그리워하면서도 갈래야 갈수 없는 故郷을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시절과 함께 回想하고 추억에 잠기는 것도 나이탓일까? 과거를 되씹으면서 여생을 살아가는 나의 처지를 생각하며 중학시절의 片想을 더듬어 서글프고 어리석고 부끄러웠던 일들을 상기하여 본다.

내가 중학교에 入學하던 入學式날 오후였다. 처음 교실에 인도되어 좌석을 배정받고, 담임(擔任) 선생님의 주의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서약서를 나누어 받고 설명을 들을 때였다. 갑자기 철석하고 내 뺨을 후려치는 우찌다(内田) 선생이 짙은 안경 너머로

“이 고약한 놈. 선생이 설명하는데 턱을 고이고 앉아 듣는 놈이 어디 있어”하고 야단 치신다. 입학식 날 뺨 맞은 학생이 개교 이래 몇 명이나 될까? 시골 촌놈이 중학에 합격하였다고 많은 칭찬도 받고 내 나름대로는 의기양양 하였는데 “중학교란 곳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가? 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은 그때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중학생활동안 늘 가져던 생각이었다. 턱을 고이고 듣는다고 주의를 주는 말 한마디없이 느닷없이 철석 같기는 학교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학교였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뿐인가? 1학년 때 교무실로 끌려가서 혼이 났던 일도 잊을 수 없다.

바로 옆줄에 앉았던 尹容濟君 덕분에 習字時間에 일어났던 일이다. 그때 習字시간에는 甲乙組의 사잇문을 열어 놓고 한 선생님이 2개반을 지도했는데 담당은 혜끼(日置)美術 선생님이었다. 선생이 옆교실로 가셨을 때 尹君이 자기 종이에 이상한 것을 그려서 나에게 전하였다. 나는 순간 며칠 전에 강당에서 速記강의를 들은 부호인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 종이 위에다 별 생각없이 글씨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웬 벼락이나? 내 옆을 지나던 혜끼(日置)선생이 보시더니 후려치시며 복도에 나가 있으라는 것이었다. “글씨공부는 하지 않고 속기연습을 해? 나쁜놈” 복도에서 벌만 서고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끝난 후에 교무실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교무실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놀림을 받고, 심지어는 속기체조를 해 보라고 빈정거리는 선생님도 계셨다. “내가 아니고 尹君이 하였오”라고 변명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당하고 감수할 수 밖에는... 얼마후 풀려 나와서 尹君에게 원망의 말을 하니 그는 빙글빙글 웃기만 하였다. 지금 여기 그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어대며 그때의 댓가로 한잔 술이나 울궀 먹을 것인데 尹은 복讎하늘 아래 어느곳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때 야속하던 혜끼(日置)선생은 내가 일본군대의 징병으로 끌려 갔을때 군대에서 다시 만났다. 45년 7월인가 보다. 어느날 저녁 취사장에서 어떤 안경쓴 2등병(일본계급)이 수건으로 입에 마스크를 하고 밥통을 씻고 있었다. 순간 선생님인 것을 알고 “선생님”하고 불렀더니 “야나가와(당시 나의 창씨 이름)”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저녁에 선생님이 계신 내무반을 방문하여 마침 집에서 면회왔을 때 가지고 왔던 엽을 갖다드렸다. 선생님은 그때 제주도 방면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나에게 일본어 사전을 주시면서 공부하라고 하셨다. 자기는 戰線에 가니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날 선생님의 부대가 이동되고, 8·15를 맞고 오늘날까지 선생의 소식을 모른다. 무사히 귀국하였을 것으로 믿고 지나간 일을 되씹어 본다.

다음은 英語시간에 start라는 철자를 칠판에 나가서 쓰지 못하였던 이야기다. 1학년 때에는 가끔 이런 테스트를 받았는데 내가 걸린것이다. 내가 못쓰는 것을 보신 우찌다(内田)선생이 나보고 인도인 같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못쓰니 “너는 집에 가서 明太나 잡으라”고 하시던 말을 잊을 수 없다. 선생은 내가 해변가에서 온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런 곤욕을 치루면서 1학년을 마쳤다. 지금 생각하면 두렵고 서글팠던 일들이었다. 이왕 적는 김에 한가지 더 잊을 수 없었던 일이 생각난다. 4학년 지리시간이었다. 스미도모(住友)란 선생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다. 우리는 그를 대포(大砲)라고 불렀다. 어느날 공부시간에 무슨 설명을 하었는데 내 옆에 있던 한표규(韓表圭) 君이 “선생님, 그것이 정말입니까?”하고 빼있는 질문을 하니 “이것만은 정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모든 학생이 “와”하고 웃어서 교실이 떠나갈듯 하였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길게 하하하하 하고 유난히 나는 웃어 대어서 눈에 띄었다. 그 시간이 끝날때까지는 아무말 없던 선생이 나더러 교무실로 가자는 것이었다. 뉘 말이라고 거절하겠는가? 따라 갔더니 몇대 때리고 교무실 복도에 서라는 것이었다. 4학년이나 된 상급생이 교무실 복도에서 별을 서는 것은 몇 대 맞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부끄러운 일이었다. 별일도 아닌 일에 하급생이 지나가는 복도에 서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으나 1시간을 서고 난 후 풀려났다. 그때의 그 심경 그리고 그 선생을 원망하던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人格이란것, 체면이란 것은 사람의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기에 그때 내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하급생이 오늘 나를 만났을때 그때의 내모습을 연상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진다.

이제 또 친구의 이야기 몇가지를 적기로 한다.

李熙相 君은 五老里에서 통학했는데 下校하면 기차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매일같이 나의 하숙집에 들렀다. 어느날 오후 학교에서 그가 마음졸이며 근심 걱정하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털어 놓는 것이었다. 지난 일요일에 친구 몇이 가을 풍경에 이끌려서 들에 나갔다가 마침 과수원이 있기에 들어가보니, 主人은 보이지 않고 붉은 사과열매가 탐스러워, 주인이 오면 값을 치를 작정을 하고 몇 개 따서 먹으면서 누워 하늘을 쳐다보고 가을을 만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 입 먹지도 못했을때 주인이 올라오더니 느닷없이 목덜미를 잡고, 도둑놈이라며 끌고 가려고 하여, 한대치고 도망쳐왔는데, 얼마 뒤에 하급생이 와서 “형님들이 과수원에 들어갔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니 그 과수원이 三寸집 것인데 형님의 名札을 보았다며, 도꾸야쓰(德安: 창씨명)란 이름을 안다는 것이었다. 할수없이 사과하러 갔더니, 主人이 누워서 신음하더라는 것이었다. 손발을 비비며 빌었지만 완강하게 학교에 알려서 처벌받게 하겠다며 위협하여 돈 10원을 드리며 용서를 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용서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때 사과 몇개 값이 불과 몇 전밖에 안되었는데, 그리고 한대만 때리고 도망쳤는데, 상처가 난것도 아닌데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학교시간 중에 혹시나 교무실 호출이 있지않을까 가슴조이며 하루를 지냈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학생들은 그렇게 순박하였던가 보다. 主人이 있던 없던 먼저 먹고 후에 돈을 주고 갈 생각을 하였으니 말이다. 요즘같은 인심이라면 아마도 그 사과밭에서 도



독맞은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여야 할지 모르니 10원이란 巨금이 그래도 비싼것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熙相 君의 이야기가 났으니 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

5학년때였던가 학교 수업료를 담임선생이 받은 일이 있다. 사전에 예고하기를 이번만은 아무날 종례시간에 수업료를 받겠으니 준비해 오라는 것이었다. 그날 모두 준비하여 출석번호 순으로 한 사람씩 납부하는데 회상(熙相)군의 차례가되어 돈을 드리니 선생이 1원이 모자란다고 하였다. 李君은 “1원을 이쪽에다 놓지 않았습니까”하니 선생님은 “나중에 계산하여 보면 알지”하고 의심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李君이 들어 오면서 “수업료를 떼어 먹는 놈이 있느냐”면서 자리에 앉았다. 선생은 그를 보면서 아무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빨갱게 상기된 것을 나도 느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그로부터 1주일쯤 지난후 李君이 수업중에 태도가 조금 좋지 못하다 하며 복도에 벌을 세우며 말하시기를 “내가 1주일 동안 너를 감시하였는데”라고 하셨다. 그때 이군이 주먹을 불끈쥐면서 “선생님 퇴학하겠습니다. 1주일 감시하여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선생님 말씀대로 人間노릇 못할 나 같은 놈이 父母님께 비싼 학비를 받으며 살아 무엇하겠습니까?”하고 울면서 대들었다. 우리 학교에서 先生에게 것처럼 대어듣고 그냥 넘어가리라고는 아마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만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李君을 데리고 교무실이 아닌 小使室로 데리고 가서 타이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때 선생님이 감시란 말 한미디만 하지 않았어도 李君이 그렇게 激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노릇 못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는 울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오랜 교직생활을 하면서 늘 成長하는 弟子들에게 가슴에 못박을 말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 연유가 이 사건에 연유되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가끔 선생님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말하였다. 30여년 교직생활에서 占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장래라는 것이었다. 내가 기대하던 학생, 나를 실망시키던 학생을 졸업한 20~30년후에 만났을 때, 성장한 그의 모습이 대개 예측한 것과 얼마나 빗나간 것이었는지 한 두번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 싹수 없는 놈이라는 말은 절대 삼가야 할 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엄격한 학칙속에서도 우리들은 용케 버티며 살아왔으며, 그속에서도 앞에 든 이야기처럼 友情의 싹은 힘차고 거침없이 가꾸어졌으며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이 남겨졌다.

金剛山 修學旅行때에 여행기분으로 마실줄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紅潮된 얼굴이 된 친구를 인원점검 시간에 도저히 그대로 제자리에 앉힐 수 없어, 이불 속에 숨겨 놓고, 한 사람이 번호를 두번씩 부르면서 동료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보호하던 일, 구룡연으로 가는 길에 있던 줄다리 위에서 찍은사진이 학교에 우송 되었을 때 담배를 물고 찍은 자신의 모습을 “가이다 과자”를 문것이라고 강변하여 간신히 풀려난 Y君의 일화 등이 추억으로 남는다. 금강산 여행 이야기가 났으니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

여름방학이 끝난 어느날의 博物時間이었다. 楊仁性 선생이 들어오시더니 우리말로, 내가 방학중에 김삿갓(金笠)의 詩를 읽었는데, 여러가지 좋은 시가 많더라면서, 그중 금강산을 칭송한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 주셨다.

松松栢栢岩岩怪

水水山山處處奇

그 시절 교실에서 우리말로 한 시간 동안이나 이런 말씀을 하여 주신 분은 楊선생님 밖에 없어 크게 감명하였다.

만세교 다리밟기에 만포를 걸치고 멧이 짝을 지어 노래부르며 몇 차례씩 건너 다니던일, 밤늦도록 성천강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달빛아래 우리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정을 확인 하던일, 특별한 사정으로 도시락을 못 가지고 온 친구가 있으면 각자 도시락에서 한 숟갈씩 털어내 그의 공복을 채워주던 일, 특히 도시락밥을 특별히 꼭꼭눌러 싸가지고 와서 하숙생인 나에게 나누어 주던 權鎭城君, 부잣집 3대 독자로 태어난 康萬國君의 하숙집주인이 자신은 굶으면서(일제말 배급제로 식량부족) 하숙생인 자기에게만 죽을 쑤어 주더라는 이야기를 눈물을 머금고 貧者一燈이었다고 하면서, 하숙을 옮길 수 없었다던 훈훈한 人情의 그, 지금은 유명을 달리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림기만 하다.

얼마전에 이북 땅에서 죽었다는 劉蕪의 소식을 들었을때, 나는 그가 어느 가을날 우리들이 연합훈련을 하러갈때 나의 도시락이 땅에 떨어져서 밥이 흩어진 것을 보고 자기는 학교에 남아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니 자기 도시락을 가져가라고 내밀던 그 친구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떠올랐다. 그날밤 나는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룬것은 그와의 친분관계 뿐만아였다. 그가 살아남아 투철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의 한줄기 빛이 되주리라고 기대하던 나는 그를 통일되는 날 상봉하여 지나간 이야기를 몇 날 몇 밤 지새우며 이야기 하고 싶었던 나의 희망을 저버리고 간 야속한 현실이 내 마음을 너무 어둡게 한 탓이었다.

이제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 크고 작은 허다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지만, 가난한 나의 붓끝이 무디어서 더 쓸수가 없다. “이 가난한 시인더러 왜 진달래 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않는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들고 울 것이외다”라고 읊은 어느 시인의 심경으로 추억의 片想을 적으며, 아카시아 교정의 향기를 맡아 보고 싶어진다. 90여명의 동기생들은 그 몇 명이나 이 땅에 살아 남아있으며, 남북으로 나뉘어 끊겨진 우정의 사슬은 언제나 다시 이어지려는가. 서글픔과 그리움과 아름다움이 한쪽의 그림이 되어 그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 뿐이다.

## 꽃피는 時節

李 三 悅(26回)

### 1. 南中入學과 臥病

1939년 3월 나는 대망의 함남중학 모자를 썼다. 비록 국방색 일색이었으나 금단추 제복에 망토를 걸치고 나하면 천하가 내 것인양 싶었다. 그러나 好事多魔라던가. 입학후 얼마 안되어 나는 병석에 눕는 신세가 되었다. 폐문임파선염, 듯기 좋게 그렇게 표현하였지만 결핵에 걸렸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비록 초기라하여도 항생제가 없던 그 시절 결핵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죽고사는 문제보다도 당장 나다닐 수 없으니 탈이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날아오르던 독수리의 다리를 비껴어 매여놓은 격이었다. 濟惠病院에서 내린 처방은 절대안정, 영양보충, 자외선치료 같은 것이었다. 한마디로 꼼짝말고 누어 있으라는 것이었다.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는 이 명령은 참으로 죽을 맛이였다.

당시 제혜병원 원장은 캐나다 선교사 머레이 박사, 내과과장은 조창호박사, 외과과장은 고병간박사 그리고 간호부장은 미스 샌들이었다. 조박사는 후에 함흥서 개업하였지만 나머지분들은 후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모두 크게 활약하신 분들이다. 이런 좋은분들의 각별한 진료 덕분에 예상보다도 빨리 퇴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부더가 문제였다. 아마 1학기말 가까이 되어서야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된듯한데 학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였다. 영어라는 과목도 처음이고 幾何라는 과목도 생소하기만 하였다. 이미 동급생들은 발음기호를 모두 배운후라 나만 영어시간에는 병어리가 되는 것이였다. 첫 시작을 배우지 못하였으니 幾何문제를 풀수 있을리 없다. 이때 내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아직 얼굴도 채 익히지 못한 어떤 짝꿍은 친구가 “야! 너 무엇좀 알겠니?”하고 남의 아픈데를 건드린 것이다. 이때 그래도 내 어린 마음에 좌절보다는 오히려 “그래 어디 두고보자”하는 투지가 생긴 것은 펍이나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이튿날 짐보따리를 싸들고 나서 함흥 시내 숙부님택으로 이사간 것이였다. 저녁마다 영어와 수학을 개인교수 하여달라는 것이였다. 누가 시켜서 한것이 아니고 스스로 분발하여 시작한 노릇이니 내 열의는 대단하였다. 숙부님은 당시 새 사업도 계획중이였고 결혼한지도 얼마 안되어 귀찮기도 하였을텐데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저녁마다 내 공부를 도와 주셨다. 물리학교 출신이라 수학은 말할것 없고 영어실력도 대단하였다. 영어단어를 和英사전 아닌 英英사전으로 찾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신 것만보아도 그 실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숙부님의 개인교수 덕분에 뒤진 학과를 따라 잡았을 뿐 아니라 공부하는 법도 바로 배운듯하다.

하여튼 시간은 흘러서 1학기말 시험을 치렀고 그 성적이 발표되었다. 120명중 내 성적이

23등으로 나왔고 나를 조롱하던 친구는 90등 밖으로 밀려나 있음을 알았다.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을 얻은것도 이때였고 공부하는 버릇이 몸에 밴것도 이때였던 것 같다. 2학기에는 더욱 분발하여 이래로 내 위치는 학년에서 5% 내외에 고정되었던 것 같다. 역설적으로 만일 내가 병이 나지 않았었다면, 그리고 그 어느 고마운 친구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었다면 나는 아마도 그저 그렇게 지내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轉禍爲福이란 말도 있지만 내 南中시절 첫출발은 분명 喜悲가 역갈리고 明暗이 교차되는 격동기였음이 틀림없다.

## 2. 自轉車通學과 遲刻

나는 北州洞에 사는 동안 줄곧 자전거 통학을 하였다. 국민학교때 부터 집을 道廳앞으로 옮긴 중학교 3학년때까지 내 자전거 역사는 꽤 길게 이어진다. 국민학교때 기억은 희미하지만 중학때 기억은 확실하다. 자전거 통학에 따른 한가지 애로는 지각문제였다. 함남중학은 소문난 스포르타식 교육의 공립학교다. 지각하면 때리고 벌세우곤 하였다. 매맞는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여 되도록이면 걸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기계란 고장나게 마련이다. 고장나면 영락없이 지각이다. 이것이 자전거 통학생의 고민이요, 숙명이였다. 나도 1학년때 무던히 이런 고초를 겪었다. 우리 담임은 内田이란 영어선생이였다. 정규교육이 없는 house boy 출신이라 영어는 잘 가르쳤으나 인격에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였다. 키가 작고 보기에도 인품이 없는 이분은 때려도 꼭 출석부로 머리를 내려치는 것이였다. 지금 같으면 큰일날 잔혹행위였지만, 일제때는 이것이 당연한 교사의 권위로 받아드려졌다.

이런 수난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통학생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의 묘미도 있었다. 좀 안된 이야기지만 탄일로 지각하여도 자전거 때문에 둘러댈 수가 있어 편리하였고, 그보다도 남들 모두 걸어가는 군사훈련 行軍때 우리는 傳令이라고 하여 자전거타고 가는 특전이 있었다. 물론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교관에게 잘 보이는 공이 들어야 하였다. 나는 다행이 이런 저런 일로 白井이란 교관과는 비교적 잘 지낸 사이라, 매번 이런 특전을 누렸었다. 白井선생은 직업군인이기는 하였으나 인격적으로는 존경받던 분이였다. 나는 어느날 방과후 강당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 무심코 우리나라 민요 몇가락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날의 당직교사 白井선생에게 들키고 말았다. 무단으로 피아노를 건드린 것도 죄인데 곡조까지 조선노래를 쳤으니 단단히 야단맞을 각오로 불리워졌다.

그런데 뜻밖에 그 표정은 부드러운 것이였다. 피아노를 좋아하느냐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학교에서는 조선노래를 치지않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주고 그냥 가라는 것이였다. 조선말만 써도 사상이 불온하다고 처벌하던 시절이다. 이것이 얼마나 관대한 처사인지 지금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이런일이 있는 후 나는 白井선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한번은 집에서 나는 사과 한 상자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그 소박한 서민풍의 생활모습에 나는 한결 친근감을 느끼곤 하였었다. 어쨌든 일본 군인중에도 이런 미워만 할 수 없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그당시 남중에 다닌 우리들 모두에게 껍이나 다행한 일이었다. 특히 자전거 타고 行軍을 대신 할 수 있었던 내게는 말이다.

### 3. 北鮮大學

비록 지방도시에 위치한 하나의 중학교에 불과하였지만 威南中學의 傳統과 矜持는 대단하였다. 우리들은 흔히 北鮮大學이라고 自負하곤 하였다. 적어도 북선에서는 우리가 최고라는 정도의 뜻이었으리라.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을까. 나는 적어도 두가지를 들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철저한 저항의식이요 또 하나는 우수한 두뇌 그런것이 아닐까 한다.

南中에 입학하면 과외활동으로 무슨 部를 택하게 마련이다. 나는 후에 승마부를 택하였지만 처음에는 축구부에 속했었다. 그런데 모이면 축구 이야기보다는 요즘말로 의식화 이야기가 더 많았다. 아무아무개가 헌병대에 때갔다느니 무슨무슨 씨클이 발각되었다느니 하는 따위 말이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독립운동 이야기구나 하고 꽤 자랑스러워 보였다. 그러지 않아도 함흥고보는 동맹휴학으로 유명한 학교로 소문나 있었다. “南쪽은 東萊, 北쪽은 威興”하면서 일제는 이 두학교를 몹시 골치꺼리로 여겼었다. 실제로 언젠가 “우가끼”란 총독이 우리학교에 나타나 다시 한번만 까보면 학교를 없애버린다고 호통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이 신나고 자랑스럽기만 하였었다.

그러나 뭐니뭐니하여도 함흥고보(함남중학)의 자량은 공부 잘하는 것이었다. 천하의 수재들이 모인곳이라 참 열심이들 공부하였다. 상급학교 진학율도 이웃 다른 학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만큼 학생들의 엘리트 의식 또한 강하였다. 학교당국도 애써 우리의 그런 氣質을 부추기곤 하였다. 상급학교에 합격한 선배들의 이름을 복도에 게시하고, 방학 같은때 그들이 찾아오면 애써 강연을 시켰다. 角帽 또는 白線帽를 쓰고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적극적인 영재교육이 민족저항의식을 분산시키려는 일제의 고등술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짚은 것이었다. 우리들은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저항은 저항대로 하였던 것이다. 해방직전 학교확성기에서 진공관을 뽑아다가 단파수신기를 만든것도 우리들이었다. 만세교철다리를 안테나삼아 미국의 소리방송을 듣다가 철창신세진 것도 우리 후배들이었다. 해방때까지 인천 소년형무소 신세를 진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

1940년 전후의 南中교장은 橫山峰三郎씨였다. 廣島高師출신의 전형적인 실무형 교장이다. 南中출신은 思想이 不穩하다고 받아주지 않던 상급학교 책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애원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어렵게 입학한 이들이 그후 단연

頭角을 나타냄으로서 우리가 졸업할때 쯤은 조선안의 전문대학은 물론 일본의 유명고교에서도 받아주게끔 되었었다. 아마 조선인 중학치고 東京의 제1고교나 京都의 제3고교에 진학실적을 갖인 학교는 그리 많치 않았을 것이다. 바로 우리 일년 선배들이 一高에도 들어가고 三高에도 들어갔었다. 그외의 소위 number school에는 매해 몇 명씩 합격하곤 하였으니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밖에도 南中에는 자랑할만한 특징들이 많았다. 그 하나로 남중에는 級長제도가 없었다. 週番이 돌아가면서 級長노릇을 한 것이다. 이것도 “너희들은 모두 우수한 級長감들이다. 굳이 級長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철저한 영재교육이요, 기회균등 철학이었다. 덕분에 나도 週番을 하여 보았고 號令도 불러보았었다. 어찌면 지금도 내가 남의 앞에서 별로 얼지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어릴때 훈련덕분이 아닐까 싶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어느 부속국민학교에서 이런 반장없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인기가 대단한 듯하다. 우리집 아이들도 한사코 저의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는 것을 보았다. 비록 식민지 교육이기는 하였으나 우리는 그 옛날 이미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반장이다, 조장이다 하여 그것을 기성회비 염출의 도구로나 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었다.

## 즐거운 테니스

韓 荃 淑(26回)

1

노령에는 테니스가 아무래도 과한 운동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었다. 그런데 천만에 말씀이란다. 아니, 아무리 내 힘에 맞도록 조종한다 하더라도 일단 코트에 들어가면 공을 쫓아다니느라고 아무래도 무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더구나 시합이 되면 이걸 어쩔 수가 없지않느냐 말이다. 그러나 그분은 극구 반대한다. 힘에 겨우면 시합을 하지않으면 되지않느냐 한다. 그럼 무슨 재미로 테니스 하느냐라고 하니, 아니, 몸을 위해서 운동한다면서 재미만 찾으면 되나? 그리고 난타를 하면 재미가 없느냐? 왜? 내가 공을 보내고 싶은 구석에 보내고싶은 강도로 보낼 수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재미가 나느냐. 난타는 더구나 내 힘에 알맞게 얼마든지 그 강도나 시간을 조종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 나는 이것을 몰랐다. 난타에서 테니스의 재미를 본다는 것을 몰랐었다. 테니스의 재미를 그러니 나는 오로지 시합에서 이기는 데서만 찾았는가?

테니스는 조건이 꽤 까다로운 운동이다. 테니스에 맞는 운동복이나 운동화 그리고 라켓등 장비는 그렇다 치고라도 배우는데는 특별한 인내와 끈기가 요구된다. 나는 국

민학교 때부터 익혀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비는 벌써 몇 번이나 넘겼고 그래서 테니스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되었고 그 덕분에 사실 정년을 눈앞에 둔 지금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훌륭하게 유지해 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테니스는 혼자서는 즐기지 못한다. 반드시 같이 치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복식시합이니까 한 번에 네 사람은 있어야 한다. 테니스는 더불어 즐기는 운동인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즐긴다고 해도 시합을 하면 이겨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떤 시합이든 승부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든가 하는 강한 승부욕을 나는 가지고 있지않다. 이길려고 애를 쓰지만 안되면 그만이다.

바둑에서는 이상하게 그때 그 한 점 때문에 판을 버렸다는 것이 있어서 밤에 자리에 들어간 후에도 눈 앞에서 흑백 바둑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나는 이것이 싫어서 바둑을 즐겨두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가 근자에는 그쪽은 전혀 기웃거리지도 않게 되었다. 그런데 테니스에서도 ‘그때 그 한 점’ 일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겠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이 졌어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이루었다는 기억은 없다. 물론 이기는 쪽이 지는 쪽보다 기분이 더좋은 것은 틀림 없지만, 그런데 나는 한 이삼년 전 어느때 그때까지 수십년동안 즐겨오던 테니스를 다시는 안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다.

## 2

즐기려고 테니스를 하는데 즐기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있으니 그만두는 것이 건강상 더 좋겠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이런거 다 집어치우고 혼자 즐길 수 있는 등산을 하자고 결심한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운동을 하면서 나는 말을 전혀 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야 말이 많은 것은 물론 싫다. 그러나 파트너를 격려한다든가 서로 만회를 다짐한다든가 또는 멋진 공격이 성공했을 때 크게 함성을 지른다든가 하는 일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분위기에 기쁨을 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윈블던 시합에서와 같이 아무말도 없이 그저 테니스만 하는 것은 프로들이나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시합 도중에 그때그때 적당히 소리도 지르고 가벼운 농도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대개 그렇게 재미있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농이 문제이다. 농이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농을 하는 쪽은 운동도 하며 농도 즐기고 있지만 농을 당하는 쪽에선 한 두번도 아니고 몇 번씩 되풀이되면 농을 농으로가 아니라 진담으로 받게되어 화를 내는 경우가 있게된다. 이렇게 농을 새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친구를 보노라면 안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민망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내 자신이 농을 새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다. 참 안타깝기 짝이없다. 저건 분명히 농이다. 더구나 악의없는 농이다. 그걸 뻔이 알면서 말이다. 하기가 농이 심한 사람이 있다. 평소의 인품을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괜히 자꾸 짝어서 거기서 즐거움 같은 것을 느끼는 악취미의 소유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다르다. 그렇게

나에게 평소에 농을 걸어 올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저 아무런 악의도 없이, 아무런 뒷생각도 없이 중얼거리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걸 뻘이 알면서 그것을 농으로 받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견 말이 안된다. 이런 경우 화가나면 그것을 그대로 삼키지 못하고 반드시 그 감정을 바깥으로, 그것도 상대방이 알도록, 표출하게 마련이다. 그래놓고 이내 후회한다. 창피해진다. 농을 농으로 새기지 못하는 졸부임을 내보인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때면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상대방은 나의 이런 마음의 갈등을 아는지 모르는지 농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계속찍는 것이다. 농은 점점 더 효과를 내게 마련이다. 내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급기야 폭발—그러나 여기까지는 물론 가지않지만 그러나 기분은 잡쳐 버리고 만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곧 옮겨가서 판이 어색해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테니스를 그만두기로 하였던 것이다. 테니스를 하는 것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 그 이상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사귀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취미생활에서 인간수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수가 많다. 가령 바둑에서도, 또는 서도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바둑을 즐겨 두는 사람들의 바둑두는 그 가지각색의 모습을 보면 바둑과 수양의 결부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그야 고단자들은 모르지. 그렇지만 우리는 프로기사들을 머리에 떠 올릴때 도통한 사람을 연상하는 일은 흔치않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취미생활에서 수양 운운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은 것같다. 하지만 가만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피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독심이 세다 하더라도 덮어놓고 밀어부쳐서는 안되는 법이다. 바둑에서나 테니스에서나 모든 것은 순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내친 김에’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순풍을 탈 때는 물론 권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님을 뻘이 알면서도 내친 김에 그냥 밀어부치는 수가 얼마나 많으냐. 억제할 때는 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강약의 조정은 숙달이나 기술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수양에 관한 일인 것이다. 어떻게보면 우리의 취미생활, 아니 일반적인 생활에 수양이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다. 테니스에서의 농도 그렇다. 농이란 딱딱한 맛을 없애면서 일을 더 즐겁게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게하는 양념인 것이다. 그걸 받아줄 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수양이 모자란다는 말이 아닌가.

즐기려고 테니스 하는건데 화만 내고 있으니 그만둬야지. 사실 그만한 일을 참지 못하고 화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더 화가 났다. 등산을 하자. 등산에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 혼자서 등산하면 딴 사람으로 인해서 화내는 그런 일은 없겠지. 나는 정말 테니스를 집어치우고 등산을 했다. 혼자서 또는 가족들과 같이. 전혀



새로운 맛이다. 그러나 수십년 즐기던 테니스이다. 쉽사리 잊혀질 리가 없다. 얼마 안가서 나는 다시 테니스로 돌아 왔다. 무엇보다도 수양이 모자라는 사람으로 남기가 싫어서였다. 그렇지만 농을 농으로 받을 줄 아는 세련된 운동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저분의 말이다. 난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테니스를 즐길 수 있지 않느냐고. 물론 난타에도 상대는 있어야 한다. 그렇다. 사람을 피할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수양은 끝이 없는 것.

## 말과 글

韓鼎變 (26回)

### 1. 序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중요원인 중의 하나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의 발휘였다. 말을 터득한 인간은 말이 지니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글을 발명해 냈다. 이 글로 보다 넓게 의사를 전달하고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인쇄술을 발명해 냈고 더 나아가 전신, 전화, 라디오 등 문명의 이기를 발명해 글과 말을 즉시 먼데까지 옮길 수 있게 하였으며, 급기야는 컴퓨터, 텔레비전, VTR. 같은 놀라운 기술혁신 기기로 정보혁명을 이룩해, 요즘에는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집안에 앉아 동시에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말과 글은 사람의 의사전달 수단이며, 서로 약속한 소리이고 기호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말의 발음이 정확해야 하고, 글의 표기방법이 통일 되 있어야 하며, 말할 때나 글 쓸 때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수한 글자를 가질수록, 그리고 분법을 잘 다듬을수록 그 민족이나 국가가 문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듣기 거북하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 우리 한민족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글자를 이미 549년 전에 발명해 냈으나, 오랫동안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 받아 오다가 20세기에 이르러 주시경 선생을 위시한 선각자들과 그 후학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그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고, 아직 논쟁점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해도,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등이 많이 다듬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상당한 지식인들이 구사하는 말씨나 글에서 어색함을 느낄 때가 많으며, 나 역시 글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지 잘 몰라 한글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거나 사전, 참고서적들을 찾아보곤 한다. 이런 경우 문교부 제정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런 의문점의 대부분을 일정때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만 소위 “조선어”를 배웠고 해방후 대학에서 약간의 국어강의를 들었을 뿐인 나의 어문학에 대한 무식 탓이겠지만, 어떤 현행규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믿는 나 나름대로의 견해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말과 글의 정확화를 위해 어문학에 문외한인 나같은 사람의 견해도 어문학자, 교육자, 언론인 그 밖에 말과 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하여, 평소 느끼고 있는 몇가지 점들에 대해 두서없이 적어 보기로 한다.

## 2. 우리말 발음

먼저 우리말 발음에 대한 무관심과 교육부재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와’자 발음을 제대로 못해 ‘확실히’를 ‘학실히’로 ‘과감히’를 ‘가감히’로 듣기 싫게 발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TV 방송국의 뉴스 아나운서까지 “와”와 “아”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애”와 “에”를 확실히 구별해서 발음못해 관재(管財)를 관제(官制)로, 개재(介在)를 개제(改題)로 발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외”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물 정도로 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外國)”을 “왜국(倭國)”으로 외교(外交)를 왜교로, 최근(最近)을 채근으로 발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어”와 “으”를 확실히 구별하지 못해 “건축(建築)”을 “근축”으로 발음하거나 쓰는 사람들 조차 있다. 이렇게 제나라 말을 제대로 발음 못하고 쓰지 못하고서야 어찌 우리 민족을 문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요즘 젊은이들이 말할 때 “과(科)대표”를 “과 대표”로 “다른 종류”를 “따른 종류”로 “사랑”을 “싸랑”으로 발음하는 것을 들을때 마다 역겨움을 느낀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괜찮을까?

## 3. 우리글 표기

글은 말을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은 잘 하면서 글을 써 달라면 글 쓸줄 모른다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국어교육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말할 때에는 문법에 맞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으로 의사전달을 보충해 주지만, 글은 그렇지 못하여 뜻이 제대로 통할려면 맞춤법과 문법에 맞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우리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에 대해 말할 능력은 없으나, 공공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써 붙여 놓은 안내문이나 경고문은 보고 가웃똥하는 때가 간혹있다. 두가지 실례를 적어 보기로 한다.

작년 여름 치아 치료를 받기 위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몇번 들렀는데 어떤 과의 출입문에 “예약이 없으면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글귀를 같은 뜻의 다른 말로 바꿔 놓으면 “예약이 없으면 기다려도 좋다”로 된다. 예약 못한 사람은 기다려도 좋다니, 기다리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기다리다 진료시간이 지나면 치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인지 아리송하다. 그러나 이런 안내문은 있을 수 없으니, 이 안내문은 짐작컨데, 예약없이 오신분은 예약한 환자가 많을 때에는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르며 진료마감 시간까지 예약자가 밀려 있을 때는 치료 받을 수 없을 지도 모르니 접수인에게 잘 물어 보라는 뜻을 적은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예약 못한 분은 오래 기다리게 될지 모릅니다”라고 써 놓아야 옳지 않았을까?

우리 말은 토씨가 발달해서 장점이 많지만,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점점 더 필요해지는 안내문, 주의문, 경고문 등의 표현을 너무 길게 써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지하철역 구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문들에는 “나가는 곳” “갈아타는 곳”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위험 뛰지 마시오” 등이 있다. 이런 문구는 보다 짧게 표기하는 것이 시각적 효과가 크다. 방향지시 표지와 함께 표기되는 “나가는 곳”, “갈아타는 곳”은 “나감”, “갈아탐”으로,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는 “열차 곧 도착” 또는 더 줄여 “곧 도착”이라고 표기해도 못 알아볼 승객이 없을 것이며, 사뭇 명령조인 “위험 뛰지 마시오”는 “뛰면 위험”이라고 표기하면 “뛰면 위험합니다”에서 “합니다”를 생략한 글귀가 되어 보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표기가 되지 않을까?

#### 4. 한글과 한글자

“한글”이란 낱말은 오랫동안 “언문”이라면서 천대 받아오던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시경선생이 만들어 낸 낱말이다. 그런데 내가 평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글과 글자는 구별되는데 왜 글자의 이름을 ‘글’이라고 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한글학회 지음 우리말 큰사전의 친구판에 올라 있는 “한글”과 “글” 두 낱말을 찾아 보면, “한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훈민정음 28자모 가운데 현대 말에 쓰이는 24자모. 곧…”(구판), “우리나라 글자 이름. 훈민정음 28자 가운데 현대말에 쓰이는

24낱소리 글자. 곧……” (신판)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글”에 대해서는 “밭을 글자로서 나타낸 적밭(옛밭 : 글밭, 글밭<sup>①</sup>, 글밭<sup>②</sup>)” (구판). “밭을 글자로서 나타낸 적밭. ② 학문이나 학식. ③ ‘글자’의 준말”(신판)로 풀이하고 있다.

위와 같은 풀이를 정리해 보면,

첫째 “한글” 풀이에서 구판에 사용한 “자모”라는 낱말을 신판에서는 “자” 및 “낱소리 글자”라고 고친 외에는 꼭 같이 모두 ㄱ, ㄴ… 등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둘째 “글”의 풀이에서 구판에 있던 괄호속의 세 낱말들이 신판에서는 삭제되었다.

셋째 “글”의 풀이에서 구판에 없었던 “글자의 준말”이란 풀이가 신판에 새로 첨가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첫째, “글”을 “글자”의 준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둘째, 왜 “글”의 풀이에서 구판에 없던 “글자의 준말”이란 뜻풀이가 신판에 새로 장했을까?

셋째, 혹시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이를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글의 뜻풀이에서 글밭을 삭제하고 “글”을 글자의 준말이라고 풀이 하지 않았을까?

“글”이 “글자”의 준말이라면, “한글”이 한글자의 준말이 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한문(漢文) 글자의 준말을 한자(漢字)라 하고, 일본 글자의 준말을 일자(日字)라고 하지, 한문(漢文)이나 일문(日文)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글자”의 준말을 “한자”라고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한자’라고 하면 공교롭게도 漢字의 음과 같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훈민정음을 “한글자”라 부르고 “한글자”로 쓴 글은 “한글”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 5. 맞춤법

두음법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칠 때에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된다.

각종 법의 시행령은 그 제명(題名)이 ○○법 시행령이다. 그런데 그 본칙(本則)에서는 제1조부터 이 ‘영’은 운운으로 표기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상(對象)이 경우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率의 표기를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울로 적고, 그 외에는 ‘률’로 표기하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견폐율, 용적률, 분담률등 처럼 같은 개념이 경우에 따라 두가지로 표기 될 뿐 아니라, 용적률 분담률은 표기대로 발음하기

어렵고 용적을, 분담율로 발음된다.

한가지 사물이나 개념을 다른 낱말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각 낱말을 경우에 따라 다른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사이 ㅅ의 표기 문제는 아직 한글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어 한글 학회가 지은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문교부 고시 한글 맞춤법에서 허용하는 두 음절의 한자 여섯 낱말(곳간, 셋방, 숫자, 찻잔, 횡수) 이외의 두 음절 한자에서도 사이 ㅅ을 쓰고 있다. 나의 판단으로도 代働는 댓가로 발음되고, 代家, 臺架, 貸家 등은 대가로 발음되기 때문에 代働를 구지 대가로 표기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 6. 외래어 표기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과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의 표기에서는 마찰음중 [ʃ]와 [ʒ], 파열음 중 [dʒ] 등의 한글자 표기가 문제인데 이들 각 음의 표기 규정 내용을 여기에 옮기는 것은 생략하고 예시된 낱말들 중 잘 이해가 안되는 것들에 대해 적어보면.

flash(flæʃ), shank(ʃænk), sheriff(ʃerif), shim(ʃim), mirage(mɪnɑːʒ), switch(swɪtʃ), bridge(bridʒ), chart(tʃɑːt) 등을 원음에 보다 가깝고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는 “프랫슈”, “슈앵크”, “쉐리프”, “쉽”, “미라쥬”, “스윛취”, “브릿쥬”, “촛트”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되고, 왜 “플래시”, “생크”, “세리프”, “심”, “미라지”, “스위치”, “브리지”, “차트” 등으로 표기해야 옳은지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 열거한대로 표기하면, shank와 Thank가 “슈앵크”와 “생크”로, Sheriff와 serif가 “쉐리프”와 “세리프”로, shim과 Sim이 “쉽”과 “심”으로 구분 표기되어 좋지 않을까? 우리 한글자의 우수성 중의 하나가 다양한 발음을 표기 할 수 있다는 특성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다음에는 일본어 표기 규정중 이해하기 어려운 몇가지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문교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일본 문자 가나들 중 “カ, キ, ク, ケ, コ”의 한글자 표기를 어두에서는 “가, 기, 구, 게, 고”로, 어중·어말에서는 “카, 키, 쿠, 케, 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가나의 “カ, キ, ク, ケ, コ”의 첫음이 한글자모 “ㄱ”보다 경화(硬化)된 음가(音価)를 갖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발음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カガク(科學)”, “キキ(危機)”, “クニ(國)”, “ケイキ(景氣)”, “コンナン(困難)” 등에서 처럼 “カ, 키, 쿠, 케, 코”가 어두에 오는 경우 “가, 기, 구, 게, 고”로 표기하면 자칫 일본 가나 “カ, キ, ク, ケ, コ”와 가깝게 발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ㄱ”으로 표기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 낱말들을 “케이키”, “키키”, “카가쿠”로 표기하면, 그 발음이 일본어 원음과 너무 달라진 경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기 보다는

“게이끼”, “기끼”, “가가꾸”로 표기하는 쪽이 원음에 가깝게 발음된다.

“カ, キ, ク, ケ, コ” 중 “ク”자만은 クサイ(臭い)의 경우처럼 어두에 올때 그 첫음이 “ㄱ”에 더 가깝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그 앞에 メントウ(面倒)가 부터 함께 발음 될 때에는 “쿠사이”와 거의 같게 발음된다.

“ゲンカ(原価)”, “ゲンキ(元氣)”, “カク(書ク)”, “サケ(酒)”, “ケンコ(堅固)” 등에서 처럼 “カ, キ, ク, ケ, コ”가 어중이나 어말에 올때에는 그 첫음이 한글자모 “ㄱ”음과 거의 같게 발음된다. 그래서 위 낱말들은 각각 “깡까”, “깡끼”, “가꾸”, “사께”, “깡꼬”로 표기해야 보다 원음에 가깝게 발음된다. 그래서 문교부제정 일본어 한글자 표기 예시에 있는 “オオサカ(大阪)”도 “오사카”가 아니라 “오사까”로 표기해야 원음과 가깝게 발음 된다.

일본 가나들중 “タ, チ, ツ, テ, ト” 한글자 표기를 어두에서는 “다, 지, 쓰, 데, 도”로, 어중·어말에서는 “타, 치, 쓰, 테, 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도 이해할 수 없다. “タ, チ, ツ, テ, ト”들의 단독발음은 “다, 짜, 쓰, 데, 도”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원음에 가까운 표기이다. 그러나 이 가나들의 첫음은 한글자모 “ㄷ”보다 경화된 음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발음된다.

“タンイ(單位)”, “テンノウ(天皇)”, “トチ(土地) 등의 경우처럼 “タ, テ, ト” 등이 어두에 올 경우 “다, 데, 도” 등으로 표기하면, 자칫 가나의 “ダ, デ, ド”에 가깝게 발음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런 낱말들을 “탕이”, “텐노”, “토치”로 표시해 놓으면 그 발음이 일본어 원음과 너무 달라진 경음으로 발음된다. 이 낱말들을 “당이”, “덴노”, “도찌”로 표기 해야 원음에 가깝게 발음된다.

“マツタク(全ク)”, “ガッチリ”, “キッテ(切手)”, “サトウ(砂糖)” 등에서 처럼 “タ, チ, テ, ト”가 어중이나 어말에 올때에는 그 첫음이 한글자모 “ㄷ”과 거의 같게 발음된다. 그래서 위 낱말들은 각각 “맛따꾸”, “갓찌리”, “깃떼”, “사또”로 표기해야 일본어 원음에 가장 가깝게 발음된다. 문교부제정 일본어 한글자 표기 예시에 있는 “トトリ(鳥取)”도 “뫼토리”가 아니라 “뫼뜨리”로 표기해야 일본어 원음과 가장 가깝게 발음된다.

“チ”자는 チイキ(地域), チズ(地圖), チ(血) 등에서 처럼 어두에 올때에는 우리 한글자 “지”와 “치”의 중간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이끼”, “치즈”, “치”라고 표기하면 일본어 원음과는 너무 동떨어진 경화된 발음이 되며, “지이끼”, “지즈”, “지”로 표기해야 일본어 원음과 보다 가깝게 발음된다.

“トチケン(土地權)”, “コウチ(高地)”, “ゲンチ(元地)” 등에서 처럼 “チ”가 어중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한글자모 “찌”와 거의 같게 발음됨으로 이 낱말들은 “도찌깡”, “고찌”, “깡찌”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ツ”가 “쓰”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고 “쯔”로 표기해야 일본어 원음과 더 가깝게

발음된다.

가나 “パ, ビ, プ, ペ, ボ”의 한글자 표기를 어두나 어중·어말 구별 없이 똑 같이 “파, 피, 푸, 페, 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パ, ビ, プ, ペ, ボ”들의 단독 발음은 “빠, 뻐, 뿌, 뵤, 뵡”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원음에 가까운 표기이다.

“パチクリ”, “ピカピカ”, “プリプリ”, “ペラペラ”, “ボトボト” 등 처럼 “パ, ビ, プ, ペ, ボ”가 어두에 올때 그 첫음이 한글자모 “쁘”와 “프” 중간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것 같다”는 것은 일정 때 일본어를 공부한 나같은 세대에게는 그렇게 발음된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일본에서 자라 현재 일본어를 가르키고 있는 우리 젊은이에게 물어보니 그렇게 발음되기도 한다는 대답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2차 대전후 영어가 많이 보급된 일본에서 주로 로마자 P로 시작되는 외래어 표기에 쓰이는 “パ, ビ, プ, ペ, ボ”의 발음이 P발음에 가까워져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위 낱말들을 “파치구리”, “피카피카”, “푸리푸리”, “페라페라”, “포도포도”로 표기하면 원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경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이 낱말들은 “빠지구리”, “뻐까뻐까”, “뵤라뵤라”, “뵡도뵡도”라고 표기해야 원음과 거이 같은 발음이 된다.

위에서와 같은 부사들 이외에는 “パ, プ, ペ, ボ”가 주로 영어 등 외래어 가나 표기에 사용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파, 피, 푸, 페, 포”처럼 발음된다. 그러나 이것은 P자로 시작되는 원어의 가나 표기임으로 이런 외래어는 그 원어의 한글 표기법에 따라 표기해야지 가나 표기를 다시 한글표기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シュツパツ(出発)”, “トッピ(突飛)”, “タップリ” “タンベキ(丹碧), タンボ(擔保) 등에서 처럼 “パ, ビ, プ, ペ, ボ”가 어중이나 어말에 올때에는 “빠, 뻐, 뿌, 뵤, 뵡”와 거의 같게 발음되기 때문에 위의 각 낱말들은 “숫빠쯔”, “뫏뻐”, “뫏뿌리”, “뫏뵤끼”, “뫏뵡”로 표기해야 원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 된다. 그래서 문교부 제정 일본어 표기 예시에 있는 “サッポロ(札幌)”도 “사포로”가 아니라 “삿뵡로”로 표기해야 맞다.

가나 “ピャ, ビュ, ビョ”도 어두나 어중·어말 구별없이 모두 “파, 퓨, 표”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나들은 “빠, 뻐, 뵡”로 표기해야 원음에 가장 가깝게 발음된다. 이 글자들이 어두에 오는 일본어는 약간의 오래어를 제외하면 거의 없지만 유일하게 사전 広辭林에 올라있는 “ピョン”은 “뵡”으로 표기해야 일본어 원음에 가장 가깝게 발음된다.

“ロクピャク(六百)”의 경우처럼 “ピャ”가 어중에 올 때에는 “빠”와 거의 같게 발음되기 때문에 “룩빠꾸”로 표기해야지 “룩파꾸”로 표기해서는 안된다. 외래어를 제외하고는 ビュ, ビョ가 어중이나 어말에 오는 순 일본어는 생각나지 않는다.

가나의 “キャ, キュ, キョ”는 어두에서 “가, 규, 교”로 어중·어말에서 “까, 큐, 교”로 표기하도록 규정 되 있으나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キャ, キョ, キュ”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 나는 한글자는 “가, 교, 규”이다. 다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가나의 “키”가 한글자 “기”와 “키”의 중간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キャクシャ(客車), キュジョ(救助), キョウイク(教育) 등의 경우처럼 “キャ, キュ, キョ”가 어두에 올때 보다 경화된 발음이 되지만, 이런 낱말들을 “카구샤” “큐쥬” “쿄이꾸”로 표기하면 일본어 원음과 너무 거리가 먼 경음 발음이 됨으로 역시 “가꾸샤”, “규쥬”, “교이꾸”로 표기해야 일본어 원음에 보다 가까운 발음이 된다.

“リョウキヤク(兩脚)에서 처럼 “キャ”가 어중에 올 때에도 “가”로 발음되지만, “トウキョウ(車急)”, “トウキョウ(東京)” 등의 경우처럼 “키ュ, 키ョ”가 어말에 올 때에는 한글 “규, 쥬”와 거이 같게 발음이므로 이 낱말들은 “료가꾸”, “도꾸”, “도쥬”로 표기해야 한다. 문교부제정 일본어 표기에서 처럼 “도큐”, “도쿄”로 표시하면 원음과 너무 다른 경음으로 발음된다.

## 追憶속에 남은 感激의 눈물

### 洪 德 泳(26回)

解放이 되던 해 겨울 집에서 몰래 家出 하다싶이 무작정 單身 越南하여 他意半 自意半 蹴球選手 生活을 十年이나 하였으며, 꿈에도 생각 못했던 올림픽(14회 런던) 월드컵(5회 스위스) 등 크고 작은 國際大會에 代表選手로서 8年 동안이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感激의 눈물을 흘린일이 두 번 있었다.

1947年 4月 런던 올림픽에 가기 전해의 일이다. 當時 中國 上海의 우리교민 代表로 手苦하시던 申基俊(中國名 申國權)씨의 주선으로 上海足球協會가 우리 代表팀을 招請하여서 中國 上海의 네개 축구팀과 경기를 가진 일이 있었다.

해방이 된지 2년도 못되고 美軍政時라 우리 國號를 大韓 또는 朝鮮으로 團體마다 멋대로 부르고 있던 때다. 무슨 까닭이었는데 몰랐지만 우리들은 太極旗를 들었음에도 가슴에는 서울이라는 마크를 달고 美軍 空軍機便으로 上海에 到着하였다. 後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그 當時는 우리나라가 아직 獨立前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때 上海는 莊介石의 國民政府 支配下에 있었고 해방이 된지 2年이나 되는데도 帰國 안했던가 못한 우리 교민들이 아이들까지 합해서 千名가량 된다고 했다.

첫 試合날 競技場에 入場하여보니 우리들의 人氣가 좋았던지 관중이 大滿員을 이루고 있었다. 太極旗를 흔들고 있는 우리 교민응원단 앞으로 가서 一列로 整列하였다.

그때 합창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서울 運動場에서 항상 들던 學校 응원가가 아니라



우리 愛國歌였다. 이때 부른 애국가는 안익태씨 작곡의 현행애국가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아직도 아일랜드 민요 올드랭사인의 곡으로 애국가가 많이 불리던 시절이었다. 어른들의 합창 소리는 크지도 높지도 않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울먹이는 것처럼 변해갔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마지막 歸國船도 타지 못했고 해방된지 2年이나 되는데도 아직 政情이 不安한 中國 上海에 남아 있어야하는 身勢를 한탄했는지 故國에서 太極旗를 앞세우고 온 젊은 選手들을 보고 기쁘고 반가워서 感激하였는지 몇몇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러나 選手들의 가슴을 더욱 찌르고 흥분시킨 것은 어린이들의 습합 소리였다. 맑은 목소리로 소리높게 힘차게 부르던 그 습합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는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른 選手들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울먹이면서 愛國歌를 습합하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 어린이들의 습합에 報答 할려면 꼭 이겨야 한다고 다짐한 우리들은 지나치게 긴장한 탓인지 前半戰에는 不安한 競技를 하였다. 後半에 安定을 되찾아 선전하여 靑白이란 이름의 上海에서는 가장 센 팀 중의 하나인 팀을 1대 0으로 이겼다.

이 시합 외에 다른 3개팀과 시합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가장 약한 팀과 대결할 때 우리팀에서 후보선수들을 많이 기용한 탓에 패했을 뿐 다른 2개 팀에게는 이겨 결국 4전 3승 1패의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곳에서 가장 인기있는 똥화(東華)팀과의 시합 때 마침 미국에 갔다 귀국길에 상해에 들렀던 이승만박사가 이 시합을 관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팀이 4대 0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시며 우리 선수들을 격려해 주셨다. 이 일은 다음에 쓰는 월드컵 예선전에서 일본과 시합할 수 있었던 사건과 관련되다.

첫 날 힘차게 愛國歌를 부르던 어린이들은 인성學校의 兒童들이었다. 우리들은 이 學校에 가 보았다. 戰爭때 日本流行歌에 나오는 “가든 부릿지” 건너에 있는 초라한 二層建物이었다. 金九先生이 設立하였다고 들은 記憶이 난다. 終戰後 臨政의 귀국으로 學校財政이 困難하여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蹴球團은 立場收入의 우리側 配當金額의 거의 全部를 이 인성學校에 寄附하였다고 後에 遠征團의 先輩에게서 들은 바가 있다. 어쩌면 인성學校의 財政을 돕기 爲하여 우리 代表팀의 上海遠征이 마련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나는 이 遠征으로 蹴球選手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다. 이것이 나의 蹴球에 관한 感激의 눈물을 흘린 첫번째 이야기이다.

1954年 7月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대회 제13지구 예선전이 한국, 일본, 중국 등 세 나라가 치루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일찍 불참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韓日전만 치루면 되게 되어 있었으나, 이 시합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우리 선수들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예선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루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신 이승만박사는 천하가 다 아는 최강경 反日감정 소유자로서 일본팀이 서울운동장에 와서

일장기를 달고 경기하는 것을 승낙해 줄리 만무하였기 때문이었다. 뿐만아니라 그때 우리 경제사정으로는 부족한 달러를 쉽게 쓸 수도 없었다. 그런데 1954年 정월 뜻밖에도 정부에서 월드컵예선전에 출전해도 좋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대한체육회 회장이던 이기봉씨가 機知를 동원해 이박사에게 먼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진언하였더니, 이박사가 반색을 하면서 무슨 수가 있느냐고 되물어와 월드컵 예선전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이박사는 상해에서 우리 축구팀이 중국팀에게 대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탓인지 쉽게 우리팀의 일본원정을 승낙하면서도 일본 팀의 내한은 반대하였기 때문에 결국 두 시합을 모두 일본에 가서 치룬다는 조건으로 재가를 받아냈다는 것이었다.

정월에 선수선정 발표가 있었고 2월초에 영등포 동아여관에 묵으면서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이때에 낯모르는 어른들이 과일이나 其他 慰問品을 가지고 찾아와서는 日本사람들을 꼭 이겨달라고 간절이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蹴球人들도 아니고 體育人들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계란 꾸러미를 들고와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 꼭 이겨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선수들은 감격도 하였지만 이 시합의 승패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 겁이날 정도로 긴장하였다.

당시의 한국축구는 해방후 격동기와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훈련을 하지도 못하였고, 더구나 이번 구성된 대표팀은 일제때의 노장선수, 해방후의 신인선수, 월남한 선수들로 구성되어서, 충분히 팀웍을 이룰 수 있는 연습시간도 모자라는 문제점을 안고있는 진력이 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연습하였으며, 누가 당부한 일도 없지만 술을 마시거나 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한국과 일본이 太極旗와 日章旗를 나란히 게양하고, 또 가슴에 달고 시합을 한다는 有史以來 처음 있는 일에 反日感情이 뼈에 사무쳐 있는 우리 선수들로서는 이 시합은 단순한 운동경기 대항전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의 축구협회 회장이던 장택상씨는 우리 축구선수들을 수표동의 자택에 불러놓고 차 한잔 대접없이 이길려면 가고 만약 지는 날엔 현해탄을 건너올 생각을 하지도 말라면서 혼시인지 공갈인지 분간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 표정은 대단히 비장하였다.

일본원정을 가계는 되었지만 비행기 값이나 일본 체류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한 체육협회나 대한 축구협회에서 대 줄수 있는 형편도 못되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선수단 임원중에, 별명 감땅콩알로 유명한 영생고보 출신 김덕준씨가 끼어 있었는데, 그 친형인 우리 함흥고보 제 25회동창 김도준(작고)씨가 사업을 크게하고 있어 왕복비행기 값을 부담해 주었고, 일본 체류비는 제일교포 단체인 민단에서 부담해주시기로 해서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선수단은 뜻깊은 3·1절날 동경에 도착하였다. 민단교포가 운영하는 나까노(中野)의 후꾸야(福屋)란 여관에 묵게 되었다. 시합날은 3月

7日과 14日이었다. 그러나 매일 비 아니면 눈이 왔다. 시합을 일주일씩 연기하자고 要請하였으나, 비 오는 날엔 연습도 시합도 안하는 한국사정을 알고있는 日本의 코치 다께노고시(竹腰)씨는 시합연기를 거절하였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日本도 잔디가 아닌 땅바닥 運動場이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들은 蹴球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잘 선택하는 차고 뛰는 소위 “킥 앤드 랫쉬” 전법을 쓰기로 했다. 첫 試合은 우리가 5 대 1로 이겼다. 이제 한 試合만 이기든가 비기기만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때 大會規程은 勝敗만 따지는 시스템이었다. 다음날 부터 날씨가 좋아져 14日에는 日氣도 運動場도 最上의 狀態였다. 前半에 2 대 1로 리드했으나 後半에 들어가 전술한바 있는 우리팀의 약점이 노출되어 악전고투 끝에 2 대 2로 비겨 결국 우리들은 월드컵 본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따냈던 것이었다. 우리들은 승리의 기쁨을 안고 韓國 응원단 앞으로 갔다. 열심히 응원해주었던 민간 사람들, 學生들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도 愛國歌를 불렀다. 교민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는 2세 여학생들이 많았다. 한국사람인 탓에 지배자의 나라 일본에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괘시와 수모를 받으면서 울분에 차 있던 그들이 일본 선수들을 누르고 승리를 거둔 우리 선수들의 쾌거를 보고 기쁨에 넘쳐 흐르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들 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선수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성취감, 우리 승리를 기뻐해 줄 조국의 온 국민들, 그동안 초조하고 긴장했던 나날의 고된 연습과 고생, 생각할수록 기뻐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계란 꾸러미를 들고 찾아와 승리를 당부하던 이름모를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다. 이것이 두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흘린 감격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누가 찍어 내게 주었는지 지금 기억해낼 수 없지만, 그때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의 사진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첨가해 두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때 동경에 살던 함흥고보 출신 선배 세분이 후배인 나와 영생고보 출신 김덕준임원 두 사람을 특별히 청해 융숭한 대접을 해 주었던 기억이다. 그중 두분은 당시 동경의 변화가 긴자(銀座)와 신쥬꾸(新宿)를 장악하고 있던 정통과 야꾸자의 대부(代父) 마찌이(町井: 한국인)의 고위 참모들이었던 야나가와(유배은: 21회, 작고) 주건(朱乾: 22회)씨였으며, 또 한 분은 당시 한국은행 동경지점장이었던 김동휘(金東輝: 22회)씨였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의 호의에 다시 감사드린다.

## 내가 걸어 온 길(퇴임사)

金明壽(27回)

방금 司會者께서 退任辭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에 대해서 承服할 마음의 준비가 全然되어 있지 않는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제 나이 벌써 이지경이 되도록 그 많은 歲月들을 虛送하고 浪費나 하지 않았나 하고 깊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老教授는 다만 教壇에서 사라질 뿐! 인가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저는 아직 50세 정도라면 꼭 알 맞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崇實에 在職한 26년은 저의 生涯의 重要的 時期의 全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간 저를 理解하고 서로 좋은 말相對가 되어 주셨던 여러 同僚教授들과 特히 제가 行政에 간여했을 당시에 낮을 익혔던 職員들의 好意에도 깊은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저와 同一한 時期에 生을 함께한 모든이들이 다— 그러하겠습니다 만은, 그간의 歲月은 참으로 變動과 激變의 連續이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저는 저의 지나간 人生航路를 다음과 같이 1次期에서부터 5次期로 區分을 해 봅니다. 즉

〈1次期〉는 20歲까지의 暗黑期 다시말하면 日帝植民地下에서의 成長期間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科學을 選擇하게된 動機도 實은 이 成長期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理解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自然發生的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즉 요즈음의 대부분의 學生들처럼 父母님이나 이웃의 強要는 全然아니었습니다.

北靑城東國민학교 4, 5, 6학년 때의 일이지만 팽이치기, 썰매타기, 木板(?)으로 만든 스케이트 타기, 제기(종골)차기(300정도), 그리고 鳶날리기 등은 一流級이었으며, 가우리鳶는 물론 防牌鳶도 직접 만들어서 헤아릴數 없이 날렸으며 鳶줄 끊어먹기도 名手였습니다. 요즈음의 健康도 그 젊은 날의 철없이 뛰어놀던 德分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中學校 3~4학년때는 模型飛行機(A, B, C, D, H, G級機), 꼬리없는 無尾翼機, Propeller가 한쪽에만 있는 所謂 一葉 高루다機 그리고 無線으로 操縱되는 Engine機는 물론 심지어는 당시 法으로 禁止되었던 短波Radio까지도 직접 組立해서 드디어 海外放送 特히 在重慶 朝鮮臨時政府의 放送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主된 原因이 되기도 하였지만 1944年 威興高普 4學年末에 抗日學生事件의 主役으로서 4年刑을 宣告받고 投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第1次 學業의 中斷! 이었습니다. 仔細한 事件의 內容은 저의 冊속에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

〈2次期〉는 8·15解放으로 自由民主主義下에서 分斷은 되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라는 獨立된 政府下에서의 大學教育의 繼續은 말할 수 없이 기쁜일이었으며 또한 이 時期는 저의 사람됨의 形成에 있어서 매우 所重했던 때로 여기고 있습니다. 不幸中 多幸이라고나

할까 저의 父親의 故鄉인 黃海道甕津은 바로 38線以南이 였기 때문에 저의 大學生活은 비교적 潤澤하였습니다.

8·15解放이되자 8月 17日 새벽에 刑務所에서 풀려나와서 大學進學을 앞두고 政治分野로 進出하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저는 차츰 懷疑를 느끼기 始作했었습니다. 웬 愛國者들이 그리도 많은지! 日帝時代에는 親日派가 한 사람도 없었던 말입니까? 차라리 저는 역시 저의 潛在인 素質과 또 永遠한 眞理는 物理學의 基本原理를 理解하는데 있는 한편 現代科學을 發展시키는 底力을 養成하는 것만이 나라 사랑과 國土統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物理學을 選擇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秋毫의 變함이 없습니다.

物理學 공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大學 1學年 때에는 朴泰俊 教授에게 音樂 個人指導를 받았으며 2學年 때에는 美國人 宣教師들의 教會인 貞洞에 있던 Union Church와 西水庫에 자리 잡고있던 美軍信徒들을 對象으로하는 天主教會에서 讚揚隊員으로서 活躍을 했으며, 同時에 獎忠檀教會에서 讚揚隊를 直接 指揮할 정도로 精神의으로도 安定되었던 時期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보다도 한걸음 앞서서 第1着으로 美國으로 留學할 꿈을 꾸것도 이때의 일이지만 이 꿈도 無慘하게 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大學 4學年때의 어처구니 없는 民族相爭의 悲劇인 6·25事變으로 인한 第2次 學業의 中斷!이었으나 이때 저는 서슴없이 自由를 擇했습니다.

<3次期>는 1·4後退당시 空軍技術將校로서 任官하여 보낸 時節입니다. 이 때에는 만사를 諦念하고 統一될 것만을 祈願하면서 그래도 맡은 所任에 대해서 熱心히 일을 했으며 人事局 計劃課長으로서 空軍에 남길만한 業績을 이룩했었다고 自負하고 있습니다. 왜람된 이야기이지만 말 한 마디만을 말씀드리면 當時의 金貞烈 參謀總長께서 金大尉 자네같은 將校가 “다섯名”만 있으면 空軍은 發展할걸세 하시면서 웃던 모습이 記憶납니다.

이 時期에 <첫번째 花郎武功勳章>을 받게된 것은 當然했던 일로 생각합니다. 休戰調印 直前당시 尹天柱 作戰局企劃課長の 統率下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熱中했던 記憶이 새삼 떠 오릅니다. 3月 1日부의 除隊日字를 延期해 가면서까지 休戰調印에 關聯되는 書類作成에 熱中했던 일들이 走馬燈처럼 떠오릅니다. 이렇게 4年半이라는 歲月은 하염없이 흘러 갔습니다.

그해 4월초에 延世大學校에 奉職이 約束되었던 것은 한달 半의 除隊延期로 인한 休講으로 자연히 解消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바보같은 일꾼이었음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4次期>는 그 다음해에 釜山 延大分校로 發令을 받게 되었으나 38線은 休戰線으로 탈바꿈을 하게되고 이에 따라서 甕津은 以北으로 編入되고 말았으니 제가 바로 金日成이가

만들어낸 第2의 失鄉民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統一에 대한 執念이 解放後 못지않게 強烈하게 다시 불타게 된것도 따지고보면 理解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失鄉의 쓰라림을 안은채 이곳 釜山에서 無常하게도 9年이라는 歲月이 또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5次期〉는 바로 이곳 崇實 26年입니다. 지금 바로 저 자리에 저의 大學同期 同窓生으로서 前 延世大學校 安世熙 總長이 앉아있지만 崇實大學校에서 物理學科 建設에 必要한 적 임자를 물색중 당시의 高秉幹 學長께서 延大 理學部長이었던 안세희 교수에게 推薦을 付託한바 제가 물망에 떠오르게 되어 當時 延大의 總長職務代理로 계시던 저의 恩師 數學教授이시던 張起元선생과 함께 5원짜리 Bus를 타고 上道洞 終點인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딱하리만큼 허술한 環境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우리 나라의 大學教育은 바로 이렇게 始作되었던 것입니다.

저기 西쪽에 보이는 舊 本館과 바로 이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撤去해 버린 2層의 建物로 된 科學館 그리고 寄宿舍. 이렇게 단지 세체의 建物과 周邊의 담도 없었으며 學生數도 고작 400名! 高秉幹 學長과 막상 자리를 함께하고 보니 놀라운 사실은 제가 延大부산 분교에서 敎務課長職을 맡고 있을때 慶南地區 財務담당 理事로 계셨기에 이미 잘 알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醫師出身인 高學長님은 生物學에 관심이 계셨지만 역시 自然科學의 기본은 物理學이며, 그다음에 隣接學科로서 電氣工學科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生物學科를 건설하면 農科는 이미 있으므로 具色이 맞을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全的으로 同意를 하게되고 이곳 崇實에 몸을 담고 저의 精誠을 다 바칠것을 盟誓하고 이곳 崇實에서 奉仕할 것을 다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始作된 것이 기나긴 나의 崇實旅程의 第1步였습니다.

저에게 顔面이 있고 自然科學分野에 관해서 서로 對話가 되실분은 오직 學長밖에 없었던 쓸쓸했던 당시를 回顧하면 오늘의 崇實은 그야말로 長足の 發展을 하게 되었고 그 많은 追憶들을 간직한채 이제 退任을 한다고 생각하니 떠나기가 아쉬운 感을 禁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在任 기간중 “여섯분”의 總長을 모셨고 그중에 아쉬웁게도 “세분”의 총장은 現職 在任期間中에 幽明을 달리하셨으니 人生의 虛無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제가 赴任하자 1년도 채 못되어 그해 겨울에 高秉幹 學長께서 文敎部에서의 會議途中에 쓰러지시고 며칠 안되어서 殞命을 하시게 되니 저의 슬픔은 極에 達했고 天下의 孤兒가 되어서 버려진듯 저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多幸히도 學內 事情을 잘알고 계시던 當時의 理事長으로 계시던 金滄南 學長께서 직접 就任을 하시게되어 실마리는 多少 풀리기 始作하는듯 하였습니다. 이 어른의 일에 대한 推進力은 저를 魅惑시켰으며 工學을 專攻하신 분답게 作業服 차림으로 陣頭指揮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땀을 흘리고 밥을 먹으라는 聖經句節이

金總長님의 信條인 것을 다시 한 번 記憶을 해 봅니다.

赴任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저를 부르시고 金教授 物理實驗器具를 購入해야 하겠는데 品目整理를 곧 準備하라는 指示였습니다. 準備가 되었음을 알리자 어느날 아침 6시에 學長室에서 說明이 始作되었는데 이때의 狀況이 記憶납니다. 品目마다의 用途와 그 器具의 特徵을 자세히 물어보시기를 아침 6시부터 저녁 7時頃까지 단둘이서 進行하기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짜장면>으로 단 둘이서 때워가면서! 이렇게 修正과 補完하기를 약 1週日이나 強行하시고 끝을 맺게되니 “이제 됐어 金教授! 이만 하면 알것 같애” 하셨습니다.

一線教育現場에 처음으로 뛰어드신 이 어른은 아마도 學校運營에 대한 構想의 準備를 이러한 方式으로 하신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3년 連續으로 物理學科 新設을 文教部에 要求했지만 失敗로 돌아간것은 당시의 社會的 與件이 급속도로 膨脹해 가는 工學的 慾求때문인것으로 判斷하기에 이르러 그 다음해부터는 工學科의 建設에 主力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後 매년 1개~2개의 工學科가 新設되었으며 오늘날의 工科大学의 誕生입니다.

10年이라는 歲月은 이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10·26事態 직후 學校에서 要請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文教部에서 옛 書類를 참고로 하여 自然科學大學의 新設을 認可해 주었으니 한便으로는 기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보니 이게 무슨 文教行政입니까? 教育은 100年 大計라는 말을 無色케하는 이 말이 오늘날까지의 우리나라의 非科學的인 實情인것을 또 한번 슬퍼했습니다. 教育이 무슨 흥정이나 善心꺼리의 대상입니까? 가난했던 이 나라의 實像을 認定하고 이제 흘러간 歲月을 닦하지 않으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들은 앞으로 前進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生活館長을 맡았을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時까지 故金滄南 總長님을 본받아 콩나물 한 틀까지를 計算했습니다. 豫算 全貌를 Chart로 만들어서 公開하기를 꺼리지 않았으며 제가 空軍에 있었을때에 Briefing將校라는 別名을 다시 한번 演出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手當全額을 獎學金으로 내 놓았더니 빈정대는 소리 “얼마나 많은 돈을 떼먹길래”라는 所聞도 들었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꼴입니까? 누구 말마따나 이래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解放前의 威興高普學生事件에 관한 文書를 찾는데 成功하여 國家로부터 獨立有功者 大統領表彰을 받게 되었으며 同時에 愛國志士라는 高貴한 稱號를 부여받았습니다. 그後 1990年 12月 26日 法改正으로 建國勳章으로 再授與되니 이것이 저의 <두번째 勳章>입니다. 이야기는 되돌아 갑니다만

데모가 한참甚해지자 3개월간의 休敎令이 내려졌을때 저는 이 3個月사이에 한 번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다. 다시 말하면 一體의 外出을 금하고 一般物理책에 있는 약 700개의 問題全部를 풀이해서 오늘날까지 演習책으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計劃室長으로 일을 할때 저는 數 10年만에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食堂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간을 아끼면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어김없이 새벽 1時 또는 2時까지 計劃構想을 했습니다. 저는 元來 平生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故人이 되신 姜新明 總長의 指導下에 드디어 10個年 計劃은 完成됐으며 여기 우뚝 솟은 現代式 科學館을 이분 靈前에 바치는데 同意하지 않으시렵니까?

敎務處長 時節에는 行政體系를 바로잡는데 힘쓰고 心血을 기울였으며 自然科學大學 長職까지 맡는 榮光을 이곳에서 맛보고 이제야 비로서 떠나가게 되니 지나간 26年の 歲月은 그래도 浪費와 虛送만은 아니었구나 생각되어져서 感慨가 無量할 뿐더러 平生을 教育에만 專念했던 보람을 後悔없이 여기며 이제 마음便히 떠나갑니다. 1988년 12월 5일에 이 학교에서의 功勞를 認定하여 저를 위하여 國民勳章을 推薦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깊은 感謝로 學校當局에 드리는 바이며 이것이 저의 <세번째 勳章>입니다.

이제는 저의 人生終末期인 <第6次期>를 더듬어 볼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히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問題는 원래 꺼내지도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저의 宗教觀의 1, 2節과 끝節만이라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計劃은 오늘 退職할것을 對備하여 이미 몇年前부터 몇가지 일에 着手하였습니다. 事務室도 곧 준비가 될것입니다. 저는 Freshman의 心情으로 <第6次期>의 마무리 人生航路를 향하여 다시 한 번 새 出發을 해 나갈것입니다. 敎授님들의 많은 聲援있기를 付託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異色的인 所願이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때 가보았던 그리운 金剛山에<自由롭게>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곳에 繼續남아서 崇實의 發展과 學生들의 學問的 質的向上에 힘쓰실 同僚 여러 敎授님들과 職員여러분들과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苦樂을 함께 하였던 物理學科 敎授님들과의 作別을 아쉬워하면서 長時間 저의 두서없고 지루했던 이야기를 끝까지 傾聽해 주신 貴賓여러분께도 無禮하였음을 容恕하시고 제 말씀을 이만 주릴까 합니다.

1992. 2. 25.

## 가보고 싶은 盤龍山이여!

심 봉 섭(27回)

南中時節의 우리집은 日帝時代에는 山手町, 解放後에는 雲興里라고 불리우는 南中의 運動場쪽, 盤龍山 기슭에 있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것도 山中턱의 높은 곳에 있었다. 뒤에는



威興水道局의 水源池(물탱크)가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굴이 있는데, 굴을 지나 反對쪽으로 넘어가면 城川江 물을 水源池로 끌어 올리는 揚水場이 강가에 있고, 五老里로 가는 길과 鐵路쪽을 넘어서면 城川江 白砂場이 나온다.

나는 父親의 職業上 國民學校는 出生地인 威北城津에서 1學年, 淸津 天馬山國民學校에서 2-3學年, 元山 銘石國民學校에서 3-4학년, 北靑 城東國民學校에서 5-6學年을 마치고 威興에 왔기때문에 威興에서 第一 오래 산 셈이다. 집이 盤龍山중턱에 있어서 學校갔다와서 심심하면 늘 산에 올라가서 놀곤 하였다.

집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山頂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높고 넓은 三角形의 基礎위에 안테나式으로 높이 세운 鐵製國旗揭揚台가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靑雲의 꿈을 꾸는 것이 樂이었다. 푸른 하늘의 바람에 날리는 흰구름을 바라보며 더러운 俗世를 떠나서 이 宇宙의 神祕를 풀어보는 天文學家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實際에는 먹구살기 위해서 医学工夫를 하였지만 그런 純粹한 學問的慾求 때문에 患者를 處하는 臨床医学이 아니라, 基礎医学을 擇하여 經濟的으로 余裕있게 살지는 못하였지만 別로 後悔해 본 일은 없다.

여름에는 굴속이 冷蔵庫 以上으로 시원해서 더울때면 굴안에 들어가서 식히곤 하였다. 굴을 지나서 反對편에 가면 밤나무가 많아서 가을이면 밤을 따 먹기도 하였다. 큰나무에 칼로 내이름을 새겨놓았는데 그 나무가 지금도 서있는지 궁금하다.

우리집 건너편에는 鐵道局舍宅이 있었고, 우리 아래 아래집에는 保社部에 있다가 지금은 美國에 移民간 29回 金雄堉君의 집이 있었다. 學校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雲興里에 下宿하고 있는 學生들이 많았다. 定平에서 온 朴澈善이 가까이 있었는데 사람이 淳朴하여 그 친구 下宿집에 자주 놀러갔었는데, 그 친구는 여러가지 參考書를 가득 사서 가지고 있어서 나의 부러움과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여름방학에 自己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한번 그의 집에 가보았는데 그야말로 大關같은 큰 기와집에 살고 있는 그 地方의 第一 甲富의 아들임을 알고 놀랐으며, 그래서 冊도 마음대로 살 수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저녁이 되어서 밥상이 들어오는데 밥그릇 안보다 위에 올라온 밥의 量이 더 많아 나는 그 위의 것도 겨우 먹었는데 그 친구는 그 밥을 다 해치워 나를 또 놀라게 하였다.

親旧이야기가 나온 김에 잊혀지지 않는 또 다른 친구, 西村(한국명은 생각나지 않음)라는 키가 작고 엉덩이에 살이 많아서 別名이 엉덩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赴戰高原 바로 밑의 두메산골에서 온 친구였는데 中學校 2學年때가 3學年때에 벌써 장가간 친구였다. 여름방학에 自己집에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간 일이 있다. 五老里쪽으로 가는 狹軌道汽車를 타고 終点까지 가서 걸어서 山속으로 들어가는데, 큰 原始林이 우거져서 낮인데도 하늘이 보이지 않고, 컴컴한 좁은 길을 따라 깊숙히 몇 十里나 걸어가서 그 친구집에 도착하니 그 동네에는 집이라곤 그 친구네 집밖에 없었다. 그가 다니던 國民學校는 집에서 20~30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南中에 合格했으니까 그 친구는 어지간한 秀才임에는 틀림없다. 시골에서 자랐으니 性品이 순진하고 얌전한 친구였고, 집에서 父母들이 하두 졸라서 父母任이 시키는 대로 장가를 일찍 갔던 것이다. 時代가 時代인지라 그 친구 婦人은 구경못하고 돌아왔다. 電氣는 勿論 있을리 없고 호롱불을 켜고 사는데 生前에 그런 貴重한 경험을 해 본 것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그런 自己집에 아무 부끄러움없이 당당하게 나를 오라고 한 그 친구의 純情이 지금에도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들은 그런 環境속에서 살면서도 아무 不平없이 마음만은 幸福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야기가 다른데로 若干 돌았는데 어쨌든 집이 산밑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山에 자주 올라가서 우울할 때는 氣分을 풀었고 즐거울 때는 靑雲의 꿈을 부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盤龍山은 나의 친구이며 安息處였다. 學校에서도 겨울이면 全校生이 토끼잡으러 한번씩은 꼭 盤龍山에 갔다. 토끼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잘 못된다고 해서 두패로 갈라서 한패는 산골짜기에서 대기조, 다른패는 산위에서 물이組가 되어 一列로 서서 토끼를 몰고 내려가면 대기조가 잡는 것이다. 대개 한 두마리 정도 잡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잡은 토끼는 上級生이 意氣揚揚하게 들고 돌아왔다. 잡은 토끼는 先生님들이 볶아 먹었는지 어쨌는지 궁금하다. 盤龍山의 市内中心地쪽 기슭에는 威興放送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變했는지 죽기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아아! 참으로 가보고 싶은 盤龍山이여!

## 笑門萬福來

### 元章換(27回)

웃음이 많은 집안에는 萬福이 깃든다는 옛 말이 있다. 웃음이란 그 家庭의 平和와 繁榮을 象徵하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流行語에 「出世해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고, 또 「工夫해서 남주나」或은 「먹어서 남주나」 심지어는 「돈 벌어서 남주나」 따위의 말까지 있다. 이것은 畢竟 좋은 意味에서 남을 激勵하고 勸獎하는 말로 알고 또 그런뜻으로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그러나 이 말은 利己的이며 個人主義的이며 刺戟的인 表現이므로 끝내 贊成하고 싶지 않다. 여기서 나는 오히려 「웃어서 남주나」로 바꾸고 싶다. 웃음은 自己를 明朗하게 할뿐아니라 남도 愉快하게 만들고 福되게 하는 하나의 淸心劑요 善心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웃음이란 空然히 아무데서나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꼭 웃어야 할 契機가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 正常이다. 따라서 웃음은 健康과 富貴 그리고 平和, 即 人生의 福을 이루는 三大要素위에 피는 明朗과 幸福의 象徴이라고 하겠다.

「웃음」의 類型에는 男性들의 씩씩한 氣象을 表現하는 「낄낄웃음」남의 氣分에 맞추어 변덕을 띠는 「너털웃음」女性들의 多情多感한 「깔깔웃음」점잖게 웃어대는 「허허웃음」 女子의 「수줍은 웃음」大地가 떠나가도록 爆笑를 하는 「百萬弗웃음」그리고 남을 猜忌하고 嫉妬하는 「비웃음」남을 놀리는 「嘲笑」어리석은 사람의 「恥笑」等 꽤 여러가지 種類가 있는데, 내가 말하고 勸하고저 하는 웃음은 「微笑」即 他人에게 好感을 보이고 또 주는 스마일(smile)을 말하는 것이다. 나를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내 웃는 얼굴엔 침을 못 뱉는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듯 웃음이 人間生活에서, 特히 對人關係에 얼마나 重要하고 必須의인가를 社會生活을 해보면 切實하게 體驗할 수가 있다.

過去 銀行에 在職當時 유난히도 너털웃음을 잘하는 支店長이 있었다. 언젠가 地域金融團에서 共同으로 雪岳山登頂을 가게 되었는데 人員은 約 10名 程度였다. 宿泊所에서나 車中에서나 또 길가에서나 유별나게 그 웃음이 크고 特殊해서 남의 눈에 띄이기 일수였다. 大靑峰까지 올라가는데 同僚들은 지치고 힘들어서 말도 못할 地境이었는데 그 웃음이 온통 山골짜기에 메아리쳐 시끄러웠다. 못마땅해 하는 同行人들도 있었으나 統轄支店長이기 때문에 他 市中銀行支店長들은 괴로우나 참고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 地域의 業務監査次 왔다가 登頂하는 上部監督機關員을 偶然히 만났는데 그도 眼下無人格으로 品位도 없이 노는 그분이 못마땅했던지 시비가 붙었다. 他人에게 弊를 끼치고 高聲放笑하는 당신은 都大体 누구요 하고 따지기 시작하니 꿈작없이 當하고 말았다. 그 후에 伝해 들으니 서울에 와서 上部로부터 견책이라는 指示가 내려와 支店長職을 褫탈 當하고 本部待機發令이 났다는 것이다. 이렇듯 웃음이란 좋은 點도 있고 禍를 自招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特히 金融機關에서는 親切을 「못또」로 하고 있는데 親切은 곧 웃음이어야 하며 무뚝뚝한 얼굴에 웃음이 없는 無表情한 態度로서는 觀客서비스는 제로이다.

恆常 웃는 얼굴로 對人關係를 維持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昨年 봄에 美國에서 저의 親戚이 運轉하는 車에 탔는데 高速道路上에서 速度違反을 했다. 巡察車가 停止명령을 하고, 車에 다가와서 웃으면서 親切하게 말을 하기에 우리나라 例에 비추어 봐주는 줄 알았다. 그러나 웃으면서 딱지를 떼는 데는 어안이 병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웃으면서 일하는 姿勢가 우리나라 사람이나 交通巡警에도 必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몇 年前에 觀光次 日本 東京에 들려 쇼핑을 하려고 어느 百貨店에 들려 必要한 물건을 사려고 이곳 저곳 살피고 있는데 한 店員이 얼굴에 웃음을 띄면서 옆에 다가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왔다. 살려고 하는 物件이 마침 없어서 나가려고 하니 그 店員이 門까지 따라와서 길 저쪽 某某處에는 있을 것 같으니 電話로 問議해 보겠다고 하지

않는가. 괜찮다고 사양하였으나 기어이 電話問議后 마침 그곳에 그 物件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直接 同行해 주겠다고 하였다. 너무나 親切하여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를 따라 그곳에 가서 希望하는 物件을 샀다. 참으로 未安하고 그 誠意에 感歎하지 않을 수 없었다. 自己 店舖에 들린 顧客을 놓치지 않으려고 貴重한 時間을 消費하면서 同僚店舖에 까지 案内해서 物件을 사게하는 商魂, 愛國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웃음이 物件을 판다는 眞理를 깨달은 것 같았다. 우리나라 商人들의 不親切에 比하여 參考가 되리라고 본다.

不親切이 不信을 낳고, 不信은 混亂과 無秩序를 낳고 마침내는 犯罪를 惹起시키는 우리의 現實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愛族은 固捨하고 서로서로 혈뜯고, 重傷謀略하고, 교만하고, 地位있는 사람은 權威主義에 사로잡혀 他人을 賤視하고 자기 誇示에 及及한 우리의 現實에 비추어볼 때 좋은 對照가 아닐 수 없다.

人間은 누구나 幸福한 家庭을 가져야하며 또 갖고자 하는 것이 人間의 本性이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一生이란 하루하루의 고달픈 生活의 累積이다. 그 하루하루를 明朗과 보람있게 지내면 平生 愉快한 人生航路를 持續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누구나 世上을 웃으며 살자는 것이다. 나도 이것을 위하여 不斷히 努力하고자 한다. 웃음이 없는 家庭은 아무리 富貴榮華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結局에는 亡하고 말 것이며, 아무리 貧寒한 집안이라고 夫婦間의 愛情, 兄弟間의 友義가 充滿하면 그 家庭은 和平하고 언젠가는 크게 繁榮될 것으로 믿는다. 다 같이 웃으며 삼시다.

## 岐 路

劉 綱(27回)

1944년 12월 31일 아침, 그 어려운 旅裝을 꾸미고 出發을 서둘렀다. 時局이 時局인지라 어머니의 懇曲한 挽留와 反對가 있었으나 아버님의 男子는 집을 떠나 혼자 旅行하는 것도 좋다는 最終決定으로 許諾이 난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日帝가 敗戰을 앞두고, 最後의 發惡을 할 때였고, 지난 8개월을 天長節을 期하여 있었던 威興學生事件으로 因하여 連行, 拘留, 取調, 釈放, 特別鍊成隊의 強制勞動等, 連이은 勤勞動員으로 얼룩졌던 苦痛과 勘耐키 어려웠던 中學 마지막 5學年을 보내던 나로서는 뭔가 脫出口를 찾아 보려고 애쓰던 次, 永興郡 僻村에서 出生하여 下宿生活을 하고 있던 黃 秀律君—지금은 北쪽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길 없—이 自己 故鄉집으로 겨울放學을 期하여 招待했다. 放學式을 하던 날 12월 31일 午前

9時發 列車로 出發할 것을 約束하고 여러날의 作戰끝에 끝내 父母님의 承諾을 얻어 내고 出發케 되었으니 感激스런 일이었다. 旅費로 10円자리 紙幣 두장을 얻으니 世上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物資가 貴한 때였으나 父母님께서는 比較的 부피가 큰 보스톤백 속에 燒酒 1升과 통조림, 담배, 菓子, 꿀 등을 채워 넣어 주셔서 무거운 것도 마다 않고 기쁘기만 했었다. 當時로서는 求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시골의 어른들께 드릴 膳物도 精誠껏 마련해 주신 恩惠가 지금 생각하여도 고맙기만 하다.

좀 들뜬 마음으로 威興驛을 떠나 威鏡線 范浦驛에 到着한 것이 午前 11時頃이었다. 驛을 나가면 黃君이 驛前에서 마중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굳게 約束했던 親旧가 보이지 않는다.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巡査나오리가 좀 가자고 駐在所로 끌고 갔다. 시골에서 조차 威南中學生이면 一旦 疑心을 해보던 때라 끌려가 이리저리 問招를 받다가 永興警察署를 通하여 威興警察署에 照會하여 約 2時間後에 풀려 나오게 되었다. 釈放의 代價로 連行했던 巡査一勿論 韓國人이었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目的地 永興郡 古寧面 明場里로 가는 길을 親切히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나는 풀려났다는 安堵感과 驛까지 마중 나오기로 한 것을 背信한 친구에 對한 憤怒로 대충 컷전으로 들으며 駐在所를 뛰쳐 나왔다.

큰 길을 따라 얼마나 갔는지 記憶이 잘 되지 않으나 앞에 두 갈래로 길이 나뉘게 되었다. 오른 쪽으로 가라고 했는지, 왼 쪽으로 가라고 했는지 아까 巡査의 말이 아리송하기만 했다. 왼쪽은 平野가 보이며 길이 坦坦하고 山같은 것도 別로 보이지 않으나, 오른쪽은 길도 좀 좁으며 저만큼 앞에 얇은 山도 보여 웬지 마음이 가지 않았다. 黃君네가 大農이고 平野속에 사는 比較的 富裕한 마을이란 말을 들은 바 있어, 當然히 왼쪽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決定짓고 앞으로 앞으로 前進해 갔다. 너는 마중 나오지 않았으나 나는 約束대로 너희 집을 찾아간다. 만나기만 하면 뺨이나 한차례 갈겨 줄 양으로 點心도 거른 배고픔도 잊은 채 熱心히 걷고 걸었다. 군데 군데 中間에서 본 民家에서는 설날 準備도 조금씩 하고 있었다. 日帝의 強要로 二重過歲가 徹底히 封鎖되었던 때로, 新正過歲 代價로 特別配給이 나와 억지로 떡을 해 먹어야 되었던 것이다.

한참 가다 보니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險해지고 앞에 낮으막한 山이 보였다. 放學前에 들던 바로는 山을 넘어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려서부터의 그 잘못된 固執이랄까, 아니면 여기까지 걸어 온 것이 아까워서였든지 넘어 보기로 作定하였다. 올라감에 따라 쌓인 눈이 두꺼워지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앞에 또 山이 보인다. 이렇게 하여 조금씩 높아지는 山을 눈길을 더듬으며 다섯개나 탔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땀뭍 흘렸던 땀이 식어 寒氣를 느꼈고, 눈발도 날리기 시작했다. 누가 進退兩難이란 말을 가르쳐 주던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난다. 더는 걸을 수도 없고 추위를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虛氣마저 느낀다. 내가 왜 이 이름도 모를 永興郡의 어느 山속에서 이래야 하나, 돌아가려니, 아득하고 앞길은 予測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懇曲하였던 挽留가 새삼 가슴을 찌른다. 배가 고파서 가방 속에 있는 菓子を 꺼내어 씹으며, 눈을 퍼먹으면서 요기도 해 보았으나 味覺에 刺戟도 없었던 것 같다. 限없는 後悔와 父母님과 家族들의 모습이 떠 오르며,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다른 것은 없다. 一週日程度의 旅行에 그래도 便紙를 쓰겠다고 짐속에 便箋紙와 封套를 가져 온 것이 생각났다. 죽더라도 父母님께 謝罪는 해야겠다고 생각되었고, 또 이 山속에서 송장이 되더라도 눈녹은 봄날 혹시 지나가는 行人에 의해 發見되면 身元이라도 把握되어 집에 連絡이라도 되라고 쏟아지는 눈과 흐르는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몇字 글월을 쓰고 封套에 집 住所를 적고 나니, 다시 마중 나오지 않은 黃君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져 그 집 住所로 怨望어린 말을 몇字쓰고 나니 이제는 죽을 準備는 다 된 것 같았다. 얼마뒤에 죽을 것이라는 覺悟는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도 떨리고 추운가? 짐속의 술이 생각났다. 얼른 내어서 병채로 나발을 부니 조금 훈훈해지는 것 같았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勇氣도 若干 이는 것 같았으며, 그리하여 일어나자, 떠나자, 가서 만나자 하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여섯번째 山을 넘기로 決定하고 걸었다. 걷는다가 보다 기었다. 이번 山은 꽤 높은 山이었다. 중턱에 못 미쳐 날은 어두워졌다. 쌓인 눈 德으로 앞이 區分되는 것이 多幸스러웠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승냥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름모를 怪獸들의 울부짖음이 恐怖를 倍加해 준다. 죽으면 안 된다고 精神을 바짝 차리고 걷고 있건만 추위를 녹이려고 마셨던 술氣가 온몸에 퍼지면서 졸음이 掩襲해 왔다. 집의 온돌방 따뜻한 아랫목과 솜이불이 그림기만 하다. 걷고 걸으면서도 그 생각뿐이다. 갑자기, 눈앞에 하얀 비단 솜이불이 깔려 있고, 그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면서 恍惚함마저 느껴지면서 平安한 잠이 드는 것 같다. 그리운 어머니 품안에 안기는 것 같았다. 이렇게도 달콤하고 平安할 수 있을까? 눈속에 망토를 뒤집어 쓴 채 잠에 폭 잠겼던 것이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속에서 눈이 떠졌다. 머리는 뼈개질 것 같고, 몸 어느 한군데도 움직일 수 없으며 아프기만 하다. 여기가 어딜까?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을까? 굴속같은 곳에서 누더기같은 것을 덮고 있으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웬 할아버지가 근심스러운 눈으로 내려다 보시며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 조금씩 느껴진다. “학생! 정신이 드나?”하면서 慈愛스럽게 내려다 보신다. 훨씬 뒤에 事緣을 알게 되었다. 내가 누워 있는 곳은 숲가마 옆에 있는 움막이었고, 이 老人은 숲굽는 이었다. 눈속에서 精神모르게 자고 있는 죽음 直前의 나를 엮고 여기까지 옮겨 온갖 精誠을 다하여 看護해 주고 있다는 것이며, 오늘이 설날 저녁이란 것이다. 約 20余時間을 실컷 잤는 모양이다. 그리고 明場里와는 方向이 다른, 明場里 가는 길보다 훨씬 北쪽의 뒤라고 하는 山속이라 하는데 지금 그 地名은 記憶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山속에는 猛獸들이 많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1년에 몇번씩 호랑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하며, 승냥이같은 놈은 밤이면 심심치 않게 나와, 저 밀의 民家까지 덮치는 수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事緣들이다.

숲가마에서 혼자 사시는 老人, 그때 생각으로는 60은 지나신 것 같이 느껴졌다. 내일이면

구워 놓은 솥을 지고 民家가 있는 洞里로 갈 참이다며, 폭 쉬고 있으면 내일 내가 너 가는데 중간까지 案内해주마 하시면서 죽을 떠먹여 주시는 것이었다. 生命의 恩人이란 實感도 그 때에는 別로 나지 않고, 아프고 괴롭기만 하며, 죽지는 않았구나 하는 安堵感에 또 잠이 들었다.

이튿날, 그러니까 1945年 1月 2日 낮에 솥짐을 진 영감님을 따라 下山하였다. 앞에는 東海 어느 바다인지 아름다운 景致가 굽어 보인다. 元山灣은 明沙十里와 連結되는 아름다운 海辺이다. 이와 이어지는 저 바다도 그림같이 느껴진다. 절룩절룩 하면서 살았다는 喜悅에 그대로 걸어 내려 갈 수 있었다. 두어時間쯤 걸어 내려 오니, 제법 海辺의 길은 넓게 보였다. “학생! 이 길로 주욱 가면 明場里로 갈 수 있네. 한 20里길은 될 거야. 난 이만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險한 길 잘못 들지 말게. 넌 오래 살거야. 죽었다 살아났으니 말이야” 하시면서 作別을 告한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住所와 姓脚을 가르쳐 주십시오. 집에 가서 父母님께 여쭙고 謝禮해야겠습니다”라고 懇請하였으나, “그런말 말게. 난 학생이 살아난 것만이 고맙다네”라 하시며 굳이 辭讓하셨다. 할 수 없이 짐속에서 소주병과 담배 몇 갑을 억지로 드리니 “이 貴한 것, 어르신네에게 가져다 드릴 것을 그러면 못 쓰네”하시면서 담배 한 갑만 받으시고 총총 살아지신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 짐을 주체 못하면서 나는 떠나는 老人에게 敬拜하면서 作別하였다.

海辺길을 따라 얼마를 가노라니 달구지를 모는 村老를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서도 親切한 配慮로 지칠대로 지친 몸을 달구지에 실려 꽤 지난 뒤에 明場里 어구라는 조그만 고갯길에서 내렸다. 午後 4時쯤 하여 그 洞里의 黃氏門中 宗家집이란 꽤 큰 기와집 大門을 들어 설 수 있었다. 大門을 들어 서는데 오른쪽 뒷간에서 바지춤을 올리며 어기적 어기적 나오는 黃君을 만나게 되었다. “너 어떻게 지금 오니?”, “야 이놈아 馱에 나오기로 했으면 마중 나왔어야지.” 對話속에서 모든 事緣을 알게 되었다. 黃君은 當時 流行하던 皮膚病이 甚하여 온 臀部가 혈어 步行할 수 없게까지 되어 머슴을 시켜 自轉車를 가지고 馱에 내어 보냈는데, 조금 늦게 到着해서 마침 駐在所에서 調査를 받고 있던 나와 어긋나서 學生 그림자도 못 찾고 왔노라며 黃君은 내가 破約하고 오지 않았다고 怨望하고 있던 참이었다. 어떻든 이틀 늦게나마 千辛萬苦끝에 到着한 나를 위하여 온 마을이 들썩거리며 歡待해 주었다.

5日間の 歡待속에 健康은 若干씩 恢復되었고, 이리저리 招待받으며, 많은 膳物과 세배돈을 받고 귀로는 지긋지긋한 陸路를 避하여 元山 가는 連絡船이란 걸 탔다. 元山에서 汽車로 1月 8日 집으로 安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旅行의 後遺症으로 꽤 긴 病으로 苦生하게 되었고, 남은 겨울放學을 病席에서 보냈던 것이다.

聖經 創世記 13章을 생각한다. 아브람(後에 아브라함이라 改名)과 그의 조카 롯이 늘어난 食口와 牧者들의 다툼을 避하기 위하여 벨엘이란 곳에서 서로 分家기로 하고 땅을 나누어

가지는 대목이 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選擇權을 주었는데, 조카 롯은 長幼의 順을 無視하고, 먼저 보기에 물이 넉넉한 요단의 온 들을 扞하고 東으로 떠났고, 아브람은 가나안땅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조카 롯이 扞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땅으로서 結局 滅亡되고 겨우 몸만 빠져 나오게 되는 것을 익히 알게 되는 句節들이다. 그 間 濶한 世 波속에서 잘못된 選擇으로 破鏡에 이르렀던 일이 어찌 한, 두번 뿐이었으랴? 人生의 岐路에서 創世記 13章의 말씀은 언제나 貴한 敎訓이 되었고 危機脫出의 妙藥이었음을 感謝히 생각한다.

이름 모를 山속에서 凍死했거나 猛獸의 밥이 될 뻔 했던 갈림길에서의 그릇된 判斷을 생각할 때마다 아찔해진다. 빨리 統一이 되면 잊지 못할 永興郡 古寧面 明場里도 한번 찾아가 보고 黃君도 살아있다면 만나보고 싶다.

子孫들에게 別 남길 遺産도 業績도 없는 나로서는 “岐路에 담긴 옛 이야기”는 남겨줄 唯一한 資産같이 느껴져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글로 써 보았다.

한치 앞의 榮華만 생각치 말고 永遠히 後悔없는 人生의 岐路에서 올바른 選擇을 해 달라고 付託하면서...

## 詩 3 首

韓 淳 輔(27回)

### 隨想이 되어

城川江 굽이 돌아  
방치고개 넘어 서면

돌배나무 꼭 한 그루  
돌배나 삶아 먹고

오늘도  
꿈 속을 도는  
나는 고운 나그네



## 내 故鄕 방치골

흰 구름 큰 꿈되어 등실 뜨던 뒷동산  
서리해은 참외 먹던 정지江의 여름밤아  
이제 더 아련해지는 어릴 적의 방치골.

질끈 맨 등 책보가 한숨에 고개 넘어  
韓氏, 金氏 참봉영감, 마당쇠네 지나서  
두레박 통째로 마시던 쪽문 옆의 우물터.

폭 영근 찢 감자로 잠을 쫓던 내 어머니  
살아서 삼삼이는 仁慈할 손 그 얼굴이  
冤淚가 새벽 이슬되어 秋夕날에 오실지도.

새벽이면 망태로 동네 골목 거름 줘던  
長津湖로 赴戰湖로 避身했단 父親은  
한가위 보름달 되어 曾孫子를 어루만져.

모두다 죽었거든 盤龍山 넘어 오라  
살았으면 城川江의 한줌의 여울되어  
東海서 얼싸안아보자 九泉에 가기前에.

1991. 추석날 아침

## 韓國의 線은

이끼 낀 묵은 기와 悠長한 그런 線과  
열두발 긴 상모는 날줄 갈라 바람되고  
그 女人 치마폭에도 어화 등실 어깨춤이.

가야금 애잔한 소리 아리랑에 잠겨들고

꿈어질듯 여원 恨은 씨줄로 받쳐오다  
 끈질긴 영혼의 가락 天上으로 오를까.

哀歡은 곳판으로 뒤따르는 伎樂天  
 太白의 굽은 稜線 漢水로 흘러 들고,  
 씨줄과 날줄로 엮은 母國의 고운 線아.

## 南太平洋 島嶼國旅行記

### 한 흥 모(27回)

나는 職場關係로 1975년부터 南太平洋의 美領사모아에서 四年半이나 勤務한 일이 있다.

요즘 우리나라 觀光事業이 活潑해서 南太平洋商品을 宣傳하고 있으나 內容은 濠洲나 뉴질랜드, 피지, 하와이 등이 고작이다. 濠洲나 뉴질랜드는 大陸과 같은 곳이며 또 先進國隊列에 낀 나라들로서 別로 보고 느낄것이라곤 없다. 더구나 하와이는 北太平洋에 있다.

진짜 觀光과 休養을 즐기려면 人工이 덜 加味되었고 따라서 發展도 덜된 南太平洋의 島嶼國들에 가라고 勸하고 싶다.

나는 이들나라를 原色の 第3世界라 부르고 싶다. 美國의 統治領인 美領사모아, 뉴질랜드에서 獨立한 西사모아, 그리고 赤道에 가까운 통가國은 산호초에 둘러싸여 國土를 保護받고 있어서 空中에서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雙가락지形의 흰 波濤가 섬을 둘러싸고 있는 自然 그대로의 原色情景을 볼 수가 있다. 南太平洋에서 불어오는 큰 波濤는 섬밖의 산호초에 부딪쳐서 크고 흰 물결을 남기고, 이것을 넘어온 勢力이 弱한 波濤가 되어 海邊에 닿아 작은 흰 물결을 만드니 이들 두개의 흰 물결은 참으로 아름다운 調和를 이룬다. 거기에 더하여 가지 各色의 산호초 色깔에 따라 바다色이 무지개 色으로 변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그야말로 황홀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발자국 하나없는 고요한 白沙場을 따라서 椰子樹들이 울창하게 서 있어서, 熱帶의 灼烈한 太陽빛을 막아준다.

이들 나라의 人種은 모두 폴리네시아인으로 하와이인을 包含한 이들의 言語, 建築, 風習, 衣裳等은 모두 거의 같다. 또 地形的으론 南緯 40度 以內에 位置한 熱帶地方으로 年中 꽃이 지는 날이 없으며, 길가의 雜草에는 洋蘭의 種類도 있어서 아침 空氣를 마시면 그야말로 香氣그윽하고 달콤하여 그 氣分은 말로 表現하기 어려운 程度이다.

또 이들나라의 特色은 國民의 99%가 宗教를 갖고 있다는 사실인데, 世界에 있는 基督教의 新舊教派 教會는 거의 모두 있다. 主日날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各教派는 獨特한 服裝을 하고 終日 教會에서 지낸다. 또 이들의 共通點은 酋長制度이다. 前과는 같지 않다고 하나, 아직 犯法行爲는 優先 酋長의 判決로 大部分 解決하고 그가 解決할 수 없는 事件만 裁判所에 넘겨진다. 酋長이 있는 部落마다 Public House란 우리의 公會堂과 같은 지붕과 支柱만 있는 집이 있어 部落民이 三三五五 모여드는데 손에는 바나나 입사귀로 만든 손가방 같은(우리의 망태기 같은)것에 自己가 먹을 點心을 싸갖고 와서 종일 自己고장의 일에 對하여 議論하곤 하는데, 아주 發達된 政治的人間들이다.

섬一周道路는 單純하여 가면서 左側은 白沙場넘어 南太平洋바다이며, 右側은 椰子樹 또는 바나나 숲으로 되어있다. 一見 지루하고 單調로울 것 같으나 나는 四年半동안 이길을 數百번 數千번도 다녔지만 지루하거나 單調로웠던 生覺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렇게도 時間따라 季節따라 길 周圍의 環境이라 할까 霧圍氣가 달라진다. 언제나 우리의 봄, 여름이라기보다는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季節이어서 숲속에는 언제나 落葉이 더 많이 쌓이곤 한다.

특히 美領사모아는 世界保健機構(W.H.O)의 大氣標準値를 測定하는 世界三個所의 하나로 그空氣는 더할데없이 좋다. 空氣의 진짜맛이 좋다는 것을 나는 그곳에 살면서 經驗했었다. 前에 國內에 있을때 몰랐으나 이곳에 있다가 出張으로 歸國하면 一週日동안 내내 잔기침과 가래에 시달려 龍角散같은 것을 服用해도 낫질 않다가 그곳에 돌아가면 어느새 이런 症狀은 저절로 없어지곤 했다. 이걸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周圍사람들이나 우리 家族들도 같아서 空氣의 깨끗함을 이곳에서 처음 느꼈던 것이다.

休暇때 西사모아, 통가 王國, 피지등을 旅行했는데, 貧困하다는 것을 空港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美領사모아의 호텔에서도 다른데와 같이 食後 커피를 서비스하며, 몇 모금 마시면 從業員이 없어진 만큼 다시 갖다 붓고하여 손님이 拒絕하기 前까진 이런 서비스를 繼續하는데, 西사모아나 통가의 一流호텔에선 食後 커피를 請해야 주고 그것도 한잔 더 請하면 請求書에 加算한다. 貧困한 나라일수록 호텔이나 遊興業所가 豪華롭기 마련인가 보다. 통가國은 日附變更線이 通過하는 곳이어서 이곳 데이라인 호텔은 그야말로 休養하기에 適格으로 만들어져 있다. 호텔全體가 熱帶林에 둘러 싸여있고, 自體의 Private Beach가 있어서 호텔 利用客外는 使用할 수 없다. 그 깨끗한 白沙場의 黃金빛 모래알은 오리털같이 부드럽고 발바닥에 닿으면 간지러울 程度이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통가인들이 호텔에 出入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호텔 正門과 周圍를 警察들이 警備하고 있다. 西사모아나 통가에서 首都에서 한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그 찌는듯한 熱帶의 酷暑에 在來式의 椰子樹잎 지붕을 양철지붕으로 改良, 아니 改惡했으니 그 더위는 말할도 것 없고, 共同水道로 뜰에 한 台식 파이프만 박아놓아, 발가벗은 아이들이 벌떼같이

水道꼭지에 모여든다.

통가國은 山이라곤 없는 大洋에 떠 있는 접시形으로 생긴 섬으로 웬만한 비구름은 스쳐지나가고 많은 水分을 包含한 구름이라야만 비를 뿌린다. 폴리네시아는 男女 할 것없이 下衣는 “라바라마”라 하여 그냥 천을 두르게 되는데, 그들은 이것을 짚싸게 걸치며 또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도 두른다. 濕度가 많고 더워서 退勤後에 집에서 나도 라바라마를 着用했는데 시원하나 자주 풀어져서 여간 神經이 가는 것이 아니었다. 통가 第一의 輸出品인 코코넛을 만드는 工場에 求景갔더니 山같이 쌓여 있는 코코넛 열매를 모두 사람의 손으로 깨고 속을 파내는 것이었다. 工場管理人에게 機械로 하면 빠를텐데 하고 물었더니 機械化하면 失業者가 나와서 終日 사람이 直接해야 年中作業을 繼續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나라 경제를 알만한 것이었다. 이런속에서도 王宮과 王族들이 禮拜보는 教會는 더없이 크고 華麗했으며 王은 문이 여섯개 달린 최고급 캐딜락을 타고 다니며, 車內를 보니 鮮紅의 카펫을 깔 豪華판이었다. 案内者에게 당신들 社會의 不條理에 대해 할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서슴없이 不滿같은 感情은 없다고 말했고 하루 세끼 거르지 않고 온 家族이 먹고있으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酋長의 指示에 따라 갖게 되었고 教育도 國家에서 시켜주니 무엇을 더 願하겠는가고 되려 나에게 質問까지 했다. 이런 國民들의 意識構造는 내가 살았던 美領사모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모아에 오랫동안 있어서 美國病院(존슨 大統領의 當選紀念으로 250病床으로 擴張된 綜合病院)의 現地人醫師, 國會議員, 辯護士等은 勿論, 商人이나 教師, 看護員等の 意見도 大同小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말에 依하면 初級大學까지의 教育은 全額 無料이며 學校給食은 1日 2回式, 即 아침과 點心을 주니 學生들은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學校에 가서 아침을 먹고 工夫한다. 病院은 1975年 當時 入院費는 하루에 50센트였고 通院治療는 無料였다. 그래서 親知가 訪問하여 집이 비좁으면 50센트 들고 病院에 가서 入院하겠다고 하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곤 했다.

美國은 年에 4천만불을 이 작은섬(巨濟島의 半程度)에 投資하며 이 投資의 大部分은 教育과 醫療施設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는 高額으로 고용한 白人들의 給料에 充當된다. 사모아人은 美國國籍을 가지며 本土에가면 市民權을 自動적으로 얻게되는 地球上에서 더없이 좋은 條件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工夫하려고 하질 않는다. 일도 制度的인 作業을 싫어 한다. 이곳엔 Van Camp와 Starkiat란 큰 참치통조림 工場이 있어 여기에 就業하면 美國最低賃金制에 따라 많은 報酬를 받을 수 있지만 就業率이 낮아 할 수 없이 西사모아人과 통가人들을 就業시켜 半程度의 임금을 준다. 그래도 그들은 外國人으로서의 差別待遇를 받아 석달동안 일한 다음 일단 出國했다가 再入國하여 다시 석달동안 일할 수가 있다. 그러니 왔다 갔다 하느라고 旅費에 임금을 거의 다 써버리고 마니 그들의 處地도 딱하기만 하다.

폴리네시아인들의 집은 椰子樹 잎사귀로 지붕을 이고 기둥 세우고 벽은 바나나 잎사귀로 멍석같이 짜서 붙였으며 집안은 방 하나로 되어 있어서 몇 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천으로 커튼같이 쳐서, 칸막이하고 生活하며 普通10名内外의 아이들을 낳고 있다. 墓地는 自己집 앞뜰에 쓰고 있으며 名節과 忌日엔 온 家族이 扮裝하고 墓앞에 모여 讚訟歌를 부르고 食事한다. 卽 生者と 死者가 늘 같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風俗이다. 나는 赴任하여 酋長의 2層집에 세들어 살았는데 酋長이어서 墓地를 더욱 야단스럽게 꾸며, 周圍에 크리스마스 추리에 다는 電球를 몇 개 달아놔서 밤엔 그것이 반짝반짝거리려 房안에까지 電氣불이 反射하여 꼭 도깨비불같이 느껴져 不眠까지 온 일이 있었다. 家族들의 성화에 Pago-Pago의 高級住宅街에 마침 獨채가 나서 全貫언어 移徙간 일이 있다. 사모아인들은 해질때만 되면 손바닥만한 기타와 너무 두들겨서 우그러진 빈 石油통등을 갖고 椰子樹에 기대어 南十字星을 바라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合唱하며 춤을 추면서 밤을 지새운다. 그래서 이들은 自己들이 살고있는 이땅은 現世의 에덴의 東山이라고 自讚하고 있다. 이들은 바나나, 우울(俗稱 빵나무라 하여 送球공만한 푸른열매가 年中열린다.) 그리고 따루(우리나라 토랑같은 種類로서 어른의 주먹만큼 크다.)세가지를 主食으로 하고 여기에 副食으로 돼지고기나 닭고기 또는 생선을 먹는다. 이 세가지 主食을 바나나 잎사귀에 싸서 땅에 묻고 그 위에 구들장 같은 얇은 돌을 깔 다음 장작불을 피워서 구워낸다. 꼭 金曜日 저녁에 一週日分을 구워낸다. 더운 곳인데도 一週日 程度는 變質되지 않는다. 이때가 되면 온 天地가 연기로 뒤덮는다. 맛은 우리의 가루가 많은 고구마와 같다. 이 따루는 地域에 따라 맛이 다른지 사모아인들이 美本土에 갈땐 꼭 챙겨갖고 가는 第一의 所持品이다. 美國엔 멕시코 따루가 많은데도 맛이 다르다하여 갖고 간다. 사모아에서 美本土에 가려면 꼭 호노루루를 經由해야되며 호노루루 空港엔 이 따루집짜이 恆常 山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의 皮膚色은 우리보다 매우 검으나 病院에서 낳은 新生兒들은 우리들의 애기와 다를것 없는데 자라면서 햇빛을 마냥 받아가면서 살기때문에 皮膚가 검게 되어가는 것 같았다. 이상 폴리네시아族들의 概要를 이야기했으나 이들의 生活樣式과 思考方式이 너무나 유유작작하며 또 人物들은 男女 할것없이 美男美女이며 食事を 調節하지 않은 男女는 中年期부터 肥大해진다.

난 이곳에와서 새로운 知識을 얻었는데, 그때까지 나는 熱帶地方의 꿀벌은 꿀을 貯藏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꿀은 벌들의 越冬食糧으로 熱帶에서는 꿀을 貯藏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 한번은 美國病院內科長의 男便인 飛行機操縱士가 와서 招待받아 갔었는데, 꿀이 나왔다. 그 맛을 보니 우리나라 꿀맛과 같아 이것이 할케익에 발라먹던 꿀맛과 좀 다르다고 했더니 내 味覺을 칭찬하면서 自己집에서 採集한 꿀이라 하였다. 내가 놀란 表情을 지으니 나를 끌고 벌통에 데려갔다. 그곳에 우리와

같은 養蜂통이 있었고 周圍엔 蜂蜜들이 많았다. 내가 熱帶에선 벌이 꿀을 만들줄 모를 거라고 했더니 그는 造物主가 꿀벌을 만들어 人間에게 꿀을 바치게 하였노라고 呵呵大笑하였다.

人間은 逆境에서 살아야 發展하는 가 보다. 이들 폴리네시아들은 10年前에도 그랬듯이 10年後에도 只今과 같은 樣式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自己들이 이 世上에서 第1 幸福하고 衣食住의 근심걱정이 없으며 公害 없고 다툼이 없는 社會에서 사노라고 한다. 그래서 不滿不平은 못생긴 사람들의 한낱 잠꼬대라고 믿고 그날 그날을 自然에 부처서 살고 있다. 이들中에도 머리가 좋고 工夫 잘 하는 者는 美本土에 나가 醫師나 辯護士의 資格을 따갔고 瓦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現代式 家屋에서 團欒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自己子息들에게 工夫 잘해서 저런 사람같이 되라고 일러주는 것을 본일도 들은 일도 없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 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알든 모르든 지나치는 사람보고 微笑짓고 손흔들며 “다로파”라고 인사하는 그들과 그 社會가 只今도 나에겐 그림기만 하다.

이곳 住宅은 우리의 집처럼 더덕더덕 붙어있질 않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周圍가 熱帶樹木에 쌓여 있고 庭園엔 이름모를 洋蘭과 熱帶草木들로 꾸며져 있다. 꼭 잘사는 사람들의 別莊같다. 이 地方은 火山爆發로 形成된 섬으로 구멍이 많은 熔岩이 많다. 그래서 上水道의 貯水地는 오랫동안 貯水할 수 없다. 漏水때문이다. 하나님은 調和롭게 創造하셔서 하루 한 두번의 스콜을 내린다. 이것을 貯水하여 不足함이 없이 쓴다. 소나기 구름이 車를 따라오나 車가 한발짝 앞서 가면 한번도 비에 젖지 않고, 車가 소나기 구름속에 있으면 끝까지 퍼붓는 빗속에서 運轉하게 될 때도 있다. 사모아에 사는 사람中 비가올때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비를 避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韓國人과 日本人들이다. 사모아인들이 비를 피하는 것을 본일이 없다. 비에 젖더라도 해가 나면 저절로 말라버리니까. 이들은 트럭에 앉아가다가 스콜이 오면 어디 숨겨두었던 비누를 꺼내 그 소나기에 머리를 감는다. 비누물이 빠지기 前에 비가 그치면 그대로 간다.

이곳 Pago-Pago 港口 入口엔 Rain Maker Hotel이 있는데 이곳에서 食事하면서 港口를 出入하는 船舶들이나 검프른 南太平洋의 波濤를 바라보면서 茶마시는 氣分은 과히 一品이다. Pago-Pago 港口는 참으로 아름다우며 2次世界大戰時엔 美國潛水艦基地였다고 한다.

이런 環境과 이런 精神姿勢가 그들로 하여금 에덴東山에서 살고 있다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런 充滿感같은 感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내가 酋長집에 살때 이야기다. 이곳 韓國사람들은 最高의 생선회를 먹는다. 獨航船에서 잡은 어린애만큼 큰 삼치를 精肉店에 가서 잘게 각을 떠서 酋長에게 주었더니 어째 시달지않은 表情을 짓는다. “먹을줄 모르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럼 왜?” 라고 다시 물으니 “나만 먹을 수가 없다”고 하기에 그림 누구하고 먹어야 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自己部族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내가 당신들의 習慣을 몰라 그랬으니 이건 于先 당신만 먹고 곧 더 큰 고기를 마련해주마 하고 2層의 셋 집에 올라와서 生覺하니 膳物을 주고 흑불인 格이되었다. 다음날 韓國船長에게 付託하여 큰놈 두마리를 트럭에 싣어 酋長에게 보내고 저녁에 退勤하였더니 酋長집 앞뜰에 5, 60명의 壯丁들이 모여있었다. 뒷뜰에서 왁자지껄이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酋長이 고맙다고 人事하면서 토막낸 고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 집에 한 토막씩 配給하는 中이었다. 이같이 그들은 혼자 먹는 例가 드물고 그야말로 同苦同樂하는 좋은 風習을 갖고 있었다. 人口가 많아야 勢力있는 部族으로 待遇받았고 또 宗教的見地에서 落胎手術을 許諾치 않기에 한 家庭에 普通 10名内外의 兄弟가 있다.

數年前에 日本의 文藝春秋誌에서, 하도 公害에 찌들리고 開發된 콘크리트 숲에선 어떤 構想도 떠오르지 않아 韓國의 草家와 저녁밥 짓는 煙氣가 노을에 이어지는 情景이 生覺나 급히 金浦空港에 내렸으나 市内로 들어 오는 途中의 光景은 그가 前에 와서 봤던 것과는 事情이 너무나 달랐고 시골 坊坊曲曲 다녀봐도 草家 하나 發見 못해서 失意에 잠긴채 歸國했었다는 한 小說家가 쓴 글을 읽은 일이 있다. 오늘의 우리 社會現像은 가진者の 사치에서 비롯된 것일까? 精神倒錯된 者의 狂氣일까?

都市生活하다가도 시골에가서 空然히 헤메일 때가 종종 있다.

果然 現代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故鄉은 어디에 있을까?

## 내 故鄉 “홍원” 一瞥

金鳳湜(28回)

내 故鄉 홍원을 떠나 南으로 온지  
어언 마흔 여섯해가 지났구나.

나의 까까머리의 童顏은  
白髮이 성성한 늙은이로 변하였는데

世事の 변천이 나의 記憶을 흐리게 하였건만,  
내 故鄉의 즐거운 追憶은 아직도 생생하다.

玉仙洞 백사장을 스치며 우쭈대는 푸른바닷물의

간지러운 소리는, 아직도 나의 귀를 매혹시킨다.

셋 쌍의 섬 송도의 아름다운 전경은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옛날 소녀인양, 나를 손짓하여 부른다.

귀여운 자식들의 敎育을 위해 애쓰던  
생선장수들의 쉼 목소리가, 지금도 내게는 聖歌처럼 들려온다.

나의 小學校 뒷산 鶴頭峰의 姿態는  
이름 그대로 鶴의 머리처럼 우아했었다.

서대천의 수정처럼 반짝이는 물은  
내 소박한 어린시절에 그랬던대로, 아직도 내 녀을 뺀다.

신개골이라 불리는 양지바른 촌 마을은  
아련히 鄉愁心을 불러일으키고, 내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거기가 바로 나의 할아버지, 삼촌, 사촌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사시던 곳, 또한 내가 태어나 다섯살까지 살던곳이다.

오, 나의 할아버지 집 뒤 그 언덕과 들판에서  
나는 코 흘리게 벼들과 뛰어놀았었지. . .

오, 밤나무 골짜기, 내 삼촌과 아버지가 수많은  
밤나무를 심었다고해서 이름 붙여진 그 골짜기에서,  
우리들은 떨어진 밤들을 바구니 가득히 모았었지. . .

수많은 진달래꽃의 화사한 모습들이, 밤나무 골짜기로  
가는 길가 “사랑산” 언덕을 돋보이게 하였다.

꼬불꼬불 함갈령 고갯길에 이르는 향토길에는,  
먼지를 날리며 달리는 트럭이 점점히 보이는 것같구나.



내 마음에 와닿는 이 모든 잊을 수 없는 光景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에 있는 것 같으다마는, 지금은  
너무나도 빨리 변해가는구나.

구소련과 冷戰은 歷史의 쓰레기통에 던져졌고  
어리둥절한 北韓體制는 결국 資本主義로부터 救援을 청하네.

수백만 避難民이 祈禱해 왔듯이 우리 다같이  
北으로 가는 門을 지나도록 祈禱하자.

우리가 아직도 힘이 있고 더 늙기전에  
첫번 기회에 그리던 故鄉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玉仙洞 푸른물에 풍덩풍덩 빠져 보기도하고  
박게도 잡으며, 조개도 따올려 입맛을 돋구어 보자.

우리는 옛 친구를 만나고, 강건한 사람들을 도우며  
우리의 故鄉 “홍원”을 빛나고 돋보이는 마을로  
다시 세우자.

### 三八線

吳聖昱(28回)

봄 날의 大關嶺은 구름이 골짜기를 흐르고 있었다. 나는 아득한 옛날에 넘어오던 길을  
거꾸로 더듬어 가면서 一路 雪岳山을 向해 車를 몰았다.

40余年이란 긴 歲月이 흘렀다. 그 當時는 꼬불꼬불 아흔아홉 굽이를 감돌아서 올라가고  
또 내려오던 길이었는데 이젠 고개가 환희 트이고 아스팔트가 깔려서 신작로가 되어  
버린 大關嶺 고갯 마루에 서니 새삼 오랜 歲月이 흘렀구나 싶었다.

예나 다름없이 울창한 숲에는 바람 소리 드높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귀이 귀에  
따깝다.

내가 江陵에서 서울로 넘어오던 그 때가 19살 나던 가을이었다. 무일푼이었지만 불타는

희망 하나만을 안고 넘어오던 고갯길이었다. 未知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저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向하던 젊은 情熱이었다. 목을 굽에 대한 걱정도, 먹을 것에 대한 염려도 잊은 채, 그저 서울로 서울로 치달던 꿈 많은 19살 아니었던가.

大關嶺에서 點心을 들면서 한참을 쉬니, 그 옛날 사람 살지 않았던 고개와는 달리 오가는 나그네와 휴게소 가득히 메운 車輛 洪水는, 歲月따라 人心도 변하고 風物도 변하는 風塵世上의 無常을 말해주고 있었다.

江陵에 들었다. 栗谷先生님 遺德을 기리면서 마음 놓고 구경하지도 못했던 40余年前을 恨스럽게 되돌아 본다.

當時 江陵엔 감이 퍽 많아 값이 매우 싸다는 기억이 지금껏 생생하게 남아 있다. 감나무가 없는 威興에서는 감이 제일 비싼 과일이었는데...

또 江陵에는 口錢을 받고 쌀을 되주기만 하는 장사치가 따로 있었다. 以南에 나와 처음으로 보는 낮선 風景에 그저 놀랍고 신기했었다는 記憶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윽고 푸른 물결이 넘실 거리는 東海가 보이기 시작했다. 깃푸른 바다, 산더미 같은 파도, 너울거리는 갈매기떼.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바다 風景일까? 注文津은 내가 以南에 와서 첫발을 디딘 곳이기도 했다. 興南에서 10리거리에 있는 西湖津에서 肥料 싣고 떠나는 배 밀창에 숨어서 먼 바다에 다달을 때까지 꼭 숨어 있어야 했다. 배가 水平線 너머로 나가게 되어 陸地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때사 甲板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千里 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용케 注文津에 入港할 수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 마자 나는 하늘을 向해 <허허허> 하고 실컷 웃어댔다. 모두가 눈이 둥그래져서 놀라와 했지만 나는 상관없고 배를 거머쥐고 실컷 웃어댔다.

「왜 웃어? 미쳤어?」

라는 船長 말에도 그저

「웃음 잃은지 1년이 넘어서요.」

라고 대답하곤 계속 웃어댔다.

1년 남짓 마음놓고 웃어보지 못한 以北 땅이었다. 웃다가도 누군가가 「왜 웃어?」 하고 시비를 걸어 올라와 마음놓고 웃지도 못했던 나날이었다.

注文津을 지나자마자 곧 三八선 기념탑이 서 있었다. 北緯三八度를 표시한 塔인 것이다.

기념탑 앞에서 사진을 찍으니 그 옛날 臨津江가에서 北緯三八度라는 나무 팻말을 만지면서 울분에 떨던 갓스물 되던 正月이 회상되었다.

나는 1946年 10월에 越南했었다. 그 이듬해 正月이 되니 威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나는 越南할 때 집에서 말없이 떠나 왔기 때문에 아버님께 늘 죄송스런 생각이 들었었다.

나는 가까스로 900원을 만들고서는 以北行을 斷行한 것이다. 짐을 한 덩치 짊어져 주기로 하는 條件으로 元山에서 온 장사치들을 따라 가기로 했었다.

1月 下旬이었다. 바람은 썩썩 불고 눈에 덮여 얼어 붙은 길을 더듬어서 北으로 北으로 나아갔다. 山과 들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우리가 신은 짚신은 미끄러지지 않고 발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臨津江에 다달았다. 江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白沙場에는 외로이 팻말이 하나 덩그러니 서 있었다. 거기에는 페인트 글씨로 「北緯三八度」라고 써 있었다. 나는 그 팻말을 가운데 두고 左右 발과 팔을 벌리고 외쳤다.

「보라! 내 오른 발은 워싱턴에, 왼발은 모스크바에 있다.」

祖國分斷을 원통히 생각하던 當時 젊은이들이라면 너 나 없이 모두 비분강개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線이었지만, 實際로는 엄청난 意味를 內包했던 저 線으로 말미암아, 우리 民族은 左右로 分裂되고, 國土는 南北으로 分斷되었던 것이다. 저 恨 많은 線으로 말미암아 離散의 슬픔이 싹뻗던 것이다. 저 鉄壁같은 線으로 말미암아 政治, 經濟, 言語, 慣習, 歷史가 異質化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천리길을 証明 하나 없이 용케도 威興까지 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奇蹟같은 일을 해치운 것이다. 술한 難關도 突破했고 아슬아슬한 고비도 여러번 넘겼었다.

다시 越南하던 길은 鐵道便이었다. 途中에 검문에 걸려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애태우기도 했고, 잡혀서 強制勞動도 당했지만 天幸으로 다시 北緯三八度線을 넘어 서울 땅을 밟을 수가 있었다. 그 苦難과 기쁨을 어찌 筆舌로 다하랴!

그 때 일을 되새기며 생각하니 사람의 平生이란 悠久한 宇宙 歷史에 比하면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옛 詩人도 「山川은 의구한데 人傑은 간데 없네」라고 읊지 않았던가.

깃푸른 바다! 산더미같은 파도 너머 고향 땅 威興을 그리며 눈시울을 적시니, 어린 時節 뒷마당인 양 뛰놀던 盤龍山 골짜기며, 城川江 기슭이며, 또 萬歲橋 朔風이며 校庭 아카시아며... 懷古의 情이 가슴을 적셔온다. 벗이여! 山河여! 무양한가!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니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는데 구름 사이로 몇 줄기 빛이 바다로 쏟아지니 그 장엄한 光景에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다시 이 三八線을 넘어서 내 故鄉 땅을 밟을 수 있을런지.

## 詩 2首

趙東喆(28回)

## 갈 수 없는 故鄉 (베를린장벽 제거소식을 듣고)

故鄉은 있으되 갈 수 없는 故鄉  
 飛行機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도 갈 수 없는 故鄉  
 自動車를 타고 길따라 달려서도 갈 수 없는 故鄉  
 비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도 갈 수 없는 故鄉  
 걸어서 山을 텨고 江을 건너서도 갈 수 없는 故鄉  
 名節이 되어도 갈 수 없는 故鄉  
 父母가 돌아가시고 兄弟姊妹 죽었어도  
 消息조차 알수 없는 故鄉  
 이런 故鄉이 하늘아래 어느 곳에 있다더나  
 우리가 北에 두고온 故鄉 우리의 父母兄弟가  
 살고 있는 고향이 갈 수 없는 故鄉이 되었으니  
 올해도 또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가려나 꿈에도 잊지 못하는 情든 故鄉山川으로  
 언제나 만나려나 그림고 그리운 父母兄弟로 나를 보내다오  
 내 故鄉으로 나는 기어코 가리라  
 그리하여 그리운 父母兄弟를 만나리라  
 數없이 흘러간 恨많은 세월속에  
 鄉愁에 찌들어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애타게 故鄉을 그리며 나날을 지새우는 우리의 念願을 하늘도 無心치 않으리라  
 分斷線이여 우리를 더 울리지 말아다오

1989. 11. 11.

## 고향을 기리는 心思

고향 고향은

시들지 않는 마음의 영겁한 봄이요  
 사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랴오  
 죽고 죽어 고쳐 죽는다 하여도  
 못잊어 다시 찾을  
 인생의 영원한 보금자리 여라  
 양털같은 그 따스함이어!

어머니 어머니는  
 요원의 불길처럼 타는 사랑이요  
 식을줄 모르는 뜨더운 정이랴오

나도 나고 거듭난다 하여도  
 다시 찾아 파문힐 보드라운 요람  
 눈을 굳게 닫아도 아롱지는  
 봄결같이 포근한 자애로움이어!

알곳은 운명의 장난으로는 너무 가혹하구나  
 하염없이 떠도는 실향객의 설움 어찌하랴  
 정든고향 두고도 못가는 심정  
 누더기 같이 발기발기 찢어지누나  
 부모 형제 두고도 못보는 심사에  
 아픔에 겨운 눈물만 감 도누나

세월과 더불어 함께 늙어 온 향수가  
 회감도 고회도 없이 새 말갭게 살아서 내마음 적시는 구나

날이면 날마다 밤 낮 없이 애타게 그리워지는  
 고향 생각 부모 형제 사념에  
 내 죽다 죽다 못 다 죽네

## 평등과 자유, 그리고 이 한을!

주혁순(28回)

6학년 때의 담임성생은 일인이었습니다. 무라타(村田)라는 성을 가진 검도에 능한 성생이었습니다. 우리 반을 정확히 말해서 함흥공립금정심상 고등소학교의 제 20학급이었습니다. 그 해가 소학교라는 이름의 마지막 해였고, 태평양전쟁 발발의 전년, 그러니까 1940년 이었습니다.

무라타선생은 교과서 이외의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으시면 세계 위인 전이나 일본무사의 무용담을 직접화법을 섞어서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에 열중하시다 보면 앞줄 아이들은 침세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시던 선생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돈을 받고 일한다. 공산주의의 나라란다。」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질문 잘했다. 그래서 공산주의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의 간단한 결론으로 공산주의의 비판은 끝났습니다.

또, 어느 날엔 이런 이야기도 불쑥 하셨습니다.

「하와이엔 설탕수수가 많지 그런데 어떤 해엔, 여기서 만든 설탕을 바다에 나가서 버린단다. 풍년이 되서 설탕이 많이 생기면 값이 너무 싸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은 풍부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족한 나라도 있는데 나누어 먹지 않고요, 아깝지도 않나요?」

「그래, 그것이 자유하는 자본주의의 못된 점이란다.」

역시 이것으로 자본주의의 이야기는 끝마무리 되었습니다.

왜 무라타선생은 교과서에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어린 우리들에게 했을까요? 지금도 궁금해집니다. 바야흐로 구라파에서 세계 2차대전이 무르익어감에 독·이와 동맹관계에 있던 전체주의의 나라 일본이 가상적국인 소련과 미·영을 혈투고자한 교육이었을까요? 아니면, 공연히 해보신 이야기였을까요?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를 담은 칙어의 교내방송을 들으면서, 남중에서의 1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별관에 있던 1甲의 교실이었습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불의를 치는…」 이렇게 시작하는 군가가, 「이기고 돌아온다고 씩씩하게…」로 이어지더니, 「어디까지 계속되는 진흙땅이나…」하는 노래가, 국민의 전의를 떨어뜨린다고 금지곡이 되면서, 서전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쟁은 패색이 짙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일인교사는 소집되어 전지로 떠났는데, 이 난리속에서도 사고(佐護)선생은 군무를 마치고, 제대 귀교하였습니다. 사고선생은 종전의 영어를 담당하면서 당연히 훈육주임 교사직도 겸무하였습니다.

당시, 미군기의 대명사는 보잉社의 보잉機種이었지만, 콘소리데이트社의 콘소리데이트기종도 맹위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소리데이트라는 영어단어는 상당히 귀에 익은 낱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전지에서 돌아온 훈육의 사고선생에게 “콘소리데이트35”라는 별명을 헌상하였습니다. 開口一番, 「정쟁중인데!」하면서, 잔소리만 한다고, 헛된 소리, 공소리(空言)를 그만 하십사하는 뜻에서 였습니다. 35는 선생의 연세를 덧붙여서 기종의 번호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습경보, 콘소리에이트35!」하면, 시장바닥에서의 「뺏다!」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고선생이 오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은어인 것입니다.

근로봉사의 오락시간을 어떻게 짜느냐하는 이야기 끝에, 우리들의 누군가가, 특별히 짧게 아니라, 자유롭게 합시다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야단 났습니다. 당장, 콘소리데이트의 급강하 공습! 훈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라니! 미국의 열간이들이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저 야단들인데, 자유라니! 우리는 천황폐하를 위해,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당당히 목숨을 받친다는데, 그 놈들은 전쟁목표가 없으니, 헛개비 같은 자유를 위해 죽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자유란 단어는 절대로 터부야!」

8·15의 해 3월에, 학제 개편으로 4년제를 졸업하여 고향의 의전에 입학하였습니다. 전쟁 마지막 해인 것입니다. 이미 고등교육은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해의 일본내 상급학교의 입시는, 일본 현지에서 치루지 않고, 서울에서 일괄실시하는 정원의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학교문을 닫아야하는 판에, 한국에서의 유학이란 낯선스였을 것입니다. 입학은 곧 군수공장행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성제대의 예과생들은 입학 후 한달도 못돼서, 흥남공장 등에 장기동원되었습니다. 그나마 의전은 군의관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장기동원됨이 없이,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름방학이어야 할 8월 15일에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선덕비행장에서 면목상의 근로봉사를 일주일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담당장교는 견습사관이었습니다. 학병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시쳇말로 잘 빠진, 하세가와가즈오(長谷川一夫)를 연상케하는 미남의 청년장교였습니다. 노래를 참 잘불렀던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의 민요도 곧 잘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의 저녁 점호시간이었습니다. 이 견습사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담배 보급이 있다. 군에서의 보급은 일보에 기준하기 때문에, 제군의 담배는

이미 인원수에 맞게 수령했다. 그런데 분배에 문제가 생겼다. 제군들 가운데는 담배를 피울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일보에 따라, 전원에 기준량씩 분배하는 방법과, 미성년자를 뺀 대원에게만 분배하되, 이왕 수령한 담배니, 이들에게 증량분배하는 방법중에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말해주기 바란다.]

이때, 4년제 졸업의 1학년생은 17세였습니다. 전문학교 학생이긴 하나, 담배피울 나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돈내고도 못사는 담배의 배급시대였습니다. 애국반을 통해서, 빈 담배갑을 내놓고, 가뭄에 콩나듯 배급되는 담배를 반으로 잘라서 어렵게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17세짜리에게도 담배는 귀중품입니다. 집안 어른께 드리면, 몇 번째의 효는 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도 있었기에 한인학생(학생수에 있어서, 한·일은 약 반반이었다.) 장군이 손을 들고 한다는 말이 「똑같이 일을 했으니, 공정하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점호가 끝난 뒤, 부대의 정보과에 불러가서 꽤나 곤욕을 치렀습니다. 「평등」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8·15가 되었습니다. 콘소리데이트선생에게 「자유」 때문에 야단 맞고, 「평등」 때문에 일군정보과에서 곤욕을 치렀던 암울한 시대가, 일본에서의 해방과 함께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일본인세화회(日本人世話會) 주선으로 장작패기에 다녔던 사고선생은 「대동아공연권 건설은 일시중단」이라고 탄전부렸다고 합니다.

그후, 이 좋은 해방의 세월에 우리는 소위 「평등」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습우화의 어미개구리 같이 배가 터지도록 경험했습니다. 북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돈을 받는다는 소련식의 「평등」의 경계를 보았습니다. 또 남에서는, 원유(原乳)가 남는다고 시골 개천에 버리고, 무, 배추를 밭에다 얹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탕을 바다에 버린다는 식의 「자유」의 경계를 목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등과 자유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장군 명군만하다가 하염없이 세월만 보냈습니다. 꼬인 실타레를 풀 생각은 못하고, 원점에서 빙빙 돌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마저 두동강이어서 오늘은 성묘도 못한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작패기로 연명하다 도망치듯 돌아간 사고선생과 그 일족은 패전, 망국의 나라에서 일어나, 경제대국의 깃발을 앞세우고, 다시 대동아경제권의 건설의욕에 부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나들지 못하는 남북의 장벽도 아랑곳없이,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양쪽에서 부르니까요. 참으로 우리는 못난 백성입니다. 부끄러운 백성입니다.

이 한을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울부짖는다고 시원하겠습니까. 남은 목숨, 통일이 먼저냐, 목숨이 더 기냐의 저울재기입니다. 딱하고도 슬픈 절체절명(絶体絶命)의 경기



입니다.

부모님을 불러봅니다. 형제의 이름도 불러봅니다.

아! 고향이여, 옛날이여, 옛벗이여!

1992년 한식날

## 天生我材

김 순 욱(29回)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天生我材가 뭔가를. 그렇지만 나를 지칭하여 天生我材란 말은 아닙니다. 나는 편집자의 성화에 못이겨 다만 재미있을 듯한 말을 소개하고 그에 얽힌 일화를 적어 독자들에게 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려는 것 일뿐입니다.

읽어서 보는 뜻대로 「하늘이 나같은 인재를 낳았다」는 뜻으로 李白의 將進酒라는 詩의 글귀지요. 將進酒란 또한 보아 아시다시피 勸酒의 뜻으로 書家들이 즐겨 十曲屏에 쓰는 인기있는 시지요. 한국의 草書대가인 曉嵐 朴秉圭씨가 쓴 장진주의 초서가 명동 로얄 호텔의 로비에 걸려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가보지 않아 알 수 없군요.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不復廻」라고 시작하는 중국인다운 과장의 웅장한 글귀로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황하의 물 天上으로부터 와서, 기운차게 흘러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조금더 계속해 볼까요. 「又不見高堂明鏡悲白髮 朝如青絲暮如雪 人生得意須盡歡 莫使金樽空對月」 「또한 보지 않았는가. 고당 명경에 비취지는 백발의 슬픔, 아침에는 青絲와 같던 것이 저녁에는 눈같이 희었네. 인생 뜻을 얻었을 적에는 모로미 환락을 다할 것이. 황금술단지를 공연히 달빛만 보이고 버려두지를 말아라」. 이제 天生我材가 나옵니다. 「天生我材必有用 千金散盡還復來」 「하늘이 나같은 인재를 낳았으니 반드시 쓰일 날이 있을 것이며, 천금 많은 돈을 다써서 버렸어도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전에 한국에도 생전에 「나는 한국의 보배」라고 자칭하는 박력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晉의 陶淵明이 五斗米折腰라는 자존심으로 저 유명한 歸去來辭를 후세에 남겼거니와 李白은 얼마나 기개가 대단했으면 하늘이 나같은 인재를 낳았다고 기고만장했을까요. 서양의 석학 소크라테스가 그의 악처에게 물벼락을 맞으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건달로 독설을 들었어도 天生我材니 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고 큰소리는 치지 못하였거든요. 李白은 酒仙이라고도, 詩仙이라고도 하니 술마시고 큰소리만 탁탁 치고 다녔는지도 모르지요.

吳世昌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3·1만세 사건의 33인의 한분으로 잘 알려진 분이지요.

보통은 그렇게만 알려져 있지만, 알고보면 이분은 葦滄이라 號하여 좋은 책을 썼는데 특히 篆書體에 長하고, 또 篆刻을 잘하여 후일에 그의 작품값이 많이 올라 가짜 葦滄전서가 시장에 횡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문에 능하고 골동감식의 안목이 높아 만년에는 이로서 생을 業하다가 6·25전쟁중 대구에서 자고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집안은 원래 中人으로, 양반은 上人, 상놈은 下人이라 부를때 그 중간계급이라 하여 中人이라 일컫는, 지금으로 말하면 中産階이라고나 할까요. 위창의 부친은 따라서 관청의 서기로 일하면서 조선시대에 청나라에 사신이 갈때 서기 실무자로 수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찌기 서화를 좋아하여 청어가면 서화인과 교류하고, 청의 서화, 전각, 그에 관한 서적들을 갖고와서 조선에 중국문화를 도입하는 역할을 한셈인데, 따라서 그의 사랑채에는 늘 선비들과 서화인들이 묵고 있었을 게지요. 그래 양반계급은 아니었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집안이 아닌 이집 아들 위창은 이 사랑채의 문객들 틈에서 그때 선비들이면 꼭 익혀야 하는 서, 화, 각을 배우고 古詩도 배워 익힌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위창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호방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그래서 결국 삼일운동에도 적극 가담한게 아니었겠어요.

위창은 비교적 일찍 부친을 여의고, 삼촌댁에 기숙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삼촌이 위창에게 용돈을 건네면서 함께 금전출납부 한권을 내놓았겠다.

「세창아, 너 이 출납부에 용돈사용의 상세를 기록토록 하여라.」

「...」

「알아 들었느냐.」

「...」

「알아 들었느냐.」

「어, 예...」

요새말로하면, 삼촌 치사하구나. 용돈 몇푼답시고 출납상세가 다 뭐야 했겠지요. 위창은 그날 받은 출납장부를 어디엔가 박아놓고, 술을 그동안 얼마나 마셨는지까지는 모르되, 한달이 지난 어느 날 삼촌이 하인을 불렀겠다.

「얘, 사랑에 가서 도련님께 한달전에 준 출납부를 갖고 들어 오라하여라.」

머슴이 사랑채에 나가 전갈을 외우니 본인은 그 출납부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억할 수 없는 처지에 출납기록이 다 웬말이고. 위창은 겨우 찾아낸 출납부 표지를 제끼고 첫 페이지를 열어 붓을 들었겠다. 그리고 큰 글자로 天生我材의 녀자를 써서 하인에게 주고 자기는 안채로 들어가 지 않았는데, 이 녀자는 독자들 보시는대로, 「天生我材必有用 千金散盡還復來」에서 첫머리 녀자만따서 삼촌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삼촌 이러이러한 처지인데 제게서 꼭 출납명세를 받으셔야겠습니까?」

만일 필자가 이 삼촌의 처지에 있었다면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큰

그릇이 났구나」. 하지만 이때 위창의 삼촌이 무슨말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으니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 그후로는 출납부 없이 용돈만 위창의 손에 매달 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將進酒의 詩를 보고 배운것은 벌써 30년이나 전의 일이지만 위창의 이 일화를 듣고 참 재미있고 멋진 이야기다 쫘박에는 생각지 않았지요. 그런데 天生我材를 목격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어찌어찌 흘러서 미국에 오게되고 또 흘러흘러 2년여전에 뉴욕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를 구경하러 링컨센터에 갔었습니다. 연주홀 입구근처에 광고가 붙었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지휘자가 바뀌어 부지휘자(Assistant Conductor)가 연주를 지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않고, 동행한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바이올린이 나와 음계를 맞추게하고 이어 박수를 받으면서 나오는 지휘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밖으로 그는 너무 젊은 30세로 밖에는 안보이는 까망머리의 동양청년이었으니까요. 놀랄게 뭐 있느냐구요. 그래도 명색이 세계에서 다섯개를 꼽는 필하모닉의 하나인 뉴욕필이예요.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우수했으면 소수민족에서 뽑혀 大뉴욕필의 부지휘자가 됐겠나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다른 유명지휘자나 다름없이 유유히 지휘를 마치고 청중에게 인사를 하는데 환호성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뉘를 잃고 그를 쳐다보았으나, 보기에다가 날뜨게 생긴 보통 동양청년이었습니다. 중간휴게시간에 안내책자를 뒤지니까 그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이름은 세뮤엘 왕, 중국태생으로 미국내 여러 아시안 청년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해온후 여러 청년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다가, 객원지휘자로 우수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한일이 있다는 정도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음악학교를 나왔다거나, 음악공부를 누구에게 사사하였다는 말은 전혀 없어서 의아하고, 그러나 호뭇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나서 내가 알아낸 그의 경력은 더욱 나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는 하바드 의대를 나온 안과 의사로 뉴욕의 어느 안과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뉴욕필의 부지휘자가 된 후로는 너무 바빠서 의사직에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바드 의대를 나온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그리고 이곳에서는 안과 레지던트로 들어가는 경쟁률이 가장 힘든 과목의 하나인데, 그리고 두가지 일을 하고 있고, 30의 나이로, 까망머리를 한 풍채도 없는 동양인이 대뉴욕필의 부지휘자로 뽑힐때에는 오죽 우수했으면 그렇겠나 싶지 않습니까. 그는 음악학교출신이 아닌데, 내가 LA에서 본 어느 한국인 미술모임에서 미술대학 출신이 아니면 입회를 제한하려는 것을 보고 놀란일이 있었는데, 이 일과는 너무 대조적이기도 하였습니다. 뉴욕필의 상임지휘자 주빈 메타가 이 청년을 인터뷰할 때, 소문으로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늘 한차원 높은 것이어서 메타씨가 탐복했다고 하며, 하기가 어지간해서는 이 청년을 그자리에 지목했올리가 없지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天生我材」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만한 머리를 가져야 어디에 명함을 내놓고 말을 할 수 있는거지. 그리고 나는 바로 조물주에 대고 항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토록 공평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재의 브레인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잔나비”브레인을 주어 나처럼 비참한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잔나비”브레인을 주시려거든 아예 만들어내지 말것이지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주신 이 “잔나비”브레인 때문에 지난 60여년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한줄 알거나 하십니까. 너무합니다.

아무리 봐도 필자에게는 「天生我材」란 말은 책에서나 보고, 아니면 입을 벌린채 쳐다보거나 하는 그런것인가 봅니다. 옛날에 함남중학에 입학했을 때는 제법 한번 목에 힘도주어 본적이 있긴 하지만, 역시 天生我材는 아닌 “잔나비”브레인의 소유자였든거지요. 그렇지만 많은 독자여러분은 「천하의 함흥고보」 「천하의 남중」 출신들이 아닙니까. 뉴욕필의 부지휘자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에 필적하는 능력과 일을 하고 계시고, 하시든 분들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경에 이런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으니 그받은 재능으로 서로 사랑하고 남을 위해 일해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틀린 말이야 했을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天生我材必有用」이라는 문구를 풀어본다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궁색한 자기위안을 이렇게 해보려는 것입니다. “잔나비”브레인은 그 브레인대로 어디선가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 적어도 동물원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언젠가는 有用할지도. 마치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말이예요.

## 有感 2話

### 金在楨(29回)

#### 第1話 歸鄉(故鄉訪問)

미국에 사는 南韓出身의 대학교수 한분이 주동이 되어 올해에 北韓에서 학술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한다. 내가 전공하는 分野가 되어서 나는 故鄉(咸興)에 다녀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셈이다.

日帝에서 해방되던 다음해 고향의 共產化와 함께 父母任께서는 집 한채만 남기고 모든 財産을 政府에 몰수당하여 생활이 어려웠던 탓으로 나의 학비조달이 어려웠을 때에 다행이 나는 金日成 최고 獎學生으로 선발되었다. 그 獎學金은 學費뿐만 아니라 校服, 食費, 구두,

잡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당시 學校에서는 “김재정 동무는 有産階級의 出身이지만 그는 바르고 솔직하고 正義를 사랑하는 性格의 소유자로서 장차 그의 모든 能力을 다하여 國家와 無産階級人民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 장학금 탕으로 나는 6·25사변이 나던 해(함흥의대 졸업반이 되던 해)까지 무사히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있었다.

이번기회는 母校에 가서 어린 後輩들을 위하여 자기가 남들보다 좀더 工夫한 분야에 관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나는 共產主義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으로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革命的 高調期에는 무자비하게 낡은 社會(有産階級)를 때려부서라. 불질러라. 機會主義的인 寬大性을 버려라. 革命的 低調期에는 숨어서 地下運動을 계속 하여라.” 共產主義黨史의 한 구절이다. 나는 寬大性(관대성)을 지니고 있고 무자비한 성격이 없어서 共產主義者가 될수는 없다는 것을 자타가 알고 있다.

만약 이번 기회에 고향으로 간다면 틀림없이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일성 주석(수상)은 6·25동란이라는 오류(잘못)를 범하였소. 南北이 과거를 잊고 손잡고 일하기 전에 김주석은 6·25의 책임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며 자기 반성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보오”라는 말을 하게 되리라 본다. 나는 김주석(수상)이 자진하여 “6·25는 내가 저지른 큰 잘못이었소.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하오니 이제 우리 다같이 과거의 쓰라림을 잊고 舍心하여 世界에 빛나는 三千里 금수강산을 개척하여 나갑시다”라는 담화 발표가 있기를 꿈같이 원하여 본다.

越南後 李東沂 叔父任(威興高普同窓)宅에서 學校다닐때 叔父任께서 나에게 威鏡道 고집이 심하다고 충고 하신 기억을 한다(6·25때 越南한 나는 5·16獎學生으로 西獨留學갈 때까지 서울에서 李東沂 叔父任 德으로 工夫를 계속 할 수가 있었다). 故鄉을 訪問하기 전에 김일성수상(주석)의 사과를 원하며 주장하는 마음은 역시 지나친 나의 고집 때문이라고 反省하여도 보았지만 내맘은 아직도 풀리지 못하여 남들은 가지만 나는 이번의 좋은 故鄉訪問의 기회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 第2話 범과 도깨비

어린시절 한때에는 어른들의 옛말(옛날 이야기)을 듣는 것이 하나의 낙(樂)이었다. 옛말 중에서도 범이나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는 흥미있으면서도 무서웠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던 그 시절에는 옛말을 그대로 믿었던 탕으로 어두운 저녁에 다니는 것이 두려웠다. 어두운 밤에 범이나 도깨비를 만날까 걱정이 되었다.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는 밖에 나갔다가 집안으로 드러올때면 나의 뒷다리(뒤에 드러오는 다리)를 범이나 도깨비가 와서 잡는 듯하여 겁이나서 급히 문을 닫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 그때에는 어두운 밤이면 제일

무서운 것이 범이나 도깨비였다. 반면에 밤에 길가에서 만나면 제일 반가운 것이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형편이 다르다. 어두운 밤에 길가에서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다. 흥기를 든 사람이다. 섭섭한 일이다.

## 時間의 흐름속에서

임 순 균(29回)

歷史가 바뀌어도 몇번 바뀔 半世紀동안 아무런 變化도 없이 望夫石처럼 버티고 서 있는 북한정권을 보노라면 역사의 時計바늘이 멈춘 이방인지대를 연상케 한다.

연합군의 勝利로 38도 이북에 소聯군이 進駐하게 되고 共產主義물결이 휘몰아치던 시절. 「第 2貧乏物語」(河上肇著) 등을 읽고 資本主義經濟의 矛盾에 통탄, 그 저술에 感激하고 社會正義實現에 젊은날의 理想을 발견한 듯 온갖 정열을 쏟아붓고 밥을 굶어가면서 마르크스理論에 심취하던 時節, 나의 젊은날은 이렇게 왔고 또 저물어갔다. 그때 그 時節 누구라도 한번쯤 그 이론에 도취되어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리. 또 그 革命의 공허함을 느꼈을 때 얼마나 깊은 좌절과 환멸, 허탈감에 빠졌던가. 革命이란 실로 무서운 것이었다. 多幸히 그 늪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뉘우쳤을 때는 이미 늦어 그 올라가미 속에서 목숨만 간신히 이어가다가 어디론가 소리없이 사라진 사람도 많았으리. 한치 앞도 못보는, 아니 보려고도 하지않는 머리는 限없이 뜨거웠고, 가슴은 얼음장같이 차던 젊은날은 혼돈과 광기에 찬 격동기였다. 지금 그 시절을 회상하면 한가닥 미소와 죄송함이 앞선다. 그러나 그것은 不幸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格정의 계절에 나는 함흥공회당 앞의 무덕관에 설치된 勞力者政治學校에서 마르크스主義理論에 추운 겨울날도 잇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도 변증법적 유물론, 유물사관, 자본론 등에 머리를 싸매고 붉은 잉크로 뇌를 물들이고 있다. 검은 만포에 세줄백인 검은 모자에 몇 개의 필기도구를 옆구리에 끼고 得意滿面하던 시절. 때론 보안서원의 사이드카(독일에서 압수한 것임)를 타고 시내를 질주하면서 학습에 열중하던 시절. 나이 어린 革命투사의 自負心 등으로 氣高萬丈하던 시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追憶의 한토막이다. 이무렵의 나의 태도는 다소 無禮했고, 친구들과의 거친 論爭, 윗어른과의 서슴없는 마찰 등은 아마도 주변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으리라. 또 무서울 것 없이 도 학무국장예의 도전 등은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함도 느낀다. 이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작금의 운동권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나의 젊은날을 회상케되고 그 운동권 학생들이 쉽사리 理念을 포기할 수 없음도 이해된다.

깊은 思索과 幅넓은 教養, 人間愛의 缺如가 主된 原因이고 여기에 공산주의사회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못보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무시못하리. 나는 가끔 우리시대는 19世紀末의 러시아 文豪들에서 볼 수 있는 思想的苦惱 「카라마조프의 兄弟들」에서와 같은 兄弟들의 對話 등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從來의 体制 또는 既成의 權威에 대한 妥協없는 鬪爭은 壯嚴하게 보일수도 있으나 대공과 유리된 過激鬪爭은 계속 過激으로 치달는 生理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原則이 옳다고 하여도 他人에게 自己主張을 強要할 權利는 누구에게도 없지 않은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는 없다. 불란서革命中(1793년)에서의 지론드派의 滅亡, 1794년의 로베스피엘의 죽음등은 完璧主義 또는 非妥協的鬪爭은 스스로를 滅亡으로 이끌어 가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열병은 시간과 사회적 애정만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본다.

그러던 나에게 왜 전환점이 왔는가? 그것은 마르크스 理論 自体의 어떤 모순과 實踐過程에서의 모순, 학생다운 순수성에서 오는 人間味없는 건조한 전투적 세계관에 염증을 느낀 탓으로 본다. 변증법적유물론은 그 單純함에 多少의 失望도 있었으나 自然科學, 社會科學을 一貫되게 說明할 수 있는 장대함과 体系的인 것에 매료되었던 것도 事實이다.

이 哲學은 헤겔의 唯心論的 辨證法에서 변증법을, 호이엘바하에게서 唯物論을 끄집어 온 것으로 헤겔의 精神을 物質로 바꿔놓고 그 物質이 변증법적으로 運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唯物論的辨證法을 社會科學에 適用한 것이 唯物史觀이다. 이 변증법은 회랍시대부터의 論理의 展開法則으로서 이에 따르면 하나의 테제(正)가 그 내부에 不足을 내포하고 對立 또는 矛盾을 발생하여 안티테제(反)로 발전하고 이는 다시 신테제(合)으로 統合되어 간다는 理論으로 이때 對立한다든지 또는 서로 不足하다는 것은 觀念이라든가 意味부여일진데 物質 그 自體일 수는 없지 않는가. 소聯의 生物學者 루이센코는 자본주의적 생물학, 공산주의적 생물학을 운운하면서 푸로레타리아 生物學은 人間을 改造할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철저히 生物은 環境變化만으로 種의 變化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더욱 飛躍하여 공산주의 과학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未開拓分野에서도 이 理論을 적용하면 새로운 眞理를 찾을 수 있다고까지 하였으니 실로 웃기는 이야기다. 그런 소聯이 오늘까지 곡물생산에 거듭 실패 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엥겔스도 이 마르크스理論을 自然哲學에 接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조잡한 理論으로 失敗하고 말았다. 複雜한 宇宙現像을 自己들의 틀에 맞추려고 하였으니 實로 놀라운 일이며 실로 돈키호테 같은 발상이다.

또 唯物史觀에서는 歷史를 움직이는 가장 重要한 것은 下部構造로서 物質的인 生物形態라고 하는 思想인데, 歷史의 경과를 정하는 最終的인 힘도 物質的인 生産力으로 說明된다고 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生産形態가 모든 사람의 觀念的인 上部구조를 지

배한다는 圖式的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종교적 헌신, 애국심, 모성에 같은 사랑도 經濟的 產物의 結果라고 보는 것이다. 하기가 마르크스 戀愛觀에 따르면 「사랑은 사랑만으로 交換된다」고 交換의 原理를 내세웠으니. 그렇다면 階級意識은 客觀的인 生産形態의 產物일진데, 어찌하여 意識이 個人的差異를 낳게하고 革命의 지도자와 大衆의 차이를 낳게 하는가.

物質的生産力이라 함은 技術에 依存하는 바가 많은데 마르크스主義者는 技術을 自然을 支配하는 힘 정도로 생각하고, 生産形態는 技術의 改革으로서 工場의 大型化, 大企業의 集中化로 勞動者의 貧困化를 招來한다는 정도로 여기며, 唯物史觀의 立場에서는 機械를 노동자의 敵으로 생각하고, 機械化는 決코 노동자를 幸福하게 못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그들의 技術은 自然開發에 力點을 둔 宇宙科學, 戰爭産業 정도에 머물었다.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을 形成한 19世紀 中葉에서는 오늘과 같은 技術進步를 생각할 수 없었고 또 人間의 生活에 공헌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이미지가 오늘날 공산주의를 몰락케한 要因中的 하나로 作用하였다. 또 잉여가치설은 노동가치설에서 파생된 바 마르크스主義의 中心的 테마인데 商品의 價値는 아담 스미스(1723~1790), 리칼드(1777~1823)에 의하여 거기에 投入된 노동의 量으로서 「노동外에는 價値가 없다」고 하고, 人間의 노동만이 不變의 價値의 源泉으로, 商品의 가치는 그것을 生産하는데 所要된 노동의 價値에 比例한다고 主張하였고, 마르크스도 이를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잉여가치설은 노동가치설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자는 自己의 (노동의 單位)×(時間)으로 價値를 發生시키는데 노동자는 그것과 같은 價値의 것을 交換받으면 문제는 없으나 노동자가 生活하는데 必要한 時間 以上으로 노동시키고 그 잉여분을 자본가가 自己주머니 속에 넣는다는 것으로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 學說에 따르면 새 기계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노동자의 貧困化가 進行된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 초기 산업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공업이 가고 설득력도 있어 보이나, 기계의 自動化, 「하이테크」산업, 「로봇트」 등의 出現으로 또 사회 복지정책 등으로 그 豫言은 빗나갔고 착오였음도 보여준다. 마르크스가 自己思想의 正當性을 그것이 適用되는 結果로서 證明하려 하였지만 오늘의 비참한 失敗는 그 思想自體가 잘못이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戰後 소聯이 獨逸捕虜 약 315만(약 110만 사망), 日本捕虜 약 60만(약 10만 사망), 헝가리 포로 약 35만, 이태리 포로 약 22만 등을 억류한 것은 일하면 價値가 발생한다는 노동가치설에 기인한 것으로 戰後共產圈에서는 18世紀 中葉의 노동哀史와 同質인 노동관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北韓의 千里馬運動도 이 類에 속한다. 노동을 쉽게 한다든지 機械의 보급이 人間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한다는 發想이 없어 結局 西方國家와의 경쟁에서 지고 말았고 1989년 공산당 大會에서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사회주의가 졌다기 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技術革新이 이렇게 發達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다”라고



실토케 하였다.

북한을 이해하는데는 소련의 10月 革命以後의 手法을 알면 북한실정을 반추할 수 있기에 간단하게 소聯 革命過程을 살펴보자. 殺人이 公認되고 獎勵되는 경우는 戰爭과 革命인데 20세기에 들어와 革命의 文明化에 테이프를 끊은 것이 소聯이었다. 소聯공산주의자에게는 「罪」라든가 「犯罪」라는 낱말이 해당되지 않았고 다만 共產主義를 批判하거나 反對하거나 反抗하는 사람에게만 適用되고 무엇을 하든 공산주의자는 옳았고 따라서 罪를 범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聯에서의 犯罪는 歷史에 그 例를 볼 수 없을 정도로 規模가 컸고 그 殺人은 수 10만, 수 100만 단위였고, 그 野蠻性과 殘忍함은 徹底하여 西方國家의 어떤 犯罪와도 비교가 안 되었다. GPU NKVD를 구속하는 法律은 없었다. 勿論 黨은 法위에 군림했다. 또 犯罪의 裁判은 非公開로 進行되었다는 것 등이 3가지 특징이다.

소聯은 그 住民을 囚人, 前科者, 將來囚人의 3종류로 분류하는 통치 국가였지만 최근까지도 「노동자의 天國」, 「노동자의 祖國」이라고 소聯外의 나라에서 선전되었으니 여기에는 각나라의 공산주의자와 그 同調者(진보적 지식인)가 어깨동무한 닻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서 犯罪의 共犯者였으나 그 責任을 진 共產主義者나 共犯者中 몇명이나 그 잘못을 뒤우쳤는지 묻고싶다. 소聯을 邪道로 끌고간 것은 스탈린이지 레닌은 正道를 걸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소聯 공산주의자들의 殺人은 1917년 10월 「볼셰비키」의 權力장악후 이미 시작되었다. 이 革命을 主導한 레닌은 王族, 政治家, 軍人, 官僚등 旧支配層을 中心으로 革命直前 600만을 處刑하였다. 1918년 1월에 레닌은 「競争을 어떻게 組織할 것인가」에서 러시아 土地에서 모든 害虫을 驅除하라고 命令한 바 勞働者階級에 無關한 者를 害虫이라 부르고 솔제니친의 收容島群島에 따르면 그 害虫의 리스트는 「시베리아」 鐵道의 길이보다도 길다고 하였다. 革命에는 희생이 따르고 革命의 勝利를 위해서는 旧支配勢力의 一掃가 불가피하다고 공산주의자와 진보적 지식인은 强辯하지만 多少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數千萬명을 죽였으니 어떤 說明이 대신할 것인가. 旧支配層이 사라진 후의 숙청대상은 「볼셰비키」외의 革命分子들이었고 10월혁명의 先頭走者는 공산당원아닌 社會革命黨員이거나 無政府主義者들이었고 이들의 힘을 빌려 革命이 成功한 후는 그들을 妨害者로 몰아부치고 숙청대상으로서 그 運命을 마치게 하였다. 우크라이나 農民軍, 「그론슈타트」의 水兵反亂事件도 알고보면 공산당이 사용하는 상투적 手法이다. 얼마나 더러운 手法인가. 이것은 멕시코에서 암살당한 당시의 赤軍總司官 트로츠키의 產物이다. 1918~1921에 都市住民의 食糧徵發隊가 農民 약 600만, 1930년대의 農村의 集團化政策 수행과정에서 약 1千萬명이 더 餓死를 했다.

旧支配層과 反革命分子의 색출도 끝났으니 共產主義者의 天下가 되어 공포의 숙청도 끝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共產主義者에게는 人間의 常識은 通用되지 않는다. 숙청대상이

줄어들면 공산주의자는 그들 공산주의자 속에서 표적을 찾는다. 이것이 스탈린 時代의 대숙청작업이었다. 1934년 12월 스탈린은 그의 協力者 킬로브의 암살사건을 계기로 1938년 末까지 60만~80만을 총살, 또는 고문으로 죽이고 5百萬이상을 強制勞動收容所에 끌고가 1百萬이상을 죽였다. 참고로 中國에서는 해방투쟁, 토지개혁, 3反5反운동(1949~1952)에서 1千萬, 인민공사, 대약진(1958~1962)에서 1千萬, 文化革命(1966~1976)에서 2千萬명이 死亡했다. 캄보디아공산주의자는 都市와 화폐가 모든 惡의 根源이라 하여 그 一掃를 위해 都市住民을 農村으로 세번 強制移動시키는 過程에서 全人口의 절반을 死亡케 하였다. 공산주의자가 實驗한 地上의 天國은 地上의 地獄으로 변했다. 하나의 「오무라이스」를 만들기 위해 소聯공산주의자는 1億2千個의 계란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러면 왜 공산주의자는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하는가.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속성을 가장 잘 파악한 조지오웰의 말속에 있다. 「過去를 지배하는 者가 未來를 지배한다」고. 즉 공산혁명이 가져온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국유화, 또 무엇보다도 과거에 대한 기억의 국유화였다. 기억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므로 만일 기억이 없다면 인간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들에 의해 그들이 뜻하는 대로 짜여진 틀속에 갇히게 된다. 이 틀은 그들의 철저한 파괴정신의 산물이다.

8·15후의 北韓의 가을은 소聯軍의 약탈, 강간으로 시작되고 흥남부두에서의 독일제 기계, 농산물의 반출로 저물었다. 그것은 해방군의 이미지 손상에 充分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은 북한당국이 抗議데모에 대하여 소聯은 戰勝國이고 그 物資들은 戰利品이라고 極口 소聯의 掠奪을 옹호하는 점이었다. 弱少民族의 解放軍이라는 最小限의 自尊心이 있어도 이렇게는 안된다. 모스크바 三相會議의 決定에 처음에 反對하던 北韓이 갑자기 支持로 돌변하는 점들은 北韓을 소聯의 衛星國家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낳게 했다. 또 土地改革當時의 그 無慈悲性, 威興學生事件當時의 北韓保安署員의 群衆속을 「트럭」으로 突進하면서 發砲하는 場面, 軍營通에서 機關銃으로 完全武裝한 소聯軍出動과 學生檢學 등을 보면서 그 正體를 알듯하였다. 그들앞에 동족은 없고 「스탈린」大元帥만 있었다. 北韓은 南韓과는 달리 경작지도 적고 큰 地主도 없었으나 革命의 必要上 이름뿐인 地主들은 하루아침에 자기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인민재판이 등장한 것이다. 당시는 모두 새 국가 건설에 동참할 각오와 理想鄉建設에 불타있었고, 敵과 同志라는 개념도 없었다.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누가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가. 그들은 人爲的으로 敵을 만들고는 숙청하고 또다른 敵을 만들어 숙청을 되풀이했다. 노동자 농민을 앞세워 革命의 蠟燭을 부치고 지주를 몰아낸 다음에는 土地를 分配한 農民에게서 努力과 成果를 最大限 착취하여 現物稅면목으로 죽지않을 정도의 쌀만 남기고 供出시키고, 그후에는 土地를 몰수하여 國營農場으로 만들고 農民을 말살했다. 이쯤되면 소聯에서와 같이 노동자의 敵은 農民으로 變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최대의 두통거리인 역시 農民이다. 노동자의

世上이 되면 다음은 노동자 조직내에서 열성당원을 앞장세워 그 노동자의 출신성분에 사회적 원한을 주입하여 그 열성을 극대화시켜 나간다. 학교내에 있어서도 그 手法은 동일하다. 공산주의자의 혁명 실천과정으로 미루어 보면 世界 공산주의자는 한결같이 원한에 사무친 恨풀이 政治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8·15당시의 북한경제는 資本主義의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에 공산주의 이론을 通用하려 하였으니 애초부터 많은 無理가 따랐다. 歷史發展단계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革命을 歷史의 必然이라 몰아부치고 당의 지도력으로 革命을 위한 革命을 만들어 나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革命이 歷史의 必然이라면 거기에는 人間의 意志도 努力도 必要치 않는것이 아닌가. 젊은날에 감격했던 공산주의가 理論面에서, 또 實踐課程에서 그 빛이 바래고 退色되면서 多少 허탈감도 있었다. 個人을 말살하고 민족을 말살하고 오로지 강철같은 規律에 一方의命令, 目標가 正當하면 手段도 正當化된다는 理論. 사람은 없고 革命만 있는 사회 거기에 어떤 人間味와 同參意識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어떤 同志愛가 있을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무자비한 體制. 목숨만 이어가는 本能的인 사회, 그것은 動物農場을 연상케했다. 생각이 없어야만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巨大한 감옥과도 같은 사회가 20세기 후반에 그것도 조국의 北쪽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悲劇的인 일이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10만~15만명이라는 사람이 強制收容所에서 生活用品의 供給없이 오늘, 내일 목숨을 이어간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우리 當局은 北方政策에서 이 사람들의 人權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공산주의자와의 대화에는 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北方政策은 더 彈力性있게 洞察力을 갖고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공산치하에서 체험한 몇 토막을 이야기 하여보면, 8·15직후 錦町小學校 뜰에서 延安派의 金武亭이 日本關東軍의 외투를 입고 數百名학생 앞에서 「학생들아 너희는 너 자신을 더 믿어라」는 요지의 강연을 하였는데 이북공산당과는 좀 색다른 면을 보였다. 그때는 아직도 金日成勢力이 부각되지 않는 상태라 무정의 세력확대를 경계하는 의미로 기마대 보안서원들이 일반시민과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흥남공장지대에서의 강연은 中止된 것으로 안다. 당시의 무정은 中國에서 韓人部隊의 포병사령관이었으나, 金日成은 한낱 地方의 부대장에 지나지 않았고 特히 8·15때는 소련軍大尉로서 金成柱로 몇번 紹介되었다. 무정은 6·25사변 당시 洛東江後退와 平壤後退의 責任을 물어서 끝내 총살당했다.

威興學生事件 直後 母校강당에 朱寧河(그때는 威南道當秘書)가 나타나 「나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다. 할말이 있으면 나에게 하라」고 희유반 공갈반으로 연설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주었던 그는 初代駐소大使로 活躍한 國內派理論家였으나 박헌영 등과 함께 숙청되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스탈린 時代의 지노비에프, 까메네프등과 같은

「보이기 위한」裁判에서 反對派를 죽였던 것이다. 以北에서 대학시절 나의 감시원이었던 당원이 조롱섞인 어조로 “동무는 中學시절에는 열성분자였던 모양인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지”라고 비웃었다. 주위에 사람도 있고 별것 아닌 놈이란 생각도 들어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동무는 사상의 변증법적 發展도 모르는가 하고 쏘아 붙였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 8·15후 3년정도 경과하였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스로를 운명에 맡겨버리는 신세로 전락되고 非人格化된 사람으로 스스로 변질되고, 생각하지도 作用에 反應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變化되고 말았다. 그것은 전체주의가 要求하는 人間으로 끌려가야만 살 수 있고, 또한 기존 엘리트에 대한 세뇌공작의 탓이었다. 자기자신을 이런 환경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는 努力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학시절 思考의 自由時間은 주지 않았다. 방학때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고 일요일에도 노력동원, 운동회, 야유회(말만 야유회지)에, 강제로 동원되어 김일성 노래, 빨치산 노래 등을 부르게 하고 술은 주로 카바이트로 만든 역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사회에서 5戶담당제가 있듯이 대학생도 감시당원에 의하여 하루 생활동태가 보고되곤 하였다.

공산당은 「人民은 不滅이다」라는 구호를 자주 쓰기를 즐기나,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것 따름이다. 하기가 北韓에는 선동선전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기만할 수 있으며, 쉽게 기만당한다는 사실에 어떤 서글픔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이것은 전체주의의 「카다르시스」 산물인가. 지금도 운동권의 一部에서는 소聯, 東歐圈의 붕괴를 보고 그것은 마르크스主義의 잘못된 사상에 연유된 것이 아니고 그 사상이 政治的實踐過程에서 歪曲되거나 通用이 잘못된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이 思想體系가 품고있는 根本的 問題로서 因果應報라고 보는편이 보다 타당성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마르크스는 自己思想의 正當性을 그것이 適用되는 結果를 갖고 証明하려고 하였으니 自己論理의 모순을 自己가 증명한 꼴이 되었다. 自己淨化能力을 상실한 공산주의의 붕괴는 歷史의 順理이다. 공산주의에는 社會를 운영하는 基本的 틀로서의 人間觀, 人間關係의 哲學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主義가 한 世紀를 慧星처럼 빛을 발한것은 19世紀後半과 20世紀 前半에 걸친 資本主義의 矛盾과 社會의 不公正에서 緣由했음을 無視할 수 없다. 17, 18世紀의 自然科學의 成功에 기인하는 人間世界를 統一的體系로 說明하는 決定論的인 價値觀에 마르크스 個人의 社會的 不遇와 怨恨에 기인되는 倫理的인 復讐의 感情을 內包시키므로서 戰鬪的인 理念으로 變하고, 여기에 18世紀의 「불란서」革命에서부터 불어닥친 理性에 의한 國家建設의 可能性에 눈뜬 中間知識人의 社會的 差別대우와 권한도 한목긴 結果이다. 이렇게 보면 마르크스主義는 처음부터 社會적 정의에 포장된 원한의 哲學으로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공산당의 노래가사며, 레닌, 스탈린, 김일성, 폴 포드같은 인물의 공통된 잔인성은 달리 설명할 수 없다. Newton 時代의 巨視的物理學에서는 現在의 運動으로

未來와 過去를 알 수 있다는 可逆的, 決定論的인 力學이 歷史의 必然說을, 熱力學第一法則인 「Energy 保存 法則」이 勞動價値說, 剩餘價値說을 낳게 하는 原動力이 되었고, 다윈의 「種의 起原」에서부터 계급투쟁, 프로레타리아의 최후의 승리등의 힌트를 얻은 것으로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다윈에게 헌정한다는 사실을 책에 쓰겠다고 허락을 요청했을 정도였다. 슈펜글러도 熱力學 第二法則인 「엔트로피의 法則」에서부터 西洋社會에 물의를 일으킨 「西洋의 沒落」이라는 책을 탄생시켰다. 이것은 18, 19세기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마르크스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思想은 決코 獨立된 產物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Exact Science 는 세계를 예측가능한 법칙들에 의하여 支配되는 하나의 거대한 時計라는 Newton 的인 기계적세계관을 부정하고, 우주의 법칙은 복잡하고, 非對稱的이며, 非決定論的이며, 非可逆的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는 不確實性의 世界로 進入하고 있는 것이다. 物質의 構造만 보더라도 결정론적인 法則의 지배를 받지않고 確率論的인 모델로서만 說明이 可能하다는 것이 1930년에 하이젠벨그에 의해 밝혀졌다. 종전의 결정론적 이론은 확률론적 이론에 밀려났다. 그러나 이런 科學 Model이 社會 이론에까지 확장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分明한 것은 20세기 初葉에 뵈·바레리가 말했듯이 世界를 說明하는 原理가 너무 많으며 각각의 說明原理가 矛盾되어 있어 정연한 世界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18, 19, 20世紀에 걸친 近代化過程에서 Close-up 된 精神上的의 모순으로 우리는 當分間 이 複雜하고 多義的인 近代精神의 延長線上에서 살아야 할 것 같다. 오늘날에 와서 불균형은 무질서를 일으키지만 또한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질서는 혼돈에서 태어난다고 現代科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18世紀以後로 西洋世界의 基本的目標은 個人으로 하여금 自己의 모든 잠재력을 成就하도록 하는데 있었고, 개인적 幸福의 追求는 人間의 存在이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東洋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主로 個人을 社會的次元을 모르고서는 自己를 實現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또 社會의 종속물로 여겨 왔다. 따라서 個人은 社會道德 그리고 自然的調和에 順從하는 것을 美德으로 알고 自己實現이 個人的幸福의 追求에 있다고는 생각치 않았다. 이런 東西哲學의 差異가 教育에 나타났다. 西洋에서는 教育의 主眼點이 아동의 개성을 개발하여 社會적 다양성을 고무시키는데 있었고, 東洋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道德的責務가 兒童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그 目的은 社會의 均一性에 있었다. 따라서 東洋의 教育은 注入式으로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點이 東西洋의 政治形態의 根本的差異를 낳게 했다. 西洋에서의 近代 民主주의는 15世紀부터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계몽시대를 걸친 긴 역사적 산물이다. 西洋文化는 理念的이고, 人間觀이 道德的, 政治的이고 宗教的인데 比해 우리는 그들과 正反對로 걸어왔다. 우리 文化에는 토론, 대결, 갈등, 타협, 합의의 自動裝置가 없으며 갈등의 회피만 있어 왔고, 非理念的이고

權力鬭爭指向的이었다. 또 人權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論議된 것도 얼마되지 않으며, 우리는 아직도 개인의 權利는 그들이 屬하는 集團의 權利와 分離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지금 우리는 傳統文化와 西洋文化의 十字路에서 서성거리고, 국민적과제도 비존도 없이 時間만을 浪費하는 印象을 強하게 풍긴다. 어느 누구도 우리 민주주의의 Model 를 제시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중 하나로는 위로부터의 改革이고, 그 개혁의 速度는 統治者의 能力과 大衆의 啓蒙에 많은 部分이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데모하는 學生이나 市民이나 어느 個人이나 실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또 知識人은 말과 행동이 다르니 더욱 민주주의의 進行을 어렵게 만든다. 아마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도기적으로는 西洋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누가 말했듯이 경제로서의 南北問題, 文化로서의 東西問題의 交叉路에서 우리문제의 해결은 곧 世界問題의 解決을 뜻한다는 意味深長한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階級 또는 民族의 興亡史를 보면 結局 여러가지 理念이 탄생, 쇠망하면서도 이어지는 것은 個人幸福의 追求이다. 無產階級의 解放, 被壓迫民族의 獨立은 그 밑바닥에 거기에 屬하는 개개인의 해방과 독립, 그리고 自由의 꿈이 서리고 있다. 소聯 및 東歐圈에서 共產主義의 꿈이 幻想임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階級이라는 媒介體를 버리고 直接 個人의 自由, 幸福을 追求하여 결연히 일어난 것이다. 불란서革命 2百周年인 1989년에 自由와 平等의 긴 人類史的實驗에서 平等에 무게를 둔 나라는 망하고 自由에 무게를 둔 나라는 勝利한 것이다. 自由없이 平等은 없다. 近代가 目標로 하는 것은 個人의 實現과 그의 最大限의 物心兩面의 幸福이고, 近代가 內包하는 最大의 問題는 그 實現過程에서 나타난 對抗現像으로서의 마르크스 主義도 民族主義도 과시즘도 모두 個人主義 成立의 긴 歷史에서 하나의 插話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과 權力과 大衆 사이에서 知識人의 고민도 宿命的이었음이 分明하게 드러났다.

結局 우리는 世界를 二分法으로 나누고 對立意識을 만들고 攻擊하고 여기에 激烈한 復讐의인 恨을 품는 따위의 思想을 넘어 原初的인 人間의 삶 의 苦惱를 서로 감싸주는 따뜻한 가슴과 未來를 바라보는 맑은 머리가 切實히 要求되는 時點에 와 있지 않았는지.

不安한 우리들의 먼 地平線을 바라보면서...

지난번 同窓會誌3號의 祝賀宴에서 불과 몇달후인 1991년 이른 봄에 그렇게도 健康하던 李正昊學兄이, 또 病床에서 시달리던 都重浩學兄이 그해 여름에 우리와 世上을 달리했음을 眞心으로 哀悼합니다.

## 母校의 復興을 기다리면서

張 聖 洛(29回)

同窓會誌에 실린 글들을 읽을때는 少年의 心情으로 되돌아 간다. 그 짜릿짜릿한 즐거움은 무어라 形容하기가 어렵다. 줄줄 읽어 내려가는 그 흥겨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讀者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직접 글을 쓰는 立場에서 서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다. 同窓會誌이니 아마 學校時節의 일들을 回想하는 것이 제일 格에 맞을 것 같다. 그러나 過去의 追憶을 더듬어 올라가자니 이미 오십년 가까운 옛일이라, 온통 아지랭이가 낀듯 뽀오얏고, 斷片的인 影像만이 감박거린다. 그러니 隨筆리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야말로 생각나는대로, 붓이 움직이는대로, 몇가지 옛일들을 斷片的으로 적어 보고자 한다.

내가 몸을 담은 29期는 解放後 첫번째의 卒業班이기도 했다. 우리가 入學한것은 1942年은 世上이 戰亂속에 휘말리어 있었고, 日本帝國主義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때였었다. 아마 1학년때였다고 행각되는데, 日本教師인 金閔先生이 “中央集權”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길래, 내가 일어서서 中央에 權力이 集中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더니, 그 先生이 한참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時間이 끝난 후에 教務室에 오라는 指示를 받고 그 先生을 再次 만났더니, 사방을 살핀후에, 나지막한 소리로 “兄님이 있는가”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하였더니, 이번에는 “친척 兄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몇분 계신데 東京留學中이라고 대답했더니, “不穩書籍”에 조심하라”는 當付였다. 내가 이 조그만 事件을 특히 言及하는 것은, 이것이 그 當時의 學窓時節의 한 背景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는 글자를 있는 그대로 解釋했을뿐, 그 語句가 “日本國體”를 批判하는 觀點과 關聯되어 질수도 있다는 事實을 알리가 없었다.

그 當時는 이미 右翼과 軍部가 日本을 完全히 掌握하고 있었고, 한때 垠頭했던 左傾思想은 勿論, 被壓迫民族의 反日運動은 徹底하게 彈壓되어 있었다. 金閔先生은 우리 29期를 맡은 다른 두 先生과 比較하여 좀더 知的인 雰圍氣를 풍기는 분이였고 적어도 蠻勇的인 軍國主義 趣向은 없는 듯했다. 그때 사방의 눈치를 살펴가며 나지막하게 말을 건넨 것은 나를 보호(?) 한다는 뜻이었을게다. 그러나 역시 植民地에 君臨한 日本人教師임에는 틀림없었고, 어떤 面에서는 文化的 國粹主義者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國文(日本語) 時間에 日本의 아름다움, 예를 들어 “사쿠라”의 아름다움을 強調할때, 万葉集의 句節을 說明할때의 그의 自己陶醉된 듯한 모습을 想起하면 어쩐지 그런 생각이든다. 그러나 이 先生은 文化面뿐만아니라, 科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 鄭哲周 學友가 授業中에 독일의 噴射機, ジェット推進等에 관한 이야기를 이 先生과 가끔 나누었는데, 나는 그때 鄭兄의 科學的 知識에 부러움을 느끼곤 하였다.

우리가 入學한 전해에 學校先輩任들이 投獄된 事件이 있었고, 다른 두 教師, 특히 佐護先生은 가끔 이 先輩님들이 監獄에서 당하셨을 몸서리나는 拷問을 暗示하면서 所謂 “危險思想”과 가까이 하지말라고 警告하곤 했다.

“危險思想”이란 말이 나오니 이미 幽明을 달리한 學友 金潤鎬君의 생각이난다. 3學年때인가 나와 몹시 가깝게 지냈는데, 하루는 放課後에 그의 하숙집에 놀러갔다. 나지막한 집들이 密集해있는 좀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동네를 작은 꼬부랑길을 따라 깊숙히 들어가니 그의 하숙집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스탈린의 著書 이름을 몇가지 대면서, 스탈린은 지금 進行되고 있는 世界戰爭의 發生을 豫言했다고 말했다. 이어 中國革命에 대해 한참 說明한후, 中國을 最終적으로 支配하는 者가 世界를 支配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또 壁에 귀를 한참 대고 있다가 손짓을하면서 나 역시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기를 勸했다. 몇사람일가가 수근거리고 있었는데, 간간히 毛澤東이라는 이름이 들려왔으나 무슨 이야기들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날 金君의 態度에는 나에게 깊은 印象을 주려는 意識인 努力이 엿보이는 듯했고, 아마 少年다운 虛榮心도 약간은 作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부터 나는 内心 그를 우러러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원래가 겁이 많은 나는 그의 하숙집에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몇 달후 雄志를 품고, 그 戰亂속을 中國을 向해 떠났다. 北京大學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떠나기 전날, 나와 또 한 명의 同級生, 아마 柳吉鏞君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셋이서 우리집에 모여 앉아 송별의 會晤를 가졌고, 그때 격려하는 글을 흰 종이에 血書로 써서 金君에게 주었던 것이 어제 일같이 떠오른다. 金君은 그후 中國에서 日本憲兵에게 붙잡혀 다시 故郷에 돌아왔다. 越南後, 少年다운 英雄心은 버리고 勉學의 길을 邁進, 美國에서 教授生活을 하다가, 벌써 作故한지 오래다. 나와는 6.25 以後 避難生活로 같이하였고, 많은 젊은 時節을 함께 보냈었다. 훌륭한 人材 좋은 친구를 너무 일찍이 잃은 셈이다. 그는 魯迅의 阿Q正傳을 특히 좋아하였다는 것이 새삼스러히 내 마음에 떠오른다.

送別會晤에 같이 있었던 柳吉鏞學友는 蒼白한 얼굴을 한 文學少年이었다. 授業中에 記憶이 희미해서 確實치는 않지만 아마 Byron이나 Heine의 詩, 또 自作詩를 곱게 종이 위에 옮겨서 몇 사람을 거쳐서 나에게 보내곤 했다. 그러면 친구와의 義理로 講義傾聽을 즉시 中止하고 先生任 몰래 알듯 모를듯한 詩를 읽는 것이었다. 온 天地가 軍靴소리에 뒤덮이고 軍國主義의 號令이 地軸을 振動하듯 요란할때 그래도 몇몇 學友들 사이에는 西歐的인 것에대한 憧憬이 있었다. 그것은 自由라던가 民主主義라던가 하는 어떤 뚜렷한 形態를 갖춘것에 처한 意識이라기 보다는 漠然하나마 豁達하고 活氣있고 人間的인 世界에 처한 凝視였고 待望이었으리라. 그것은 우리가 다시 民族을 찾고, Humanism이 流動하는 眞正한 世界와 앞으로 함께 呼吸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予感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熱心히 外國書籍 翻譯物을 서로 交換해 가면서 耽讀하곤 했다. Pearl



Buck女史가 쓴 大地(三部作)란 作品이 너무 재미있어서 授業中에 教科書 밑에 감춘채 先生任 몰래 읽던 생각이 난다. 나는 그렇게 쉬운말을 써가면서 中國農家三代의 變遷을 훌륭히 엮어낸 그 美國作家的 洞察力과 心情의 깊이에는 오직 歎服할 뿐이었다.

그 當時에는 日本作家들 作品에도 많은 制限이 加해지고 있었다. 所謂 傾向文學等 思想的 刊行物을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戀愛小說은 勿論, 耽美主義 作品도 白眼視되었다. 이런 小説은 所謂 “軟文學” “軟派作品”이라고 일컬어져 學生으로서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다. 先生任의 家庭訪問을 앞두고 빌려온 菊地寬 谷崎潤一郎의 小説 또 妹兄이 갖고 계시던 李光洙, 李箱等 朝鮮作家的 作品을 서둘러 감추던 일이 어제 일같이 느껴진다.

朝鮮作家的 말이 나왔는데 그 當時 日요일에는 가끔 先輩任들과같이 몇십리 떨어진 곳에 있던 金城農園이라는 果樹園을 찾았다. 그때 先輩任끼리 “殉愛譜” “홍” 등에 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곤 했는데 다음 放學에는 꼭 朝鮮文學全集을 讀破해야지 하면서도 결국 마지막 2年동안의 “勤勞動員” 등에 實現되지 못했다. 그 當時 金城農園을 찾은 분이 先輩任들 가운데에도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陽地바른 그 農園을 散策하면서 滿喫하던 歡喜와 浪漫이 盤龍山과 城川江의 情趣와 함께 내 腦裡에서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있을 歸鄉의 꿈을 북돋아 준다.

다음은 解放以後의 學友들의 思想的 動搖와 動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解放이 되어 나라를 찾은 즐거움도 잠깐 二大陣營의 對立속에 國土가 두갈래로 갈라졌다. 學生들 간에도 分裂이 생겼다. 最初에는 다같이 自由와 民主主義를 부르짖었지만, 곧 階級과 Dogmatism을 내세우는 學生들이 생기기 始作하였다. 純粹한 民族精神을 主張하면서 學生들간에 자주 討議와 討論이 거듭됐지만 一部가 共靑(後에 社勞靑)에 加入했고 漸次 馬克斯主義가 北韓을 뒤덮게 되었다.

이 當時 우리 先輩任들 몇 분이 教師로서 赴任하셨다. 그중 한 분이셨던 韓喬石先生任께서 처음 教壇에 올라 서시자 “The Out Line of History” ——H.G.Wells라고 크게 黑板에 적으셨던 일이 아작도 記憶에 생생하다. 遺物史觀 一色이던때에 더 넓은 視野가 存在한다는 것을 暗示하고저 하였음이 分明하였다.

威興學生義學事件이 터지고, 그 後 많은 學生들이 南韓으로 내려갔다. 남은 學生들은 共產主義信奉者가 되었고, 나머지는 그냥 大勢에 따라가는 쪽을 擇한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確立된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實勢 앞에 無力하나마 內的抵抗의 思想的根據를 찾느라고 애를 쓰는 學友들도 있었다. 事實 馬克斯主義는 哲學, 經濟學, 歷史學을 망라한 大思想體制로서 그 當時 猛威을 떨쳤다. 이 큰 Dogma에 對抗하는 또 다른 Dogma는 없었다. (오늘날 이 Dogma의 世界的 主流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그 當時 상상할 수가 없었다.) Dogma와 實權이 結合되었을때 그 앞에서 民主主義, 自由, 民族的理想主義의

외침은 이미 힘없는 空念佛에 不過하였다. 이 Dogna의 世界를 正面에 서서 總體的으로 論破하는 理論的 試圖가 없었다.

그러나 이들 學生들은 Bernstein, Kautsky等 독일 社會民主黨 理論家들의 理論을 理解하느라고 애썼고 日本의 書籍들도 들추어 보았다. 河合榮治郎의 人格主義와 議會主義에 立脚한 社會民主主義 提唱과 막스主義 批判에 귀를 기울였다. 또 阿部次郎의 個人主義的 理想主義作品을 耽讀하면서 어떻게든 民族의理想主義의 立場을 自己意識속에서 成立시키느라고 애썼다. 내가 後日 日本에서 前日本首相 中曾根가 젊었을때 自己에게 影響을 준 人物로서 “토마스 힐 그린”을 끄는 것을 TV에서 보고 이분이 河合榮治郎의 著作인 “토마스 힐 그린의 思想體系”를 읽으셨구나 하고 생각한 일이었다. 事實나도 그 책을 읽고 많은 感銘을 받았던 것이다.

1947~8년頃 서울에서 學生運動을 하다가 越北한 몇 명 學生을 平壤에서 만났는데 그들 모두가 나에게 以北에 對한 失望을 털어놓았다. 실상 그들은 左翼이라기 보다는 理想主義的인 民族主義者들이었다. 아마 南韓에서의 親日分子의 跋扈, 封建殘滓의 溫存, 事大主義의 澎湃等에 염증을 느껴, 그들의 血氣에 故鄉을 등진듯 했으나 역시 以北에서 Dogmatism의 큰 壁에 부딪친 것 같았다. 나는 只今도 가끔, 만약 이 나라가 兩大勢力의 角逐場이 되지 않고, 純粹한 理想主義의 民族精神에 立脚해서 나라를 세우기 始作했다라면 얼마나 隆盛했었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러나 이것은 부질없는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南北이 다 앞날을 바라보고 統一의 大目標을 向해 融和와 平和의 大行進을 始作했으면 한다.

서글픈 것은 關北의 자랑이었던 우리 母校의 存在가 中斷된 채, 同窓會도 젊은이가 없는 老人들만의 모임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統一의 그날이 하루 바빠와서 다시 우리 學校의 代를 이어주는 秀才들의 흐름이 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統一의 曙光이 비치는 요즈음 이것은 아마 虛荒된 생각만은 아닌 것 같다. 그때까지 先輩任들께서 健康에 留意하시고, 우리 同年輩들도 몸조심하면서 더 오래 살아 다 함께 되살아 날 威興高普, 威南中學의 復興의 祝祭를 參觀합시다.

日前에 오하이오州에 사시는 同期 金雄植兄을 만나, 옛날 둘이서 盤龍山에서 목청을 울리면서 노래자랑, 노래시합을 하던 이야기를 했다. 둘이서 제각기 自己가 더 목청이 좋았었다고 우기다가 呵呵大笑하고 말았다. 紅顏童子는 아니지만 아직 盤龍의 氣象이 영 가시지는 않았다고 自負하는 두 사람이 다시 그 산에 올라가 城川江을 굽어보면서 누가 더 노래를 잘 하는가 結論을 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鶴首苦待한다.

## 統一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朱東雲(29回)

### 1. 머릿말

4월 28일 TV 화면을 통해 旧西独에서의 戰后 最惡의 勞組총파업 사태를 보면서 統一은 성취하기도 어렵지만 이룩한 뒤에도 일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90년 10월 3일 統一을 이룩한 후 東独의 경제는 破局 直前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약 1년간 西独의 大的 投資에 힘입어 昨今의 東独經濟는 恢復氣味를 보이고 있는 반면 西独의 경제는 뚜렷한 침체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週 38時間 勞動에 時間當 22달러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동조건을 즐기던 서독 노동자들이 어제 오늘과 같이 全國의 공공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격렬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統一이후의 경제악화 즉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 상승과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세금부담 증대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우리의 南北統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 2. 統獨을 가능케 한 要因

우리의 統一問題를 取扱함에 있어 獨逸의 경우를 연구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필요한 접근방법이다.

그러면 무엇이 독일 통일을 가능케했는가. 이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많이 논의 분석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다. 고르바췌브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이 선도한 동서화해와 동구라파의 개방이라는 주변환경의 변화,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과 이를 바탕으로한 對 東歐諸國, 특히 淸동독, 경제협력등 통일노력의 축적, 그리고 “헬무트 콜” 수상과 “한스 디트리히 겐사” 외상의 절묘한 외교역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독일인의 인적 자질과 그 사람들이 창출해 낸 문화적 역량이랄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문의 능력을 들고자 한다. 인류사상 유례가 없는 유대인 대량학살을 감행한 범죄국인 독일인들의 자질을 평가한다면 拒否感을 느끼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은 않다. 지도자가 시킨다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들이건만 오리엔테이션만 잘 잡아 주면 89년 여름까지도 상상조차 못했던 통일이라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통독방식으로 우리도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긍정적 답이 될 것이다. 20여년 전에 “빌리·브란트”가 大聯政의 外相으로서, 그후 社民黨·自民黨 연립정부의 수상으로서 추진한 東方政策이 궁극적인 통일을 목표로

행해 졌던 것이라면 우리의 北方外交도 미래를 내다 보는 우리 정부의 식견과 동서화 해라는 주변 환경의 변화가 맞아 떨어져 어느 덧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서 우리도 제대로 統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 3. 우리의 問題点

그런데 敗戰國, 犯罪國인 독일의 통일 보다 자신의 罪도 없고 責任도 없이 戰勝國의 편의에 따라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이 더 어렵게 생각되고 극복해야 할 더 많은 난관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선 주변환경을 보면 우리의 경우는 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로 保守회귀의 코스로 돌아선 중국과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북한의 다급해진 입장을 자국의 단기적 이익에 맞추어 이용하려는 일본이 있는 만큼 독일에 비하여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것은 주변의 사정 보다 남북한을 막론한 우리의 제약과 문제점이다.

①經濟力의 제약 : 1990년 서독의 GNP가 1兆 3,000억불이었던데 비하여 같은 해 우리의 국민총생산이 3,422억불에 불과했다. 서독은 최근까지 해마다 500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100억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수지가 쉬 개선될 전망도 뚜렷하지 않다.

이번 統一過程에서 결정적인 고비가 된 “2+4協定 (동·서독과 미소영불)”을 성공시키기까지 소련을 설득하는데 독일의 대소 경험약속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독은 60년대 부터 동구제국과 동독에 대한 경제원조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서독의 경제력이 현재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은 다름아닌 統一費用의 問題와, 알다시피 독일통일은 동독의 파산으로 인한 서독으로의 吸收統一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독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됐다. 통일때까지 동독의 취업인구 약 800만은 적은 노임이나마 일단 고용은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통일을 전후하여 실업자가 격증하여 (매주 2만 5천명) 100만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다. 노후한 산업시설과 도로·건물 등 하부구조에 투자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통일 후 5~6년 동안에 약 5,000억불로 예상하더니, 실지로 91년에 600억불을 투자 했으며 92년에는 770억불에 달하리라 한다. 이 액수는 우리 돈으로 58兆원에 달하는데 92년 우리의 예산규모가 33兆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통일비용을 말하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작년 6월 통일원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할 때 2,000억 내지 4,000억불로 추정했다하니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알 수 없다.

또 당장에 통일이 되어, 더도 말고 100만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해 온다고 가상할 때 우리의 경제력으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②分斷后의 상호관계 : 다음으로 동서독에 비해 우리가 어려운 점은 분단후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남침으로 南北 공히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음으로써 상호 증오와 불신의 골이 깊이 패어 있는데 비해, 동서독 간에는 대립은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고 오히려 꾸준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고 우편과 통신이 소통되어 왔다. 필자가 부임했던 1968년에 이미 친지상호 방문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그 인원은 계속증가하여 통일당시에는 연간 약 1천만명의 왕래가 있었으며 동독인으로서 서독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인구가 400만에 달했다. 또 동독에서 서독 TV를 시청한지도 여러 해가 되었었다.

남북한 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합의 서명된 합의서 시행에 있어서의 북측의 부정적 태도와 핵 상호사찰 문제에서의 그들의 언동으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어떤 의미있는 교류가 이루어 질지 더욱 의심스럽다. 1970년 3월, 분단후 처음으로 양독 수상회담이 동독의 小都市 에어프르트에서 개최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남독 동서독 구경 근처에 있는 이 도시까지 빌리·브란트 서독 수상 일행은 일부러 기차편으로 갔다. 에어프르트역에는 동독측에서 빌리·브란트와 같은 발음의 이름(Willi)을 가진 동독의 빌리·슈토프 수상일행이 마중 나왔다. 서독 수상 일행이 숙소인 영빈관까지 자동차 편으로 가는데 운집한 동독시민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빌리! 빌리!”하며 환호를 했는데 그 군중이 갑자기 늘어나 모터케이드가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도 동독 경찰은 그 군중이 동독의 빌리·슈토프 수상을 환영하는 줄 알고 통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사태가 심상치 않게 확대돼서야 그것이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를 찬양하는 것인 줄 알고는 군중을 제지 하느라 찢찢매는 동독 경찰관들의 모습이 서독 TV에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다. 그날 동독 군중은 브란트 수상 일행이 숙소에 들어간 뒤에도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장시간 “빌리! 빌리!”하고 외치고 있었으며 브란트 수상은 창가에 서서 시민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답례하는 광경을 보았다. 다음날 신문을 보니 그때 브란트 수상의 볼에는 두줄기 눈물이 흘렀다고 했다. 같은 분단국의 실향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몽클하는 감회를 느꼈다.

③세뇌된 북한인 : 우리의 상대인 북한 인민의 의식이 동독인과는 크게 다르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독일의 통일은 분단 45년 간의 서독의 노력과 함께 서독과 기타 자유세계의 가치를 잘 아는 동독시민의 민주역량이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동독시민들이 원했던 것이 과연 통일 그 자체였는가. 아니면 자유와 풍요로운 삶이 었는가하는 것인데 그 후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과거 동독 TV의 “안야·루드비히”라는 여 기자는 “서독의 경제수준이 동독과 같거나 그보다 낮았더라면 동독인이 통일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동독인이 원했던 것은 통일 보다도 오히려 서독의 부유한 생활이었다”고 말했다.

거의 완벽한 폐쇄사회에서 김일성 교조주의에 세뇌되어 있는 북한 시민이 가까운 장래에 자유와 시장경제 체제를 요구하면서 거리에 나서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④ 북한의 대남정책 : 멀지않아 북한이 개방쪽으로 변할 것이다. 아니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등의 논의가 있다. 또 최근에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추어 김정일의 시대는 개방의 시대로서 특징지어 질 수 밖에 없다는 등 주장도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모든 권력을 인수 받더라도 김일성의 카리스마 내지는 神格을 넘겨받을 수는 없고 앞으로도 김일성이 변하기 전에는 그들의 기본정책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본다. 항간에는 또 최근 북한의 대일수교, 대미접근 및 경제개방 조짐 등을 들어 앞으로의 개방과 대남정책 전환까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 통일 문제를 누구 보다도 더 뼈저리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피난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어떤 공표된 기본정책에서 연역하여 어떤 구체적 시책의 변화를 예견한다거나 어떤 나라의 대외적 움직임들에서 귀납하여 기본외교정책의 변화를 추리하는 것은 문화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룬 선진국의 경우에 가능한 일이지 북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가 대북관계에 있어 잊지말아야 할 엄연한 사실은 북한은 지금까지 통일전선 전략을 통한 남한 적화통일 정책을 바꾼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군철수, 팀·스프리트 훈련중지,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 모든 요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보안법 폐지나 수감자 석방 요구 등은 그들의 통일방안중 가장 효율적인 “남반부에 있는 혁명력량을 북돋우어 통일을 이룩”하는 방안을 위해 남한에 있는 “혁명 예비군”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말함에 있어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평화가 정착된 후 민주 방식에 의해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세계의 누가 들어도 정당하고 실질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차우세스큐의 말로를 보고 동독 몰락의 실례를 보고 난 북한 당국자에게는 우리의 방식이 그다지 평화롭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개방 요구는 그들의 귀에는 집어 삼키겠다는 말로 들릴지 모른다. 연형묵총리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되풀이 강조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돼서는 안된다”고 한 말도 그런 뜻으로 한 것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흐름은 개방과 화해로 가고 있고 중국은 물론 북한도 언제까지나 교조주의적인 현체제를 유지 하면서 독야청청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체제전환을 하더라도 어려운 국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체제변경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운동경기나 예술단 교환 및 제한된 이산가족 상봉 정도의 미미한 교류와 남북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시일을 끌면서 북한 사회개방을 가져오게 될 본격적인 교류는 가급적 회피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4.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까

(우리의 통일관—남북당국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없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할 일이 여럿 있겠지만 우선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자세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통일에 대하여 다분히 감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 한핏줄을 강조하고 남북의 동포가 부등켜 안고 울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노래를 부르자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통일 후 어떻게 살아 갈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대화는 통일을 위해 한다고 하니까 대화를 계속 발전시키면 궁극에 가서는 남북한 당국자간에 이번 “합의서”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무슨 조약이라도 서명하고 統一이 이루어지는 것 쯤으로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일이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기가 남북한이 공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외국의 한국문제 전문가, 교수들은 의례 대화가 발전하면 통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 착각도 할만하다(외국의 소위 석학이라는 분들은 남의 일에 좋은 말하고 여비 받고, 돈 받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채놓고 우리의 운명을 묻는 쪽이 어리석은 것이다). 남북대화의 목적은 상호실체를 인정하고 통일되는 날까지 現狀維持를 하고 戰爭을 피하고 平和共存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 南北當局者간의 合意에 의한 統一은 豫想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제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말을 해야 할 때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에 관한 대국민 홍보는 남북대화의 당사자인 정부가 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言論과 學界가 해야 한다. 統一方式에 있어 兩極을 가고 있는 남북한 간에 어떤 形態의 統一에 合意할 수 있을 것인가. 상상하기 어렵다.

忍耐를 가지고 自由民主體制와 市場經濟體制의 바탕 위에 福祉社會를 發展시키면서 우리의 力量을 기르고 있으면 통일의 기회는 온다는 確信을 국민각자가 가지도록 해야 한다.

對北問題에 관한 限 어떤 다른 이슈에서 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마치 전쟁에 있어서 국민적 콘센서스와 지지가 필요한 것과 같다. 이것이 결여될 때 엉뚱한 것을 하여 고생하는 목사 또는 어린 학생이 나올 뿐아니라 統一 자체가 더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國力의 要素들 중 “한스 모겐토” 교수가 강조하는 國民士氣(National Morale)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이 점에서 이미 2천5백년 전에 孔子님이 하신 말도 그 軌를 같이 한다. 子貢이 政治의 요체를 물었는데 대하여 孔子는 足兵 足食 民信이라고 말하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民信이라 했다. 국민들 상호간에 또 위정자와

국민들 간에 믿음이 없으면 그 국가 사회가 서지를 못한다(不立)는 것이다.

①經濟再建：다음으로 統一에 있어 필요 불가결의 역할을 할 경제력의 문제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잘났건 못났건 정부, 각계 엘리트, 기업가 및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온 세계의 칭송을 받았고 끝내는 올림픽 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르는 나라로 성장했다. 그런데 우리 經濟가 民主化 이후 급변하는 國內外的 여건들로 말미아마 총체적 난국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날의 고도성장을 다시 이룩할 수 있는 전망도 밝지 않다. 北方外交가 열매를 맺고 있고 통일을 위한 대외적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이때, 통일을 맞아서 이를 지탱하고 통일된 한국을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단결하여 지혜와 정성을 합쳐서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통일을 위한 경제역량을 축적해야 할 때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모든 잘못된 일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정부비판만 하고 있으면 민주주의 인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다. 한 사회에서 생기는 일은 잘 되건 못 되건,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그 국민의 水準을 넘어서는 정부는 없다.

西歐의 資本主義가 기독교 윤리의 바탕 위에 自生的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成長해 온데 반하여, 우리의 資本主義는 그 形成過程이 人爲的으로 國家의 보호아래 成長一邊倒로 이루어진 관계로 자본가들은 그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의 결핍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勞務者에 대한 복지면에 등한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기업인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 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복지면에서의 추가지출이라는 二重의 負擔을 지고 있다. 노동조합 쪽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에 와서 개선의 기미가 보여 다행이지만 경영자 측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노임인상 주장만하여 기업을 도산 시킨다든가 반체제적 정치 활동에 치중하고 동료 노조원의 복지는 고려하지 않는 일 등이 그것이다. 어떤 미국 記者가 한국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테스트가 끝난 사회주의를 지금와서 부르짖는 일이고 또 하나는 파업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의 노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

②法이 지배하는 社會：筆者는 앞에 언급한 경제난국을 극복할 특효처방은 모른다. 그러나 統一을 위해서도 정치건 경제건 우리 사회를 복한 사람들이 동경하고 복한 보다 살기 좋은 사회라고 부러워할 만한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통일에 앞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매사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살기가 불편하고 不安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도덕이 타락하고 질서와 기강이 흔들리고 법이 무시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나쁜 秩序도 無秩序 보다는 낫다”고 한 俞鎮午 先生의 말에



동의한다. 우리가 통일을 외치기에 앞서 나라 안을 바로 잡는 일이 急先務일 것이다. 修身齊家治國 南北統一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統一을 이룩한 독일에 비해 우리가 不足한 것이 전술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있겠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모든 構成員이 경기규칙을 무시한 채 운동 시합을 하고 있다. 오프사이드건 핸드링이건 상관않고 공만 차서 넣으면 된다는 식이다. 89년 오랫동안 귀국하니 6년 동안에 교통질서가 말이 아닌데 하루는 TV에서 사계의 전문가, 박사들을 출연시켜 교통사고 세계 1위의 현상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심포지움이 방영되는 것을 보았다. 도로사정이 어떻고 표지판이 어떻고 온갖 기술적인 상세가 지적되었으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 있고 그 대책은 단속과 교육에 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국회의원이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정복 경관의 따귀를 때리고 가정주부가 경찰관을 본네트에 실은 채 백미터나 몰고가는 일은 어느 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리라. 모든 사람이 법과 규칙을 지키도록 이제 부터라도 교육을 해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그것은 교육이다.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애들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방치하는 것이 민주교육이 아니다.

## 5. 맺는 말

이 만큼 늘어 놓고 생각하니 한 가지 걱정이 된다. 행여나 통일에 대해 悲觀的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하는 기우이다. 만약 그러한 인상을 주었다면 그것은 필자의 표현력의 부족에 연유한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통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더라도 급하게 서둘러서 잘 될 일이 아니고 북측 사정은 고사하고 우리의 준비가 부족하니 有備無患이라고 기초부터 다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다. 安易한 생각은 禁物이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피난민이 늘그막에 월남 사람들처럼 “보우트 피플”이 되어 조각배를 탄 세계의 거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말한다면 노이로제 重症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警告를 各界人士들에게 하는 것은 우리 以北出身 늙은이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붉은 별의 終末

高明 三(30回)

나는 해방후 어느해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북에서 출판한 韓雲野씨의 소련 紀行文이란 책을 읽어본 일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책의 내용은 소위 사회주의 종주국에

대한 찬미 일변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자동제어 분야의 국제학술회의 참가차 나는 1990년 8월과 1991년 9월에 에스토니아 共和國 수도인 Tallin市와 블라디보스톡市를 각각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동문중 소련사회를 여행할 분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되고저 2회에 걸친 소련 여행에서 얻은 몇가지 印象과 헤프닝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소련 방문 이전까지 소련에 대한 나의 印象은 결코 밝지 못하였다. 시베리아 強制勞 動收容所나, 공산당 독재나, 혹은 해방후 威興에서 일부 소련군인들의 非行을 방지하기 위해 팽과리치기 등과 같은 일들이 연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9년 10월 서울에서 만났던 미아리스코프 博士일행(소련 과학아카데미 준회원)과의 知面도 있고, 同行 한국인 학자 12명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었다. 출발하기전 지금까지의 海外旅行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준비를 하였다. 여행용 트렁크의 절반은 라면, 설탕, 과자 등 비상식량으로 가득찼었다.

1990년 8월 11일 20:40에 KAL機편으로 김포공항 출발, 약 10시간 비행끝에 現地時間 8월 12일 02:30에 모스크바의 Sheremetyevo 國際空港에 도착후, 간단한 입국절차를 마치고 空港 2층의 휴게실에서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 이 국제공항은 모스크바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건축한 현대식 건물이었다. 에너지 절약 때문인지 아니면, 공항도착 시각이 새벽 2시였던 관계인지 몰라도 공항내부는 김포공항보다 더 어두웠고 칙칙해 보였다. 국제선 비행기표 혹은 海外旅行 出發을 위하여 바닥에 적당한 것을 깔고 잠자고 있는 많은 소련인들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날이 밝아올때까지 空港 2층 휴게실에서 서울에서 같이 간 일행 12명과 잡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휴게실에서 50세 내외로 보이는 러시아인 특유의 뚱보 여종업원의 好意로 커피등 음료수를 얻어마실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여도 운이 매우 좋았던 것 같다. 45年만에 처음 말해보는 영터리 노어 “시바시보”를 연발하였더니, 뚱보 여종업원은 우리의 행선지를 묻기도 하였다.

우리 일행은 Tallin市(현재 에스토니아공화국 수도)에 가기 위하여 모스크바의 국내선 전용 공항인 Vunkovo 공항청사까지 공항버스로 갔다. Vunkovo 공항내는 모스크바 국제공항청사 못지않게 많은 소련인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었고, 소련인들은 여행가방속에서 닭고기, 생선 혹은 빵 같은 것을 끄집어내어 아침식사를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우리들 일행은 공항내 입석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해결하였다. 아침식사후 국내선인 경우 외국인 탑승구는 별도의 인접건물에 있음을 알게되어 황급히 그곳까지 가보니, 이미 외국인 여행자들 약 10명 이상이 있었다. 나는 일행과 같이 소련 국영항공사인 Aeroflot사의 SU2113편으로 3시간 비행후 12시 30분에 Tallin 공항에 도착하였다. 처음 타본 소련여객기인지라 몹시 흥분되었다. 機內 여러곳을 살펴보니 KAL여객기처럼 깨끗하지 못하였고, 기내 서비스란 藥水 한컵 뿐이었다. 그러나 비행중 발생할 수도 있을 비행체의 구조물

진동은 거의 없었다. 평균시속 100Km로 비행한다고 하니 서방측 여객기에 비해 다소 빨랐다.

Tallin시 도착후 현대식 설비를 갖춘 Olympia Hotel에 투숙하였다. TV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채널이 있었으며, 제한된 영어방송의 청취가 가능하였다. 여장을 풀후 호텔 밖으로 나가보니 日曜日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앞길은 한산하였다. 시내 모습은 블록단위로 5-7층 내외의 큰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큰 중량감을 안겨주었다. 최근 알게된 사실이지만 당시 소련 블럭에서 타린市는 잘 정리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기 혹은 건물의 겉모습에서 공산주의의 종말을 예견케하는 침체된 사회의 경제적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텔지하층에 자리잡고 있는 위락시설은 마치 서울의 디스코홀을 연상할 정도로 찢어지는 펑음으로 나의 귀를 따갑게 하였다. 디스코홀은 20시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테이블이 소련 젊은이들로 가득차 있음을 보고 소련사회에 개방의 물결이 몰아닥치고 있음을 느꼈다.

자동제어세계연맹 제11차 총회 개회식에서 당시 에스토니아 共和國의 최고회의의장(현재 대통령)인 Rütel 박사는 학술대회 축하연설 도중 에스토니아 共和國의 독립과 자유를 수시로 호소하면서 대회참가자로부터의 동정을 구하곤 하였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련의 위성국으로 강력한 붉은 軍隊의 지배하에 있던 에스토니아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그들의 용기와 애국심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 그곳 大學人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에스토니아人들이 소련人 즉(러시아人)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를 알게되었다. 二次大戰후 지금까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착취 당하였음을 서슴없이 우리들에게 폭로하였다. 듣고보니 지난 36년간 日帝 植民地下에서의 우리들의 환경이 연상되었다. 그곳 大學에서는 露語를 에스토니아語와 함께 강제적으로 반반씩 사용하게 하였고, 실험실 담당교수는 노후화된 연구장비에 대한 불편만을 吐露하며 곧잘 흥분하였다. 民心이 天心이라 소련연방 붕괴직후 발틱沿岸 三國이 맨처음 獨立宣言을 하게된 地政學的 環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대회기간중 북한에서 온 리형원(평양이과대학), 김재평(조선자동화연구소) 및 김택제(김책공대)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약 45년만에 처음 만나보는 북한사람들! 그들의 고향을 물어보았더니 전부 평양출신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느낀것은 모두가 평양출신 같지 않았다. 왜 모두가 고향을 평양이라고 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들과의 대화 도중 나는 나의 본적을 가르쳐 주면서, 내 호적초본 또는 등본을 咸興市廳에서 1통 얻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호적등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북에서는 이미 호적제도가 없어졌고 단지 공민증만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너무나도 틀에 박힌 그들의 사고방식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예를들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입수경양의 구속을 트집 잡으면서, 통일을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입양을 석방해야되지 않겠는가고 여러번 주장하길래 나는 그들에게 만일 당신이 나하고 같이 평양의 허가없이 서울을 방문후 평양에 가게되면 阿吾地炭鑛 광부 신세가 될것 아닌가고 反問하였다. 그후부터 입양 이야기는 두번 다시 꺼내지 않게되었다. 그들의 연령 모두가 53-54세였으나 외모는 나보다 더 늙어 보였고, 무엇인가 풀이 꺾인 사람처럼 느꼈으며, 이북에 있는 우리 동창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게 여겨졌다.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88년도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實態를 국제적으로 특히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에 소개하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북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에 의하여 서울시내에는 거지들로 꽉 차있다고 믿었던 소련인들이 한국국민들이 소련보다 아니 그 어떤 공산권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올림픽을 통해서 확인한 소련인들은 한국민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體制내지 그들의 정부에 대한 철저한 不信感을 노출시키고 있었다. 소련인들은 왜 2차대전 당시 戰勝國인 소련의 경제가 敗戰國인 독일이나 일본에 뒤질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뒤지니 자기들의 社會體制에 대하여 큰 懷疑를 느끼고 있었다. 모스크바대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 88올림픽이후 소위 共產青年同盟에 가입했던 모스크바 대학생 전원이 脫黨하였다고 하니 붉은 별은 이미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消滅되었다고 생각되었다.

끝으로 訪蘇期間중 웃지 못할 헤프닝을 한 가지 소개한다.

8월 13일 20시부터 대회참가자를 위한 reception이 약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Tallinn시 음악당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일행과 더불어 Hotel 정문 앞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음악당에 갔다. 大衆音樂施設을 과시하는 社會主義 국가시책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잘 설계된 音響效果와 照明裝置를 갖춘 무대위에서 전개되는 Tallin 음악 대학생들의 합창과 민속춤은 거의 모든 참가자를 매료시켰으며, 지금도 그때의 즐거웠던 추억이 내 머리속을 가끔 스치곤한다. Reception장에서 이미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온 리형원 교수, 김재평 교수 및 김택제 교수를 만나게 되었다. 서로 악수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한 후 대회기간중 자주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Reception이 끝난 후 호텔에 밤 9시 45분에 도착한 즉시 모두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에서는 이미 약 15명 내외의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일행도 식사 주문을 하였다. 그러나 식당종업원은 너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식사제공을 거부하므로(밤 10시까지 배식) 하는수 없이 모두들 방으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가져온 라면을 먹었다. 외국여행에서 그것도 일류호텔에서 자작한 라면을 먹기란 내 生涯에 前無後無한 헤프닝이 될 것은 틀림없다.

모스크바를 8월 19일 떠나면서 8·15 당시의 소련군, 냉정시대의 소련 그리고 붉은 별의 종말을 고하는 80년대의 소련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이 내 머리를 스쳐가면서 共

産主義의 虛構性과 故郷 생각으로 나의 마음은 한없이 흥분하였다.

1992. 7.

## 잊지 못할 두 同門의 追憶

金秉喆(30回)

同窓生이란 참으로多情한 存在이다. 同窓會모임은 나가 아무런 隔意없이 마음의 門을 열어제치고 對話할 수 있고, 어딘지 모르게 끈끈한 情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나는 비록 못났지만 同窓들이 出世하고, 社會的으로 尊敬받는 位置에 오르면 나도 왠지 으쓱해지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 威南中學校 30回 同窓會에 나가보면 의례히 參席해야 할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 섭섭함을 禁할 수 없을 때가 가끔있다. 北에 殘留해 있는 同門, 일찌기 他界한 同門, 消息을 알 수 없는 同門 등. 그 中에서도 나에게 永遠히 잊혀지지 않는 두 同門이 있어, 여기에 그 옛 追憶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 1. 下碣隅里에서 散華한 金元植同門을 생각하며

나는 情든 威南中學校를 卒業하지 못하고 解放 이듬해인 1946年 5월에 越南하여, 서울 高等學校를 거쳐 延世大學校에 進學하였다. 그때 서울高와 延世大學을 같이 다녔던 同門으로 지금 慶州所在 文化高等學校 理事長 兼 校長으로 있는 崔永乃君과 親하게 사귀어왔는데, 그로부터 傳해들은 우리 威南中學校 同期生인 金元植同門의 이야기를 지금도 記憶하고 있다.

金元植(金浦成治)同門도 越南後 徽文高를 거쳐 延世大學에 進學했는데 前記 崔永乃君과 哲學科 同級生으로 펴 切親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 두 사람은 6·25動亂이 勃發되던 해인 1950年 釜山으로 같이 避難갔다가 戰勢가 不利해지자 學徒義勇軍에 勇躍 入隊 그 後 UN軍인 美7師團 第57砲兵大隊 카츄샤로 編入한다. 그해 8月 15日 日本船舶(시나노丸)便으로 日本 富士山近方의 오오따(大田), 고이즈미(小泉)에서 約1個月間 軍事訓練을 받고, 다시 日本 橫濱港을 出發 美軍의 仁川上陸作戰에 參戰, 首都奪還과 水原·烏山作戰 등에 從軍하여 逃走하는 人民軍을 壞滅하는 등 多大한 戰攻을 세웠다고 한다. 그後 所屬部隊는 一時 釜山에 駐屯했으나, 얼마後 다시 배타고 以北인 利原에 上陸, 五老里·元豊을 거쳐 長津湖가 있는 下碣隅里까지 進擊했었다고 한다. 北進中 金元植同門은 崔校長에게 樞甲周同門의 果樹園집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한다.(樞甲周同門과 崔校長은 서울高同門이며 切親한 사이임)

그무렵 中共軍이 義勇軍이란 假名아래 韓國動亂에 加担, 鴨綠江을 건너 破竹之勢로 反擊을 加해와 下碣隅里近方에서 UN軍을 完全包圍하고 彼我間 熾烈한 戰鬥가 벌어졌다. 1950年 12月 3日 零下28도의 寒冷한 氣溫에 有名한 蓋馬高原의 朔風이 몰아치는 가운데 午後5時頃 어둠이 깔리기 始作할 무렵 嗚呼라 敵의 銃彈이 金同門의 腹部를 貫通하고 말았다. 3·4名の 戰友들이 負傷한 金同門을 업고 後退하려고 했으나 本人은 “나는 이제 죽을 몸이니 戰友들이나 빨리 後退하십시오.”하며 손을 휘졌더라는 것이다. 崔永乃君과 一行에게 “서울에 가거든 우리집(서울市 珠子洞 60番地) 家族들에게 元植이는 下碣隅里에서 負傷당했노라고 傳해주시오.”라는 遺言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는 後退하는 戰友들을 微笑짓는 聖스런 모습으로 산등선에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며 보이더라고 한다.

그때 모습은 마치 소크라테스가 毒盃를 마시며 微笑짓고 죽음을 當하던 모습과도 恰似했다고 한다.

金元植同門은 멋있는 哲學徒였다고 나는 자랑하고 싶다.

## 2. 悲運에 간 盧甲炳同門을 追悼하며

나는 大學在學中 6·25動亂이 일어나 釜山에 避難갔다가 1951年 2월에 陸軍綜合學校(釜山東萊所在)에 工兵將校候補生으로 入隊했다. 그때 南中同門으로는 朴世雄同門(兵器將校)과도 만나게 되었다. 겨울철이라 몹시 추워서 귀도 얼어가며 訓練에 熱中하였다. 深夜의 非常訓練, 東萊高普 뒷산을 팬티바람으로 驅步했던 일, 맨주먹으로 東萊溫泉場거리에 나가 모래 한 가마니씩 가져오는 無謀한 臨機應變 테스트, 強行軍으로 이어지는 戰術教育등 견디기 어려운 日課가 進行되었다.

8週間の 課程을 마치고 다시 金海의 陸軍工兵學校로 가서 工兵將校로서의 特殊教育을 받은 後 任官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 初級將校는 少謂 “消耗品將校”라고 일컬었는데, 卒業後 一線에 配置되면 休戰을 앞둔 彼我間의 熾烈한 激戰으로 犧牲者가 많이 續出했었기 때문이다.

陸軍綜合學校에서의 訓練期間中 朴世雄同門의 母親이 面會오셔서 김밥을 나눠먹던 생 각이 지금도 생생히 記憶난다. 그때 教官들이 어찌나 무섭고 嚴하게 보였는지...

3~4週 지나던 어느날, 우리 期보다 2~3期 先輩로 任官되었다던 盧甲炳同門(龍山高를 거쳐 서울大法大 在學中 入隊)이 우리 教官으로 赴任해 왔다. 沙漠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고나 할까. 漆黑속에서 光明을 찾았다고나 할까. 如何든 반갑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만나면 존댓말을 해야 할지 반말을 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한 두번 教官室에 가서 만나기도 했지만 다른 候補生들의 눈치와 바쁜 日課때문에 別로 眞摯한 對話도 나누지 못했었다. 그러던中 어느날 갑자기 盧教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는가? 同僚候補生들이 컷속말로 “어젯밤에 陸軍本部의 指示에 依하여 一線地區로 配屬됐다”는 것이었다.

當時 休戰을 앞두고 彼我激戰이 展開되었다. 特히 鉄의 三角地帶(金化鐵原地區)에서 我軍의 被害가 많았고, 더군다나 初級將校의 犠牲이 많았다. 盧同門은 元來 誠實하고 學究의 性格의 所有者라, 發令對象者도 아니었고 마침 土曜日이라 下宿집에서 讀書하고 있던 때인데 陸軍綜合學校에서 非常이 걸려, 外出中이던 다른 將校들 代身에 盧同門이 差出되어 前方으로 赴任하게 되어, 夜間列車로 上京하고, 任地로 가던 途中, 敵의 奇襲으로 戰死했다는 것이다.

나는 訓練期間中 하늘같이 믿었던 盧甲炳同門의 葬禮式에 參席하게 되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失望했는지 모른다.

運命의 장난치곤 너무했다. 그토록 聰明하고 有能했던 우리 盧甲炳同門이 아직 살아 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 法曹界에서 大活躍을 하고 있을 것이며, 大法院長도 바라볼 터인데, 아쉬운 생각만 자꾸난다.

## 祈 禱

金龍澈(30回)

기구한 이 땅  
한 시절에 태어나  
한 지붕 밑에서  
南中하는 태양처럼 솟으려다  
뿔뿔이 헤어진 우리.

밤새  
뒷담을 넘어 나온 걸음이라  
잘 있소. 잘 가오도  
못 말한  
초라한 작별이었지.

우리 나이 손꼽아 헤아리니  
그로부터 거반 半세기라  
두고 나온 關北 산천  
다섯차례 바뀌고도 남았으리.

오늘도 험난한 이 땅의

나긋한 울 안에서 두 손 모아 비노니  
부러진 南中의 꿈을  
또 한 번 돌우고저.

1992. 3. 9

\* “南中”은 태양을 비롯한 천체들이 자오선의 남쪽을 통과하는 일로서, 이때의 높이가 가장 높다고 함.

## 내 고향은 ?

金元謙(30回)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자라던 곳,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와 같이 자라던 어린 시절의 고향, 들도 없는 벚과 맨발로 산으로 들로 한없는 시간을 보낸 곳, 조용한 산 계곡을 걷다보면 먼산 속에서 우는 뻐꾸기의 노래에 놀라고 봄이면 손과 입술이 진달래로 물들던 곳이라 하겠다. 개구리 우는 시냇물 따라 하늘 높이 솟아 자란 포플라나무는 나의 희망같았고, 푸른 하늘 흰구름 타고 몇번이고 세계를 횡단했다. 물가에 무성하게 자란 버드나무 그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옛이야기가 끝이 없었고, 어제와 오늘을 구별 못했던 시절이 고향인가 한다. 뜨더운 햇빛 아래 잠자리 잠이에 얼굴이 타고 흘린 땀이 혀를 짜게 췌 주던 곳, 산골짜기를 건다가 콩밭에서 콩을 구어 먹다보면 입과 손이 까만 먹으로 되어도 마음에는 티 하나 없이 자라던 곳이 고향이라 하겠다.

옆집 순희가 수줍어서 골목으로 피해 다니면서 친구들과 허물없는 농담으로 웃음을 잃지 않았던 고향의 사춘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해진다. 밤하늘 별을 손꼽아 세다 잠들고, 긴 겨우내 따뜻한 이불속에서 책으로 밤 깊어 가는 것을 몰랐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동무와의 굳은 우정으로 성장한 곳이 내 고향이다. 지금도 부모의 사랑은 샘물같이 가슴을 채워주고 친구와의 정은 마음의 조각으로 남아 있다.

나는 갑산에서 태어났다. 백두산맥 줄기를 타고 혜산진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는 삼수산 골짜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시절을 북천, 함흥, 서울의 여러곳을 거쳐 이제 도미한지 꼭 32년이 된다. 내 일생의 반 이상을 북미대륙에서 지낸 오늘 내 고향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정이 들면 어디나 고향이라 한다. 가는 곳마다 친구가 생겼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 못자던 곳이 하나, 들도 아니다. 그러나 내 고향은 어디라 할까?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다.



우리들은 각자 누구도 뺏아갈 수 없는 어린시절의 추억이 있고, 잊을 수 없는 부모와 친구를 지니고 있다. 이제 시냇물도 없고, 조용한 산계곡도 없고, 뻘꾸기의 노래도 못듣는 이 고장에서 살고 있다. 친구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동료가 되고, 나아가서는 한겨레라고 한다. 하나 고향 사람이 되기 전 우리는 서로가 정치적 이익을 의논하고 비난하고 증오까지 한다. 과연 이곳이 32년을 살았어도 내 고향이 될 수 있을까?

가끔 나는 김기남 동문을 생각한다. 네살부터 함께 자란 한 고향에서 소학교 그리고 중학교도 같이 다녔다. 나의 대학시절 서울에서 만났을때 기남이는 서울 모신문사의 기계사였다. 을지로 2가에 있었던 이 신문사 2층 콘크리트 바닥에 침대 놓고 자취하던 그 방을 가끔 찾아가, 둘이서 싸구려 소주 몇잔에 서로 부모 생각으로 눈시울을 적시곤 했다. 그는 이복에 두고 온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동란시 군에 입대하여 장교가 되어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기남이는 일선을 지원하여 전투했다. 고향을 찾고, 두고온 부모의 사랑을 찾아 누구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걸어갔던 것이다. 일개 장교의 전투가 한국이 겪고 있는 인류의 비극을 씻을 수도 없었지만, 고향을 찾아 눈앞에 어리는 부모의 모습을 찾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그후 함흥 후퇴시 그의 아버지는 이남으로 피난 오셨고, 어머니는 그대로 고향에 남아 계셨다고 들었다.

일종의 비극이다. 고향을 동경하고 고향의 산과 들 맑은 새넷물과 생생한 풀냄새를 잊지 못했던 기남이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다.

이제 기남이를 다시 찾을 수는 없어도 죽은 후에 우리 모두다 같은 흙이야 못되랴. 우리는 모두 마음의 고향 친구가 되고, 별이 두 마음을 한점으로 이어주는 “사랑과 미래”의 촛점이라면 밤 하늘 별을 세는 동심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1992. 2.20

## 막車有感

柳承敦(30回)

요즘 우리 30回 同窓會가 날이 갈수록 알맹이가 있는 着實한 모임으로 發展해 가는데 同門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물론 몇몇 同門의 熱誠과 努力, 그리고 全同門의 積極의이고 아낌없는 支援과 參與에서 얻어진 結果라고 믿는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같은 옛이야기를 하나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同門도 있겠으나, 적어도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모임에 參與한 同門들은 過去를 다시 한번 回想하는 意味에서, 그리고 그 모임에 參與치 못한 同門들에겐 그런 모임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衷情에서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요즘 자꾸 회미해지다 못해 까맣게

잊혀지는 기억들을 글로 표현하여 묶어두고 싶은 心情에서 쓰고 있으니 넓은 도량으로 읽어주기 바란다.

내 記憶엔 1948년 초여름(?)경이라고 생각되는데, 當時 이북에서 越南한 在京同門 約20余名이 서울 淸涼里 所在 洪陵(日帝 時代 이곳을 荒城의森(?)이라고 불렀음)에 모여 어리고 젊은 失鄉民의 恨과 울분을 그리고 將來問題등에 대하여 熱心히 討論했던 일이 있었다. 무슨 모임이든 즉, 그것이 크든 작든간에, 開催하려면 財政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삼팔따라지”인 우리들이, 特히 學生身分으로서 裕福했을 리가 없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일찍 越南하고 學生身分으로서 職場에 다니던 (요새말로 아르바이트) 두 同門 즉 在美中인 박영호(당시 서울高), 서울의 한상기(당시 中央高) 同門들의 協助에 依하여 그날에 必要한 모든 飲食物(made in U.S.A)을 提供받아 배 부르게 먹고 마시고 취한 記憶이 지금도 생생하며, 이것이 故鄉을 떠나 우리들이 가진 在京同窓會의 첫 모임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 후엔 거의 한번도 이런 모임을 가진적이 없이 지내다가 6.25事變이 일어난 것이다. 1953년 休戰과 더불어 避難民들은 물론 우리 同門들도 하나, 둘 서울로 다시 올라오기 始作했으며, 이때는 14後退때 戰地에서 南下한 同門들도 서울로 오게 됐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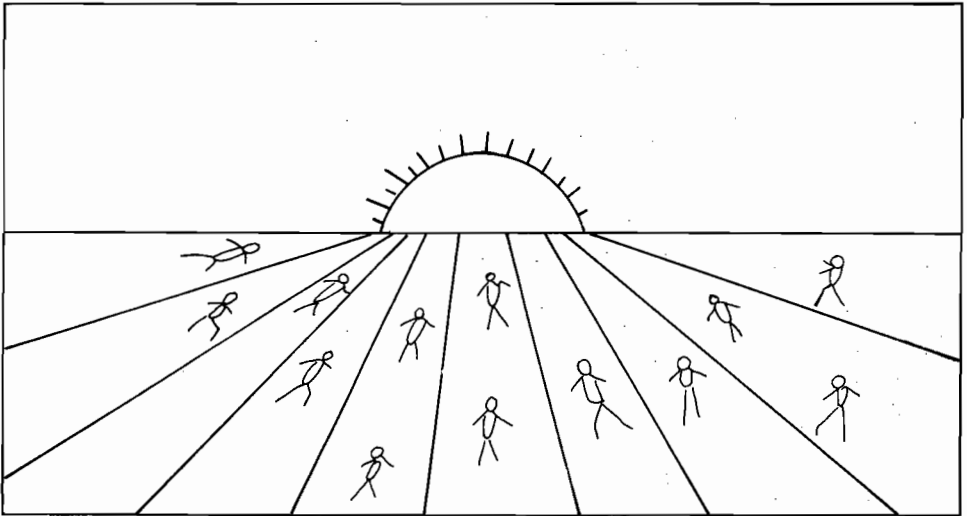
還都 몇해 後 아직도 서울은 戰痕이 가시지 않았고 한참 戰傷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大部分의 同門들도 社會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아직 自立되었다고 할 수 없는 다소 悲慘했었을 때 였다. 그러나 비교적 世波에 影響받지 않고 象牙塔속에서 研究에만 熱中할 수 있었던 同門을 찾아가 그곳에서 同門들의 近況을 傳해 들곤 했다. 主人公들은 서울 大學校 藥學大學(當時 서울 乙支路 六街 所在) 羅雲龍과 金信根 두 同門이다. 이들은 當時 助教였으며 바쁜 시간에도 不拘하고 우리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 주곤 했다. 數많은 同門들이 찾아가면 술사주랴, 밥사주랴, 金錢的으로나 時間的으로나 損害가 많았으리라. 그러나 한번도 內色하지 않고 뒷바라지 했고, 지금까지도 記憶속에서 생생하게 남아 잊혀지지 않는 친구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當時의 同門들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생각지도 못한 同門들의 消息도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저런 만남이 거듭되자, 自然히 在京同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할것을 議論, 곧 執行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땐 지금과 같은 同窓會 會長도 없었고 會則도 없었으며, 다만 흩어져 있는 同門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藥大 同門들이 主管하기로 하고 그의 몇몇 同門들이 連絡責을 맡아 事變後 첫번째 그리고 越南後 두번째 同窓會를 가진 것으로 記憶한다. 내가 表題를 “막車有感”이라고 붙인 理由는 지금부터임을 알려준다.

이 모임을 위하여 會誌라고 할까. 아뭏든 Pamphlet식 會誌가 羅雲龍 同門에 依하여 만들어졌으며 (不幸이도 保管되어 있지 않다. 누가 갖고 있으면 연락바람) 內容은 同

門들의 近況과 連絡處 그리고 잘막한 人事말이 있었던 것으로 記憶된다. 재미있었던 것은 表紙 앞면에 羅雲龍 同門이 그린 傑作品(?)이 印刷되어 나왔는데 그것은 出發點을 같이 出發한 사람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앞에 환히 비추고 있는 太陽을 向하여 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때 羅雲龍 同門은 그 그림에 대한 意味를 說明하지 않았으나, 받아본 同門들은 제각기 그 그림에 대한 뜻을 내렸으리라 생각한다.

- 記憶을 되살려 그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고 본다. -



나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뜻을 몇가지로 생각했다. 그 하나는 各者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目標이 있는데 누가 먼저 그 目標을 達成(成功)하는가 하는 競爭心을 鼓吹하는 듯과, 또 하나는 成功하는 者가 있는 反面에 成功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成功이란 急히 서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꾸준한 努力과 健實한 態度에 依해서 이루어진다는 敎訓的인 뜻이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우리 동문 모두가 成功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나는 同窓會 때마다 보는 여러 同門들의 健康함은 어느 成功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한 그리고 誠實한 生活을 營爲했기에 우리는 오늘의 健康함을 서로가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昨年 몇몇 同門들과 Golf會同을 가진 적이 있었다. Rounding 送中 한 同門이 “야, 이렇게 너희들이 健康하니 참 좋구나, 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막車を 타야 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처음 듣는 순간 나는 어떤 짜릿한 共感을 느꼈으며 35, 6년전 羅雲龍 同門의 傑作品(?)이 내 腦裡를 스쳐 가는 것이었다. 分明히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져가는 사람도 있다. 지금 우리는 앞서서는 안된다. 앞車도, 뒷車도 아닌 막車を 타야한다. 世上살이를 하다보면 앞서기를 원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무서울 정도로 앞질러 달리는 서울 거리의 자동차,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도 새치기를 해서라도 앞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본다. 우리 국민들은 要約해서 앞서기를 좋아하는 국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人生의 終着驛에 앞차를 타고 먼저 가라고 하면 좋아라고 타고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막車란 그래서 생겨난 말인지도 모른다.

막車 이야기를 해준 同門의 逸話과 人生行路를 그림으로 表現한 同門의 哲學은 歲月의 흐름에 따라 그 杼繆스(nuance)가 妙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어찌 不定할 수 있으리오!

우리 모두 健康합시다. 그리고 막車を 탑시다.

1992. 2. 22

## 거울속의 풋늬은이

朴 溶 夏(30回)

돌아보고 후회할 때는 언제나 늦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새로워질게 없는 삶, 저녁 반주에 몽롱한 눈으로 낮은 照度의 전등 아래서 거울을 본다.

거울속에 비친 늬은이는 처음 보는 생소한 人物이었다. ‘이게 누구지’ 낯선 타인과 마주하고 茫然自失. 뉘을 잃는다. ‘그래, 머리 한 번 빗어보자’ 거울속의 모습은 둔중하게 움직인다. 그가 누구인지 살피기 위해 서리내린 半白을 가다가다 모아본다. 그러나 거울속에 비친 얼굴은 영 낯설다. 번쩍이는 넓어진 이마며 팔자로 처진 눈꼬리며 패인 주름은 깊은 발이랑을 연상시킨다. 머지 않아 허리는 불에 튀긴 새우 꼬이 될거고, 손등의 가죽은 늘어진 채 심줄만 지렁이처럼 꿈틀거릴 것이다. 精氣 잃은 충혈된 눈은 눈물만 지적될 것이고...

이제 60고개를 한참 저 아래로 내려다보니 시간과 空間의 迷路찾기 같은 것이 삶이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限界를 깨달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늘 어디론가 탈출을 꿈꾸면서도 언제나 제자리를 맴돌며 여기까지 떠밀려 오지 않았는가?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이 머리에 스며든다. 연못에서 뛰노는 물고기는 커녕 흙바닥에서 퍼덕거리는 스스로를 발견할 뿐이다.

삶을 보는 시각이나, 삶을 살아온 결과로나 나는 열등아였고 언제나 뒤떨어진 낙오자였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뜨겁게 살고 싶었고, 옹기 살려고 애써 왔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거울속의 늬은이를 보니, 까닭없이 쓸쓸하고 억울할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現實의 나에게는 영원한 他人이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은 추억 속에만 있을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도 모를 사람의 희미한 사진같은 것이었다. 달려가서 그 사진 속으로 들어가 안고 싶었다. 그러나 손발은 꿈속에서처럼 허위적 거리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는다. 젊음과 사랑과 이상은 아련하기만 하다.

나의 청춘은 주체하기 힘든 젊음이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수 없다는 젊음이 거추장스러웠고 벗어 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었다. 그것은 뿌리없는 터전에서 부평초와 같이 어디를 어떻게 가야할지 방향을 몰라 줄곧 헤메야 했기 때문이었다. 쓰라린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태반이었다. 세상의 고뇌는 모두 내것인냥 질기디 질긴 남루한 젊음을 때로는 오뚜기와 같이 홀로 세운 환희와 낭만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약간의 바람이었고 오로지 이기주의라는 열쇠로만 해득될 맹목의 사랑은 가슴을 시리게 했다.

내 젊음은 낭만보다는 살아가는 일에 死力을 다해 몰두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그윽히 흐느낄 겨를도 없었다. 알팍한 감흥 따위에 사로잡힐 수는 더구나 없었다. 차례차례 격변하는 세상과 부딪히며 세파를 접하고 겪는 일 뿐이었다.

늘어가며 참을 수 없는 것은 육체나 정신의 쇠약함이 아니고 기억의 무게를 견디어내는 일이다. 눈을 감고 있자니, 몇백명의 난장이가 빗자루로 머리속을 쓸어내고 있다.

우리의 젊은 날은 皇國臣民의 다짐과 궁성요배(宮城遙拜)로 시작되었다. 한참 공부할 나이에 강요와 억압 앞에서 학도근로동원에 끌려가 興南本宮化學工場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에 시달리다가 8. 15해방이라는 새 세월의 장을 맞았다. 그러나 환호의 열기도 가시기 전에 난데없이 그 빨간 무리들이 들어 닥쳤다. 그네들로부터 지주계급으로 낙인이 찍혀 갈구의 학업(興南工科大學)도 罪없는 罪人으로 每日 써서 바쳐야 하는 反省文과 自己 비판에 견디다 못해 중단하고 피신 越南했다. 그런데 정착할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이번에는 똑같은 그 무리들이 탱크타고 불뿔으며 또 쫓아왔다. 벗과 친지들을 마구 짓밟았고 우리의 미래는 초토화되었다. 그 참상을 넋을 잃고 목격했으며 잿더미와 죽음앞에서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땅을 치고 발을 굴렀으며 그 분통함을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양가족을 거느리면서 한 사람의 희생도없이 참 용케도 살아 남았다. 거뜰거뜰 얼빠진 상태에서 사는 것 같지 않게 60고개를 넘긴지도 여러 해째로, 망망초야에 홀로서기로 이 육신을 간신이 지탱하면서 오늘에 이른듯 싶다.

草露人生.

옛말에 스스로 老人인 것을 아는 者는 없다고 했다. 모든 걸 꿰뚫던 시력도 이제는 침침해져간다. 썩 좋다는 眼鏡까지 챙겨 걸쳤으나 유리 밑으로 실없이 국물만 절끔절끔 새 나오는가 하면 유별히 큰 내코 언저리도 늘 濕하기는 마찬가지다.

등산이 활력 회복에 좋대서 자주 오르내리지만 기분 전환은 되나 늘어나가는 거름은

더더지기만 한다. 어는 날은 산에서 내려오다 돌뿌리를 헛딛고 자빠져 좌골을 다쳤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말끔히 낫지 않고 일기가 불순한 날에는 아직도 성가시게 시큰거린다.

시도 때도 분별없이 불끈거리던 내 남성도 가지각색으로 좋아진다는 방편을 아낌없이 사용했거늘 도도히 축 늘어져 끝내 점잖기만 하다.

나보다 훨씬 앞서 철이 든 셈이다. 딱한일은 그 놈이 하수도 노릇조차 이젠 제대로 못하고 適時 아닌 때도 절끔절끔 漏水된다. 한때는 내로라 패기가 대단했으나 이제는 退役하여 마지못해 매달려 있는 셈이다.

음주 운전을 엄단해서 요새는 이 따금 TV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좀 젊어지고 싶어 쇼 프로를 불러치면 침체된 내 안목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젊은이들이 즐긴다는 쇼는 노래부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옷 매무새하며 그 몸짓이 모두 미쳐도 더럽게 미친 발작이지 그게 어디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이 하는 것인가 싶다. 리듬도 그렇고 노랫말 또한 사랑에만 생명을 건 지랄 같기만 하다. 사랑! 참 좋은 말이다. 사랑도 좀 고고하고 은근한 호소력이 감도는 분위기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걸 발정한 뭐가 호들갑 떨며 안절부절 날뛰는 모습 바로 그것이다. 끔찍스럽기만 하다.

코메디 프로로 채널을 바꾼다. 웃고 싶어서다. 그게 또 그렇다. 새끼들! 야하고 추하게 억지를 쓰는 거동이 도리어 우습기보다도 눈살이 찌프러진다. 할수 없이 무료한 시간이나 때울 생각으로 다시 드라마 프로나 흘러간 노래에 채널을 맞추고 한숨 돌린다. 옛날 젊었을때 적가락 장단을 치며 술 따라주던 그 여인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면 주변에서 같이 TV를 지켜보던 가아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뜬다. 이것이 세대차에서 오는 말없는 반항인가?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모두가 별난 세상이다. 적응키 심히 어렵다. 공연히 외롭고 처량해진다. 발붙일 데가 편치 못한 도태형상이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보아도 이제는 구세대의 영락없는 퇴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은 부산스러운 잡음과 같고, 잘해야 개칠(改漆)한 화폭과 같다고 했던가...

다시 거울을 들여다 본다. 서리내린 머리다. 이마와 팔자로 늘어진 눈꼬리와 눈가에 패인 주름살을 다시금 확인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아진 오늘, 여생이 10, 9, 8로 count down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도태된 이 풋늬은이가 정말 여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모여사는 세상의 일원으로서 서러워하지말고 탐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말이다. 그래! 이제 아무것에 대해서도 마음의 허기를 보이지 말자. 求道者가 그러하듯이.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해묵은 빛을 갠아 나가듯이. 그렇게 묵묵히 가야겠다. 그리고 곱게 늙어야지. 약방의 걸레처럼 달고, 시고, 쓰고 매운 맛을 수없이 겪으면서 모든 것을 受容해야겠다.

하루 해가 벌써 저물었으되 오히려 노을이 아름답고, 한 해가 장차 저물려해도 굴 향기가 더욱 꽃다운기도 하지요.

先輩님들에게 不敬함을 自請하면서!

## 누구 德分에 ?

韓 萬 變(30回)

해방 덕분에 우리 30회 同窓生들에게는 좋은일 곳은 일들이 많이 생겼었다. 오늘은 내가 겪은 곳은일 하나를 기억해 본다.

1946년 3월 내가 함남중학 3학년때였다. 해방후 처음 맞이하는 3.1절 되던날 우리 학생들은 함흥역전 광장에 동원되어 道人民委員會가 주최하는 인민궐기대회에 참석했었다. 그런데 그날밤 나에게는 일생 잊지못할 일이 일어났다. 내가 깊이 잠자던 오밤중에 보안서원 몇명이 우리집 대문을 부수고 집안으로 침입해서 다짜고짜 우리兄을 찾았다. 마침 나의兄은 피신하고 없었으므로 내가 왜 이러느냐고 몇마디 언짢은 대꾸를 했던지 “너 이 새끼 좀 따라와” 하고 나를 보안서로 데려갔다. 그 보안서는 前 함흥경찰서 건물이었다. 日帝때 들어가본 적도 없는 경찰서 2층에 나를 데려다 놓고 나에게 고문취조를 시작했다. 우선 나를 팬티바람으로 벗겨 놓았다. 때는 3월초의 함흥날씨라 매우 쌀쌀했다. 경찰서내는 난방도 없어 나는 덜덜 떨었고, 더욱이 겁이 나서 더 떨었으리라. 그러다가 보안서원 하나가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서는 나를 그 의자 위에 바로 눕게 한 후 내 머리를 의자 밖으로 떨어뜨려 내 얼굴이 천장을 향하게 했다. 물론 나의 손목과 발목은 다 묶여 있었다. 그때 다른 보안서원 한명이 큰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 와서는 내 코속으로 물을 붓기 시작했다. 진통이 시작됐다. 내 머리속에 “야 이것이 우리 동료선배들이 日帝때 道高等係 형사들로부터 당하던 고문취조구나” 라고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보안서원 하나가 혁띠를 잡아들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고문 솜씨는 매우 익숙해 보였다. 일제때 경험으로 배운 것인지 모른다. 그때 내 나이 만16세 미만이어서 그랬던지 또는 물품이 귀해서 였던지 물에 고추가루를 타지는 았았었다. 해방 덕분에 나는 우리 동족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고문취조를 체험했다. 이것이 다 蘇聯解放軍 덕분이었다.

보안서원들이 나에게 이런 호된 고문을 준것은 다만 내가 그들에게 왜 오밤중에 우리집을 부수고 들어왔냐고 抗議한 내 언동에 대한 보복만은 아니었다. 실은 그들이 내 형의 逃避處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해방후의 우리 학생들은 소련해방군의 行悖에 대해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농민들의 農牛를 다 공출해 간다던가, 홍남 공장 기계시설은 물론 홍남공업학교의 실습용 시설까지 다 뜯어간다는 뉴스에 모든 학생들은

해방군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더욱이 이런 해방군의 행패에 대한 규탄은 커녕 소련군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해방자라고 학생들에게 선전하는 도인민위원회 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더 컸었다.

그때 함흥학생들중에는 요즘 말로해서 운동권 학생들이 생겼다. 나의 형이 그중의 하나였다. 3.1절 행사 전날 저녁 영생중학에 다녔던 나의 형과 그의 동료 몇 명, 그리고 흥남공업학교 운동권학생 몇명이 우리집에 모여 3.1절 행사때 反解放軍, 反當局 데모계획과 더불어 데모궐기문 뼈라를 우리집 등사기로 수백장 복사해 놓고, 다음날 3월1일에 學生義舉를 계획했다. 3.1절 행사날 새벽 흥남공업학교 학생 하나가 뼈라보따리를 싸들고 西함흥역을 떠나려는 순간 보안서원에게 불시검문을 당하여 체포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우리형과 운동권 학생들은 당장 피신해 버렸다. 이 霧散된 3월 1일 反當局 데모가 결국 3.13함흥학생의거로 폭발되었다. (우리 金秉喆 도장이 동창회보 제3호에 함흥학생의거에 대해 詳報했다.)

3월 1일 저녁 보안서원이 우리집을 침입 수색한 것도 나의 형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를 보안서로 끌고가서 고문취조한 것도 나의 형의 행방을 내 입으로 불러내기 위한 것과, 전날 저녁 우리집에 모였던 운동권 학생들이 누구누구였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보안서원들은 우리집에서 나의 형 사진앨범을 갖고와서 나한테 제시하면서 운동권 학생들을 지적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쉽게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나에게 물고문을 했으리라. 그때 운동권 학생의 한 사람이자 내 형의 親友인 문재준 前육군장성이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밤늦게까지 고문취조를 나에게 하던 보안서원들은 더이상 내게서 알아낼 것이 없었던지 취조를 중지했다.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 집으로 가는가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통행금지 시간후에 어떻게 집으로 가나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웬걸 보안서원들은 나를 유치장내로 끌고 가서는 그만 가뒀버렸다. 해방덕분에 말만 듣던 유치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일제가 지은 유치장이라 위생시설이 돼지우리 같았다. 한칸만한 방에는 너,더땃 사람이 수감되어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수감자 하나가 용변을 볼 때마다 방은 냄새로 진동했고, 유치장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같이 했어야 했다. 나는 이런 유치장속에서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을 지냈다. 나에게 대한 취조는 없었다. 그들은 어린동생을 가뒀두면 혹시 형이 자수해 오겠지라고 생각했으리라. 그저 나의 형을 체포할때 까지 나를 가두어 둘 모양이었다. 죄명도 없이 나의 유치장 생활은 계속되었다. 나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일제때 식량배급으로 좀 배가 고파본 적은 있었어도 이때처럼 배가 고파본 적은 없었다. 수감자중 한사람이 열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그는 먹지도 못하고 쓰러져 누워 있었다. 그 병자가 먹지 못하는 한 그릇의 밥은 어느새 동료수감자가 번개같이 먹어버렸다.



유치장생활중에서도 매일 한번씩은 희망의 순간도 있었다. 그것은 출감자를 호명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이름을 호명하지 않을까 해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이렇게 애타는 유치장생활이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희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열사흘이 되던 날 유치장내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보안서 밖에서는 분주히 달리는 소련해방군의 군용차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고, 드디어 연발되는 총성이 들려왔다. 이날이 바로 3.13 함흥학생 의거의 날이었다. 나는 보안서원 덕분에 유치장에서 의거를 치뤘어야 했다. 총알이 휘휘 날오는 속에서 反해방군, 反당국데모에 참가하는 스틸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밤 체포되어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서 유치장은 포화상태를 이루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저녁때 한 보안서원이 내이름을 불렀다. 결국 나는 새로 들어나는 수감자 때문에 고통의 유치장에서 밀려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3주간이나 되는 유치장 생활의 고통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장티프스로 쓰러졌다. 유치장안에서 열병 앓던 수감자로부터 감염되었던 것이다. 그가 먹다 남긴 죽을 먹은 것이 원인이었다. 장티프스를 앓는 환자가 간방에 있었는데도 보안서 당국은 환자를 방치해 둘 정도로 無法했다. 나는 병석에 누워 해방후 장티프스로 희생된 日人들의 송장행렬이 함흥공동묘지로 줄지어 가던 것을 연상하면서 나도 그런줄에 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다. 다행히 부모님의 정성스런 간호덕분으로 나는 구사일생했다. 열병에서 회복하는데 약 2개월은 걸렸으리라 생각된다. 머릿도 다 빠지고 허약해져서 볼품도 없는 몸을 가지고 그래도 학교에 나갔다. 그때 나는 또 한번 굵은 소식을 받았다. 민청회원들이 나를 민청에서 제적했다고 통보해 주었다. 학기말시험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백지를 낼 수 밖에 없었다. 1946년 여름방학이 되었을때 나는 나의 형이 피신해간 서울로 떠났다.

우리 30회 동창생들은 참 곡절 많은 3학년 생활을 했다. 3학년의 前半은 日帝工場動員 생활, 또 後半은 소련군治下 생활을 치루어야 했다. 그래도 나에게서 내가 유치장 생활을 겪은 것이 그중 가장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도 해방후 동족治下에서 있는 일이길래.

이제 다 누구의 德分이나?

1992. 2. 6

## 沐浴・坐禪・講堂

金明哲(31回)

내가 다니는 목욕탕엔 한약 사우나실이 있다. 3년전 수리할 때 생긴 것으로 약쑥, 천궁,

당귀같은 약재를 찌서 섭씨 90도 안팎의 그윽한 한약 냄새 풍기는 증기를 네댓평의 방안에 가득 채운 증기탕이다. 바닥엔 자갈을 깔았고,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성깃성깃 엮은 발같은 돛자리를 칸 마루같은 데는 대여섯 사람이 네 다리를 쪽 뻗고 누울 수 있을 정도로 꽤 넓다. 바닥과는 단층계단으로 이어져 있어서 걸터 앉을 수가 있다.

나는 1주일에 한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이 목욕탕엘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냄새가 좋아서 한약 증기욕을 한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는 듯 하였으나 이제는 이골이 나서 이것을 안하고는 못배긴다. 이골이나자 그냥 앉아있기가 무료해서 대나무 돛자리에서 坐禪의 흥내를 내기 시작했다. 한 2년반 전이었다.

跏趺坐를 하고 두손의 여덟 손가락을 서로 마주 엮어준다. 두 엄지 손가락은 종이 한장이 겨우 지나갈 만큼의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 보게 한다. 눈을 지긋이 감고 無念無想의 경지에 이른 척하며 3~5분 정도를 보낸다. 나의 이런 꼴을 보고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더러있다. 이렇게 하여 땀을 뻘 다음 바닥에 칸 자갈위를 여남은번 왔다갔다 하고 냉탕에 들어간다. 그 시원하고 날아갈 듯한 기분은 해본 사람이 아니고는 모를 것이다.

나는 坐禪을 南中 1학년 때에 배웠다. 그때(1944년)는 1주일에 한 번, 아마도 목요일에,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 講堂朝禮가 있었는데, 校庭朝禮와는 달리 軍人勅諭暗誦은 없었고 그대신 坐禪이나 禱(미소기)가 있었다.

坐禪은 劍道の 副島(소에지마)先生이 지도 하였던 것으로 記憶하는데, 5분가량 했던 것 같다. 先生들은 줄지어 앉아있는 우리들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누가 눈을 뜨고 있지 않은가, 또 졸고 있지 않나를 감시하였다. 유독 歷史의 竹森(다께모리)先生만은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無念無想의 경지에 빠지다 못해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눈을 뜨고 두리번 거리는 우리들의 가까중 머리를 그 회초리로 사정없이 내리치곤 하였다. 그때의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同窓들이 더러 있으리라. 竹森先生은 今後 威興警察署長의 養子(데릴사위)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때 배운 坐禪이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나의 한약 증기욕을 무료하지 않게 만드니 시체말로 배워서 남주나이다. 副島先生은 北九州 佐賀縣 出身의 劍道 6段으로 내가 속한 1學年 乙組의 담임이었다. 온화한 性格의 소유자로 우리들에게 가끔 자기 고장의 葉隱(하가꾸레) 精神에 대하여 얘기해주곤 하였다. 1944년 末頃に 소집당하여 入隊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禱는 神道の 祭祀에 앞서 몸을 찬 물로 씻어 재앙을 몰아내는 沐浴齋戒를 말하는데, 우리가 했던 것은 日本의 和歌(와가)를, 그것도 明治天皇이 지었다는 所謂“御製”를, 時調 읊듯이 詠唱하면서 노를 짓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이때는 三宅(미야게)校長이 先唱하면서 우리들을 직접 지도하였다. 神道精神과 大和魂을 우리들에게 추입시키려고 이런 짓을 시켰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저 체조쯤으로 여겼다.

우리들이 “두꺼비”라고 불렀던 三宅校長은 그 육중한 체구를 이끌고 本館의 넓은 현관을 혼자만 다녔다. 다른 先生들은 講堂과 敎務室 사이에 있던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합격자 명단이 마주보이는 문으로 우리들과 같이 다니게 하였다. 이렇게 校長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몹시 세웠던 그는 先生不足으로 修身외에 數學도 가르쳤는데, 數學時間에는 수행비서 같은 先生에게 교과서와 삼각자 같은 敎具를 들고 따라다니게 하였다. 어린 생각에도 너무하다고 여겼던 기억이 난다.

우리가 다닐 때에도 선배졸업생들이 찾아와서 講堂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좋은 얘기를 해주시곤 하였다. 아마도 1944년 초가을로 기억되는데 하루는, 1950년 10월에 威興이 국군에게 수복된 직후 連浦上空에서 탑승기의 추락으로 순직하신 故 朴範集將軍(18회)께서 母校를 방문하셨다. 日本 陸軍航空少佐의 군복을 입으신 늙은 모습으로 講堂에 모인 우리들에게 訓話를 하셨는데, 그 內容은 뜻밖에도, 당시 학교에서 강요하다시피 권장하던 陸軍少年航空兵이나 海軍予科練 志願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없었고, 사람이 옳게 살아가려면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하고,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하여 부단히 움직여야 한다는 다소 철학적인 얘기였던 것으로 기억난다. 所(도꼬로)少尉란 못된 배속장교가 있었는데 朴先輩에게 경례를 부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고소하게 여겼던 일이 생각난다.

모두 해방직전의 일이었으니 그때부터 半世紀 가까이 지난 셈이다. 그래도 10代의 꿈을 키우던 아카시아 숲속의 古色蒼然한 그 木造瓦葺의 講堂과 校舍, 그리고 그 넓은 運動場이 가끔 눈앞에 鮮明하게 떠오르는 요즈음이다. 몇 년전 在美의 朴炳元君이 귀향하여 東興高等中學校로 바뀐 母校의 寫眞을 보여주었는데 옛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威南中學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만 남아있는 存在가 되고 말았다. 生前에 統一이 되어 母校의 再建을 볼 수 있을 날이 올 것인지?

## 애정결핍

### 金致敬(31回)

口腔期에 엄마의 젖을 실컷 빨지 못하고 엄마와 사랑어린 skinship(피부마찰)을 충분히 겪지 못한 아이는 心理적으로 애정결핍을 느끼게 되어 커서는 담배나 군것질로 그 욕구를 대신 충족시키며 나아가서는 異常性欲이나 性犯罪로까지 발전한다는 프로이드나 幼兒心理學의 論據로 보아 우리나라 男女青少年들의 吸煙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든지 어린이 成人病환자가 늘어나고 青少年의 性犯罪가 날로 늘고 있는 問題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아기에게는 엄마젖만큼 좋은 것은 없다. 牛乳와 달리 비타민도 알맞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C가 특히 많으며 아기는 어머니를 통하여 면역체도 받고 어머니는 수유를 통하여 産後 子宮이 정상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한편, 엄마젖은 우유를 먹일때처럼 데우거나 소독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어디에서도 먹일 수 있고 먹는 분량도 크는대로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利點도 있다.

엄마젖에는 영양이상의 神祕가 있다. 젖꼭지를 물리고 빨면서 어머니와 아기는 영양의 수급과 함께 사랑어린 심리적교감을 만끽한다.

젖을 빨며 느끼는 엄마와의 關係는 性格形成이나 情緒安定 등 全人의 人性形成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金寬哲박사(지성소아과 원장)는 모 종합병원의 産科통계를 소개하면서 新生兒때 첫번째 授乳선택이 중요하며 아기의 授乳는 반드시 母乳로 시작하라고 권한다.

통계는 新生兒 3,300명을 기른 보고서에서 母乳營養兒는 全身感染症이나 腸感染症이 극히 적었고 퇴원후에도 계속 모유영양으로 기른 비율이 80%이상인데 비해 신생아때 우유로 처음 수유받은 아기중에 퇴원후에 모유를 먹게 되는 비율은 39%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母乳는 6개월이상 1년반까지도(보충식을 곁들여) 먹이는 게 좋고 엄마와의 skinship도 3-4세까지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産業化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직장진출이 늘어나고 엄마들의 건강상 理由로 하여 일찍부터 母乳대신 젖병꼭지를 빨리는 일이 보편화 되었고 독립심을 기른다 하여 생후 1년 남짓하면 엄마품을 떠나 잠자기 하는 일도 흔해진 것 같다.

이같은 갑작스런 변화로 충격적인 두려움과 고독을 체험한 아기는 人性에 문제를 안게 된다.

모유를 빨리지 않으면 어머니에게도 해롭다. 乳腺組織의 기능이 약해지고 乳汁分泌가 순조롭지 못하여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근자에 와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유방암이 늘고 있는 까닭도 이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 같다.

아기에게 젖빠는 일과 skinship만큼 강렬한 욕구는 없다. 本能的인 求愛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아이는 심리적으로 항상 허전하고 본능적인 애정에 늘 굶주려 있게 되어 손가락을 빨아댄다. 손톱이 문들어질 지경으로 집요하게 빨아댄다. 인형을 안고 자며 머리카락을 잡고서야 잠을 잔다.

그래서 방학때만 되면 치열교정을 받느라 어린이들로 치과병원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skinship에 허기진 젊은이들은 아무데서나 異性간의 피부마찰을 버젓이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출생순위, 과보호, 부모의 상호역할, 환경문화적인 요인 등 아기에게 중요한 문제는

많다. 그러나 애정결핍처럼 人性形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의타심이 강한 아이, 내성적이고 적응이 잘 안되는 아이, 공격적인 아이, 부정적인 아이, 집요한 아이, 독점욕이 강한 아이, 잔인한 아이들이 품고 있는 문제도 결국은 애정결핍에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놀라운 사실은 어릴적의 심리적인 상처는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을 利己的이고 버릇없는 아이, 自足할 줄 모르고 감사와 순종도 잇은 世代라 하여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人性의 문제는 牛乳빨며 쌓인 애정결핍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靑少年의 問題는 이제 결혼가정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에까지 확산하고 있는 社會問題가 되었다.

商業主義에 놀아난 性道德의 타락상도 극에 달했고 不信이 빛은 하극상의 現場은 非情한 오늘의 人間關係를 조명해 주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현상들을 단순히 culture-lag이나 anomie현상이 빛은 결과로 보거나 그릇된 自由의식에 기인한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授乳와 skinship에 얽힌 근원적인 욕구분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같은 時代的인 욕구를 醇化하는 보다 深層的인 묘책으로서 차제에 授乳習慣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UN에서도 8월 1일을 제1회 세계 母乳授乳의 날로 정하였다. 이제 세계는 아기에게 母乳를 먹일 필요를 깨닫고 母乳먹이기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UNICEF가 밝힌 자료는 미국의 母乳授乳率이 81%, 프랑스가 82.3%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1.4%로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웃 日本에서도 작년부터인가 모유먹이기를 결정했다고 들었다.

産業化가 먼저 진행되었고 여성들의 社會參與도 앞선 先進國에서 母乳授乳率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우리도 先進國이 되기 위해서는 全人의 人間教育을 성취한다는 차원에서도 授乳에 관한 認識의 전환이 있어야 하리라 믿는다.

母乳를 먹고도 사람구실하기 어려운데 소젖을 먹이고 뛰어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염치없는 과욕이 아닐까.

괴테의 말처럼 어린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모습처럼 純潔해 보이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엄마품을 떠난 채 혼자서 우유병꼭지를 빨아대는 아기들, 무지한 母性愛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니 측은하다. 못해 가혹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愛情은 영혼의 滋養分이다. 아기때부터 건성으로 지내온 터에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단 말인가.

生命을 잉태하고 保育할 막중한 召命을 띤 어머니들이, 世界가 함께 저지른 일, 당장 눈에 띄이지 않는 문제라 하여 그저 안일하게 속수무책이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子女에게 全部를 걸고 사는 어머니, 세계에서 둘째가는 教育熱을 자랑하는 극성스런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세익스피어는 요람을 움직이는 이는 世界를 움직인다고 하였다. 우리 아기들이 요람아닌 엄마 품에서 잘 커서 장차 人類에 공헌하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1992. 9. 5.

## 어머니가?

### 이 철 범(31回)

1946년 이른여름

백두산 밑

혜산진역에 서 있던

당신을 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열여섯의 어린 외아들을

자유의 땅으로 보낼때

기차가 터널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당신은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그후 33년동안

나는 한번도 당신을 뵈지 못했습니다.

1950년

피비린내 온 국토를 덮은

동족의 싸움속에서도

당신은

그 역에 서서

아들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

남북회담이 열렸을 땐 부푼가슴으로  
 그 역에 서서  
 아들의 돌아옴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神이여,  
 계신다면  
 단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어머니의 거칠고 강마른 손을  
 덥석 만지며,  
 기쁨의 눈물속에서 빛나는  
 그 눈을 보게해주옵소서.

그러나  
 기차는 점점 터널속 깊이  
 어둠속으로 달리고 있으며  
 한번도  
 그 깊은 굴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분단의 역사는  
 그 어둠속으로  
 날로 깊이 빠져들고만 있습니다.

지금은  
 1979년  
 당신은 여전히 햇빛 쏟아지는  
 그 역에 서서  
 통일과  
 나의 귀향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꿈속에서도  
 그 역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일에

당신이 北에 살아계신다면

일흔살이 되시고,

南에 살고 있는 나는

마흔 아홉살이 됩니다.

낮서른 거리를 건다가도

문뜩

그 역에

혼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1979

이 시는 뉴욕에서 발간되는 학술계간지「Dream Works」에 발표된 내가 쓴 영시를 다시 우리말로 대충 옮긴 것이다. 본 제목은 「You Are Still Waiting Even in the Dream of Death=당신은 죽음의 꿈속에서 조차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다. 그후 나는 이 시를 강대국의 패권적권력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모순과 비극을 일깨우며, 겨레의 만남을 세계에 호소하는 편지와 함께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세계지성인과 중요신문에 보낸 바 있다.

그러니까 고향 해산진역을 떠난것은 1946년 여름이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고·지선의 가족을 떠난다는 뜻이요, 어머니와의 헤어짐을 말한다. 대저·「그 영원한 어머니」 혹은 「프랑스의 바다엔 어머니가 계신다」라는 그 어머니는 또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마리아이기도하다. 그렇게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존재요 사랑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와 헤어졌다. 그후 6·25의 처절한 비극을 거쳐 60년대초의 4, 19 혁명, 5, 16 쿠데타, 80년 광주학살등 우리민족이 겪어온 그 어둡고도 긴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나는 어머니의 소식을 꼭 한번 들었다. 그것은 구사일생으로 흥남에서 배를 타고 월남한 고향사람이 들려준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50年末 유엔軍이 後退할때 전 가족을 대리고 모진 추위와 굶주림속에서도 풍산까지 피난나오신 것을 보았으나, 그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를 알수없다는 절망적인 얘기였다. 말하자면 그 절망적인 소식다음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삶과 죽음의 기로를 헤매던 어머니는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 할머니와 동생들은?

아무도 살아서 돌아온 일이 없는 죽음의 피안처럼 캄캄하다. 그 소식에 접했을 때 나는 가늠수 없는 불안과,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는 그 극한상황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으리라고 보았으며, 그렇게 생각할 수록 분단의 깊은 골짜기에 버려졌있는 나 자신을



의식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흔이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망각이 없다면 이 아픔과 고뇌를 어떻게 견딜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시간은 그 아픔을 잊게 만들기도 한다.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끄는 길에서.

그런데 시간의 망각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 영상, 영상의 실체, 즉 혜사전역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는 어떤 시간도 지울수 없는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있는 것은 웬 일일까. 그것은 「神이여, 계신다면 단 한번이라도 짱마른 손을 만지게 해주옵소서」하는 기도속에 어머니는 영상이 아니라 바로 실존하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가 「절만의 소식」 저편에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내가 환갑을 맞게되는 1991년 2월초였다. 만주 吉林省에 그분의 동생이 살고 있는 먼 친척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혜림아버지, 어머니가 이북에 살아계신데요, 「뭐요? 다시 말해보세요.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니?」「어머니가 살아계신다니까.」이 엄청난 소식에 접하는 순간, 몇십년동안 막혔던 눈물이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분출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고, 몸의 중심을 가눌수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는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한없이 기뻐다. 올해 어머니의 나이 여든둘, 그 기쁨과 함께 또한 나의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길 없었다. 어머니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의 왕국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프로에타리아가 굶주리고, 그 굶주림속에 여든둘의 내 어머니도 있다는 것은 견딜수가 없었다. 그 굶주림속에서도 아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죽을수 없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아들을 꼭 만나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앞으로 몇해를 더 견디실 수 있을 까. 땅위에 살아계셔야 만날수 있는데. 어떻게해서라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 만나야하는데. 어떻게해서라도. 그날 밤 나는 수면제를 먹고서야 겨우 잠을 청할수가 있었다. 그러나 수면제 마저도 나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

## 咸興高普 출신의 자부와 矜持

池 一 權(32回)

우리 양양의 남대천을 비롯해, 몇몇 동해안 하천은 연어들의 母川 구실을 하고 있다. 연어들은 알에서 부화되자마자 고향을 떠나 수 년간 저 먼 북태평양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며 자신의 일생을 보낸다. 그러다 그 생을 마칠 즈음이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

産卵을 하고는 氣盡한 상태에서 죽는다. 그러면 곧 부화된 또다른 새끼 연어들은 다시 태평양으로 나가 자신들의 생을 시작한다. 그들 역시 天命을 다 할 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기어코 이곳 母川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간혹, 내 生涯도 어찌면 이 연어를 닮은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 역시 北韓의 한 하천을 고향으로 둔채 어린 시절 그곳을 떠났고, 그 이래 강한 鄉愁를 가지고, 언젠가 고향으로 되돌아 가겠다는 강한 願望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내 나이 만 열둘 때의 일로, 利原郡의 ‘群仙尋常小學校’를 졸업하고, 待望의 ‘威南 公立 中學校’를 入學하면서이다. 당시 군선 심상 소학교에서는 12회의 졸업생을 냈었는데, 그때까지의 졸업생 중에서는 내가 이 名門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내가 태어난 利原郡의 명예였고, 우리 池씨 집안의 영광이었다. 그 몇 해 전에 兄이 바로 이 학교에 응시했다 낙방해 永生高普를 다니고 있었는데, 따라서 나는 兄과 함께 하숙생활을 함흥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서 시작한 객지 생활이 무려 50여년, 나는 아직도 他鄉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이래 많은 세파에 시달리면서도 내 나름대로는 정열적으로 살려고 애썼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 첫 객지 생활이자,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威南中學시절 나는, 나팔수로서 육상과 기계 체조 선수로, 또 그 후엔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숨가쁘게 보냈다. ‘촌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威南中學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부터 최연소 꼬마 나팔수로서 나팔을 불었고, 각종 체육 경기에 학교를 대표해 참가하곤 했었다.

威南中學(威興高普)를 졸업하고는, 元山 敎員大學에 입학했는데, 이 때도 中學시절 단련된 기량을 활용해 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6.25전 해인 49년 가을에 당시 北강원도 대표로 참가해 모란봉 종합 경기장에서 첫 경기를 펼쳤던 기억이 새롭다. 金日成이 참관하는 가운데, 나는 威南中學(威興高普) 출신의 명예를 드높인다는 의지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 후 6.25 동란이 벌어지고, 1·4후퇴 때 단신 월남하여, 피난민 수용소 등을 전전하다가, 강원도 축구 선수로 발탁되어 53년 제34회 전국 체육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관하고 있었으니, 내 젊은 날의 선수 생활은 참으로 이 나라 역사의 기구한 운명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할 만하다.

휴전이 되고 난 후인 54년 7월부터 언론계에 투신하여,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 30년간 계속된 언론계 생활 속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을 비롯해, 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官界인사 등과의 폭넓은 만남을 통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깊은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나로서는 행운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한 일이다. 특히 제1야전군 사령부 출입기자로 15년 간을 보내면서, 훗날 큰 정치인으로 나선 많은 장성들과 교류를 펼친

것도 그 생활의 추억이라 할 만하다. 이 시절엔 각 군단 대항 축구 대회 심판장까지 역임했다.

특히 기자 시절엔, 한국일보가 주최한 '關東八景 探勝駈轉 競走 大會'를 주관하던 일이 기억에 새롭다. 울진에서 시작해 삼척 강릉 속초와 휴전선 아래 최북단이던 명파리까지를 잇는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 1956년부터 10년간 추진했었다. 당시 대회임원장을 맡아 1군사의 도움으로 이 행사를 치르어내곤 했다. 한국일보사가 1965년 설악산에 '이름모를 자유 용사의 碑'를 세운 것도, 내가 百想(張基榮) 선생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 역시 건립본부장을 맡아 1군사의 도움으로 건립하였다. 기자 생활 30년 동안, 이외에도 들끓는 정의감으로 정확하고 바른 기사를 쓰겠다는 신념으로 일관하던 것이 지금도 상당한 자부로 남는다. 나는 그 후 대과없이 기자 생활을 청산하고 1984년도에 정년 퇴직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 2~3년간 병고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곳 東草에서 文化院長직을 맡아 남은 인생을 명예롭게 장식하고 있다. 이곳은 나와 같은 失鄉民들로 구성된 곳이기에 이렇다할 문화적 특성도 형성되지 못했고, 鄉土史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곳이다. 그래서 취임직후부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集大成한 '東草市誌' 편찬부터 착수해 얼마전에 완간해 내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뿌리가 최초로 정리되었다. 무보수 명예직인 文化院長을 맡아 내 마지막 정열을 여기에 쏟은 것은, 바로 이런 고향에의 책임감 같은 것 때문이었다. 돌아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이 마을에의 애향심이 되었던 것이다. 흔히 나를 가리켜 '東草에 歸化한 놈'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나도 그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에게도 귀소적인 본능이 있어, 태어났던 고향에 돌아가 보고 싶다는 소망만은 지울수가 없다. 그 희망이 정신적 활력이 되어 지금의 내 건강을 지탱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는 자신의 生이 진행되고 있는 한 고향을 향한 그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도 그렇다.

돌이켜보면, 나는 威南中學(威興高普) 출신으로서의 자부로 한평생을 살아왔고, 母校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려고 애쓰는 과정으로 한 평생을 메워왔다. 거듭 강조하지만, 나도 언어처럼 生이 진행되는 동안 故鄉과 母校를 향한 그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사투리 타령

### 權 炳 池(33回)

멍텅구리에다 머저리처럼 글 재간이라고는 쯤벽(바람벽)인 날 보고 글을 쓰라니 잘 봐주면 여형(영웅) 났다고 할꺼구 어떤 아주바이는 언뒤(바보)같은 촌 간나새끼가 원뒤(신통)하게 잡기장(노-트)에 허저부레(허트러지게)써 놓은것 같지만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구구절절 사무친다고 할꺼구 또 서끼바 두생이(영감)나 주제비(체면)없는 아바이는 이거야 정말 어린개나 자란개나 술한개가 우뻑서(웃으워서) 죽겠다고 어부재기(호들갑) 칠런지 모르겠다.

내 자신이 생각해도 벌써부터 양지가(얼굴) 빨개지며 가슴이 두근거리나 그래도 남중 출신인데 아무리 몰알에다 맹물밖에 없는 얼뚱한 재취(才能)지만 오미(해 가면서 챙기면 졸작은 면하겠지. 하라쇼 하라쇼(좋아 좋아))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더워서) 아시나조(초저녁)에 마무새(마루리) 활려고 세쉬소래(세수대야)에 운물(우물)에서 냉쉬(냉수)를 퍼다가 오구래(팔죽에 쌀이나 수수의 가루로 뚱그랴게 빻어서 넣은것: 새알심)와 같은 땀이 흐르는 양지(얼굴)를 씻어내고 에미내더러 등때기(등)를 문대라고 했드니 왈.

「귀래(당신) 등에서 국때기(죽에 밀가루나 곡식의 가루로 등글고 약간 길게 수제비로 빻어 넣은 것)같은 때가 슷태(땀) 밀림매.」

내사 하두 어기(기가) 차서 느물뜨리고(시치미 떴고)

「물땀귀처럼 주데(주둥이) 다사(多事)하게 악지질(입놀림) 하지말고 꼬부대(부지런히) 문대기나 해.」

폭군처럼 큰 소리는 쳤지만 실은 슬슬 눈치를 보면서 속은 어물(영큼)해서 살아 가지고 공처가의 본성으로 도라가는 거야 어찌겠음매.

비눌(비누)물을 닦아내고 사리마다(팬티) 바람에 목데기(목침)을 베고 노존(갈대) 꺾질을 엮어서 만든 방안의 깔개) 바닥에 배때(배)를 붙이고 대배(드러) 놓었더니 쉬죽이(手足) 쭈시든게 싹 가시고 께끈한(꺼림직한) 땀 냄새도 날아가니 배뽕기(배꼽)가 시원하면서 자부레미(잠이)가 살살 오지 않겐슴매.

거불써(얼얼푸시) 잠이 들면서 아시나조 용막에(초저녁 꿈에) 열매나 오미 하고 있었는지 H. S. L. K…… 동창들의 새와이(도령) 때 체연하든(늪늪하든) 시절들이 꺾뜨 꺾뜨 스크린 처럼 지나가는데 어느 선스나(머슴아) 간나새끼가 권 아바이 잠만 자고 글은 언제 쓰겠음매 하며 소래기(소리) 지르는 바람에 펄떡 일어나서 쇠뿔도 단숨에 빼고 우둔한 개 쇠 잡는다고 단숨에 써 버리려고 오방재(책상다리)틀고 책상에 正座했으나

어이없두한(바보같은) 생각만 돌개바람(훤오리) 처럼 허공을 맴돌고 눈에는 눈계비(눈뿔)가 끼었는지 빼-지(다래끼)가 났는지 침침하기만하고 폐렴계(이상하게)도 텅 빈것 같은 대가리가 무겁기는 왜 이렇게 무거운지…….

「아바이 오늘은 어째서 그럼매? 글을 쓰겠다고 하디이 느물느물(우물우물)하면서 글은 아이쓰오? 꼬랭기나 대가리나 시작이 반이라고 아무거나 얼른 씌새.」

정지에서 일하든 안간이(안해)가 아바이 답지 않게 한마디 끼어든다.

「썬티(바보) 같은게 쓴거니 보나마나 그 얼굴에 햇살이지 하면서 승-(흥) 불것 같애서 썬이(속이) 썬히고, 반면에 그 아바이 당나귀 귀띠(귀)처럼 오굴시구 선스나 답게 과목하드니 노-벨 작품을 썼다구 과찬이 많으면 열해서(부끄러워서) 오금을 못 펼것 같기도해서 회추막에(골목길) 갇힌 쇠지(송아지)처럼 꼼작 못하고 있음매.」

여하간 이러구 저러구 할께 아이라 소핵교(小學校) 얘기부터래두 일기장처럼 읊어 나가야지.

지(자기) 똥 쿠린줄 모른다고 내 글을 날보고서리 독보회(讀報會) 하라구야 아이 하겠지.

〈미야모도 무사시〉

〈아라시 간지로〉

〈가다메 가다테노 단게자젠〉(외눈 외팔의 「단게」: 유명관 무사)

하구로잔노 뉴-또엔까이마루〉

진무, 스이세이, 안네이, 고엔 고-가…….긴조까지 121대 일본 천황들의 역대 암기. 다이홍에이(大本營) 핫뽀(發表)에 숨죽이고 “꼬꼬리 신민노 찌까다비…”

하여튼 삶은 쇠 대가리가 웃을 일이야. 소곶유(松根油)를 파러 땡기면서 가래질(삼질)과 쇠스래질, 장도리질(자귀질)은 그야말로 가랭있게(엄청) 했젠겠오.

그런 와중에서도 천진성은 있어서 한갠(한강의 뜻으로 큰강)에 나가서 버들개지(피레미) 쇠치내(미꾸라지) 개구락지(개구리) …… 등을 잡으려는 열매나 땡겼오(다녔소).

썬재리(잠자리)를 잡아서는 시집 보내고 한질(큰길)과 신작로(新作路)를 오르내리면서 문지(먼지)와 보개미(흙가루)는 슷태 뒤집어 썼재이오.

훤로갑(厚紙)으로 만든 뽕찌치기(딱찌) 보애치기(팽이) 멧떼기치기(젓치기) 빙고타기(썰매) 등을 어느 뉘기가 아이해 봤겠오.

오새(철) 없고 쥐리풀이(장난꾼) 같은 일만하고 재기(사고)만 치고 다녔으니 어시들(부모) 간이 열매나 말랐겠오.

그래두 요새 아-들 모양으로 돈을 달래서 개누깔이나 오마께…… 등을 싸(사)먹는다고 서왕(성화)은 그렇게 아이했지비.

중핵교(中學校)에 들어서는 웃티(웃)도 교복으로 달라지면서 사춘기 초반에 들어섰으나

하는 죽달이야(짓) 크게 아이낫고(변하지 않고) 자즌골(地名)에 사는 쌍가매(女兒의 아명)와 삼평(三平이라는 地名)의 셋두리(女兒의 아명으로 커서 선스나를 낳으라고 흔히 씀)가 쌀함박(함지박)에 대두박(大豆粕), 패끼(팥), 쉬(수수), 강애(옥수수), 단콩-(강남콩) 등의 불개(밥을 불게 한다는 잡곡을 말함)를 씨끄러(씻으러) 나오면 따발(머리에 물건을 일때 쓰는 받침 : 따리)을 차내고 보세기(사기공기)나 보깨뜨비(밥뚜껑) 양재기(양은 그릇)나 자식그릇(설거지)에 모래 뿌리고 양풍(늦그릇의 큰것)이나 유광철(함석)로 맨든 통대(20ℓ짜리 四角강통) 등을 뚜드렸으니 자기 과시의 방법 치고는 줄 열렸오만 이제와서 생각하니 사랑이었오.

우와기(上衣) 소매는 콧물로 번들거리고 바지 밑궁기(항문) 부분은 개죽판이며 말띠(허리띠)는 누띠(누데기의 띠) 같이 동제맨데다(동여맨다) 염차개(포켓)엔 농늪(자두) 떼기복좌(自生小 복숭아)를 넣어와서는 “미이라”(담임 선생의 별명) 선생 앞에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앞 사람에게 던지다 <노꼬리 벤꼬>와 소제당번을 몇번씩 한 슬기롭고 자부심 강한 젠들맨들이었지비.

회고하니 호분자(홀로) 열해서 양지가 쉬이떡처럼 뻗개지다가 어애지(개의 발이나 귀에 기생하는 진디물)처럼 꺾해질일이야.

白頭山 氣象처럼 늠름하면서도 놀개지(노루)같이 세세나(오직이나) 역(약)빠르게 아래 모캐(골목)에서 구묵돌이(굴뚝자리)를 돌아 뒤이란(뒤뜰)을 뛰어 넘고 늠을 가로 질러 신신한(아무일 없는)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애써 태연자약하던 지성의 集合場 咸中健兒들.

아재비 조캐(아저씨 조카)처럼 친하면서도 배-르(화)나서 워드레(타양 사람)처럼 댐빌때는 금방 결투라도 벌릴것 같은 함경도의 고집, 고금(학질 또는 말라리아)을 앓아서 몸이 여비(야위)거나 환을 당하여 불운한 친구에게는 투수-(불결)하다는 생각은 집어 삼키고 국시장시(국수장사) 아들이든 나무장대거리(나무시장)에서 작취(지게받침)를 받치고 나무장시 하는 아들이 됐든 배운게 없어서 원새(인사성)가 바르지 못하고 애비지(약지) 못하고 가난한 어시(부모)의 아들이든 무꾸(무우) 먹고 언친(체한) 사람이나 비 맞은 슷닭같은 사람이나 썬파이(판단능력) 없는 사람이나 사둔집 슷개(스개)처럼 주제비 없거나 말승내(늑대) 같은 어시를 가진 사람이나 동창생 하면 불우이웃돕기야, 어디메(어찌) 요새 새마을 운동에 댕겼음매.

반세기 가까운 단절, 아잉 단절의 時空이 지나서 白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다 되어서 이제 모두 만났으니 이거야 정말 다시 찾아봐야겠네.

그래도 모두 재취(재주)는 좋아서 어디서 모두 하나도 빠짐 없이 에미내는 하나씩(들 있는 사람 손 들어요) 잘두 얻었읍네다.

여하간 삼삼칠 박수에 <군> <군>, <요로시> <요로시>, <하라쇼> <하라쇼>, 좃구도 좋다. 모두다 뚝뻐이 있어서 썬스피어 원작 말광량이 질 드리기는 탐독했으니 안심. (나는

이미 공처가로 소문 확산중)

새도래(방정맞은), 구무여이(九尾狐), 싸우작(알랑)거리는 숙녀 기초동작은 아니 벌써 옛날에 금잔디에서 다 교정완료 되었을테지만 다만 한가지 서분한(서운한)것은 동창을 빼 놓고 우시꾼(둘러리)을 불렀다니 내가 그 까지 국씨 한 그릇 못먹어서 그러는게 아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엔 없었지만 지난번 동창회때 내가 에미내들을 관찰했더니 텅텅이 밑궁계 안바이 왔고 굳은 땅에 물이 핀다고 묵직하고 어진 에미내도 뗏이 있었지만 토고리(광) 열쇠는 가진것을 못 보았으니 견우직녀를 믿듯이 의심치 말고 오늘부터 당장 인계해 줄 것.

임내(홍내)도 잘 내고 춤도 참 잘치고 창가도 다 잘하고 달뉘(달래) 파에(파) 짐치(김치) 감지(감자)찌게 등 요리 솜씨도 다 좋고 양지는 모두다 양귀비니 이 간나새끼들 재취가 메취(메주)인줄 알았드니 그쪽 방면의 재능은 다 일품.

노파심에서 충고하지만 아직도 지첼(떼를 쓰다)하거나 하역질(올며 대들다)하거나 하는 에미내의 잔존 세력이 발본색원이 안되고 있다면 <나까오리>(日語로 中折帽)나 <도리우찌>(日語로 鳥打帽) 아니면 농뿔모자(맥고모자)를 뒤집어 씌우고 <후꾸로 다다끼>(日語로 몰매)를 사정없이 해 뼈려. 쇠똥땅냉(소똥구리)처럼 냄새도 말지말고 여하간 젓이되어(주눅이 들어) 누깔이(눈이) 하올해서(쨩해서) 귀레(당신) 말 잘 들을께 하며 두손을 싹싹 빌때까지...

다음에는 빼대(빼)가 상했는지 살펴서 칼숨이 많은 가매훤이나 다웅치(누른밥)를 먹이고 온기빠진(정신나간) 사람처럼 “바보처럼 울었다”의 악보에 맞춰서 유걸이(流乞)처럼 각서리 타령을 불러봐.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각각 스나-(남편)들이 책임을 지고 아현동 권 아바이가 코-치나 감독이라는 것은 입밖에도 내지 말것. 알았나!

다음에는 어슬렁 달밤에 방천길(제방길)을 데이트 하면서 혹시 비가오면 남의 집 초가밑에 들어가 군장물(낙수물)을 맞으면서 열열한 입맞춤을 하고 나서(팔이 좀 아프지만 참고서) 서답줄(빨래줄)에서 아무 옷티(옷)나 지저기나 베껴서 “자기 출젠매?” 하면서 男情을 주어봐. 이걸 정말 상상만 해도 내가 우뿌다. 마까쨌면(마땅치 않으면) 다 집어 치우고 <고애뿌리>(함홍의 주먹왕) <곤쥬> 부리든가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심새(고민)쓰든가 내가 알기뉘야.

마아 말돌이(마을돌이로 마실)나 도락질(역시 마실) 다닐때 에미내를 꺾치고 땡기든, 방칫돌(다듬이돌)로 묶어서 바다-(부엌)나 감목(가매목으로 아랫목)에 가두든, 뒷고방(함경도의 가옥구조는 정지칸 셋칸 윗칸 뒷칸 등의 겹집이 많으나 그자 집도 있음)에 들어가 에미내 스나-가 깨-꺼름(왼발걸음) 하든, 주제비(체신)없이 비탕질(몸이 답답하여 비틀어 댐) 하든 난 이제 모르겠네.

내사(나야) 암매(압니까). 어진기(어진사람이) 아게미(애엄마)보구물어 봅세.

먹은 쇠(소) 똥 눈다고 다알아서 하겠지비.

이러구 보니 여자에게 약한게 남자라구. 이 간나새끼들이 에미내들한테 1급 비밀을 다 쑥닥거리 놓으면 나만 <모도메>(집단구타) 당하겠으니 신짱(신발장)에서 풍천으로 만든 운동화를 충재질(뒤지기)해서 삼십육개월 준비를 해야지.

부죽댕기(부주갱이)로 검댕기를 칠해서 석경(石鏡으로 거울을 말함) 앞에서 변장하고 동창들 집에 가서 숨어야지(어리석게도). 그리고 세대 관망을 더 해야지.

그러구보니 내가 주제파악을 못하고 꼬-꼬리(뽕의 꼬리로 뽕이 놀라면 머리만 박고 꼬리는 밖으로 나와 있음으로 바보라는 뜻) 처럼 에미내들한테 점수를 다 깎였으니 다음 동창회 때는 콩짜개 하나도 못 얻어 먹졌으며 스네비(시누이)까지 동원해서 봉재(봉손화)들인 빨간 손톱으로 피집어 뜯으면서 하고 있는 좃달(짓)을 보니 글을 쓰는게 그 쯤달(주제)이지 하면서 비웃겠지.

나야 이왕에 버린몸이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오만 우리 아마이한테야 뭐라고 변명 하겠음매. 얼른 에미내 속꼬쟁(여자의 아래 속옷)이래도 뺏어 입고 바재태(수수대나 싸리대로 만든 울타리)를 말짱(장대)이라도 받치고 뛰어 넘어 어둠속으로 사라져 가야지. 그러면 우리집 애들이 간나(여자) 스나(남자) 할것 없이 남포불(석유등불)을 치켜들고 이 꿩추막(골목)에서 신작로로 갑산 아바이-하며 찾아 다니고, 우리 아마이는 이 두쌍 글 쓴다고 좃-쓰드니(잘나체 하더니) 찌도(아무것 똥도) 모르면서 놀라본(별것 아닌) 머리로 거지쁘레(거짓말)만 쓰드니 기어코 재기(사고)만 치고 다닌다이 하면서 소캐전(한면에 솜털이 나와있는 옷감) 치매(치마)와 소캐이불(솜이불)을 뒤집어쓰고 이 아바이 들어 오기만 해 봐라 하면서 애끼(새끼) 손가락을 깨물며 응(응) 쓰고 있겠지.

이 나이에 어디메가서 장재기(장작)를 패 주고 얻어 먹을 수도 없고, 혜채(영청이) 모양으로 반 버버리(병어리) 짓을 하며 유겔이(거지)짓도 못하고, 노오래기(노끈)로 가대기 판에 나가서 짐작을 묵을줄도 모르고, 어이없두한(바보같은) 것처럼 아무 나까리(날가리)나 들어가서 잠 잘수도 없고.

고불통에 <長壽煙>을 다져 넣고 부싯돌을 치면서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지만 냉철하게 자아비판을 해야지. 역세(달력)를 들여다 보면 一年 365일을 아버지의 날로 그저 통(호통)치면서 호통속이 어물(영큼)하게 살아서 집안의 다른개(사람)야 주눅이 들든 말든 거저 오꼬젠키(심술궂다) 베아리(병아리)를 잡아와라, 장물(국)은 짜고, 북짱(된장)은 새굴고(시고), 지렁-(간장) 그릇에 땡거지(고추가루)를 담았고, 고지와 애(명태의 간)를 넣은 시라지(시래기) 장물은 저렁구, 고마에(고등어), 은에(도루묵), 쇠고도리(공치) 찜은 어똥구, 해때 시키는 싱겁구 하면서 간



(반찬) 투정하는 아버지는 자수하여 광명을 찾읍새.

마까짜면(마음이 마땅치 않으면) 구새통(연통)에 꺼꾸로 집어 넣고 내구리(연기) 먹  
인후 반성문을 쓰게 할테니.

그래도 아버지 역세(역성)드는 사람은 아마이 밖엔 없음매.

등대기가 근지럽다면 각재(갈퀴)로 긁어 주고, 속이 급급하다 하면 쪽빼애지(쪽박)에  
새비(새우)젓이라도 퍼다주고, 눅꺼리(싸구려) 장애가서 눅은(싼) 적삼이라도 한개 싸다  
(사다) 주어봅새. 아마이는 퇴를(횡재) 만났다고 오토오사게(오붓하게) 참밤(밤)을 굶어  
(구어)준다, 늣재 나물(에다 배애쫓개(민들레) 나물, 고꼬(닭풀)나물, 가두배추(양배추),  
노배(청무) 요리를 한다 하면서 툇하면 괴기질(물고 늘어진다는 말)내든 버릇도 감추고  
쫓브레기(죽정어)가 다된 아버지에게 씨레손이(바보의 뜻) 같은 어진 양으로 순화되겠  
찌비.

아마이들이 어떻게 되구나면 우리 아버지들도 좋은 일이나 궂은 일이나 어부러서  
(어울려서 또는 사이 좋게 나누어서) GO 하든가 STOP 하면서 가능하면 피박을 쓰지  
않도록 눈치껏 요조심. 아무렴 뭐든지 잘 되겠음매?

어저(이제)는 가슬(가을)이 되어서 밤에는 동삼(겨울)처럼 칩어지니 마당에 널개턱석  
(명석)을 깔고 다부지(풀의 일종)를 꺾어다 모태불(모닥불)을 피워놓고 복두칠성이 걸친  
북녁 하늘을 쳐다보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고향앞의 버드나무 울봄도  
푸르련만…

에구우 멀리 미국으로 시집간 큰 집나이(시집간 딸) 두 애비가 벤벤치 못해서 바수개  
(예단 지참물)도 씨원찮게 해 준데다 어느 조캐(조카)나 아재비가 반사비(신혼부부를  
집에다 초대하는 일)도 못해서 항시 질리구.

지 성질이 유하니 스나아나 나잡순이 한테두 귀염을 받을게구 두시(신체)가 야무지니  
아아종재(아이 種子로 子息)들도 잘 키울기구 괜한 걱정을 쫓쫓쫓…

명상에 골몰하든차에 사리마다 사이로 불개미가 들어가서 제일 신경 쓰이는 곳을  
개물고는 숙녀 전용물에서 '다리배비(다리밟이, 음력 대보름에 긴 다리를 밟고 지나면  
액질이 없어지고 열두 교각을 지나면 열두달 액운을 떨친다는 민속놀이로서 특히 함흥의  
만세교는 대성황을 이루며, 이는 고려때부터 시작하여 이조때는 양반과 쌍놈, 남녀 유별타  
하여 남녀 구분하여 하다가 근래에는 남녀 또는 가족단위로 함께 한다.)를 하더니 반룡산  
까막 숲으로 은폐 하였던가단 배꿈기(배꼽)까지 점령하고, 추석 찰떡(인절미)에 부부리  
(주둥이)를 박고 죽는다는 모기가 지부랄탈 해협을 건너서 총공격을 개시하니 꼬쟁이로  
배때 치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고 누가 보면 벌써 오망(노망) 쓰는가 하겠지.

더비(더위) 먹은 사람처럼 눈이 꼴알이(뻥해서) 되어서. 그저 바라만 보구있지.

이럴때엔 누가 께끼는(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으면 성(화)풀이라도 하겠고 작쉬질

(삿대질)이나 실컷했으면…… 여하튼 비탕질도 해야지.

그렇다고 가스애비(장인)돈 떼먹은 사람같이 대배 높여서 천당이나 극락이나 도원경(桃源境)이나 블랙홀이냐로 무아의 경지에 머물수도 없는 일. 큰 희망이 있다면 여건이 바뀌어 어느날 갑자기 서울발-의정부-연천-철원-평강-삼방-신고산-안변-원산-고원-영흥-정평-함흥-홍남-퇴조행-제 38호 특급열차를 전세내서 같이 가는거야.

아니 그건 빨개이들이 있는 이북이 아니냐? 아마이들 가슴이 뜨끔하겠지비.

“아현동 아버지가 내구리(연기)를 피우면서 에미내들을 열리(달래)는 척 하드만 병주고 약주고 너무 합니다 너무 합니다. ‘이거야 정말 만나 봐야지’ ‘가려는가 가려는가 진정코 가려느냐’”의당 이런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난국일수록 스나-들 쪽에서도 단결을 해야지.

“‘다 그런거지 뭐 다 그런거야’ ‘눈물을 멈춰요 그리고 날봐요’ ‘굳바이하며 내민손 검정 수갑 새빈손’”

초나조부터 가스애비(장인)와 가스애미(장모) 다 와선 사우들한테 미천한 우리딸 제발 버리지말고 부탁한다고 애걸 할꺼야. 녹꺼리(싸구려) 세에타도 사오고 신철(신선)한도미도 사오고. 이 간나새끼들 새로 체엔(처녀)장개 든 기분일꺼다. 이때까지 따라지 혼자 신세라고 씨다리 많은 가스집에서 팔세받던 아주바이들께서 아현동 성님(兄任) 덕분에 마누라한테서 받던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 되었으니 말일세. 그러다보니 구열(구설) 싸고 어벌(간)이 크고 볼게없는 이 권 아버지도 모진 세파에 찌드러서 老兵은 죽지 않고 사라져 갈 뿐이다 하면서 <소오로>(화투놀이의 모이쪼에서 같은 숫자의 화투 석장을 잡은 것을 말함. 日語에서 유래 됨 영어의 Three Card) 잡은 自信에 찬 自我로 얼른 復歸 하여야지.

이 잘난 글을 쓰면서 뉘기(누구)한테 들키워서 읽어보는게 열해서 당반(선반) 구석에 올려놓았다가 빼비(서랍)에 넣었다 하면서 심새(걱정)를 썼드니 순환(感氣)이 들려서 지침을 하면서 썼는데도 나를 욕하는 간나새끼가 있다면 그거야 데질 아바이라구 욕을 먹어야지. 그러째든 워-리 워-리(개부르는 소리) 지가 지가(개쫓는 소리) 소리를 들어야지.

여하튼 좌새-(坐上) 아바이나 무꾸(무)먹고 언친(체한) 아-(아이)처럼 뜯뜯(무뜯뜯) 해서 잇는 두새나 거부지(음모)처럼 험상궂은 두새나 이깎나무(낙엽송)나 문푸레나무(피나무)처럼 성질이 꼳꼳한 융통성 없는 두새나 다같이 호새(호강)스러운 마음으로 금년 추석에 시양제(시제) 지내러 못가지만 잊혀진 동요를 부르며 동심으로 돌아가세.

한 옛날에(1) 둘이둘이(2) 삿뿐이도(3) 네살아이(4) 오간님은(5) 여니꼬(6) 지약때(7) 팔월엔(8) 구월똥(9) 열(10)

한하고(1) 두하고(2) 세하고(3) 네하고(4) 단지(5) 연지(6) 오드랑(7) 가드

량(8) 똥이(9) 땡(10)

얼마나 운치 있음때.

여하간 아바이들에게 健全과 幸福이 充滿하길 바라면서 亂筆을 놓습때.

註：筆者는 甲山 出身으로 阿峴洞에 居住하다가 米國으로 移民.

이 글은 「閔北의 窓」 無窮花版(咸一三會 1986年 刊)에서 轉載.

## 回 想

金 基 元(33回)

나의 故鄉 咸興! 참 좋은 곳이지요.

“故鄉의 버드나무는 올 봄도 푸르련만” “故鄉이 그리워도 못하는 身世……”

咸鏡南道の 中央 咸興平野의 東端에 位置하고 있고, 西北은 盤龍山이 뻗어 屏風처럼 市街를 감싸고 옆에는 城川江과 앞에는 瑚璉川이 市街를 둘러 싸면서 오늘도 유유히 흐르겠지요.

市街에는 咸鏡南道道廳과 地方法院 및 旅團司令部를 비롯하여 官公署·銀行·會社 등이 있어 行政·軍事·經濟·文化 등의 中心地이다. 또한 다리밧기로 有名한 萬歲橋(幅5.4m, 長500m)와 四無의 都市 即 妓生無 食母無 乞人無 文盲無하고 林產資源과 水產資源이 豊富하고 水力發電所와 興南肥料工場 일명 카~바이트工場等 高度의 工業圈이 形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나는 이런 故鄉 咸興에서 東쪽의 저 웅장한 한강령에서 흘러흘러 내려오는 瑚璉川의 周邊에 形成된 시골마을이며, 아늑하고 따뜻한 南方向의 農村인 東川面 果樹園의 農夫의 아들로 태어났다. 개막기와집에서 자라나 靑신을 많이 신었고 또 삶을 줄도 아는 少年은 咸興市東公立國民學校에 다녔다. 시골 少年은 學校에서 돌아오면 황소 두마리를 이끌고 山으로 올라가는 牧童아닌 풀메기 少年이기도 했다.

그時節만 해도 山에는 노루를 비롯하여 산토끼等 많은 動物들이 살고 있었다. 노루 새끼를 生捕한 일도 있었다. 하루는 부엉새를 生捕해서 집에 가지고 와서 턱석위에 靑으로 집을 지어 놓아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날아가고 없었다. 영영 울고 있노라니 아버지가 문길래 現況을 말씀드렸더니 “언디같은 놈아 부엉새는 밤에만 날으는 새야” 하시던 일이 回想된다. 그리고 細川魚(細川魚) 잡이도 많이 했지요. 細川魚를 잡다가 채를 망가뜨려 어머이 한테 혼나던 일뿐만 아니라 厚紙(厚紙)으로 만든 뺏찌치기와 보애치기, 멧데

기치기, 빙고타기도 많이 했지요.

시꺼먼 고무신을 신고 30里 學校길을 熱心히 다니던 나에게도 조그만한 꿈도 있었든가봐요. 3學年때는 고금을 3개월 앓고 몸이 예배서 (야위서) 1年을 休學도 했지요.

어느날 이 少年이 어머니의 튼 손 때문에 늘 기다리던 아코데온 할아버지 약장수가 왔다. “멘소래담” “멘소래담” 어머니 손은 고무장갑 없는 時代라 손등은 터서 갈라져 피가 흘렀다.

돈은 없고 어머니 生覺은 나고해서 끼웃든 거리면서 자꾸 멘소래담을 보니 할아버지가 나의 事緣을 물어서 사실대로 이야기 했더니 그냥 가지고 가서 어머니 손에 빨리 발라드리라고 하였어요. 참으로 고마운 할아버지였다.

나는 30里길을 단숨에 달려갔다. 저녁에 나는 뒤꼬방 내방에 어머니를 들어오시라고 하여 어머니 손좀 봐! 하고 내미는 손에 “멘소래담”을 발라드렸다. 그 瞬間 어머니께서는 주먹만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는가. 그時節이 그리워서 다시 回想해 봅니다.

어느덧 小學校 卒業이 다가왔다. 이제 上級學校 進學試驗을 치려야 할때가 왔다. 나의 卒業成績은 두 번째였다. 아버지는 農民의 아들이니 農業學校를 가라고 하고 어머니는 威南中學校를 가라고 해서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選擇했는데 合格하면 여형(영웅)이 되는거고, 떨어지면 언디같은 촌갓나새끼 되는거지요.

課外授業도 없는때라 좀 떨렸다. 試驗은 比較的 쉬었다. 나는 自信을 가졌다. 그런데 故 崔金堧先生이 面接試驗에세 “너 어데서 왔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네, 東川面에서 왔습니다 하니 촌놈이 간뎡이도 크다고 하셨습니다. 촌놈이란 것이 영향이 되거나 앓을까 걱정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合格! 合格! 威南中學校에 入學한 나의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었으며 정말 꿈도 컸지요. 아버지가 사주신 6인치 自轉車를 타고 다니던 나는 마냥 꿈에 부풀었고 希望찬 페달을 힘껏 밟았다.

威南中學校에 入學하니 “웃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가. 언젠가 揜차게(포켓)에 때기 복승아를 넣고 가서 앞사람에게 던지다 「미이라」선생께 들려서 「노꼬리 벙꼬」도 하고 소제 당번도 하였지요. 回想하니 호분자(혼자) “열”해서 양지(얼굴)가 쉬이떡처럼 빨개지다가 (어애지)처럼 검해질 일이지요.

白頭山氣象처럼 늠름하고 泰然自若한 知性人의 集合場 威中健兒들 그때는 先生任과 先輩任들은 後輩를 참으로 많이 사랑해 주셨지요. 언젠가 왜놈 선생이 “갓꼬오느 잇또오와 샤까이노렛도” 라고 하신 말이 回想됩니다. 그만큼 韓國學生들은 工夫 잘 한거예요.

지금 回想해보면 小學校나 中學校때는 왜 그랬을까요. 先生任의 이름은 모르고 別名으로 通했어요. 도끼몽태, 콧구멍, 짱골라, 말뚝等과 中學校때는 김영규(역사) 先生任은 “애매” 故崔金堧(국어) 先生任은 (미이라), 化學先生任은 (산소도로보오), 數學先生任은 (아까즈봉) 其外 쫓뿌드 오빠아린等 온통 別名으로 通했어요. 또한 地域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洪原참새 北靑덤비개 永興울뜨기等 참 부담없이 막 불러대도 先生任들은 피식 웃기만 했어요. 그때 그것이 先生任이라기 보담 先輩兄任들에 처한 待接이었지요.

나는 그때의 別名을 불러보며 先生任 아니 先輩任들의 양지(얼굴)를 聯想해 봅니다.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뭇을 하시며 지내시는지 또 健康하신지 그리워 지며 보고 싶기만 합니다.

그時節 그氣象 그「물」말하자면 咸興같이 살기 좋은 地形도 어데있든가요. 盤龍山展望, 城川江銀盤, 萬歲橋夕照, 馳馬台秋月, 定和陵白鷺, 歸州寺丹楓, 本宮殿夜雨, 西湖津歸帆 등의 咸興八景을 聯想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三寒四溫의 正確한 氣候와 동삼(겨울)에는 영하 15~20度를 오르내리는 故鄉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40余年 歲月속에 先輩任들은 얼마나 苦生 하셨나요.

同窓會때마다 先輩兄任들의 얼굴에 주름과 흰머리칼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서글퍼 집니다. 先輩兄任들이여! 다모토리 한 잔 아이 하시겠습니까. 쟁깍에다 감지와 북장을 놓고 땡겨지가루를 좀 쳐서 보글보글 끓여서 말이에요. 그리고 햇때식해도 좀 놓고 말입니다. 分斷의 아픔을 가슴에 새겨야만 했던 우리 千萬離散家族의 悲運속에 벌써 42년이 흘렀으나 아직 障壁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城川江과 瑚璉川은 유유히 흐르고 盤龍山은 우리를 보고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다. 悲運의 國土分斷과 民族相殘으로 因하여 얻은 離散家族의 苦痛과 悲運의 歲月도 이제 萬事亨通하여 喜報도 멀지 않아 올 것 같습니다.

財産을 잃으면 조금 잃고 名譽를 잃으면 많이 잃고 健康을 잃으면 몽땅 잃는겁니다. 부디 부디 健康하시와 家内두루 幸福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나라말을 이해하는 길

徐潤換(33回)

### 1. 국어의 이해

좋은 말들을 지니고 있으면 풍요로운 文化生活을 約束한다.

아무리 좋은 設計나 좋은 技術이 있다고 한들 집을 짓는데 「벽돌」이 없으면 안되고 質이 좋지못한 材料로는 훌륭하게 집을 지을 수 없는 듯이 우리들의 言語生活을 보다 알차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벽돌」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물을 먹더라도 毒蛇는 毒을 생산하고 누에는 명주실을 뽑는다. 같은 말도 거칠게

쓰면 시비거리가 되고 아름답게 쓰면 不朽의 名作을 남기며 우리들의 마음을 潤澤하게 한다.

좋은 言語生活을 하려면 좋은 與件이 必要하다. 즉 國語辭典을 비롯하여 속담辭典, 用例語辭典, 백과사전, 擬聲·擬態語辭典, 同義語·反義語辭典, 表題語辭典, 사투리辭典 등과 어휘를 풍부하게 驅使한 小說, 올바르게 表記한 散文集 등을 손쉽게 購入할 수 있어야 한다.

### 1) 國語辭典의 編纂에 대하여

最近에와서 국어 대사전의 出版이 한창이다. 金星出版社의 국어대사전은 50萬의 어휘를, 한글 학회의 한글대사전은 45萬의 어휘를 자랑하고 있다. 國語學界의 一大慶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우리말 큰 사전(산기철·신용철編著, 1983刊)은 4千余쪽의 4·6倍版이며 31萬의 어휘를 收錄하고 있다.

大辭典의 어휘數의 자랑은 마치 乘用車의 時速자랑과 비슷하다. 時速 몇 百km의 自動車의 長點은 실제에 있어서 無用之物이다. 大辭典이라 하면 어휘수의 자랑보다 用例나 出典이 확실하고 豊富하여야 한다.

사전에서 해석이 부실한 보기로 下馬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본다.

「下馬評」을 “官界의 변동이나 어떠한 官職에 任命될 候補者에 關하여 세상에 떠도는 풍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下馬評은 「矛盾」 등과 같이 漢字語 그 自体만으로는 解釋이 안되는 熟語다

“「査察波紋」引責따른 下馬評 무성”이라든가 “이번 改閣의 下馬評에는 ○○○氏가 國務總理에”라든가 하는 記事가 新聞에 등장한다. 下馬評의 語源은 日本에서 由來되었으며 辭典에서도 아무런 밝힘이 없다. 最小限度 大辭典이라면 下馬評을 실는 바이에 그 由來나 出典을 밝혔어야 옳다.

71年度版 「生きている 世界の名文句」에서는 「下馬評」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日本歷史의 배경을 모르는 讀者의 理解를 돕기 위해 「시새」말로 풀어서 쓰기로 한다. “江戶城正門(現在의 東京宮城으로 우리나라 靑瓦台라고나 할까)에는 出勤하는 長官들이나 각 首席秘書官들에게 여기서부터 下車하라는 下車指示標 아닌 下馬牌가 있다. 여기서 下車한 長官들이 出勤하고 있는 동안에 自家用運轉士나 隨行員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여러가지로 評을 하는데 特히 人事辭令에 관해서는 꽤 正確하였으므로 民間人들이 政府의 人事등에 언급하는 것을 下馬評이라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2) 言語의 올바른 使用

나는 下馬評이라는 日本語를 그대로 使用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抵抗感을 느끼며, 특히 精神文化의 日本隸屬化를 걱정하는 言論들이 스스로 없이 「下馬評」을 마구 써대는 것을 볼 때 新聞放送人들의 보도자세가 매우 못마땅하다. 하기가 言論界에서 使用하는

國語의 亂脈相은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다.

“對日貿易赤字 ×××를 達成했다”. (92.1.15日字의 KBS 9時 뉴스) 達成은 目的한바를 이름을 말한다. 따라서 達成은 「記錄」으로 했어야 옳다. “日本王의 허수아비火刑式을” 이 때의 「허수아비」는 논이나 밭에 세워두는 허수아비가 아니고 咀呪의 대상이 되는 人物을 본 딴 허수아비를 말하는 것으로 “제웅”이라 하여야 옳다.

「TV방송극」에서 장인이나 장모를 자기 아내에게나 본인에게 “장인”이나 “장모”라고 부르고 있다. 이 것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全國「格字型」道路網 구축” 이란 新聞題目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啞然해진다. 이것은 格子道路網 구축이라야 옳다. 記者는 「格字」가 미심쩍었던지 「」까지 달아서 「格字型」이라 하였는데 ㄱ字型도 아니고 ㄷ字型도 아닌 格字型이란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 3) 外來語에 관하여

말이라고 하는 共通意識이 民族意識을 이루며 “말은 겨레의 象徴이다.”라고 할 때 外來語의 無分別한 도입은 곧 民族意識의 混濁이나 精神의 隸屬을 초래하게 된다.

外來語란 文化와, 文明의 도입과정에서 그 나라에서 미처 生成되지 못한 어휘로서 不可避하게 導入되는 것이다. 그러나 導入課程에서 安易한 翻譯이나 原語를 直導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들어온 말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말을 移植해야 한다. 이 移植作業에는 高度의 創造性이 必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各分野에서 活躍하는 分들의 努力이 要求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言論界에서는 日本語를 直訳하거나 漢字를 그대로 본따는 汚染된 表現의 移入이 擴散되고 있다.

“二重허리의 林海峯九段을 三重허리의 李昌鎬가 擊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다. 二重허리가 맞이며 三重허리가 맞을 뜻하는 것일까. 이는 分明 日本語의 二枚腰를 되지 않게 誤譯한 것이며 한 술 더 떠서 ‘三重허리’를 지어낸 것 같은데 “끈기”나 “억척” 따위로 表現하는 것이 옳다.

또한 바둑 觀戰評에서 「돌을 던지다」라는 表現을 보는데 이것도 日本語의 投了하였다는 ナゲル를 그대로 直訳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한 술 더 떠서 投石이라고 評하는 경우도 있으니 …… 하기야 아직껏 「변호사 공실」이라는 標識를 하고 있는 法院이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공실은 日本語의 待機室을 뜻하는 控室(ヒカエシツ)을 直訳도 아닌 漢字語를 본따서 最高知識의 集合体인 法院에서 그대로 使用하고 있으니 解放된지 47年の 세월이 부끄러울 정도다.

KBS 9時뉴스(92.4.17)에서 樹令五百年의 나무를 移植하기 위해 ‘뿌리돌림’을 했다고 보도했다. 分明 日本語의 ‘根回し’의 直訳(?)이다. 신기철·신용철 편저 사전에는 없으나 金星出版의 큰 사전에도 뿌리돌리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것도 너무나도 安易한 번역자세며 차라리 ‘도래가꿈’이나 ‘뿌리 가꾸기’라 하면 어떨는지. 도래에는 도래술 도래떡,

도래함지 따위의 円이라 뜻이 있다.

그러나 보다 深刻한 것은 日本式發想의 盲目的 直輸入이다. 14代国会議員候補公薦에 관련된 新聞記事에 “당근에 채찍질”이란 題目이 가끔 눈에 띄었다.

이 말은 日本의 「人蔘(ニンジン)과 鞭(ムチ)」란 日帝時代의 政治的 發想에서 田來된 것인데도 直輸入하여 報道機關이 그대로 使用하고 있으니 몹시 危險한 汚染이라고 생각한다.

日本人은 말이 (馬)제일 좋아하는 먹이를 당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말(馬) 즉 人民을 「달래고 협박」으로 다스린다는 發想으로 「人蔘(당근을 말함)과 鞭」이라고 表現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表現을 無批判的으로 導入하여 國會議員立候補 希望者들이나 脫落者의 一部를 줄지에 말(馬)로 轉落시킨 셈이 되었다. 얼마나 非民主的이며 侮辱的인 表現인가 참으로 한심스런 생각을 禁할 수 없으며 이러한 言論姿勢를 개탄하며 猛省을 촉구하는 바이다.

#### 4) 言語의 自淨作用

言語는 自淨作用을 하면서 時代相에 따라 生成消滅을 한다. 그리고 좋은 言語는 살아남고 粗製語는 淘汰된다.

‘사바사바’ ‘鮮製’ ‘副閣下’ ‘암새몰다’ 따위의 말들이 한창 流行한 적이 있었다.

사바사바는 줄을 닿는다거나 은말한 거래 따위를, 암새몰다는 「슬쩍」하는 것을 말하며 副閣下는 副師團長을, 鮮製는 國産品을 뜻한다.

「副閣下」— 50年代까지 師團長에게 閣下란 称号를 붙였다. 물론 日帝의 遺習이다. 따라서 師團長이 閣下로 불리워지니 副師團長을 副閣下라고 하는 이상아릇한 呼稱이 생겼다. 지금은 大統領에게도 閣下란 칭호를 쓰지 않으니 참으로 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最近에 「靑瓦台秘書室」(中央日報社發行)에서 “어떤 議員은 車室長(車智澈)을 가르켜 ‘부각하’라고 불렀다니 더 할말이 없는 거죠”라는 대목을 읽고 苦笑을 禁치 못하였다.

#### 5) 翻譯에 관하여

西洋文學의 翻譯物을 읽노라면 참으로 이상하게 表現된 즉 한국말 같지 않은 表現을 보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翻譯者가 뭇을 번역하고 있는지 記者 스스로가 알고 있는지의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日本語 翻譯物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小說을 읽는데도 그 속에 담고 있는 內容도 重要하지만 表現의 재미도 무시 못하는 것인데 表現의 재미는 아예 度外視되고 있다.

山岡莊八의 德川家康가 「大望」이란 翻譯名으로 선을 보였다. 여기에서 “바둑을 물리자”를 “기다려라”라고 誤譯하고 있다. 日本語의 マッタ(待)가 기다려라는 뜻 外도 바둑이나 장기에서 한 수 물린다는 뜻이 있다. 記者가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이상하면



日韓辭典을 찾아 보면 곧 알 수 있는 일인데도 그런 努力마저 아끼고 있으니 寒心한 作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韓日辭典의 誤訳도 매우 甚하다. 나는 옛센스 韓日辭典(92年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美人計를 「美人計」라고 翻譯하고 있다. 「美人局」(ツツモタセ)(難訓)의 誤訳이다. 參考로 同社刊行의 日韓辭典을 찾아 보니 「美人計」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 뜻이 통할상 싶은 漢字語는 日本語가 아닌데도 그대로 尙訳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는 職業上 日訳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韓日辭典을 믿지 못하여 日本國語辭典으로 일일이 確認함으로 그 번거로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金賢姬의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가 「지금 여자로서」라는 冊名으로 日本語版이 出刊되었다.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를 日本語로 直訳하면 “당신의 여자가 되고 싶어요”가 된다고 한다. 참으로 음미할만한 이야기다.

#### 6) 한글전용에 관하여

한글전용과 漢字併用に 關한 論爭은 지금도 繼續되고 있으나 점차 한글전용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의 경우 글을 쓸 때는 한글이 쉽고 읽는 처지에서는 漢字가 편리하다.

專用派와 併用派는 서로의 長點들과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다. 그중 專用派의 理由의 하나로 漢字를 익히는데 많은 努力이 들며 併用派의 視覺的効用에 대해서는 「이미지 파악」으로 맞서고 있다. 나의 경우는 併用이 절대로 必要하다고 본다. 다만 어느 線까지 必要한가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意見이 있겠다.

첫째 漢字語는 우리나라 말의 構成面에서는 約60%, 頻度面에서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1957年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에는 漢字語 53.2%(81.362)이며 非漢字語는 46.98%(72.108)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13,006 어휘의 사투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56年 文敎部가 調査한 우리말 使用의 頻度調査에 따르면 漢字語 70.53%(39,563) 非漢字語는 29.47%(16,533)이다.

漢字의 導入이 始作된 것은 漢四郡時代의 108BC頃이며 3~4世紀頃에는 完全히 뿌리를 내렸다. 그 후 漢字語는 擴張되어 李朝時代에 들어 와서는 固有語를 圧倒하면서 言語生活과 文字生活이 二重體系를 이루게 되어 이른바 言文二致의 言語生活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漢字語는 外來語지만 西洋에서 起源한 外來語와 区分되고 固有語와도 區別된다.

둘째 漢字語의 造語能力의 優秀성과 使用의 簡便性이다. 造語性이 強力한 어휘를 그대로 한글로 表現했을 경우 잘못 이해될 염려가 있으며 同音語가 많으므로 해석에서 誤解할 우려가 있다.

셋째 視覺的 呼訴性이다. 우선 말하고자 하는 뜻이 한 눈에 파악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글과 漢字를 比較하면 같은 크기의 活字인데도 漢字가 훨씬 크게 보인다.

셋째 漢字를 배우는데 대한 努力이 問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最少의 努力으로 最大의 效果를 얻는데”에 있어서 最少의 努力마저 아껴서야 말이 되지 않으며 適當한 限度內에서 익힌다고 하면 오히려 韓字로 익히는 것보다 努力이 덜 드는게 아닐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느 程度로 使用하는 것이 問題가 된다. 나의 생각은

① 한 줄에 한 두 單語를 使用하여 讀書에 潤滑劑役割을 하게 하고 印刷文體의 視覺的 美를 꾀한다.

② 造語的인 어휘는 전부 漢字로 쓴다. “利川電機는 日本에 주상 및 배전용 변압기를 수출기로 …”란 記事에서 주상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도 「柱上」 같은데 이런 것은 漢字로 表記했어야 한다.

### 7) 擴散的 讀書

擴散的 讀書란 책속에서, 예를 들어 主人公이 “나는 「知的 生産의 技術」을 읽고 큰 感銘을 받았다”고 말하는 글을 읽고 「知的 生産의 技術」을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경우 擴散的 讀書로 많은 良書를 接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이는 그 作品에서 독자를 위해 두 서너가지 책 名을 薦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韓字를 손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책들을 소개한다.

「우리글 바로 쓰기」 「우리 문장 쓰기」 (이오덕)

「韓國語의 發展方向」 (이기문, 심재기외) (이 책에서 「韓字전용에 관하여」의 漢字語 小考를 引用하였음)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서정수)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이기문)

「갈수록 (喝誰錄)」 (이훈중)

특히 이오덕의 「우리 문장 쓰기」에서 어휘는 小說에서 배워야 한다는 作家役割論을 주장하고 있다.

### 8) 文痴症에 관하여

제가 이번호 편집위원의 한사람으로 뽑혀 33期生에게 執筆의 청탁아닌 독려를 하였던 바 變變히 拒絶을 當하였다. “이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紙面을 割愛하여 絶好의 機會를 주는데도 마다하니…” 하면서 꼬였으나(?) 막무가내다. 알고 보니 文痴症勢인 것이다.

하기야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自己意思를 글로 表現하는 勇氣마저 잃어서는 困難하지 않을까. 文痴症患者를 보면 대개 「어깨」에다 너무 힘을 주다 보니 文章이 이상해지고, 이상해지다 보니 글을 쓸 수 없게 된다.

어떻든 大家들의 文章에 비교하지 말고 自己 생각을 어느정도 정돈하여 차근차근이

쓰면 되는 것이 아닐까.

#### 9) 한글표기에 관하여

한글은 우수하다고 한다. 多様な表現能力과 대개의 소리를 文字化할 수 있는 機能을 갖고 있다. 그러나 國際化나 自動機器化에 難點이 있다. 그리고 表記法에 문제가 있다. 「도쿄」는 어디까지나 도쿄지 도오쿄으로 읽을 수 없다. 日本語로서의 「東京」의 발음은 도오쿄오지 도쿄가 아닌데도 한글표기법은 도쿄를 고집한다. 그 소리를 表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할 수 없겠으나 구지 「도쿄」라고 表記하게 한 것은 한글표기법의 改惡에서 緣由된다. 日本語(姓名이나 都市名같은 固有名詞)는 英訳을 通해서 二重訳을 하는데다가 長音表記가 없으니 表記가 엉뚱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모든 면에서 國際化가 加速化하고 있는 마당에 한글표기법도 실정에 맞도록 改正되어야 한다고 보며 日本語의 発音에 있어 英訳의 二重訳을 免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 도오쿄오를 도쿄라고 表記하고서야 어떻게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관계기관의 깊은 配慮를 바라는 바이다.

## 2. 사투리에 關한 小考

標準語란 一定한 規則에 따라 만들어진 言語로 音韻, 文法, 語彙 등의 모든 면에서 理想的이며 一定地域에서 쓰이는 말로서 우리나라는 ①현재(時代的 條件) ②中流社會에서 쓰는(階層的 條件) ③서울말(地理的 條件)을 標準語로 扱하고 있다.

그리고 사투리는 한 나라의 말 또는 한 系統의 말이 그 쓰이는 地域이나 階層에 따라서 소리, 뜻, 語法 등이 標準語와 다른 말이다. 그래서 方言 시골말, 訛語, 土語 따위로 불리우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사투리 形成의 基本類型을 잘 포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 標準語의 定義에서 사투리는 標準語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 즉 사투리의 必要性을 暗暗裡에 認定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言語란 사람의 思想, 感情, 意思를 表現 傳達하여 理解를 시키는 音声의 符号 곧 사람의 생각을 소리로서 体系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말(言語)의 形成課程은 觀念的이든 實踐的이든 共通되는 經驗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共通된 經驗이 없으면 말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外的環境과의 接觸으로 因하여 言語의 必要가 생겼을 때는 우선 말의 創作(造語)을 試圖하게 되고, 그것이 新통치 못할 때는 다른 地域圈의 既成言語를 導入하여 外來語로서 援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볼때 사투리는 어떤 면에서는 標準語에 對한 內國語의 「外來語」的 機能을 갖고 있으며 有效適切하게 使用한다는 것은 그만큼 豊요로운 言語生活을 可能케 한다. 그 좋은 例로 金東仁氏의 作品을 들 수 있다. 氏는 사투리를 구사하여 內容을 더욱 潤치있게 表現하고 있다.

사투리를 構成面에서 볼때 土語라는 面에서 그 地方의 獨特한 傳統이나 風習 따위를 엿볼 수 있으며 訛語라는 面에서 文化의 흔적을 살필 수 있으며 方言이란 面에서 斷切된 文化나 歷史性을 考証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機能面에서 標準語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많고 또한 一定한 規則性을 갖춘 特徵도 있다.

咸興을 中心으로 한 咸鏡道 사투리에서 이런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말띠」(허리띠)는 騎馬民族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벽」(壁)은 벽들로 된 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戰鬪가 甚한 地域을 말하며 「중간나」(쌍년)은 중+갈보의 合成語로서 戰爭포로의 女중을 일컫는 말로서 이 역시 亂離가 甚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訛語로는 「댕거지」(고추가루)는 唐芥子 빙고(썰매)는 氷車의 訛傳으로서 咸興地方이 漢字圈이었거나 政治人(옛적에는 學者)들의 定配地였으며 그들이 남긴 「有識語」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

斷絶된 文化語로서는 「동삼」(겨울) 「넙다리」(넙적다리) 「남기」(나무) 「나조」(저녁) 등이 있으며 古語로서 標準語에서는 이미 死語로 되었지만 時代가 斷絶된채 쓰이고 있다.

또한 機能面에서는 「비탕질」(도지개를 틀다) 「빨대」(감언이설) 「예스럽다」(장난이 보통이 넘을때 쓰이는 말) 「쿨쾌미」(중아리등이 회초리로 맞아 지렁이 모양으로 생기는 자국) 「찢어 먹다」(산전수전 다 겪다) 「허불러」(에멜무지로) 「하갑다」(어디가 가려워서 매맞고 싶냐라는 등에 쓰임) 「오방재」(책상다리를 하다) 「헤뜨바」(덤비며 허튼소리를 잘 하는 사람) 따위는 標準語를 능가하는 表現의 기능을 지닌다고 보겠다.

특히 規則性의 面에서는 獨特한 點이 있다.

- ① 「+ |」의 變化 …가마(가매) 누구(누귀) 행주「(생쥐)」
- ② ㄱ의 ㅅ化 …기미(지미) 기침(지침) 길(질) 길다(질다) 김장(짐장)
- ③ ㅎ의 ㅅ化 …흥내(승내) 힘(심) 형(성) 행주「(생쥐)」 혀(셋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투리에 대한 認識을 새로이하여 「內國의 外來語」의 次元으로 높여서 語彙의 多樣化, 表現의 豐饒性을 試圖하는 일은 보람된 일이라고 하겠다.

## 後記

사투리의 採集은 그 地方의 標準語를 배우지 않은 中老以上の 사람들로부터 取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避難當時의 中老들이 “거지방” 別世하였거나 남아 있더라도 오랫동안 標準語圈에서 生活해 왔음으로 南韓에서의 함경도 사투리는 그 純粹性이 많이 稀穢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咸鏡道 사투리를 收集, 記錄해 두어야 하겠다는 素朴한 一念이 一部나마 이루어져 咸一三會誌인 關北의 窓 무궁화 版에 함경도 사투리 訛말모음을 附錄으로 실을 수 있는 요행을 얻었으며 이 紙面을 빌어서 사투리의 체계화를 시도해보며 先輩, 同友의

指導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 나의 人生과 纖維

李大鍾(33回)

天山 崑崙을 넘어 敦煌에서 路毒을 푼 아라비아 隊商들이 비단을 찾아 中原을 찾던 때부터 人類는 東西를 莫論하고 비단에 對한 강열한 갈구와 꿈을 갖고 있었다.

이 꿈이 1938年 米國의 듀폰社에 依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실은 石炭과 空氣로 만들어졌으나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대로 人類 最初 最大의 發明品(今世紀의 二大 發明品은 原子力과 高分子 製品이라 할 수 있다)이며 當時 듀폰社가 個人 研究費로 百萬弗이라는 巨金을 當代 天才인 38歲의 캐로샤스에게 供與하여 試驗管 속에서 탄생시킨 合成섬유인 『나일론-6』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人類는 섬유성에 있어 실크보다 월등이 우수한 제품을 量產하게 되었으니, 이 發明이야말로 우리의 衣生活에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가져다 준 始發이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時期에 東洋에서는 日本 京都帝大의 纖維學 教室의 研究室에도 晝夜로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의 碩學李升基 助教授가 그의 試驗管 속에서 P·V·A(폴리 비닐 알콜) 纖維를 合成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일론이 西洋의인 纖維라 한다면(화려하지만 吸水性이 欠如됨), P·V·A는 가히 東洋的이라 할 수 있다(棉에 가깝고 無光이며 OB水性이 뛰어난)

그 후 解放된 祖國에 돌아와 初代 서울 工科大學長에 就任한 李升基 박사는 赫赫한 世紀의 發明品을 生産하고자 하였으나 알다시피 當時의 韓國의 現實은 낙후된 農業國家에 不過하였던 터라 電力과 석탄, 석회석이 不足하고 基盤 公업시설이 全無하였기 때문에 그 畢生의 發明品을 具現하기 위하여 아무일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사랑하던 서울 工科大學을 떠나 開城을 通하여 平壤으로 갔고, 그때 李承晚 大統領도 만류하지 못하고 길을 열어 주었던 逸話를 잇을 수 없다.

運命이라 할까 오늘 이 글을 쓰게 되었고 남들이 纖維 人生을 살았다고 하는 本人은 學校에서 化學을 공부한 터라 1957년 당시 AID資金으로 設立된 美進化學에서 上記 P·V·A 紡絲工場의 파이롯트 프랜트로부터 시작, 공장 건설 完製品 生産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때 가르치고 함께 일한 후배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全合成纖維製造工場을 건설해 이제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주는 幹部가 되었으니, 나의 섬유人生도 그때부터 시작된다.

내 기억에 처음 떠오르는 섬유에 대한 의식과 회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눈보라 치는 밤에 毛糸로 병어리 장갑이 아닌 다섯 손가락짜리 장갑(함흥에서는 수갑이라 했다)을 밤새 짜 주신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당일에 잃어버린 일, 전등불 밑에서 전구를 안에 넣고 꿰매던 양말, 추운 겨울날 양말도 없이 다니던 동급생 개도리를 보며 측은해 했던 일, 어느 가을 날 하학 후에 머루다래 한 광주리를 (지금은 큰돈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입던 헌 메리야스 옷가지와 바꾸어 가던 후덕한 시골 아낙네, 그리고 그녀가 펼쳐 든 삼베 보자기속 가득있에 담은 조밥당이가 측은하여 옷가지를 몇 벌 더 내주시던 어머니, 고마와 하던 그 여인! 대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더 커서는 중학시절, 아버지 白세루바지를 줄여 입으면서 「오리메」를 내어 우쭐대던 일, 어머니가 입지도 않고 가끔 꺼내어 보시던 京都양단, 후지기누 等等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도리켜 보면 참으로 험벗었던 시절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다가 六二五가 터졌다.

함흥, 12月 22日, 눈 내리는 본정거리 본정극장 앞에서 마지막(그때는 마지막이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못했었다)으로 헤어질 때 어머니가 입고 계셨던 옷과 머풀러는 검은 색이었는데, 毛糸로 손수 짜신 것이었다. 검은색을 消化할 수 있었던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니 확실히 패션 감각을 지니고 계셨던 것 같다.

다음해인 1951년 나는 국군 1연대(연대장은 한신 선배였다.) 1대대 2중대 수색대에 소속되어 오대산 上院寺 골짜기에 있었다. 입고 있던 군복은 綿平織 솜누비 옷 한 벌, 미군의 混紡 외투 한 벌과 동내의 한 벌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가진 섬유류의 全部였다. 솜누비 군복이 진눈깨비에 젖어 천근 같은 데 총하며 수류탄, 실탄을 둘러멘 어깨를 파고드는 무게를 감당하며 눈덮인 野戰에서 뛰고 밤에는 피로했던 일들이 病弱했던 내가 용케 치르어 낸 것은 지금 생각해도 實感이 나지 않는다.

요새 등산 갈 때마다 남 모르게 느끼는 것은 防水處理된 휠자켓, 두터운 자켓, 방수배낭, 100% 毛양말 등이 예전에 비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점이다. 섬유산업의 발달, 그 고마움을 아는 요즈음 젊은이는 과연 몇이나 될까 그 어렵던 時節과 오늘의 고마움을 이야기하면 늙은 세대의 잔소리가 될까 妄說이 될까

각설하고, 50年代 후반까지 우리의 衣類 服裝生活은 비참한 것이었다. 좀 나흔 것이라야 청계천가에서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만든 염색술(?)에서 미 군복을 硫化染料에 直接넣어 검정색으로 염색한 것이 고작이고 外國의 저질 毛織物이 마카오 신사복이라 하여 最高品の 代名詞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우리 纖維産業이 발달하여 오늘과 같이 世界的인 輸出國이 되고 그 技術水準도 世界

랭킹에 들게 한 견인 역할을 하신 분은 咸南 文川 出身의 전택보 天友社 사장이라 하겠다.

纖維保稅加工貿易을 創始하고 對美 輸出의 길을 터놓았으며 지독한 유대인(美國輸出商의 大部分이 유대인이다)과의 去來에서 우리 纖維業은 단련되면서 성장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總輸出高는 美貨2천만弗에 불과했고 그것도 一次商品인 重石等 鑛山物이 主宗을 이루었고 纖維제품은 不過 壹百萬 弗 未滿이었다.

오늘날 155億弗의 單一 섬유類 輸出高를 記錄하고 있으니 가히 천문학적인 發展이며 伸長이라 하겠다.

할애된 紙面이 몇 장 남지 않았으니 北韓쪽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70年代에 올진 공비 침투사건이 있었다. 그 해 日本 纖維關係 新聞을 읽던 나는 좀 의아스러운 기사를 보았다. 日本의 한 原緞 메이커가 北韓에 壹百萬 야드의 나일론 다후다 210T를 船積하였다는 것이었다(나일론 다후다는 보통 一般에선 190T를 사용한다). 나일론 다후다 210T는 高密度 製品으로 防水 방풍 처리를 하면 即時 軍需用으로 轉用할 수 있다. 民需用일까 軍需用일까. 軍需用이라면 특수부대 25萬名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들은 확실히 전쟁을 준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설은 그만두자. 북한은 원체 음흉하고 폐쇄적이라 거의 모든 資料가 入手되지 않는다. 몇 가지 資料를 表로 보는 것이 時間을 단축하고 理解에 도움이 되겠다.

北韓에서의 연간 생필품 지급 現況은 가구당 비누 47個에서 8個로, 신발은 1人當 4 켤레에서 1켤레로, 작업복은 2벌에서 1벌로 지난해부터 격감되고 있다.

李升基 博士가 세운 宣川 비니론 工場의 제품마저 충분히 돌아가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힘에 겨운 重工業이나 武器 제조에만 매달리다 보니 그 혼한 석회석에서 나오는 카바이드를 原料로 하는 비니론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추위에 노출시킨 사정이 정말 안타깝다.

内訳	国別	한 국	북 한
人口(單位千名)		41,975	21,030
纖維(萬噸)		136	12
신발류(百萬足)		600	62
合成樹枝(萬噸)		242	15
수 출(10억불)		61.41	1.95
수 입(10억불)		56.81	2.85
텔레비전(萬臺)		1217	24

(1989年末 現在)

그쪽 사정을 더 가까이에서 접한 것은 筆者가 中國 天津에 섬유관계 合資會社를 設立한

三年前부터 中國을 드나들면서였다. 북쪽의 아낙들이 乾太 몇 드림을 갖고 두만강을 건너와 연길에서 바뀌가는 것은 옷가지요 메리야스 조각에 자투리 천이었다. 中國의 人民服 차림옷이 흡사 내가 軍에서 입었던 누비防寒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입에서 그보다 形便없다는 이북 복식 衣類生活을 들을 때, 食口를 북에 두고 온 사람의 가슴은 마구 찢어지는 듯 하였다. 내가 北韓의 纖維를 처음 손에 쥐어 본 것은 乙丑年(1985) 水災 때 以北에서 보내온 捺染綿布 두 마였다. 職業이 職業인 터라 그 捺染 상태가 二度 나염인데 亂雜하고 染料는 粗低價品이었다. 原緞의 幅은 36吋로 우리는 60年代 初에 스크랩시킨 機種이었다. 品質은 이불 안감에나 쓸만한 것이었다. 多幸히 끝부분을 손에 넣은 터라 生産者名이 있었다. 『威興毛紡織工場』이라 表示되어 있었는데, 함흥이라는 두 글자만이 내 눈을 오랫동안 파고들었다. 주요 毛紡織工場에서 綿織物을 生産한다? 그런 의문이 오래동안 머리에 머물렀다.

북의 주요 貿易關係機關을 살펴 보면 아주 垂直的이고 一括窓口制度를 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競爭의인 面은 전혀 없으니 發展에는 限界가 있다. 調査한 바에 依하면 約 114機關으로 거의 平壤에 集中되어 있고 그것도 中區域이다. 114個中 纖維 關係를 專擔하는 『朝鮮纖維協同貿易商社』 平壤東大院에서는 작업복 셔츠, 니트類 衣類 織物 纖維原料를 『第四貿易商社』 平壤 中區域은 셔츠 바지 스포츠衣類 니트類, 衣類, 織物類 衣類의 金屬, 장식물의 輸出入을, 『大聖第二貿易商社』 平壤 中區域은 織物類 衣類 타일 및 스포츠衣類 우산 防水服 其他를 取扱하고 있으며 上記 三個 機關이 全部이다.

威興에는 없나하고 찾아 보았다. 纖維關係機關는 없고 威興의 唯一한 對外 貿易關係機關으로는 『朝鮮咸川江貿易會社』이 있으며 取扱品目은 鉛, 貴金屬 등, 非鐵金屬製品 마그네샤크링카, 雲母, 非金屬鑛物 黃酸마그네슘 비료, 漢藥材(高山採取), 水產物, 오리털 農產物 및 土產品 등이며 거의가 一次產品인 데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정말 한 나라가 살아가는데 이런 좁은 窓口를 가지고 오늘의 世界를 살아갈 수 있을까. 백성들로 하여금 『고깃국 먹고 비단옷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資本主義 체제에 길들여진 나의 思考로는 안타깝게도 정말 理解가 안 된다.

답답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나는 버릇대로 꿈을 꾸어 본다. 統一된 祖國의 纖維業에 對한 꿈이다. 原來 纖維業 發展過程도 自然의 影響이 絶對的이다. 四季節이 뚜렷하고 가을의 타는듯한 丹楓의 붉은 色을 볼 수 있는 地域에서 發展하였고 패션도 創出되었다. 지금 科學文明이 發達한 오늘날에도 常夏의 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等地에 우리 纖維業界가 大舉 進出하여 輕衣料(셔츠, 블라우스 등) 제품은 잘 만들지만 重衣料 제품이 뒤지는 것은 눈(雪)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限界性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半島라 南北의 겨울 기온차가 20°를 오르내리고 四季가 뚜렷하니 우리는 모든 分野의 製品을 消化할 수 있고 韓山모시를 만든 우리조상들의 纖細性이 이어져



있으니 금상첨화라 하겠다.

그리고 사람이다. 人口가 7千萬이나 되어야 內需市場도 發展하고 輸出도 함께 安定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南北의 155마일 DMZ에 상치하고 있는 150萬 젊은이들이 産業戰線에 投入되고 남쪽의 資本集約的 技術集約的 知識집약적 纖維産業이 北의 優秀人的 資源과 結合되고 人口는 8千만을 바라보며 GNP도 10,000弗을 바라볼 때를 상상해 보라.

지금 세계 패션업계는 파리에서 뉴욕, 도쿄로 옮겨가고 있다. 向後 十年, 東京와 서울을 잇는 패션산업이 세계의 새로운 軸으로 浮上할 것이 틀림없다. 人口 13億의 中國, 3億의 蘇聯과 그 넘어 EC블럭과 陸路로 연결된 韓半島인 만큼 풍부한 原料源과 消費市場을 가까이 하고 있는 纖維業界를 상상해 보라!

東方 하이웨이와 高速電鐵을 타고 우리 제품을 그리고, 우리의 패션을 찾아오는 사람의 물결이 서울驛 플랫폼을 꼭 메울 것이다. 서울로! 서울로! 世紀의 새로운 환상의 실 크로드가 열린 것이다.

## 餘暇善用

李七煥(33回)

아무리 바쁜 사람에게도 餘暇善用은 있기 마련이다. 옛날 사람들은 바쁜사람이 가끔 한가한 시간을 맞이할때 그것은 忙中閑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時間을 어떻게 값있게 보내는가 하는것은 그사람의 個性과 趣向에 달렸다고 하겠다.

近間 車中에서나 飛行機속에서 몇 사람씩 둘러 앉아서 의자를 적당히 돌려놓고 소위 한국판 카드놀이(고-스톱)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간혹 눈에 띈다. 餘暇利用치고는 좀 생각해 볼일이며 더욱이 外國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는 좁은 國際社會라고도 할 空間에서 보느니로 하여금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렇고 보면 餘暇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것은 그냥 時間을 消費한다는 概念보다 時間을 어떻게 善用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餘暇善用이 各者의 人格과도 無關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지나친 이야기라고 할 수만은 없을것 같다.

그렇다고 반대로 餘暇善用에까지 生産的이며 知的인것을 強要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 人間은 休息을 통하여 情緒를 가다듬고 肉體的 精神的 「스트레스」를 해소한후 肉體的 精神的 「에너지」의 再蓄積을 얻게끔 한다면 그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餘暇善用을 잘 한 사람인가하고 묻는다면 그것의 計量的 測

定역시 不可能한것이니 각자가 自己滿足을 하면 그만인 것이다.

다만 남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다면 하는 단서만 붙여두자. 이런점에서 과연 나는 餘暇를 어떻게 善用하고 있는가 自問自答해 보고져 한다.

누가 당신의 趣味가 무엇이며 休日이나 餘暇에 무엇을 하느냐로 묻는다면 선뜻 할말이 없는것이 나의 경우이다. 남들처럼 休日이나 週末에 餘暇善用을 위한 計劃을 세워두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혹시 친구가 野외의 散策이나 旅行을 하자고 하면 웬만한 일이 아니면 同調하여 따라 나선다. 그리고보면 自己가 세운 計劃에 의해 餘暇를 즐기는것이 아니라 남이 세워놓은 計劃에 恒常 따라가는 格이니 다시 말해서 自己趣味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듯 하다.

대체로 日曜日 아침에서야 오늘은 무엇을할까 하고 기지개를 펴 본다. 그렇다고 日曜일에 낮잠이나 자고 온종일 집에 파묻혀 있는것도 아니다. 아무튼 쉬는날엔 可及의 집에 있지 않는것이 常例이고 보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趣味인지 모르겠다. 구태여 그것이 무슨 趣味生活인가 하고 약삭빠르게 묻는다면 구태여 변명할 생각도 갖지 않는다. 이런 生活속에서도 가끔 나의 生活周邊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어떤때는 남들이 가지않는 映畫館에 집사람과 같이 간다 그것도 外畫가 아닌 國產映畫이다. 예를들면 韓國의냄새가 풍기는 映畫題目으로 「미워도 다시한번」하는 따위다. 구태여 심각한 映畫나 藝術性을 갖춘 內容을 鑑賞하는것도 아니며 구수한 內容을 가진 것이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이런 趣味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나도 잘 모른다. 映畫館에 가면 때로는 「틴에이저」들이 우리 夫婦의 얼굴을 쳐다 볼 정도로 우리 年齡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그런데 묘한것은 映畫館에 갈때엔 차림부터 原色이 되니 十年은 젊어 보이리라. 이런 行動이 格에 맞지 않는 주책이 아니겠는가? 映畫를 鑑賞한다기 보다 그저 쳐다 보는것이고 보면 웃음이 나와 웃는 것이다. 그런가운데 人間의 純粹眞味를 찾아 보는것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現實과 過去를 連結해 보는데서 새로움을 찾고 있는 것이다.

映畫를 보다보니 아직도 뇌리속에 生生하게 남아있는 映畫는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서 참 印象的이었다.

그래서 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의 「테마」 音樂으로부터 映畫 全편에 흐르는 노래들이 모두 담긴 「디스크」를 사다두고 때로는 그 映畫內容을 「디스크」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어가며 印象깊었던 映畫의 場面場面을 다시 음미하면서 時間을 보내는것을 즐기기도 한다.

옛날에 본 映畫가운데서 생각나는 印象깊었던 映畫로 「콰이강의 다리」가 있다. 그 映畫音樂의 씩씩함을至今도 심심할때면 되새기면서 혼자 웃곤한다.

그 映畫의 한토막 한토막 즉 「콰이강의 다리」를 창이 다 닳아 빠지고 구두 대가리가

뺨 뚫릴 정도로 낡은 軍靴를 신고至今은 포로의 신세지만 軍人精神을 잃지 않고 音樂에 맞추어 行進하는 勇士의 모습 모습들 「데이비드 린」 감독의 유명한 상황묘사를 감탄하면서 흘러나오는 電蓄속의 行進曲을 듣고 그 映畫에 잘도 어울린다고 또 한번 감탄해 보기도 한다. 멋진 映畫에 멋진 音樂이다. 더더욱 멋진 行進이다. 나에게서 세계의 어떤 다리보다도 이 「콰이강의 다리」가 가장 유명한 다리인 셈이다.

이렇게 적고 보니까 趣味를 대라고 다구치지 않아도 자연 映畫鑑賞이나 音樂鑑賞이 내 趣味처럼 되어 버렸다고 슬그머니 시인하고 싶은 생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게는 또 하나의 鑑賞趣味가 있다. 麗水에 있는 湖南火力發電所에 근무할 당시의 이야기다. 日曜日이면 적당한 會社 사택에서 혼자 지내기에는 무엇인가 不足함이 더 많았고 空虛한 時間을 무엇으로라도 메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찾아낸 것이 日曜일에 있던 「아마추어」 日曜畫家協會의 活動이었다. 아침에 「캠파스」를 둘러메고 日曜畫家協會 會員들과 같이 덜컥거리는 市外버스를 타고 한 시간쯤 걸리는 시골 산길을 거쳐서 때로는 海邊에 가서 「캠파스」를 앞에 펼쳐 놓고 自然을 鑑賞하며 「오일 페인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숨씨 좋은것은 아니지만 熱心히 굶고 칠하다 보면 婦家무렵에는 그 나뭇대로 비슷한 그림이 한폭 그려진듯 했다.

한때 麗水市内 모茶房에서 日曜畫家 展示會가 있으니 한 폭의 그림을 내놓아 보라고 성화가 자심해서 그 엉터리 그림을 한폭 내 놓았더니 그지방 機關長 사이에 評이 자자하였다. 그 評이란 잘 그렸다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림에는 문외한인 내가 그림을 그렸다는 바로 그 事實이었다. 그림을 그리는것도 다 藝術的인 素質이 있고 理論도 알고서 그려야 할것이지 덮어놓고 그린 그림이니 누가 그것을 그림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勇氣만은 있어서 난생처음 그림을 出品했으니 말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저씨라고 젊은 층의 日曜畫家 會員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근댔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至今도 움찔해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日曜畫家協會 會員이된 후부터는 作品展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억지 비평가가 되니 말이다. 「비구상」이니 「구상」이니 하며 그림의 「톤」이 어떠하고 무슨파에 속한 그림이니 운운하는 것이 자못 주제넘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렇지만 어느덧 나의 趣味는 美術鑑賞에 차츰 接近해 가며 美術에 愛着을 느껴감을 어찌하라! 無趣味란 나의 生活속에 처음으로 趣味라는 것이 하나 마련된 느낌이다.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그림의 特性은 무엇이며 「밀레의 晚鍾」은 무엇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는 등 그림의 初步的 「알파벳」 같은 소리가 나는듯 하면서 어느 사이에 나의 書齋에는 韓國現代美術作家 一百人 選集이 꽂혔고 「고야」의 「웃는 마야」를 보고 「아마추어」적인 鑑賞을 애써 해보는 趣味마저 생겼으며 「모네」의 生涯와 作品들이란 책도 書架에 꽂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변한 趣味生活의 단면을 말해 주는듯 하되 이제와서는 다

새로운 鑑賞趣味가 나의 無趣味生活에 큰 發見이라고 생각해본다. 이것을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大陸 發見에 비유한다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은 열번 된다」는 俗談도 있다. 이를테면 工學徒인 나에게 언제 이런 情緒的인 경향이 잠재해 있었는지 다시 몰랐던 自身の 斷面을 發見하고 야릇한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어떻든 趣味를 안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다못해 대야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뒷발축 두꺼운 층의 때를 돌로 살살 문질러 대든가 아니면 무딘칼로 긁어내면서 달걀 앞대가리처럼 둥글한 발꿈치가 處女의 볼처럼 뽀해지는 「청결」의 속성에 흐뭇해 하는것도 여가의 趣味라면 趣味라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누구에게 있어서나 趣味란 自我를 살찌게 했으면 했지 손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餘暇에 趣味生活을 하면서 人生의 멋진 航海를 해보도록 권해보고저 한다.

人生은 60부터라고 하고 70부터라고도 한다 다 해보는 이야기 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마냥 期待하면서 살아가는것이 人生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얻어진 餘暇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이 오늘의 課題가 아니겠는가라고 自問自答해 본다.

1992. 4. 28

## 토막 소식

- 姜錫福(7回) 同窓께서 米壽(88세)를 맞이하여, 저서 “재미있는 건강이야기” 1,2권 출판 기념회를 92년 9월 25일 힐튼호텔에서 개최 .
- 故 金載元(9回) 前 會長의 自叙伝 “博物館과 한 平生” (副題 初代 博物館長의 自叙傳)이 遺族들에 依하여 1992年 4月 二週忌에 發刊, 遺稿集 “景福宮의 夜話”가 1991년에 發刊 되었고, 앞으로 論文集 “考古學과 美術史” 및 隨筆集 “東西를 넘나들며”를 發刊 予定
- 朱槿源(19回) 同窓이 1991年 6月 도민복지에 애쓴 공로로 咸鏡南道民賞(文化部門)을 받음.
- 金興洙(20回) 同窓이 1990年 6月과 11월에 佛蘭西 룩셈부르크 美術館과 서울의 現代美術館에서 “김홍수 조형수의 미술전”을 각각 開催, 1992年 10月 유나 画廊에서 新婚의 夫人 장수연 女史와 함께 夫婦美術展을 開催.
- 李世得(23回) 同窓이 1991年 3月 호암아트홀에서 個人展 開催.
- 鄭良殷(23回) 前 서울大學校 教授(心理學)가 1992年 4월에 學術院 會員으로 被選.
- 朴泳馥(24回) 同窓이 1990年 6月 世宗文化會館에서 個人書芸展 開催, 1991年 5月 北京에서 開催된 南北韓漢合同書畫展에 南側團長으로 參加.
- 石東壽(26回) 同窓이 1991년에 “石東壽隨筆集” 및 “구라과 旅行記”를 發刊
- 李三悅(26回) 同窓이 1991년에 “臨床病理 解釋法” 및 自叙傳 “一夜 隨想錄”을 發刊
- 韓炳瑚(26回) 同窓이 1991년에 著書 “高校數學이란 무엇인가”를 發刊
- 朴定仁(30回) 豫備役 准將이 6. 25 參戰 經驗을 主로 綴은 自叙伝 “風雲의 별”을 1990年 9월에 發刊. 白骨師團長 在職時 中部戰線 前方高地에 統一紀念塔을 세워 失鄉民에게 望鄉祭를 지내게 한 功勞로 1992年 5월에 咸鏡南道民賞(統一部門)을 받음.

- 李鎬汪(30回) 高大 教授가 流行性出血熱 研究로 1991年 6月 咸鏡南道民賞(學術部門)을 받음
- 申裕恒(30回) 慶熙大學教授가 1991년에 “韓國 나비圖鑑”을 發刊.
- 高庚式(31回) 同窓이 1991년에 “管束植物 分類學”과 “韓國植物檢索圖鑑”을 發刊.
- 金泰(31回) 서울大學校 教授가 1991年 5월에 回甲紀念 個人展을 선 画廊에서 開催.
- 朴祚烈(31回) 同窓이 1991년에 戲曲集 “오장군의 발톱” 發刊, 1992年 8月 블라디보스톡에서 開催된 太平洋國際演劇祭에서 “오장군의 발톱”이 韓國現代劇의 代表作으로 招請公演됨.
- 李哲範(31回) 同窓이 1990年과 1991년에 詩集 “現代의 默示錄”과 “憲法 才1條는 民主共和國이다”를 發刊.

※ 이 토막소식은 同窓會誌 才3号 發行 이후의 것에 限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同窓會基金 造成 沿革

월남한 우리 함흥고보(함남중학) 동창들이 언제부터 在南 同窓會를 가졌는지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6.25동란 수복후 崔榮杞(5回), 朱洛章(7回), 河洪權(27回), 趙東喆(28回) 등 동문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애쓰는 때 부터의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것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그동안 돈 가치가 너무나 변동하였기 때문에 89년도 이전 분과 90년도 이후 분을 구분해 기록하였다.

在美同門들의 찬조금은 金滢次 회장이 同窓會誌 간행을 돕기위해 애써 모금해 주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在南會員 개인 찬조금이 12,730,000원, 各 期別 찬조금이 6,385,000원, 在美會員들의 찬조금이 4,050\$(換弗 韓貨額 3,116,544원)로 모두 합쳐 22,231,544원이 된다.

## 同窓會基金 贊助內譯

## 1. 個人別

(92. 9. 15 現在)

姓 名	回期	贊 助 金 額			金明植	20	10,000		10,000
		89年以前	90年以後	計					
李東準	1	50,000		50,000	權泰弘	20	50,000		50,000
金桂淑	5	10,000		10,000	文哲	20	10,000		10,000
趙澤元	5	10,000		10,000	金興洙	20	20,000	400,000	420,000
姜洙構	6	190,000		190,000	朱仁鎬	21		600,000	600,000
朱 源	6	30,000		30,000	李舜益	22	20,000		20,000
姜錫福	7	20,000		20,000	趙在衡	22	220,000	500,000	720,000
金世偉	7	20,000		20,000	崔龍煥	22	5,000		5,000
朴洋煥	7	10,000		10,000	朴東昴	23	180,000	1,050,000	1,230,000
金昌洙	8	20,000		20,000	崔敏煥	22	30,000		30,000
朱翼淳	9	20,000		20,000	韓 震	23	30,000		30,000
金載元	9	70,000		70,000	金瑛河	23		100,000	100,000
咸泰元	9	10,000		10,000	周熹銓	24	50,000	300,000	350,000
李東沂	10	30,000		30,000	金泰錫	24	20,000		20,000
朴忠鎮	11	20,000		20,000	金鉉五	24	20,000		20,000
朱元鎬	12	30,000		30,000	金廷圭	24	150,000	50,000	200,000
金鼎鉉	13	30,000		30,000	高明元	24		100,000	100,000
安容彪	14	20,000		20,000	柳炯極	24		200,000	200,000
金連珪	16	900,000		900,000	廉仁必	24		100,000	100,000
崔昌植	16	50,000		50,000	韓時坤	24		100,000	100,000
金聖河	16	30,000		30,000	朴泳馥	24		100,000	100,000
金漢范	17	30,000	100,000	130,000	黃柄峻	25	100,000		100,000
趙漢龍	18	50,000	500,000	550,000	盧庚昞	25	30,000		30,000
朱東雲	18	10,000		10,000	朴承咸	25	60,000		60,000
崔英植	18		50,000	50,000	韓鼎燮	26	30,000	600,000	630,000
朱權源	19	120,000	200,000	320,000	河洪權	27	150,000	400,000	550,000
朴旻會	19	20,000		20,000	元章煥	27	200,000	500,000	700,000
金河駿	19	60,000		60,000	劉 鋼	27		300,000	300,000
洪滢杓	20	130,000	800,000	930,000	金允喜	28	30,000	100,000	130,000



宋榮晃	28	50,000		50,000	李鎬汪	30		100,000	100,000
辺道燁	28	10,000		10,000	高明三	30		100,000	100,000
金鉉鎬	28	20,000		20,000	白昞烈	30		100,000	100,000
金鳳湜	28	10,000		10,000	韓相淇	30		100,000	100,000
趙東喆	28	80,000		80,000	全龜淵		105,000		105,000
魯一協	28		100,000	100,000	金致敬	31		200,000	200,000
鄭哲周	29	30,000	200,000	230,000	金明哲	31		100,000	100,000
朴溶夏	30	50,000	200,000	250,000	朴勝宰	32	50,000		50,000
李元鏞	30		150,000	150,000	李七煥	33		100,000	100,000
李善植	30		400,000	400,000	小計		3,930,000	8,800,000	12,730,000

## 2. 回期別

回期	回順	贊助金額							
		89年以前	90年以後	計					
15	15	50,000		50,000	25	25	220,000	250,000	450,000
16	16	100,000		100,000	26	26	200,000	50,000	250,000
19	19	50,000		50,000	27	27	320,000	300,000	620,000
20	20	150,000		150,000	28	28	330,000	150,000	480,000
21	21	350,000	100,000	450,000	29	29	250,000	450,000	700,000
22	22	30,000		30,000	30	30	490,000	300,000	790,000
23	23	150,000	100,000	250,000	31	31	320,000	350,000	670,000
24	24	200,000	250,000	450,000	32	32	230,000	260,000	490,000
					33	33	155,000	230,000	385,000
					小計		3,595,000	2,790,000	6,385,000

## 3. 在美洲 同窓 個人別

姓名	回期	贊助金額							
		89年以前	89年以後	計					
馬鍾國	8	\$70	\$50	\$120	朱翰裕	21	20		20
金子勳	15	80	50	130	文相駿	22	30		30
金滄次	15	200	100	300	玄鳳學	23	50	100	150
都相禧	19	30		30	金應浩	24	100	50	150
韓大淑	20	550	50	600	金秉萬	26	30		30
李壽永	20	100	100	200	李柱衡	26	50	30	80
金時彥	21	30	50	80	吳炳憲	26	20		20
					金澤濟	26		100	100
					金東萬	26		30	30

曹圭榮	27	50		50	韓萬燮	30	70	100	170
朴昭會	27		100	100	高勝榮	30	200		200
李英得	28	20		20	曹秉均	30	50		50
金和極	29	100		100	金恭根	30	80		80
李通燦	29	100		100	趙哲	30	20		20
韓世鎬	29	100		100	申森熙	30	30		30
朴浩高	29	100		100	李仁根	30	50		50
金淳郁	29	80	50	130	黃載鎭	31	100		100
金在楨	29	80		80	朴炳元	31	100	50	150
金培石	29	50		50	韓碩愚	32	50		50
金弘杓	29	100		100	小計		\$2,990	\$1,060	\$4,050
金雄植	29	100	50	150	換弗額		2,285,186	831,358	3,116,544



# 同窓會員名簿

이 名簿는 咸興高(咸南中) 卒業生 全部를 卒業年度別로 總網羅한 通例的인 同門名簿가 아니라 越南한 同門중 在南 또는 海外居住者로써 連絡이 닿거나 連絡이 두절된 同門들을 各期幹事들이 期別로 整理作成한 것이다. 또한 이 名簿中에는 日帝時 思想問題, 休學 또는 其他 理由등으로 卒業을 못했거나 留級된 分들로 期別모임 참석 또는 連絡可能與否等 實情을 참작하여 入學同期 또는 卒業同期에 包含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 任 員 및 期 幹 事 名 單

任員區分	回 期	姓 名	住 所	電 話 番 號
名譽會長	1	李 東 準	松坡區 蠶室5洞 住公아파트 518-806	423-1630
會 長	23	朴 東 昴	江南區 開浦洞 449-3 現代아파트 202-803	576-3636
副 會 長	21	朱 仁 鎬	城東區 杏堂1洞 320-10	295-2225
副 會 長	26	韓 鼎 燮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副 會 長	27	劉 鋼	松坡區 三田洞 94-8	413-3276
監 事	29	鄭 哲 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아파트 6-105	483-0019
總 務	30	朴 溶 夏	城東區 玉水2洞 現代아파트 101棟 202號	297-9821
副 總 務	31	金 明 哲	城北區 長位洞 225-8	916-8712
幹 事	8	朱 洛 璋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1 감천장	(032)45-1018
幹 事	10	李 東 沂	경기도 의왕시 학의1동 438-2	(0343)53-3048
幹 事	13	蔡 永 福	陽川區 木洞 王子아파트 10-201	646-4144
幹 事	14	安 鎔 彪	恩平區 녹번동 82-2	385-6039
幹 事	15	蔡 奎 燦	恩平區 津寬內洞 299-74	359-5489
幹 事	16	金 斗 漸	西大門區 弘恩洞 338-165 코롱빌라 1棟 308號	302-5364
幹 事	17	金 漢 苑	鍾路區 紅把洞 19-1	737-2080
幹 事	18	韓 翊 洙	道峰區 放鶴洞 新東亞아파트 9棟 701號	904-3215
幹 事	19	朱 槿 源	城北區 城北洞 97-28	742-2337
幹 事	20	金 世 龍	富川市 南區 역곡2洞 47-2 무림빌라 B-101	(032)652-9937
幹 事	21	元 勳 基	恩平區 龜山洞 210-31	355-8792
幹 事	22	申 泰 燦	蘆原區 下溪洞 132부럭 現代아파트 105-808	979-1423
幹 事	23	朱 圭 演	江南區 開浦洞 住公아파트 224棟 306號	576-4977
幹 事	24	金 東 勳	果川市 別양동 住公아파트 507棟 506號	502-5930
幹 事	25	韓 承 五	道峰區 水踰5洞 412-140	902-2309
幹 事	26	韓 鼎 燮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幹 事	27	尹 元 基	城東區 中谷洞 259-23	467-8992
幹 事	28	趙 東 喆	江東區 遙村洞 住公아파트 313棟 802號	471-6210
幹 事	29	鄭 哲 周	江東區 吉洞 新東亞아파트 6-105	483-0019
幹 事	30	白 昞 烈	中區 獎忠洞 2가 55	277-0564
幹 事	31	金 明 哲	城北區 長位洞 225-8	916-8712
幹 事	32	金 仁 和	道峰區 번洞148-377 B02	983-7105
幹 事	33	金 基 元	鍾路區 東崇洞 市民아파트 13-103	762-9698

## 回期別 名單

### 第 1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李 東 準	138-220	松坡區 蠶室5洞 住公아파트 518-806	423-1630		

### 第 2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韓 泰 然					

### 第 4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尹 範 模					

### 第 5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吳 正 根					
李 廷 浩					

### 第 6 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楨 龜	110-542	鍾路區 昌信2洞 640-249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李 鐘 奎	在美	

### 第 6 回(新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聲 遠					

## 第7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趙 啓 聖	301-060	大田市 中區 銀杏洞 72	254-5400		
蔡 洙 崗		公州			

## 第7回(新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 錫 福	110-042	鍾路區 樓下洞 236	737-4342		752-9739
金 世 偉	135-091	江南區 三成2洞 147-12	556-3386		

## 第8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鍾 偉					
朴 在 極	470-920	楊平郡 江下面 成德里		養蜂業	
李 經 濟					
趙 永 星					
朱 洛 璋	449-050	水原市 長安區  영화동 441 감천장	(032)45-1018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 仁 燮	在美	
金 龍 涉	在美	
池 鏞 夏	在美	
馬 鐘 國	17060 KING JAMES WAY #520 GAITHERSBURG. MD 20877 U.S.A	

## 第9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述 奎	133-093	城東區 金湖洞 3街 487			
咸 泰 元	130-020	西大門區 西小門洞 53-2	752-1932	북창병원	
朱 翼 淳					



## 第10回(舊制)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聲近	137-061	瑞草區 方背1洞 917-4	585-0268		
金淳葉	137-071	瑞草區 瑞草1洞 瑞草빌라 나-202	585-2255		
金正中	110-510	鍾路區 東崇洞 1-113	762-0837		
朴俊基					
劉正學					
俞鎮河	137-040	瑞草區 盤浦洞 盤浦아파트 20-310			
尹鍾杰					
李東沂	437-090	경기도 의왕시 학의1동 438-2	(0343)53-3048		
咸錫玖					
蔡熙甲	157-012	江西區 禾谷2洞 396-9	602-0722		

## 第11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澤璜					
金基燮					
金弘鎮					
金炯澤					
李壹教					
李在玉	301-111	大田市 中區 龍頭1洞 20-20	256-6938	충남합동법률사무소	26-9736
金永商	110-010	鍾路區 新堂洞 214-29	352-2289		
黃起然					
金 璽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都遠涉	在美	

## 第 12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李 升 圭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三扶아파트 9-1303	782-5167	서울대명예교수	
金 廷 鶴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80-201	542-2824		
文 希 樂					

## 第 13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鼎 鉉	122-050	陽川區 新亭洞 木洞아파트 907棟 402號	645-3759		
李 大 林	140-190	龍山區 厚岩洞 352-7	754-8525		
蔡 永 福	158-050	陽川區 木洞 501 왕자아파트 10-201	646-4144		
李 英 植					
黃 東 駿					

## 第 14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安 鎔 彪	122-020	恩平區 녹번동 82-2	385-6039		
李 秉 植					
黃 德 駿					

## 第 15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熙 春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81-705	544-9681	서울대명예교수	714-7939
金 信 熙	140-140	龍山區 西界洞 53-20	542-6883		
盧 瑞 玉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79-501	542-6883		
朴 俊 燮	136-054	城北區 東仙洞 4街 359-2	94-9875		
金 永 燮	473-870	南楊州郡 조안면 능대리	(0346)66-4595		
蔡 奎 燦	122-120	恩平區 津寬內洞 299-74	359-5489		
咸 潤 根	151-057	冠岳區 奉天7洞 1616-23 정우빌라 307號	889-0157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金基惠	144-14 38 AVE. #4C FLUSHING, NEW YORK 11354 U.S.A.	718-939-1713
金子勳	2-54 149 ST. WHITESTONE, N. Y 11357 U.S.A.	718-352-9439
金濠次	2352 LINWOOD AVE. #4C FORT LEE, N.J. 07024 U.S.A.	201-585-0813

## 第16回

姓名	郵便番號	住所	電話	現職	電話
姜穩求	157-040	江西區 鹽倉洞 242-11	694-5611		
金斗漸	120-100	西大門區 弘恩3洞 코롱빌라 1棟 308號	302-5364	세운고예사	267-0431
金弘集	430-081	安養市 호계1棟 일신아파트 3-501	(0343)57-0225		
金麟河	152-082	九老區 高尺2洞 24-144	682-2389		
方成勤					
崔昌植	110-054	鍾路區 社稷洞 311-21	735-1695	友昌貿易(株)	275-1691
韓建淑					
韓弘林	401-040	仁川市 東區 송현동 東新아파트 2-1103	(032)764-8022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金星奎	6547 E. MARENGO DR. ANAHEIM CA. 9280 U.S.A.	
劉漢鳳	610 S. CARLYN SPRINGS RD. WOODLAND HILL #228 ARLINGTON, VA 222204	703-578-3173

## 第17回

姓名	郵便番號	住所	電話	現職	電話
金漢范	110-092	鍾路區 紅把洞 19-1(舊名金鋪八)	737-2080		
朱永在	621-170	慶南 金海 양산	(0523)83-5375	仁濟大學金海캠퍼스	
韓昌淑	137-040	瑞草區 新盤浦洞 韓信2次아파트 108-402	533-1595		
韓萬燦	600-091	釜山市 中區 大廳洞 1街 38		문화옵셀사	
高允明	235-900	江原道 三陟郡 道溪邑		中央病院	
文昌沼		釜山市			

## 第 18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完龍	140-030	龍山區 二村洞 302-86 빌라멘손	797-6995		
金寅彪	130-080	東大門區 里門洞 346-51	962-6588		
朴謙會	140-111	龍山區 元曉路 1街 17-8	713-1150		
徐永昱	157-240	江西區 空港洞 71 6統 4班	664-6326		
李中性	132-030	道峰區 雙門洞 現代아파트 101-604	906-9036		
趙漢龍	110-340	鍾路區 益善洞 91	765-3577		
朱東雲	110-012	鍾路區 平昌洞 345-76	352-4295	鍾路2街朱東雲X레이醫院	735-0559
崔英植	137-040	瑞草區 盤浦洞 1-8 京南아파트 11-1002	537-1919	浦項硅砂鑛山事務所	73-6146
韓蒙淑	122-070	恩平區 驛村洞 75-25	359-0480		
韓翊洙	132-023	道峰區 放鶴洞 新東亞아파트 9棟 701號	904-3215		
韓宗鎬	464-8900	廣州郡 五浦面 능평리 수리고을 515-1	(0342)44-2916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金義鉉	124W. FRANKIN ST, #413 BALTIMORE, MD 21201 U.S.A.	301-752-1944

## 第 19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永濟	427-010	果川市 中央洞 67 住公아파트 1017-302	502-7920	카톨릭의 대명예교수	
金河駿	137-040	瑞草區 盤浦洞 新盤浦아파트 22-1009	536-9600		
朴旻會	135-120	江南區 新寺洞 534-24	542-3293		
朴炳원	135-110	江南區 狎鷗亭洞 現代아파트 33-305	542-4505		
李湧垣	430-050	安養市 비산洞 417 미림아파트 7-1105	(0434)41-3190		
李在亨	137-170	瑞草區 廉谷洞 265	573-4089		
朱權源	136-020	城北區 城北洞 97-28	742-2337	한국자동차보험(주)	273-9350
韓景鎮	131-040	瑞草區 盤浦洞 新盤浦아파트 101-408	302-1579	연세약국	
韓榮	121-240	麻浦區 延南洞 561-8	322-2718	부천보건소	6-0018
韓弼夏	140-210	龍山區 漢南洞 740-3	793-6970	고려대명예교수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都相禧	882 BEAR CREEK COSTA MESA, CA P2626 U.S.A.	401-943-2598
文錫垠	日本 高知縣 幡多郡 大目町 大角 國民診療所	

## 第20回

姓名	郵便番號	住所	電話	現職	電話
權泰弘	137-060	瑞草區 方背洞 삼호아파트 3-610	591-2447	한일합동법률사무소	755-4538
金宗海	122-041	恩平區 佛光1洞 221-1	387-2258		
金亨穆	134-060	江東區 遁村洞 住公아파트 408-403	482-2463		
金興洙	137-060	瑞草區 方背洞 883-10 황실아파트 305	585-3003		
金世龍	121-042	富川市 南區 역곡2洞 무림빌라 B-101	652-9937		
朴管鎮	134-060	江東區 遁村洞 住公아파트 106-404	483-0247		
朴演珽	140-212	龍山區 漢南2洞 726-297	798-8013		
白萬吉	403-130	仁川市 北區十井1洞 여원아파트 나-103	435-9391		
徐光洙	121-190	麻浦區 倉前洞 402-18	332-1307	서광수소아과	
李基炯	120-080	西大門區 峴底洞 209	392-3670		
林炳書	601-062	釜山市 東區 凡一洞 870-15	89-4066	현대치과의원	68-7352
曹圭福	150-050	永登浦區 新吉洞 4915-3	833-8974		
崔玉德	100-454	中區 新堂4洞 346-159	252-3860		
洪濤杓	110-290	鍾路區 仁寺洞 98 第一빌딩	732-3148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李壽永	261 EAST MKIN ST. BERGENFIELD N.J. 07621 U.S.A.	
崔潤換	日本 神戸市 東灘區 住吉山水 8-22-15	078-1257
韓大淑	STATION. A OGDENSBURGN, N.Y. 13669 U.S.A.	315-393-3000
金泳鍾	200, S. OLIVE ST. #202 LOSANGELES, CA. 90012 U.S.A.	
孫俊得	7679 PRIMM SPRINGS RD PRIMM SPRINGSTENNE 38476 U.S.A.	

## 第 21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敦 鉉	121-012	麻浦區 阿峴洞 2街 343-7	364-0875		
元 勳 基	122-060	恩平區 龜山洞 210-31	355-8792		
李 相 胤	440-380	水原市 遠川洞 81-6	6-1508	이상운법률사무소	33-6115
李 英 環	150-080	永登浦區 道林洞 186-9	833-9593	이범의원 원장	
全 明 洙	402-013	仁川市 南區 崇義3洞 87-11	885-9256	왕자슈퍼	887-0353
朱 仁 鎬	133-071	城東區 杏堂1洞 320-10	295-2225	보건병원	
朱 軫 淳	133-190	城東區 紫陽洞 691-8 한양자양빌라 203	447-7752	한림대 교수	
韓 喬 石	138-226	松坡區 新川洞11 장미아파트 28-201	423-4241		
韓 近 淑	158-050	陽川區 木洞 木洞아파트 1416-301			
韓 東 允	402-022	仁川市 南區 龍峴2洞 삼익아파트 100-1	882-2667		
劉 喆	425-180	安山市 本五洞 872-20 宇成아파트101-1203	407-4890		

##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時 彦	1919 CITRON ST. #510 HONOLULU, HAWAII, 96826 U.S.A.	808-941-6567
安 省 信	39 POLAND PLACE STATEN ISLAND, N.Y. 10314	218-983-1987
李 林 學	4149 YUCULTA CROSCENT, VANCOUVER, BC. V6N, 3R5 CANADA	604-263-0366
李 虎	大阪市 八尾市 東山本新町 8町目 221	6-752-2126
朱 翰 裕	2701 TANAGER DR WILMINGTON, DE 19808 U.S.A.	302-995-2904
申 允 稷	PROF DR MED PAULO HIRAYAMA KEGEL STRASSE 2D-7520 BRUCHSAL WEST GERMANY	

## 第 22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聲 翰	156-010	銅雀區 新大方洞 우성아파트 113-1702	848-8061		
金 禧 庚	135-230	江南區 逸院洞 674	573-8031		
金 祐 燮	138-130	松坡區 梧琴洞 9-3	402-0198		
金 東 輝	183-200	松坡區 文井洞 150 올림픽 패밀리아파트 227-15	400-7758		
孔 守 範	132-030	道峰區 放鶴洞 新東亞아파트 29-1209	904-3585		

廉元德	189-230	蘆原區 下溪洞133블럭 靑丘아파트 9-1301	978-8678		
申泰燦	139-230	蘆原區 上溪洞132블럭 現代아파트105-808	979-1423		
安 霖	136-086	城北區 普門洞 6街 118	95-3903		
柳炯容	137-060	瑞草區 方背洞 403-7	583-9901		
趙在衡	150-103	銅雀區 上道1洞 7-22	814-2059	코리아통상 회장	279-1635
趙成植	100-450	中區 新堂洞 346-452	252-9077	학술원 회장	
崔龍煥	137-040	瑞草區 方背洞 신동아아파트 1-1402	585-0274		
韓 洵	138-170	松坡區 松坡2洞 166 三益아파트 212-1007	421-0491		
洪昌杓	427-010	果川市 中央洞 住公아파트 1026-301	503-8743		
洪德熙	157-040	江西區 鹽倉洞 266-3 수한주택 103	699-7048		
李炳一	697-090	濟州道 西歸浦市 호군동 921			
金景植	302-181	大田市 西區 內洞 38-3	(042)522-4305		
金龍聲	152-110	九老區 宮洞 924 水宮母子院	612-6736		
金周炯	136-033	城北區 東小門洞 3街 60	926-4923		
姜鎔根					
韓 湧					
韓鎮洙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文相駿	148 BRETTON WOODS DR. CRANSTON R.I, 02920 U.S.A.	401-944-3319
李基億	516 W APPLE TREE RD. GLENDALE, WI 53219 U.S.A.	
徐甲承	CLARENDON COURT APT #905 4500 N. CLARENDON IL 60640 U.S.A.	
金虎吉	日本國 名古屋市 千鍾區 田代町4寶音通 116-10 メゾン月宮殿 2928	052-722-0777
黃石峰	917 S. BRONSON AVE LOS ANGELES CA 90019	401-944-3319
徐昌仁	日本國 仙台市 中江町 1丁目 20-3(泉山昌仁)	262-6826
朱 乾	日本國 東京都 港區 麻布 21橋居留民團体部	323-8086,454-4910

## 第 23 回

姓名	郵便番號	住所	電話	現職	電話
金仁浩	718-800				

金斗埧	641-380	창원시 월림동 효성 가든아파트 A-303	(0551)86-1561		
金瑛河	151-013	冠岳區 新林3洞 628-1 남강빌라 103호	733-3959	김병헌번호사사무실	855-6336
朴東昴	135-241	江南區 開浦1洞 現代2次아파트 202-803	576-3636	東洋經濟研究所	773-4736
朴昌浩	425-070	안산시 월곡동 447 한양아파트 18-703	(0345)401-0546		
朴昌均	139-202	蘆原區 上溪6洞 住公아파트 205-206	931-4809	광산업	
徐日揆	422-090	富川市 南區 피안동 동신아파트 5-101	(032)343-9779		
徐正溶	157-240	江西區 空港洞 665-8	661-8512	정우엔지니어링고문	767-5446
宋基澈	135-100	江南區 鴨鵝亭洞 現代아파트 64-201	542-0022		
沈澤高					
楊仁模	430-030	安養市 박달동 신원빌라 20-301	(0343)46-1467		
李雙杓	600-081	釜山市 中區 보수洞 1街 116	(051)256-8125		
李世得	135-110	江南區 鴨鵝亭洞 現代아파트 87-703	544-4226	미술연구소	544-2059
李漢淳	138-225	松坡區 蠶室洞 27 住公아파트 518-1007	415-6946		
任昞彬	427-040	果川市 별양동 7 住公아파트 406棟 1003호	502-6692		
鄭良殷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棟 示範아파트 21-86	782-2426	서울대학교	744-6483
趙誠福	139-240	蘆原區 孔陵棟 329-30 신일빌라 가棟 105號	972-7173		
朱圭演	135-240	江南區 開浦棟 住公아파트 224-306	576-4977		
池昌龍	411-810	高陽郡 지도읍 삼송리 92-1	381-8077		
崔敏煥	413-800	坡州郡 탄현면 축현리 475-4	(0348)942-1448		
崔宗相	135-010	江南區 論峴洞 慶福아파트 B-606	545-8952		
崔宗仁	137-062	瑞草區 方背洞 976-27 원창빌라 101호	587-5320		
韓信	430-060	安養市 관양洞 現代아파트 7-1005	(0343)44-1614		
黃忠炫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金曾鎬	314 WINDSAR RUAD GREENVILLE N.C. 29834 U.S.A.	
金鎮洪	在美	
玄鳳學	95 ACORN RD WATCHUNG, N.J. 07060 U.S.A.	201-755-5421
林陽均	19 CARPENTER AVE NORWOOD N.J. 07648 U.S.A.	201-784-3890



## 第 24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 明 元	427-050	果川市 부림洞 住公아파트 803-607	502-3889	단국대학 명예교수	797-0581
金 東 勳	427-040	果川市 별양洞 住公아파트 507-506	502-5930	서울대工大名譽教授	877-2808
金 性 均	157-230	江西區 開花洞 474-51	665-0302		
金 聲 燾	120-110	西大門區 延禧洞 437-47	323-2956	김성훈소아과	
金 廷 圭	183-130	松坡區 오금洞 現代아파트 36-1004	403-5601		
南 哲 祐	300-230	大田市 大德區 비내洞 정남빌라 가-302	624-1126		
朴 聖 熙	137-074	瑞草區 瑞草洞 三益아파트 2-302	556-7196	(주)마영기업 이사	585-1041
朴 泳 馥	139-201	蘆原區 上溪洞 住公아파트 1110-1004	934-6814	현당서예학원	742-1331
廉 仁 必	137-131	瑞草區 良才1洞 18-16 現代빌라 205호	579-9146		
魏 在 珪	152-030	九老區 始興洞 漢陽아파트 1-411	802-5231		
柳 炯 極	110-543	鍾路區 昌信洞 447-12 유미빌라 4층	762-6663		
周 熹 鎔	120-180	西大門區 滄川洞 500-8	334-1797		
崔 雄	130-050	東大門區 回基洞 60-63	967-4939	서울대工大名譽教授	
崔 皓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廣場아파트 8-109	782-7422		
崔 昌 彬	134-240	松坡區 新川洞 장미아파트 12-707	413-3096		
韓 承 銀	134-240	松坡區 新川洞 미성아파트 6-702	423-1325		
韓 時 坤	121-090	麻浦區 監里洞 23	716-5587		
韓 學 綸	132-105	道峰區 彌阿洞 1264-138	988-1872		
黃 圭 錫	445-940	京畿道 華城郡 장안면 석포리 334-1	(0339)58-1055	화성목장	
黃 炳 峻	135-240	江南區 開浦洞 646-1 경남아파트 8-308	573-0011	중앙대 교수	752-4591

##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應 浩	1600 CENTER AVE, #11G FORT LEE.N.J. 07024 U.S.A.	201-947-0016
金 雲 澤	428 S.WALE #2 VILLA PARK IL.60181 U.S.A.	708-941-0492
姜 基 喆	在美	

## 第 25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權 宅 淵	135-100	江南區 淸潭洞 三益아파트 13-1002	543-2801		
金 珉 河	151-010	冠岳區 新林洞 475-33	855-3257		
金 建 述					
金 相 熙	158-052	陽川區 木 2洞 534-29	694-6104		
金 聲 進	137-060	瑞草區 方背洞 830-10 황실아파트 A-302	582-1277	김성진내과의원 원장	713-2032
金 世 翊	122-080	恩平區 新寺洞 349-17	373-9646	日本國亞細亞大學客員教授	
金 銀 式	156-070	銅雀區 黑石洞 50-35	814-0303	의료보험 聯合會	718-4135
金 仁 學	156-070	銅雀區 黑石洞 198-41	814-6576	대진엔지니어링	462-6102
金 昊 麗	134-010	江東區 吉洞 390-4	483-5121		
金 熙 宰	110-523	鍾路區 明倫3街 1-973	762-4970		
盧 庚 昞	135-010	江南區 論峴洞 44-9	542-3345	제일병원장	274-1231
朴 鼎 惠	461-050	城南市 書峴洞 221-3	(032)46-3847	건국대 명예교수	445-0061
劉 炳 敏	678-800	慶南 合川郡 合川邑 合川里 592-3	(0599)32-0514	영남의원장	(0559)31-2579
劉 長 得	138-150	松坡區 芳夷洞 덕원파크맨션 204	419-6248		
李 圭 元	136-050	城北區 東仙洞 4-87	923-8834	현대문예사 대표	926-0348
李 亨 白	131-203	中浪區 面牧3洞 456-6	432-3078		
趙 成 國	133-120	城東區 聖水洞 2街 49-78	464-1907	조약국 경영	
趙 程 崙	151-050	冠岳區 奉川洞 178-264	878-8678		
趙 栽 高	100-170	中區 武橋洞 33-1	778-3450	뉴코리아 사장	
崔 浩 益	120-100	西大門區 弘恩洞 277-135	302-8058	대한이화학사 사장	265-4385
韓 相 杓	135-242	江南區 開浦2洞 公務員 임대아파트 808-815	573-0896		
韓 乘 五	132-072	道峰區 水踰5洞 412-140	902-2309		

##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永 郁	R.M.6.B-10 BEDGE 10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BETHESDA, MD 20014, U.S.A.	
徐 甲 成	1534 ALEXANDER ST. HONOLULU, HAWAII U.S.A. 호주항공사 호놀룰루 지점	
吳 正 喜	2034 AVILACHINE QUEBEC H8T TV. CANADA 매길대학 HLA 연구실장	
劉 乘 千	#2650 PINE VIEW WEST BLOOMFIELD MICHIGAN, 48033 U.S.A.	

## 第 26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 珞 煥	121-020	麻浦區 孔德洞 105-138	713-3472	丸紅(株) 서울지점	779-0501
金 元 鐸	137-071	瑞草區 瑞草1洞 우성4차아파트 103-801	523-0249		
金 鍾 麟	152-080	九老區 高尺洞 52-88	612-0086		
朴 一 均	422-090	富川市 南區 괴안동 동신아파트 6-102	(032)343-2587		
石 東 壽	100-196	中區 乙支路 6街 20-2 대동빌딩 306호	279-7706		
梁 泰 鱣	135-190	江南區 細谷洞 170-40	400-2429		
柳 榮 海	122-020	恩平區 녹번동 131-75	355-8933	현대병리검사연구소장	389-1501
李 三 悅	138-220	陽川區 木洞 13團地 1331-1102	649-3625	제일병원 고문	274-1231
林 祥 榮	301-150	大田市 中區 太平洞 1街 64	889-8424	복지의원장	525-4578
崔 華 聖	139-200	蘆原區 上溪洞 住公아파트 1027-405	468-0149		
韓 炳 瑚	135-280	江南區 대치동 935-29	567-2111		
韓 荃 淑	150-040	永登浦區 堂山洞 강남맨션 24-404	676-4112	서울대 명예교수	
韓 鼎 燮	120-190	西大門區 北阿峴洞 189-42	362-5824	現代엔지니어링고문	746-7707
洪 德 永	403-012	城東區 玉水洞 現代아파트 104-702	295-8706		
洪 鉉 燾	157-030	江西區 登村洞 636-11	694-9212		
姜 甲 東					
金 炳 善					
盧 永 吉					
陣 一 憲					
黃 圭 石					

##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秉 萬	58-30E. HAMPON BULD BAYSIDE NYC. 11364	718-423-8678
金 澤 劑	2518 SMITHFIELD RD. CHARLOTTERNA VA, 22901 U.S.A.	804-971-8060
朴 在 彬	CHAI BPARK MD. 7103 PILLA PLACE HONOLULU. HI 96825 U.S.A.	808-395-2270
孫 陽 鳳	在美	
安 景 烈	#2129 HOLLISTER TERR GLENDALE, CA. 91206 U.S.A.	818-545-7037
吳 炳 憲	115 VERMOUNT COURT METAWAN N.Y. 17747 U.S.A.	908-290-0517

李根虎	19524 VALDEZ DR TARZANA. CA 91356	818-344-5798
李柱衡	#247 CAMELOT DR. MORGANTON, N.C. U.S.A.	704-437-0493
李浩敏	#14561 SWEETAN ST. IRVIN 4E CA, 92714. U.S.A.	714-569-0774
權鎮城	3008-N. UNIVERSITY AVE. PEORIA. IL. 61064 U.S.A.	309-685-3219

## 第 27 回

姓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金明壽	137-070	瑞草區 瑞草東 三豐아파트 18-1007	591-9201		585-2709
金鎔柱	500-042	光州市 北區 中興2洞 345-12	523-8742		
南燦佑	100-450	中區 新堂洞 366-77	235-5199	로직크오토메이슨	720-0400
朴澈善	743-955	慶北 尙州郡 洛東面 洛東里 772-1	(0582)32-7733		
邊 焄	140-030	龍山區 東部二村洞 작곡가빌라맨션 1503	794-6941		796-9567
沈鳳雙	140-201	龍山區 利泰院1洞 청화아파트 2-1106	793-6883	카톨릭대 명예교수	771-7600 (豆) 2583
安 滉	120-103	西大門區 弘恩3洞 西江아파트 B-302	357-0742	성화섬유(주)전무이사	802-1700
廉聖龜	138-225	松坡區 蠶室 5團地 504-1504	419-5408	보해양조 고문	583-7391
元章煥	130-020	東大門區 清涼里1洞 미주아파트 7-403	964-0455	삼원상기빌딩대표	966-7829
劉 鋼	138-180	松坡區 三田洞 94-8	413-3276	인천전문대 교수	(032)74-5021~5
尹元基	133-221	城東區 中谷洞 259-23	467-8992		
李炳國	121-250	麻浦區 선산동 255-7	336-9376		
李洙灝	137-040	瑞草區 盤浦本洞 盤浦아파트 84-104	599-3323	서울사대 교수	886-0101
李鴻範	614-101	釜山市 釜山振區 堂甘1洞 262-59	805-2949	유성의원 원장	(051)805-2949
張元龍	607-062	釜山市 東萊區 溫泉洞 럭키아파트 18-605	553-8152		
趙誠國	122-020	恩平區 녹번동 152-75	355-3232	울산실업 고문	753-1628
朱炳七	602-055	釜山市 西區 土城洞 4街 16	242-8866	주외과산부인과의원	243-9339
朱舜五	301-010	大田市 中區 오류동 삼성아파트 1-1208	(042)525-2977	大田大學校附屬病院長	(042)232-0251~3
河烘權	110-054	鍾路區 社稷洞 181	736-2303	화이마산업 사장	777-7741
韓明洙	140-030	龍山區 二村洞 302-70 복지맨션 5-505	794-2380	신원기획 편집부	719-8901
韓淳輔	133-070	城東區 杏堂洞 128-496	292-0521	부곡국민학교 교장	(0343)61-9507
韓泓模	135-280	江南區 大峙洞 902 東亞아파트 다-803	562-5712	미성의원 원장	265-7866
洪昌嘯	137-070	瑞草區 瑞草洞 新東亞아파트 3-409	556-5149		292-2117

金光一	134-020	江東區 千戶洞 214-47 경랑연립 B-303	478-8691		
朴昭會	110-012	鍾路區 平昌洞 175-7 현대하이츠빌라 107	357-4315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盧興德	MR.H.D. NO 6700N 57TH 5TR EET. BETHANY OKLAHOMA 73008, U.S.A.	
朴照會	RED #2 PUJANAM CONNETICUT U.S.A.	

## 第 28 回

姓名	郵便番號	住所	電話	現職	電話
高景榮	430-050	安養市 비산동 삼호아파트 16-1002	(0343)45-6693	정원건설 회장	521-6747
高明東	137-130	瑞草區 良才洞 良才 現代빌라 301호	573-2802	고명동 치과의원	753-3362
金東鳳	464-800	京畿道 廣州邑 京安4里 36-68	(0347)2-2810		
金鳳湜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水昌 A-603	782-3559	大韓요트협회	777-1510
金漸煥	200-092	春川市 孝子2洞 655-7 16동4반 성심약국	(0361)4-0931	춘성고교	(0361)3-4276
金翊南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漢成아파트 B-603	780-7414	한서해운(주)	784-5891
金允善	110-062	鍾路區 新門路2街 105	736-8357	범한서적(주)代理理事	737-1421
金在乾	480-070	議政府市 新谷洞 269	(0341)3-1007	대일모피공업사	(0351)8-5200
金鍾殷	133-100	城東區 玉水洞 466 漢南하이츠빌라1-205	298-0815	여의도성모병원	789-1114
金鐸	612-012	釜山市 海雲臺區 中2洞 住公아파트 34-505	(051)72-6703		
金鉉鎬	130-650	清涼里 郵遞局 私書函 133號	423-1736	한국교육행정연구원장	929-4465-6
南相昊	140-220	龍山區 普光洞 260-6 주미아파트 707號	795-2485		
盧憲圭	136-131	城北區 下月谷洞 88-367	912-6288		
魯一協	110-012	鍾路區 平倉洞 296-25	352-6798	숙명여대 大學名譽教授	714-9390
毛麒喆	701-120	大邱市 東區 芳村洞 강변타운 106-305	92-7578	경북대치대농대교수	955-5001
朴承棒	138-224	松坡區 蠶室4洞 市營아파트 32-401	418-6323		
朴英傑	402-020	仁川市 北區 신곡동 現代아파트 311-1304	883-2702	인하대교수	(032)82-1321
朴在勳	134-070	江東區 明逸洞 住公아파트 911棟 1007號	478-0108	의례국민학교	477-6122
朴載陽	217-050	江原道 東草市 青鶴洞 486-48 8/2	(0392)33-2248		
宋永冕	110-510	鍾路區 東崇洞 129 光明住宅 C-1	742-2847	송외과의원	275-8433
申道均	427-040	果川市 부림동 住公아파트 911-203	503-6393		

嚴仁植					
吳哲求	136-020	城北區 城北洞 166-2	762-1725	후자경영연구소	777-3897
吳聖昱	560-020	全州市 慶園洞 1街 88	(0652)84-4602	圓光大學教授	(0652)84-7174
劉衡均	139-049	瑞草區 盤浦洞 住公아파트 19-310	533-7295		
尹治玉	151-051	冠岳區 奉天洞 670-24	889-4170	裕晟機電	672-7901
李樂斌		全南	676-2076	의사	
李命英	136-103	城北區 貞陵3洞 716-183	914-9338	성군관대학교수	762-3335
李三龍	550-130	全南 麗水市 西橋洞 857			
李漢祚	134-090	江東區 上一洞 173 三星빌라 9-204	474-5920	서강대哲學科교수	
林鎬燮	614-053	釜山市 釜山鎮區 양정3洞 394-333		양정성심병원	
張成荀	425-070	安山市 월곡동 現代2次아파트 204-301	(0345)491-6117	화실경영	534-8986
鄭元浩	121-012	麻浦區 阿峴2洞 388-25 (101호)	362-9125	식당경영	279-6006
趙東喆	134-060	江東區 通村2洞 住公아파트 313-802	471-6210	태신통산(주)사장	486-1923-4
朱赫淳	430-042	安養市 石水2洞 리키아파트 3-903	(0343)72-8061		
曹翼奎	137-270	瑞草區 道谷洞 東新아파트 타동 1101호	562-2449		
韓炯周	133-100	城東區 玉水洞한남하이츠아파트2-1002	297-4548	한형주의원	923-8811
全鳳翊		釜山市			
蔡憲哲	600-091	釜山市 中區 大청동 1가 9-90	463-0626	東宝関稅事務所	464-9422
崔宇教		春川市			
崔仁鎬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51三益아파트A-706	780-7480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상무관	732-7330
太範植	138-220	松坡區 蠶室洞86亞細亞선수촌아파트11-603	413-7510	건설진흥공단	332-5334
韓鳳鐘	121-240	麻浦區 延南洞 509-13	324-2501		
韓忠錫	120-020	西大門區 미근洞 117-2	362-5359		
洪亨淳				牧師	
洪鉉杰	121-040	麻浦區 桃花洞 麻布아파트 10-303	712-1780	作曲家	
黃慶鎮	120-050	陽川區 木洞 新市街地아파트110-303	647-6291	大宝商會會長	266-6063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金康彦	在美	
金雙楨	11024 14TH NESEATEL, WA 98125 U. S. A.	260-363-3063

尹 允 燮	6438 HAZELTINE, #5 VANNUYS, CA, 91401 U. S. A.	818-988-9039
李 英 得	5 KETCHAM COURT EAST NOUTHPORT N.Y.11731 U.S.A.	
李 撤 男	在美	
李 夏 國	在 브라질	

## 第 29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 憲 榮	100-400	中區 쌍림동 155-1	265-5159	강서병원산부인과과장	613-7781
金 光 浩	608-010	釜山市 남구 남천도 비취맨손아파트 215-605	(051)622-4245	(주)범아공사부사장	44-0473
金 炳 宇	302-171	大田市 西區 갈마동 쌍용아파트 2동606호	526-8837	한남대학	(042)629-7360
金 鳳 舜	133-010	城東區 흥익동 263	292-3474	第一建設	542-8275
金 北 之	120-090	西大門區 흥재동 130-7	737-9742		
金 載 範	156-050				
金 正 宰	138-200	松坡區 문정동 43-15	402-2935		
金 熙 國	461-180	성남시 수진동 4773-4	(0342)46-1446	(주)삼보사장	751-0396
南 萬 松	137-040	瑞草區 盤浦洞 한양아파트3동 803호			
孟 厚 彬	135-012	江南區 논현동 2-9		동서문화사	546-0333
文 昌 基	132-012	도봉구 도봉 2동 625-21	997-5094	햇빛산빌딩	997-5091
朴 升 鐸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동 407호	780-0779	USIS	732-2601
朴 在 容	560-250	전주시 중화산동 2가 213	(0652)223-8868		
朴 在 炯	151-061	관악구 봉천 11동 1650-22	884-0695	문성 인쇄소	701-5121
白 萬 鐘	433-800	의왕시 내손동 624 포일주공아파트 115동 407호	(0343)56-4997	현대해상화재보험	763-0608
白 昌 烈	134-023	강동구 천호3동 54-9 36/7	478-6528		
徐 昌 政	158-072	양천구 신정2동 목동하파트 1402-1101	648-3692		
鮮于碩河	138-180	松坡區 삼전동 91-3	423-0759		
宋 徽 林	135-240	江南區 開浦洞 現代아파트 101-1101	575-1083	새익통상(주)사장	547-7629
柳 吉 鏞	130-010	東大門區 淸涼里洞 미주아파트 8동 503호	966-8131	농장	(0345)82-9431
柳 憲 一	612-050	釜山市 해운대구 채송동 310-113	(051)809-1082		
劉 澤 鐘	133-092	城東區 금호동 2街 501-93	234-0015	문성사	263-0615
李 甲 杓	122-050	恩平區 갈현동 진양빌라 303호	355-6227		
李 求 輪	137-070	釜山市 금정구 서2동 산27-14	(051) 523-1687		

李炳杰	139-202	노원구 상계6동 주공아파트 305-602	931-4591		
李盛茂	139-200	蘆原區 上溪洞 住公아파트 120-203	939-6661		
李垣植	132-202	道峰區 창4동 26상계동아아파트5-1003	992-0006		
李殷鳳	132-075	道峰區 수유5동 408-18	902-3692		
李技遠					
李仁錫					
李鎬允	151-050	冠岳區 奉天洞 637-72	886-6757		332-9329
林舜均	135-280	江南區 대치동 미도아파트 105동 302호	567-4479	개포중학	573-9818
林鐘一	139-200	蘆原區 上溪洞 住公아파트 120-203			
張之煥	137-069	瑞草區 方背本洞 中央아파트 가동 901호	591-0951	우신중고등학교교장	613-2731
全龍珠	100-095	中區 南大門路 5가 690	776-2444		
鄭景鍾					
鄭炳殷	421-013	富川市 中區 '심곡3동 361-8	(032)611-0684		
鄭哲周	134-010	江東區吉洞160新東亞아파트6棟105號	483-0019	정철주세무사사무소	319-2845
鄭治島	137-070	瑞草區 瑞草棟 세원주택 나동 201호	582-2146		
趙英潁					
趙鎰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11-91	785-0782	조일치과의원	762-8785
朱格	110-440	中區 황학동 2539	233-0021	코암인터내셔널	274-0961
朱東雲	158-050	양천구 목동아파트 534동 1405호	649-9050		
朱相彦	427-040	과천시 별양6동 주공아파트 507동 804호	504-0411	정일학원	775-7755
千歲林	156-060	銅雀區 본동 126-15	814-3401		
崔萬楨	137-040				
崔錫勳	136-037	城北區 東小門洞 7街 115-3	928-8385	안양중앙병원	857-1771
崔學洲	152-054	九老區 九老4洞 313-128	855-1445		
韓錫元	134-090	江東區 상일동 삼성빌라 9동 202호	427-5380	한원실업사장	511-5173
韓昇燁	121-230	마포구 망원 2동 465-19	336-3883		
韓依天	137-062	瑞草區 方背2洞 948-20	584-0386		
韓鎮慶	110-550	鍾路區 승인동 1051	234-9037	한진경피부과의원	923-5043
韓春熙	110-280	鍾路區 苑西洞 74-3	744-3570		
韓鴻吉	606-081	釜山市 영도구 동삼1동 276-15	(051)49-7961	해동주학	412-2456



洪 逸	135-110	江南區 鴨鷗亭洞現代아파트24동 1105호	542-7309		
咸 性 求					

##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 淳 郁	1275 15TH ST., #5L FORT LEE, N.J. 07024	201-224-0346
金 雄 植	5288 ROCK PORT ST. COLUMBUS. OHIO. 43220	614-457-2079
金 在 楨	4521 N.WILDWOOD AVE. MILWAUKEE. WISCONSIN 54211	414-692-3610
金 楨 殷	在 브라질	
金 弘 杓	41-42 ELBERTSON ST.APT. 495 ELMHURST N.Y. 11373	212-426-9831
金 和 極	35-11 149TH PL FLUSHING N.Y. 11354	718-461-8372
朴 浩 尚	4 SUMMER FIELDS CT. LUTHERVILLE, MD-21093	310-244-1111
李 權 燮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718-352-7060
李 芳 秀	708 S.LORRAINE BLVD.LA. CA. 90005	213-939-7057
李 培 石	407 BOHL DR. MARIETTA. OHIO. 45750	614-373-6294
李 通 燾	466 LANDS END, FAYATTEVILLE, N.C. 28314	919-864-4310
張 聖 洛	319 DOVER CENTER ROAD BAY VILLAGE, OHIO 44140	216-892-6940
韓 世 鎬	2960 GRAND CONCOURSE 4B.BRONX.N.Y. 10458	212-933-5190
韓 在 壽	1209 LAKE ST.NO.401 LA CA. 90086	213-386-6091
陣 炳 珍	2034 N.MIRASOL ST. SANTA ANA CA. 92701	714-547-2437
韓 極	42913 VIA VALPARAISO FREMONT CA. 94536	510-623-9181

## 第 30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高 明 三	138-150	松坡區 방이동을림픽선수촌아파트310-503	403-5279	서울대공대교수	880-6481
權 甲 周	133-220	城北區 中谷洞 258-3	466-6431	광한기업회장	319-2531
金 光 彬	121-100	麻浦區 노고산동 40-13	715-4374		
金 斗 燦	110-054	鍾路區 社稷洞 164-26	736-2243		73-6087
金 冕 燮	133-110	城東區 성수동 1街 668-10	464-6951	한양대화공과교수	292-2323
金 炳 建	120-110	西大門區 연희동 133-26	324-5010		
金 秉 喆	137-060	瑞草區 方背洞725삼호아파트 다동601호	534-1300	수도전기공고교장	575-2136

金 炳 浩	110-521	鍾路區 명륜동1가 5-61	775-1313	성광개발(주)	784-3351
金 始 源	110-460	鍾路區 연건동 44-12	764-5208		
金 信 根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廣場아파트3-306	780-3494	서울대약대제약학과교수	880-7865
金 榮 注	427-070	果川市 中央洞 23-8	504-2688		
金 容 海	156-031	銅雀區 上道1洞 79-106 43/1	821-4094		
金 龍 澈	136-062	城北區 敦岩2洞 413-2	922-9290	성균관대영문과교수	760-0249
羅 雲 龍	136-030	道峰區 雙門洞 75-23	992-4175	서울대약학대학	877-0910
都 相 豹	423-033	광명시 철산3동 주공아파트 1324-1102	614-9807		
朴 世 雄	136-110	城北區 吉音洞 510-113	986-2354		
朴 溶 夏	133-100	城東區 玉水洞 2現代아파트 101棟 202號	297-9821	신래회계사무소	980-3100
朴 垣 相					
朴 定 仁	135-010	江南區 三成洞 홍실아파트 6棟 1005號	545-2521	안국화재해상보험(주)	756-0384
邊 成 燁	132-010	道峰區 道峰洞 서울가든아파트2-407	907-8523	승의여전교수	754-7606
白 昞 烈	100-392	中區 장충동 2가 55	277-0564		
申 裕 恒	138-220	松坡區 蠶室本洞 우성아파트16-1105	418-0952	경희대생물학과교수	961-0247
延 河 龜	135-110	江南區 鴨鷗亭洞 現代아파트 120-901	548-2179	외교정책자문의원	566-8026
吳 承 泰	472-140	미금시 평내동산873 진주아파트108-29	(0346)591-7519	등대교회목사	762-7584
俞 焄	137-040	瑞草區 盤浦洞 盤浦아파트 79棟 402號	553-2411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880-5624
柳 承 敦	140-240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8-907	795-1532		
尹 東 榮	120-110	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4-201	332-7864	대한전신평업(주)	851-6651
元 炳 昨	138-130	松坡區 오금동 대림아파트 3棟 1404號	409-2789	경희대문리대교수	965-8000
李 元 鏞	132-100	道峰區 미아동 695-7	989-0519		
李 圭 喆	612-061	釜山市 海雲臺區 반여1동 王子아파트 15-405	(051)523-7106		
李 相 元	135-280	江南區 大峙4洞 896-9 (圭汶)	569-1979		599-3379
李 圭 煥	139-220	노원구 中溪洞 134-1 靑龍빌라 가동303號	972-5076	관광버스조합상무	422-0091
李 南 杓	140-030	龍山區 二村洞 現代아파트32-901호	792-7209	한양대영문과교수	292-2111
李 善 植	110-012	鍾路區 평창동 563-5	352-0882	(주)삼승	784-3251-8
李 承 奎	139-050	노원구 월계동 534-43	918-7860		
李 時 默					
李 演 熙	136-102	城北區 貞陵洞 200-22 5/6	914-4766	대한전선공업대표	851-6652

李寅華	135-110	江南區 鴨鵝亭洞 現代아파트 23棟 402號	534-1943	합진빌딩대표	273-6611
李河	135-010	江南區 논현동 120-3	234-0788	아하내과원장	547-1692
李鎬植	132-103	道峰區 미아3동 258-164 태양빌라지층 2호	983-8582	창동화실	
李鎬汪	110-510	鍾路區 東崇洞 129 光明住宅 E棟 1號	762-1192	고려대의대교수	762-5346
林滢彬	136-140	城北區 장위동 219-313	915-9012	충효사상선양회	216-9154
鄭林植	411-800	京畿道 고양군 원당읍 사일리 144	(0344)62-6473		
趙雄善	413-870	京畿道 파주군 천현면 대능리 94	(0348)958-0319	삼성상회대표	
朱泰河	300-120	大田市 東區 용운동 住公아파트 202-1103	(042)284-3414	한국자원연구소	868-3751
崔嘉鳳	156-072	銅雀區 흑성2동한강現代아파트105-303	816-8924		
崔聖珉	120-160	西大門區 大新洞 124-12	392-5709	이화여대문리대교수	360-2176
崔哲根	122-050	恩平區 갈현洞 300-47	355-0085		
崔華國					
韓均弼	136-100	城北區 貞陵2洞 226-46	914-4255	대동상고교장	742-1133
韓相洪	135-120	江南區 鴨鵝亭洞 漢陽아파트 51棟 306號	543-2427		
韓震	150-056	永登浦區 新吉6洞 4320	833-3205		
韓台龍	139-220	노원구 중계동111부력 중계1단지 市營아파트114-1103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姜禮根	23 LAGUALDIA AVE SALTEN ISLAND N.Y. 10314 U.S.A.	718-370-1503
金昱	在美	
金恭根	5536 FOREST LANE BRECKSVILLE OHIO 44141	261-838-4188
金元謙	23 MICHIGAN AVE WINNIPEG. MANTIOBA CANADA R3 T3V1	204-269-1952
金庚台	3651 HEATON RD HUNTINGTON VALLEY P.A 19006	
高勝榮	1464 ST. NICHOLAS AVE. N.Y. 10033 U.S.A.	212-923-2611
朴永鎬	7. QUILL PEN WAYY WARREN N.J. 07060	201-647-5777
申森熙	237 PALM ST. WASHIAWA HAWAII 96786 U.S.A.	808-621-8145
李仁根	327 REVES AVE TRENTION N.J. 08610	609-888-2488
梁稜摸	6614 NORIT SACRAMENTO CHICAGO III 60645	312-465-2115
李性白	13629 BELLEROSE DR CHANETLLY. VA 22021	703-263-2157
曹秉均	6067 CAROL DR. INDEPENDENCE OHIO 4431	216-524-9635

趙 哲	6010 NORTH LAWNDALE AVE CHICAGO. ILL 60659	312-588-1177
韓 萬 燮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李 炳 榮	Q15 C3 JARDIN PEPROPLIS QUIADAMT. BRASIL	65-321-0767
柳 承 敦	110-23 #1B 72ND RD. HILLS N.Y. 11375 U.S.A.	

## 第 31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郭 東 守					
高 庚 式	152-050	九老區 구로동 현대연예인아파트202-304	863-4563		
高 明 鎬	630-520	慶南 馬山市 함성동 85-19	(055)99-4748		
金 教 誠	411-830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성석리 762	(034)976-2141		
金 明 哲	136-141	城北區 장위1동 225-8	916-8712	한국경제신문편집위원	392-2170
金 聖 斗	135-090	江南區 삼성동 142의 5	554-4062	농장경영	
金 聖 鎬	150-054	永登浦區 新吉4洞 214-5	833-5489	김성호외과의원장	833-5957
金 東 勳	135-280	江南區 大峙洞 선경아파트 6-505	555-4720		
金 洙 卿	440-022	水原市 장안구 정자동 633	(0342)701-3344	SKC클리닉	(0331)42-8180
金 宇 泳					
金 英 鎭	402-012	仁川市南區崇宜2洞장미아파트나동106호	(032)882-9509		
金 永 俊					
金 永 煥		경기도 동두천시			
金 雄 基	422-100	부천시 남구 역곡동205 석영아파트7-103	(032)63-5169	서혜당약국	968-0634
金 載 昆	402-202	仁川市 南區 주안2洞 617-2(30/4)	(032)862-5382	마아당서예학원원장	(032)421-0937
金 澹 浩	121-230	麻浦區 망원동 412-1 삼화아파트 102호	335-3030	코리아나투어(주)대표	773-8015
金 哲					
金 致 敬	405-232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273번지 삼정빌딩	(032)465-9306	경희호텔전문대학교수	961-0851
金 泰	132-074	道峰區 수유4동 576(8/4)	993-8758	서울대미대학교수	880-7481
盧 敬 鎭					
都 相 默	427-050	果川市 부림동 住公아파트809-107	502-8613	인헌고교교사	886-6251
都 址 石	158-070	東大門區 장안1洞 394-1	245-1363		
朴 道 一	602-022	釜山市 西區 南富民2동 434(27/5)	(051)243-6870	성진화학	(051)332-2421

朴炳哲	135-090	江南區 三成洞 해청아파트 12棟 503號	545-9390		
朴永洙	151-010	冠岳區 新林洞 1458-34	889-7223	풍진금속(주)회장	552-6071
朴鎰忠	134-010	江東區 吉洞 404-5	484-4939	건국대영문과교수	445-0061
朴祚烈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示範아파트 8棟 56號	780-3534	극작가	
朴虎冕	461-360	城南市 사송동 501	(0342)723-7574	농장경영	
裴聖喆	612-082	釜山市 해운대구 반송2동 풍전맨손 406	(051)532-1724		
白庚鐘	131-120	중랑구 중화3동 308-48 24통 6반	432-3693		
安壽敏					
辛應夏	614-021	釜山市 釜山진구 범천1洞 858-19	(051)646-9930	태원섬유공업대표	(051)646-8649
梁柱龍	330-090	天安市 쌍룡동 쌍룡현대APT 103동 102호	(0417)553-7366		
柳榮龜	136-110	城北區 吉音洞 1078-1	988-3993	유영구외과의원장	982-5625
柳俊馨	133-080	城東區 응봉동 응봉2차대림아파트102-1105	296-6115	한라구급 고문	5591-810
李達全	700-431	大邱市中區 대봉1동 청구맨손A-602	(053)425-1928		
李東準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한성아파트 B-908	782-1735	타제이 무역	783-7031
李政基					
李柱成	233-820	江原道 정선郡 신동邑 조동 13里 291-4	(0373)78-7322	함백정미소사장	
李熙高	137-060	瑞草區 방배동 임광아파트 3次 15-207	522-9009	신평공업(주)회장	802-0151
林浩	609-392	釜山市 금정구 장정2동 세림빌라 302	(051)517-0344	在 HONGKONG	782-6963
李璣璵	132-070	道峰區 수유3洞 189-4	992-7734	加平현리농장경영	(0356)85-0762
李東元					
全龜淵	430-060	안양시 관양도 現代아파트 12-1204	(0343)47-5088	안양중앙병원장	857-1771
全承鎬	122-030	은평구 대조동 204-20	384-9845		
全夏鏞	121-240	麻浦區 연남동 487-410(20/6)	334-0719		
全弘烈					
鄭漢祐	122-080	恩平區 신사洞 29-53	303-0106		
曹源根	138-200	松坡區 문정동 패밀리아파트 221-702	400-7980	신아기연전무	556-5453
朱秉德	100-400	中區 쌍림동 182-3	279-4426	KOREA SILICON	764-2863
朱源道	122-110	恩平區 구과발동 120-3	352-8112	(주) 흥진	817-4547
朱一	137-070	瑞草區 瑞草洞 한양아파트 2-1006	537-4322	한국기술개발금융고문	730-3132
朱繪淳	120-100	西大門區 弘恩洞 206-1	385-8675	商業	274-2459

崔景默					
千景煥	604-060	釜山市 사하구 구평동 삼성주택 15호	(051)262-0741		
韓東柱	635-830	慶南 창녕군 이방면 장청리 7-2		지성벼원원장	
韓日照					
韓熙邦	601-016	釜山市 동구 초량6동 757-10	(051)467-0676	제일다방	(051)463-8245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權鎮均	TIMBER TRALI DEKALB ILL. 60015 U.S.A. Prof. DEPT OF ECONOMICS NORTHERN ILL. UNIV.	815-756-9745
金德勳	MICHIGAN U.S.A.	
金東榮	29 BARRINGATON #A BAKERFIELD. CA 93309, U.S.A.	805-398-0485
金亨述	13202 BERWICK AVE, BATON ROUGE LA. 70815(C.P.A)공인회계사	504-275-2086
朴炳元	38 CHURCHILL DR. LONGMEADOW MASS. 01106 U.S.A.	413-567-9317
徐甲敬	R. 76. WALLUPE CIR. HONOLULU. HI. 96822 U.S.A. PROF. UNIV. OF HAWAII COLLEGE OF B.A.	808-373-4081
徐泳煥	8134. IVAN RELB DRIVE. HPISTON. TEXAS 77040, U.S.A.	713-466-1385
楊炯春	日本 東京市 右京區 西院北 矢街町20番地 在日 大韓基督教 京都 教會 牧師	075-311-5051
李英鎬	83. N. MOUNTAIN RD. WILBRAHAM. MASS. 01095, U.S.A. PROF. SPRING FIELD COLLEGE	413-596-4691
李元鎬	29. SHELDON ST. ARDSLEY.N.Y. 10502. U.S.A. PROF. OF PHYSIES, COLOMBIA UNIV.	914-693-0004
李培善	430 SOUTH FULLER AVE. APT. 4J L.A.CA 90036, U.S.A.	213-938-5031
李致和	4326 W142 ST. #8 HAWTHONE CA 90250. U.S.A.	213-370-6771
李哲敏	6044 S.W. KNIGHTS BRIDGE DR. PORTLAND, OREGON 97219 U.S.A.	503-246-2560
李哲範	1769 S. HLOT AVE. LOS ANGELES. CALIFORNIA 90035 U.S.A. 서울 연락처(이범 의원)	213-836-8373
崔千德	3448. W. 171ST STREET. TORRANCE, CA. 90504 U.S.A.	213-515-6112
韓相涵	LOS ANGELES. CALIF. U.S.A. (서울연락:형)	543-2427
黃載鎭	15PENN. BLVD. SCARSDALE. N.Y. 10583 U.S.A. 서울연락처(미림무역) 777-5127	914-472-2753
李炳泰	在 브라질	

## 第 32 回

姓名	郵便番號	住所	電話	現職	電話
姜顯珏	612-011	釜山市 해운대구 중1동 1376-13	72-2347		72-2347
姜俊	137-049	瑞草區 盤浦洞 구반포아파트 50-501	599-0424		778-6119

高昌岩	138-220	松坡區 蠶室洞 우성아파트 20棟 1203號	413-6884		554-4494
金桂頌	427-070	果川市 중앙동 住公아파트 117-206	503-6243		
金東一	136-100	城北區 정릉 2동 200-6	913-2940		
金炳三					
金炳鉉	133-080	城東區 응봉동 대림아파트 6棟 403號	294-5242		
김관형	130-011	東大門區 清良里1洞 美洲아파트 4-313	966-1087		
金錫定	427-050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916棟 504號	966-1087		
金晟楨	150-010	永登浦區 汝矣島洞 공장아파트 A-303	782-3129	외항선장	
金壽喆		강원도 속초시			
金仁涉	131-200	중랑구 면목동 542-8			
金寅哲		강원도 춘천			
金仁和	131-062	도봉구 번동 148-377 B02	983-7015		
金萬奎					
金晚均					
金成昌					
金在鉉					
金致浩	140-220	용산구 보광동 주미아파트 1005호	794-8051		
金泰鳳					
金兌洪	110-080	鍾路區 무악동 연립주택 68棟 201號	737-4430		
金熙康	134-160	松坡區 삼정동 57-10	413-2794		
朴東塾	607-110	釜山市 동래구 거제동 한양아파트 3-403	865-7302	풍산금속	865-6930
朴承宰	110-170	鍾路區 견지동 85-54	732-1100	샘표식품	992-7111
朴亨坤		釜山市			
朴亨載		釜山市			
徐康洛					
徐星進	133-191	城東區 자양동 220-74	457-9333		
徐廷守	607-061	釜山市 동래구온천1동425-16 용호단독주택105號	445-9677	영진사	
宋政雄	156-011	銅雀區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13-1202	845-6068	남대문유성상가대표	752-2054
吳成基	461-340	京畿道 城南市 오양동 247	717-0817	도시정미Co	
吳成吉					

元俊熙	121-220	麻浦區 합정동 389-26	324-8553		
禹宗均	132-108	道峰區 미아 8동 316-8 41F	984-0668		
俞東濟	421-200	京畿道 부천시중구 원종동132-1 수정아파트512	(032)673-0285		
柳榮潏	137-060	瑞草區 方背洞 908-9 유림 B/D 4F	586-7070	통신공사전문위원	752-0039
柳玉培					
李庚厚	156-032	銅雀區 상도동 321-2	842-0585	아식스대리점	685-4841
李均	121-110	麻浦區 신수동 147-12	716-4012		
李相龍	133-110	城東區 성수 1가 685-201	465-6409	성수종합상가대표	
李昇陽	122-010	恩平區 응암동 455-1	387-9419		
李承杓	132-044	道峰區 倉4洞 동아아파트 2-105	995-3313	주한미대사관	
李令載	132-072	道峰區 수유 2동 237-17	993-9963		
李龍澤		성북구 정릉동			
李長得	607-080	釜山市 동래구 연산동	82-3439	만세의원	
李徹和	135-120	江南區 신사동 현대맨손아파트 2-102	544-0827		
李熙烈	156-032	銅雀區 上道2洞 22-52	817-3615		
尹明鎭	152-080	九老區 고척동 203-6	612-0718		
尹榮洙					
田春三	135-270	江南區 도곡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 11-902	562-3495		
鄭允廷	152-050	九老區 구로동 공영주택 307號	387-7594		
鄭在銓	100-454	中區 신당 4洞 333-312	252-7780		252-4894
趙耀燮	135-280	江南區 대치동 은마아파트 20棟 101號	556-0843		
趙鐘南	157-221	江南區 방화1동 453-9 철성아파트 302號	664-3567		591-4591
鄭源石	137-060	瑞草區 方背洞 일광아파트 5棟 706號	584-5187		
鄭浩鏞	121-090	麻浦區 염리동 8-48	715-0020		
朱洙烈	608-010	釜山市 남구남천동 협진태양맨손 2-902	622-4012	제과점	863-8640
池一權	217-010	江原道 속초시 영락동 570-5	33-5100	속초문화원장	32-1231
秦正洙	137-040	瑞草區 盤浦洞 신반포 17차 333-804	537-0467		
崔慶明	110-350	鍾路區 운이동 98-78 가든 B/D	765-2233	최치과	
崔心煥	411-800	광주시 동구 학2동 629-3			
崔夏禎	132-062	道峰區 번 2洞 435-52	981-7964	구상산업	



崔熙仁	151-011	冠岳區 신림 1洞 1600-3	856-3392	서울대	
崔炯英	411-800	京畿道 고양군 원당읍 주교2리			
崔洪昶	134-070	江東區 明逸洞 고덕 現代아파트 15-702	478-0326	성동여실고	
韓明均	404-230	仁川市 西區 가정동대동그린빌라 15-102			
韓錫彰	135-240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13-402	574-1618	주택은행	
韓龍彬	156-010	銅雀區 신대방동 632-27			
韓梲淑	403-030	仁川市北區 청천동 미도아파트7차 1-616	523-8972		
韓泰欽	158-050	양천구 목3동 318-30	643-9396		
黃忠漸					
韓敏相	151-061	冠岳區 봉천11동 180-488	877-2429		
金陽	405-234	仁川市 남동구 간석4동 간석우성A.P.T. 3-806	428-0088	한국복합유리공업영업상무	783-2737
朴河基	411-810	경기도양군 지도읍 행선3리 대호연립202	974-0136		

## 海 外

姓 名	住 所	電 話
金武燦	KIM, MARTINM, 3600 STOCKER ST LA CA 90008	213-735-6297
金映昭	KIM, CHUL WOO 34 KRISTIN PI OLD TAPPAN NJ 07675	201-768-1468
郭竣求	KWAK, CHUN KU, 1231 BURHAM THORPE ROAD WEST OAKVILLE ONT L6J42 CANADA	416-842-3910
金泰進	在美	
곽준구	在 캐나다	
朴永鐸	在美	
朴漢雄	在 제네바	
裴英德	BAE, MARKY 8535 W KNOLL PR #101, SA, CA 90069	213-657-0745
孫政達	SONG, CHUN DAL 232 VOGEL AV NY N14 10309	718-356-2622
李東輝	LEE, DONG HEE 28431 GRATION. AV ROSEVILLE MI 48066	
李龍垠	在美	
尹康德	YOUN KYONG DUK 128 CARBERNETT CIRCLE REXDALE ONT M945AL CANADA	416-743-3634
尹鎬成	YUN, HO SONG, 4305 W.SPELVEDA BLVD TOKTANCE CA 90505	213-779-3415
李黃勳	LEE, HWANG HUN. 2857 S. VICTORIA AVE. LOSANGELES.CA 90016	213-933-6809
趙世英	在美	
韓東明	在美	

Repeat

Repeat  
273

元俊熙	121-220	麻浦區 합정동 389-26	324-8553		
禹宗均	132-108	道峰區 미아 8동 316-8 41F	984-0668		
俞東濟	421-200	京畿道 부천시중구 원종동132-1 수정아파트512	(032)673-0285		
柳榮濟	137-060	瑞草區 方背洞 908-9 유림 B/D 4F	586-7070	통신공사전문위원	752-0039
柳玉培					
李庚厚	156-032	銅雀區 상도동 321-2	842-0585	아식스대리점	685-4841
李均	121-110	麻浦區 신수동 147-12	716-4012		
李相龍	133-110	城東區 성수 1가 685-201	465-6409	성수종합상가대표	
李昇陽	122-010	恩平區 응암동 455-1	387-9419		
李承杓	132-044	道峰區 倉4洞 동아아파트 2-105	995-3313	주한미대사관	
李令載	132-072	道峰區 수유 2동 237-17	993-9963		
李龍澤		성북구 정릉동			
李長得	607-080	釜山市 동래구 연산동	82-3439	만세의원	
李徹和	135-120	江南區 신사동 현대맨손아파트 2-102	544-0827		
李熙烈	156-032	銅雀區 上道2洞 22-52	817-3615		
尹明鎭	152-080	九老區 고척동 203-6	612-0718		
尹榮洙					
田春三	135-270	江南區 도곡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 11-902	562-3495		
鄭允廷	152-050	九老區 구로동 공영주택 307號	387-7594		
鄭在銓	100-454	中區 신당 4洞 333-312	252-7780		252-4894
趙耀燮	135-280	江南區 대치동 은마아파트 20棟 101號	556-0843		
趙鐘南	157-221	江南區 방화1동 453-9 칠성아파트 302號	664-3567		591-4591
鄭源石	137-060	瑞草區 方背洞 일광아파트 5棟 706號	584-5187		
鄭浩鏞	121-090	麻浦區 염리동 8-48	715-0020		
朱洙烈	608-010	釜山市 남구남천동 협진태양맨손 2-902	622-4012	제과점	863-8640
池一權	217-010	江原道 속초시 영락동 570-5	33-5100	속초문화원장	32-1231
秦正洙	137-040	瑞草區 盤浦洞 신반포 17차 333-804	537-0467		
崔慶明	110-350	鍾路區 운이동 98-78 가든 B/D	765-2233	최치과	
崔心煥	411-800	광주시 동구 학2동 629-3			
崔夏禎	132-062	道峰區 번 2洞 435-52	981-7964	구상산업	

崔熙仁	151-011	冠岳區 신림 1洞 1600-3	856-3392	서울대	
崔炯英	411-800	京畿道 고양군 원당읍 주교2리			
崔洪昶	134-070	江東區 明逸洞 고덕 現代아파트 15-702	478-0326	성동여실고	
韓明均	404-230	仁川市 西區 가정동대동그린빌라 15-102			
韓錫彰	135-240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13-402	574-1618	주택은행	
韓龍彬	156-010	銅雀區 신대방동 632-27			
韓亮淑	403-030	仁川市北區 청천동 미도아파트7차 1-616	523-8972		
韓泰欽	158-050	양천구 목3동 318-30	643-9396		
黃忠漸					
韓敏相	151-061	冠岳區 봉천11동 180-488	877-2429		
金陽	405-234	仁川市 남동구 간석4동 간석우성A.P.T. 3-806	428-0088	한국북총유리공업영업상무	783-2737
朴河基	411-810	경기도양군 지도읍 행선3리 대호연립202	974-0136		

## 海外

姓名	住所	電話
金武燦	KIM, MARTINM, 3600 STOCKER ST LA CA 90008	213-735-6297
金映昭	KIM, CHUL WOO 34 KRISTIN PI OLD TAPPAN NJ 07675	201-768-1468
郭垓求	KWAK, CHUN KU. 1231 BURHAM THORPE ROAD WEST OAKVILLE ONT L6J42 CANADA	416-842-3910
金泰進	在美	
곽준구	在 캐나다	
朴永鐸	在美	
朴漢雄	在 제네바	
裴英德	BAE, MARKY 8535 W KNOLL PR #101, SA, CA 90069	213-657-0745
孫政達	SONG, CHUN DAL 232 VOGEL AV NY N14 10309	718-356-2622
李東輝	LEE, DONG HEE 28431 GRATION. AV ROSEVILLE MI 48066	
李龍墳	在美	
尹康德	YOUN KYONG DUK 128 CARBERNETT CIRCLE REXDALE ONT M945AL CANADA	416-743-3634
尹鎬成	YUN, HO SONG, 4305 W.SPELVEDA BLVD TOKTANCE CA 90505	213-779-3415
李黃勳	LEE, HWANG HUN. 2857 S. VICTORIA AVE. LOSANGELES.CA 90016	213-933-6809
趙世英	在美	
韓東明	在美	

韓 碩 愚	60 HUNTER AVE. ST. IVES SYDNEY 2075N.S.W.AUSTALIA	
黃 普 鉉	在 우루과이	
朴 齊 極	在 LA	

## 第 33 回

姓 名	郵便番號	住 所	電 話	現 職	電 話
姜 東 求	138-229	송파구 잠실본동 아세아 선수촌아파트 10-503	414-9789	동성투자자문사장	774-3834
康 海 園	122-020	恩平區 녹번동 29-16	387-5504		
金 亨 培	110-010	鍾路區 신영동 214-64	355-9776	춘천보건전문대학장	(0361)52-7723
金 相 龜	157-019	강서구 화곡본동 1114-5 기원 B/D 201	792-0406	(주)서창기공 · 사장	692-3705
金 基 元	110-510	鍾路區 東崇洞 시영아파트 13棟 103號	762-9698		
姜 在 錫	133-190	城東區 자양동 216-21	446-1588	강의원원장	948-7047
金 賢 修	131-201	중랑구 면목 1동 239 4/6	433-6638		
金 相 球	135-281	江南區 大峙洞 선경아파트 12棟 1102號	556-7192	교육부	
金 鳳 澤	140-200	용산구 이태원동 20-19	793-8620		
金 福 燮	612-021	釜山市 해운대구중2동 住公아파트34-306	(051)72-3786		
高 守 鎮	131-200	중랑구 면목동 66-1	434-6132	고려합동법률사무소	755-7692
吉 明 源	120-170	西大門區 대현동 121-21	363-8740		
宋 榮 達	136-102	城北區 정릉 2동 203-1	919-5891	(株)大世觀光전무이사	734-0500
徐 潤 煥	411-820	고양군일산읍대현리19-8미주아파트 나동410	(0343)976-0104	영화권설팅	739-2531
申 光 熙	430-060	안양시 관량동 396-1 현대아파트 10-702	(0343)78-0444	신치과원장	765-3803
申 漢 均	121-160	麻浦區 상수동 329-5	322-6312		
申 鳳 淵	136-031	城北區 동소문동 7가 1-7	923-7401	휘경중학교교사	234-1359
申 東 虎	100-450	중구 신당2동 395-3	233-4142		
孟 秀 哲	421-190	부천시중구고강동새보미아파트 가동 515	(032)674-6420		
朱 宣 淳	151-059	관악구 봉천 9동 635-285	877-791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515-2342
全 集 鐘	609-393	釜山市금정구장전3동은천화목타운701호	(051)202-0893		
劉 國 培	134-070	강동구 명일동 309 삼의아파트 203-53	484-6006	청심한의의원원장	275-8786
李 七 煥	121-220	麻浦區 합정동 392-5	336-2394	美G.E.社상임고문	738-8195
李 大 鐘	132-072	道峰區 수유 2동 535-8	993-8219	(주)해양섬유부사장	252-3101

李元鐘	120-110	西大門區 연회동 170-127	336-2537		
李城南	100-340	중구 산림동 116	275-8725	성원정밀사장	
李長弘	421-050	부천시 남구소시동 삼익세라믹아파트 101-501	(032)654-0416		
林錫賢	607-040	釜山市 동래구낙민192 동래한양맨손5-903	(051)555-2684	부산대학상대교수	
任縞彬	305-340	大田市 유성구 도룡동383-2 과기원아파트1-306	(042)861-0112	공학박사(과기원)	(042)869-4212
廉昌錄	427-060	과천시 과천동 373-1	502-3724	한국가스협회전무이사	739-7721
尹炳陽	120-110	서대문구 연회동 200-71	334-1769	예양종합건축사무소	552-4079
朴丙楨	137-040	瑞草區 新盤浦洞 아파트 3地區 한신34-502	532-0797	(주)신농대표이사	856-4300
朴弘植	122-071	恩平區 驛村1동 14-80	384-844		
朴溶郁	132-105	道峰區 미아 5동 476-11	988-2786	동국대부속중교사	245-4112
朴寅赫	100-180	中區 茶區 10한국관광공사 B/D 12층	752-7968	일본관광진흥회	
朴長根					
朴茂連					
崔琳活	132-044	道峰區 倉4洞 住公아파트 1902-908	998-0850		
崔熙仿	130-050	東大門區 희기동 7-3	966-0801	한국실리콘제조사장	(0346)63-3823
韓永喆	608-020	釜山市 남구 대연동 1734-20	(051)66-2966	한국호진공업대표	(051)323-4531
韓洙觀	130-050	東大門區 희기동 16-19	965-7813	대광고교교감	926-5296
韓澈柱	404-252	仁川市 西區 加佐2洞 진주아파트6-403	(032)573-7725	한국종합영상대표	274-0749
韓承學	150-093	永登浦區문래동3가1국화아파트2-1103		제등의원원장	855-0978
韓元松	133-210	城東區 廣場洞 極東아파트 4棟 901號	452-1854		
韓賢根	681-230	울산시 중구 북정동 67	(0522)43-1527		(0522)43-4619
柳東洙					
尹在敬	138-160	松坡區 가락동 미성아파트 5棟 901號	412-5008	KBS위원	780-3514
魏成國	705-030	大邱市 南區 대명동 1642-39	(053)68-2779		

## 海 外

姓名	住 所	電 話
權炳池	BYUNT JE. KWON 9922 ACACIA AV 14 GARDEN.GROVE CA. 92641, U.S.A.	
金澤洙	在美	
宋錫根	7719 IVYMOUNT TERRACE PHOTOMAC MD. 20854 U.S.A.	
朴淳三	SUN SAM PARK15623 LACELLOT AVE NORWALK CA.90650 U.S.A.	213-921-0198

李炳錄	在美	
崔昌松	15 COPPER BEACH FARMINGTON, CONN 06032	203-677-8363

## 在美洲 同窓會員 名單

### 任員名單

任員區分	回 期	姓 名	電 話 番 號	備 考
願 問	8	馬 鐘 國	(301) 809-4157	
願 問	15	金 子 勳	(718) 939-2591	
願 問	15	金 基 憲	(718) 939-1713	
會 長	15	金 滢 次	(201) 585-0813	
副 會 長	20	李 壽 求	(201) 385-9123	
	23	玄 鳳 學	(201) 755-5412	
	29	朴 浩 高	(301) 244-1111	
總 務	30	高 勝 榮	(718) 352-9087	

### 在美 咸興高普(咸南中學) 同窓會 名單

No	姓 名	英 文 名	回期	生年月日	故 鄉	職 業	電 話 番 號	現 住 所
1	馬 鐘 國	Chongguk Mah	8	01/02/07	吉 州		301-869-4157	17060 King James Way, 520 Gaithersburg, Md 20877
2	金 基 憲	Ki Duk Kim	15	07/21/13	咸 興		718-939-1713	144-14 38th Ave., #4c Flushing, NY 11354
3	金 子 勳	Ja Hoon Kim	15	01/12/14	咸 興	醫 博		2-54 149th St., Whitesone, NY 11357
4	金 滢 次	Hyung Cha Kim	15	05/07/15	咸 興		201-585-0813	2352 Linwood Ave. #4C Fort Lee, NJ 07024
5	劉 漢 鳳	Han Bong Yoo	16	07/08/14	雄 基		703-578-3173	610 S.Carlyn Springs Rd. Woodland Hill. #228 Arlington, VA 22204
6	金 擬 鉉	Eui Hyoen Kim	18	08/12/17	咸 興		301-752-1944	124 W. Franklin St. #413 Baltimore, MD 21201
7	都 相 禱	Sang Hee Toh	19	11/03/19	興 南	醫 博		882 Bear Creek Costa Mesa, CA 92626
8	李 壽 永	Soo Young Lee	20	04/09/19	西 湖		201-385-9123	261 East Main St. Bergenfield, NJ 07621
9	韓 大 淑	Dae Sook Hahn	20	02/18/21	俗 厚	醫 師	315-393-3000	Station A Ogdensburg, NY 13669
10	孫 浚 得	Choon Duck Son	20	01/05/20	洪 原	醫 師	615-670-5942	7679 Primm Springs Rd. Primm Springs, TN 38476
11	金 泳 鍾	Young Chong Kim	20	03/06/18	咸 州 川 原		213-620-9446	200 S. Oliver ST., #202 Los Angeles, CA 90012

12	金時彥	Si Un Kim	21	12/27/19	咸興		808-941-6567	1919 Citron St., #510 Honolulu, HI 96826
13	安省信	Sung Shin Ahn	21	12/07/18	咸州		218-983-1987	39 Poland Place Staten Island, NY 10314
14	朱瀚裕	Han Yu Joo	21	12/03/20	咸州	事業	302-995-2904	2701 Tanager Dr. Wilmington, DE 19808
15	黃石峯	Suk Bong Hwang	21	09/30/21	慶源		213-936-9026	
16	文相駿	Sang Joon Moon	22	09/17/22	咸興		401-944-3319	148 Brettonwoods Dr. Cranston, RI 02920
17	李基億	Kiuck Lee	22			教授	Deptment of Physics	Marquette University Milwaukee, WI 53217
18	玄鳳學	Bong Hak Hyun	23	06/23/22	咸興	醫博	201-755-5412	95 Acorn Road Watchung, NJ 07060
19	金重鎬	Joong Ho Kim	23	06/20/23	咸興	理博 教授	919-756-7716	314 Windsor Rd. Greenville, NC 27834
20	林陽均	Yang Kyun Rhim	23	02/10/21	西湖		213-386-2214	1017 So Berendo. #5 Los Angeles, CA 90006
21	金鎮洪							
22	金應浩	Eung Ho Kim	24	02/13/25	新興	醫師	201-947-0116	1600 Center Ave, #11G Fort Lee, NJ 07024
23	劉秉千	Beong Cheon Yu	25	12/25/25	忠北	文博 教授	313-681-0005	2650 Pineview W. Bloomfield, MI 48033
24	徐甲成	Kap S. Seo	25		興上		808-839-6417	3215 Ala Ilima #A812 Honolulu, HI 96818
25	趙程崙	Jung Ryun Cho	25	06/14/22	北齊		301-366-2107	601 Wyanoke Ave., #322 Baltimore, MD 21218
26	金秉萬	Byung Man Kim	26	09/01/25	咸興	事業	718-423-8678	58-30 E. Hampton Blvd, Bayside, NY 11364
27	李柱衡	Choo Hyung Lee	26	03/24/25	咸南	醫師	704-437-0493	247 Camelot Dr. Morganton, NC 28655
28	權鎮城	Jin Sung Kwon	26				309-685-3219	3008 N. University Ave. Peoria, IL 61604
29	金澤濟	Taik Chae Kim	26	02/18/24	高原	醫師	804-971-8060	2518 Smithfiled Rd. Charlottesville, VA 22901
30	吳炳薰	Byung Hun Oh	26	08/18/26	鍾城	貿易	201-290-0517	115 Vermont Ct., East Matawan, NJ 07747
31	李浩敏	Ho Min Lee	26		咸興		714-559-0774	33 Choate St. Irvine, CA 92720
32	孫陽鳳							



33	李根虎	Keun Ho Lee	26	06/10/23	北齊	事業	818-344-5798	19524 Valdez Dr. Tarzana, CA 91356
34	朴昭會	Sow Hey Park	27	03/10/27	長津	醫師	203-928-4447	196 Liberty Highway Putnam, CT 06260
35	李英得	Young Duk Lee	28		新興	會社員	516-261-5117	5 Ketcham Ct. E. Northport, NY 11731
36	尹允燮	Yun Sup Yoon	28	05/15/27	咸興		818-988-9038	6438 Hazeltine, #5 Van Nuys, CA 91401
37	朴浩高	Hosurl Pak	29	09/24/30	咸興	事業	301-244-1111	4 Summer Fields Ct. Lutherville, MD 21093
38	韓世鎬	Se Ho Han	29	01/25/28	咸興	醫博	212-933-5190	2960 Grand Concourse, 4B Bronx, NY 10458
39	金和極	Abraham Kim	29		咸興		718-461-8372	35-11 149 Place Flushing, NY 11354
40	金淳郁	Sun Wuk Kim	29	01/11/29	咸興	醫博	201-224-0346	1275 15th St. #51. Fort Lee, NJ 07024
41	金弘杓	Hong Pyo Kim	29	09/25/29	咸興		718-428-5931	243-49 72nd Avenue Douglaston, NY 11362
42	李權燮	Kwonsup Lee	29		咸興		718-352-7060	206-14 Emily Rd. Bayside, NY 11360
43	金雄植	Ung Sik Kim	29	01/05/29	咸興	醫師	614-457-2097	5288 Rockport St. Columbus, OH 43235
44	金在楨	Zae Zeung Kim	29	02/21/29	咸興	醫師	414-962-3610	4521 N. Wildwood Ave. Milwaukee, WI 53211
45	李培石	Bae Suk Lee	29	11/20/29	咸興	醫師	614-373-6294	300 Belle Meadow Drive Marietta, OH 45750
46	李通燾	Tong Hoon Lee	29	04/30/28	新興	醫師	919-864-4310	466 Lands End Fayerrsville, NC 28314
47	李芳秀	Bang Soo Lee	29	02/19/28	新興		213-939-7057	708 S. Lorraine Blvd. Los Angeles, CA 90005
48	陳炳珍	Byung Jin Chin	29				213-385-6608	2034 N. Mirasol St. Santa Ana, CA 92701
49	韓在壽	Chae Soo Han	29				213-386-6091	1209 S. Lake St., #401 Los Angeles, CA 90006
50	張聖洛	Song Nak Chang	29				216-892-6940	319 Dover Center Rd. Bay Village, OH 44140
51	韓極		29				510-623-9181	42913 Via Valparaiso Fremont, CA 94539
52	朴永鎬	Young Ho Park	30		咸興	醫師	201-647-5777	7 Quill Penway Warren, NJ 07060

53	高勝榮	Seung Yung Koh	30	12/12/30	咸興		212-923-2611	1464 St. Nicholas Ave. New York, NY 10033
54	申 森	Samuel H. Shinn	30	03/15/30	興南	教師	808-621-8145	43 N. Colonial Heights Troy, NY 12180
55	金康台	Kyong Tai Kim	30	09/20/30	咸興	醫師	215-947-4652	3651 Heaton Rd. Huntingdon Valley PA 19006
56	曹秉均	Byoung Gyun Choh	30	07/15/29	洪原	醫師	216-524-9635	6967 Carol Drive Independence, OH 44131
57	李仁根	In Kun Lee	30	09/10/30	定平		609-888-2488	327 Reeves Avenue Trenton, NJ 08610
58	李性白	Sung Baek Lee	30		咸興		703-263-2157	13629 Bellérose Drive Chantelly, VA 22021
59	韓萬燮	Man Sop Hahn	30	03/20/30	咸興	工博	206-641-5739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60	趙 哲	Chul cho	30	10/30/29	咸興	技師	312-588-1177	6010 N. Lawndale Ave. Chicago, IL 60659
61	金恭根	Kong Keun Kim	30	12/02/30	咸興	醫博	216-838-4188	5536 Forest Lane Brecksville, OH 44141
62	姜禮根	Rae Keun Kang	30		咸興		218-370-1503	23 Laguardia Ave. Staten Island, NY 10314
63	金元謙	Won Kyum Kim	30		北青	教授	204-269-1952	23 Michigan Ave, Winnipeg Manitoba, Canada R3T 3V1
64	柳承敦	Seung Don Yu	30		咸興	事業	215-885-1201	2227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50
65	李炳榮	Byung Yung Lee	30		新興	事業	65-321-0767	Q15 C3 Jardin Peropolis Quiaba Mt, BRAZIL
66	梁昶模	Chang Mo Yang	30		咸興	事業	312-465-2115	6614 North Sacramento Chicago, IL 60645
67	黃載鎮	Jay G. Hwang	31		忠南		914-472-2753	15 Penn Blvd. Scarsdale, NY 10583
68	徐甲敬	Kap Kyung Seo	31		興上	教授	808-373-9485	76 Wailupe Circle Honolulu, HI 96821
69	朴炳元	Benjamin Park	31	10/20/29	咸興	醫博	413-567-9317	38 Churohill Drive Longmeadow, MA 01106
70	崔千德	David C. Choe	31	06/10/31	咸興		213-515-6112	3448 W. 171 st St. Torrence, CA 90504
71	李致和	Chie Hwa Lee	31				213-679-1783	4326 W. 142nd St., #8 Hawthorn, CA 90250
72	李哲範	Chul Bum Lee	31				213-836-8373	1769 S. Holt Avenue Los Angeles, CA 90035

73	李培善		31		咸興		614-373-6294	407 Bohl Drive Marietta, OH 45750
74	徐泳煥	Yung Hwan Seo	31				713-466-1385	8134 Ivan Reib Dr. Houston, TX 77040
75	李元龍	Won Yong Lee	31	12/29/30	咸興	教授	914-693-0004	29 Sheldon Ardsley, N.Y 10502
76	韓東相	Donald Han	32				213-461-8806	5188 Spencer St. Las Vegas, CA 89119
77	金武	Martin M. Kim	32	11/25/32	咸興		213-735-6297	174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78	李黃燾	Hwang Hun Lee	32	05/11/32	咸興		213-933-6809	2857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6
79	尹鎬成	Ho Song Yun	32	06/10/32	咸興	事業	213-779-3415	4305 W. Spelveda Blvd. Torrance, CA 90505
80	裴英德	Young Tok Pae	32	12/11/31	咸興		213-657-0745	8535 W. Knoll Dr., #101 Los Angeles, CA 90069
81	郭坡求	Chun Ku Kwak	32	01/01/31	咸興		416-842-3910	1231 Burnham Thorpe Rd. W.Oakville, Ont., CANADA L6J4Z8
82	尹慶德	Kyong Tuk Yun	32					
83	崔昌松	Chang Song Choi	33		咸興	醫師	203-677-8363	15 Copper Beach Farmington, CT 06032

## 作 故 者 名 單

### 第 2 回

金文憲 金明學 金化燮 金禮鎬 尹相德 盧炳瑚 林在苑 韓國簿  
朴海龍

### 第 3 回(舊制)

韓澤柱 李範海 李之鎬 李英一 李種英

### 第 4 回(舊制)

朱幹欽 金載鼎

### 第 5 回(舊制)

韓昌源 朴重剛 金桂淑

### 第 6 回(舊制)

韓參淵

### 第 6 回(新制)

崔榮根 姜洙楠 李鳳寅 朱源

### 第 7 回(舊制)

韓桔容 咸興基 李在鷗 崔炳島 朴興陽

### 第 7 回(新制)

韓道淑 韓鎮億 林壁榮 蔡洙崗

### 第 8 回(以下 新制)

金昌洙 金潛鉉 崔正憲 張錫林 張永相(舊興萬) 崔在緯 崔浩英  
盧鍾九 朱德淳 劉載昊 金龍背 池鋪夏

### 第 9 回

金基漸 金信遠 李鎬亨 朱洛瓊 朴台三 高承晉 金相涉 金載元

### 第 10 回

金應錫 金義昌 金昌善 宋相益 朴義鉉 吳昌淑 南相協

## 第 11 回

金永鎮 金明鎮 金致源 南鳳淳 盧忠吉 朴文燦 朴用善 方亨練  
 宋義鋪 李炳逸 李東洙 李應麟 尹明海 鄭致鎔 張鉉稜 趙容昊  
 韓明功 韓湖石 朴忠鎮 朴源誠

## 第 12 回

金鋪千 朱之鎬 朱元鎬 崔弼憲

## 第 13 回

姜龍彬 金教寅 文天洙 安壽吉 李潤生 張仁奉 朱葉 韓吉鎬  
 韓鐘韶 金峻宋 李炳六

## 第 14 回

廉禮寬 俞孝植

## 第 15 回

金道俊 李永昊 李求翰 李弘均 李祖甲 李成洙 李容成 李永秘  
 金信德 趙來春 韓麟植 李寬英 李日赫 李高聖均

## 第 16 回

泰承國 申明燮 韓秉子 太學基 朱洙元 朱鍾式 金連珪 金聖河  
 李東秀

## 第 17 回

林重治(舊重玉) 李祥生 盧鍾閑 金智赫 金禹涉

## 第 18 回

玉文鉉 朴範集 柳炯達 韓祥鳳 沈澤星 李寬燁 李泰榮

## 第 19 回

金炳七 金生寶 金松瑩 金秀行 金益浩 金鐘浩 金楨軫 金漢奎  
 金亨泰 金豪南 朴鵬榮 金申泰 金李明 李秉泌 李致德 張衡武  
 全榮林 韓秀曾 朴燦國 朱基鍾

## 第 20 回

文哲 邊普燁 申東俊 李昌協 全世經 鄭宗殷 朱忠垣 崔淳祚  
 太廈 基韓 黃載駿 金明植 全咸哲

## 第 21 回

韓台集 李東機 林根赫 李基鍾 朴東振 金昇奎 柳培殷 金鏡煥  
寮昌奎

## 第 22 回

金亨信 金載璉 李槿秀 朴聖煥 申衡均 申鉉和 全銘鶴 朱榴鎮  
朱鐘喆 韓秉濠 韓讚植 張榮國 崔準楨 金旻奎 金東成

## 第 23 回

金教吉 金基壁 金南鶴 金東炫 金桑根 金泳杰 金佐謙 徐載卿  
尹士榮 李仁勳 李延輯 崔相國 崔儀憲 崔熙澤 韓鎬權 李光薰  
韓東湖

## 第 24 回

金鐘鳳 盧永達 朴文卿 李基赫 金鉉五 趙在龍 崔溶憲 韓錫武  
韓永根 洪鉉基 玄斗映 金泰錫 韓錫範 李漢國

## 第 25 回

文虎 朴承咸 秦秉洛 朱姮斗 洪相 趙擘

## 第 26 回

申南均 李學守 金熙燦 李錫衡 李楨敏 玄斗鎰 禹一 韓炳喆

## 第 27 回

韓鐸聲 玄鳳燕 韓栽永 曹圭榮 丁基範

## 第 28 回

金教一 金泳八 金鎔九 朴吉淵 邊道燁 宋守根 劉大植 李密森  
辺永根 林珍洙

## 第 29 回

金秉熙 金潤鎬 金鎮鎬 文杓周 辛基壽 安永吉 楊仁道 李東哲  
韓相喆 李楨得 張炳九 文韓祥 韓尹 玄斗正 徐尙郁 陳伯林  
都重浩 李正昊 安震 이 달 음

## 第 30 回

高昊式 金泳夏 金英根 金寬植 朴壽淵 朴哲 李始鐘 張時珍  
鄭峻坡 趙弘汀 陳國永 韓增鎬 盧甲炳 崔昌杰 金聖治 金基南  
崔斗吉 金永善 張亨龍 李昌植 孔麟洙 金汶一

第 31 回

高義哲	李弘根	林鳳來	弼珠光	韓泳運	金玉金	韓秉極	李城洙
金弘潤	李盧善	徐三澤	安培植	梁泰燦	劉潛成	嚴鎔由	李相稷
李星九	李容均	朱鐘和	崔德俊	崔燦在	魚演昌	權胃	權由周
金周鉉	李鳳植	李柱七					

第 32 回

金聖南	金載坤						
-----	-----	--	--	--	--	--	--

第 33 回

吉明河	李遠種						
-----	-----	--	--	--	--	--	--

## 편집을 마치면서

2년전 힘들게 발간한 同窓會誌 제3호가 기대 이상으로 환영받아 增刊까지 하게 되었고, 제4호 발간을 바라는 동문들의 기대도 커, 임원 및 간사회의 결의로 제4호 同窓會誌를 발간기로 하였으나 역시 원고 수집이 대단히 어려웠다. 원고 청탁에 애써주신 편집위원, 各期 간사, 그리고 귀중한 옥고를 써주신 동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번호에는 지금까지 동창회 기금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고, 창조해 주신 분들의 기록을 정리해 실었고, 또한 우리 동문들 중 사회적으로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분들의 소식을 전하는 “토막소식”도 마련하였다. 처음 시도라 많은 사건들을 싣고 싶었으나 오래된 일들은 자료 수집도 어렵고, 기준을 정하기도 힘들어 제3호 간행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各期 간사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우리 노력 부족으로 마땅히 실렸어야 했을 사건들이 빠진 경우가 있을 줄 안다.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소식이 있으면 총무에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번호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으로 나 외에 劉綱(27回), 趙東喆(28回), 鄭哲周(29回), 朴溶夏(30回), 金明哲(31回), 徐潤煥(33回) 등 동문들이 원고 수집 및 교정 등에 많이 애써 주었다.



# 同窓會誌 4號

---

1992年 9月 30日 印刷

1992年 10月 9日 發行

發行人 朴東昴

電 話 576-3636, 773-4736

發行處 咸興高普(咸南中學)同窓會

連絡處 서울 道峰區 彌阿4洞 137-24

電 話 980-3100 981-3900

總 務 朴 裕 夏

(會員用)(非賣品)

---

\*表紙說明 \*咸興高普(咸南中學)의 象徵인 螢雪을 表象함.

題 字 : 玄當 朴 泳 馥(第24回)

表紙그림 : 李 鎬 植(第30回)

제 작 : 명 지 출 판 사 715-6676



# 同窓會誌 出刊



第 4 號

財團法人

現代病理檢查研究所

綜合健康檢診센터

所長 柳榮海 (26回)

서울特別市 恩平區 碌磻洞 131-154  
電話 (代) 389-1501 FAX 389-1505

○ 健康할 때 健康을 지킵시다. ○ 定期的으로 檢診을 받읍시다.

## 祝 同窓會誌 續刊

## 願 不老長壽 皆同門

27回 河烘權



